

2019년 금산사 · 한국정토학회 제23차 학술대회

금산사와 점찰신앙

| 일시 | 불기 2563년(2019) 10월 18일(금) 오후 1시

| 장소 | 금산사(전북 김제) 보제루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본사 금산사

| 주관 | 한국정토학회

| 후원 | 전라북도 · 김제시 · 세계종교평화협의회 · 금산사

식 순

I 부

13:00 - 13:30 삼 귀 의
반야심경
인사말씀 : 김광식교수(한국정토학회 회장)
환 영 사 : 성우스님(금산사 주지)
축 사
사홍서원

II 부

사회 : 홍사성(불교평론 주간)

13:30 - 16:20

주제발표 및 지정토론

기조발제 : 「금산사 점찰신앙의 재현 필요성」
발표 ▶ 보광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제1주제 : 「점찰법회의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
발표 ▶ 박미선(대림대 외래교수)
토론 ▶ 김진무(충남대 외래교수)

제2주제 : 「금산사 점찰법회의 설행과 미륵신앙」
발표 ▶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토론 ▶ 김방룡(충남대 교수)

제3주제 :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발표 ▶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토론 ▶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제4주제 :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 프로그램」
발표 ▶ 최현주(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강의교수)
토론 ▶ 원영상(원광대 교수)

제5주제 : 「점찰법회, 작법(점찰행법)의 고증과 재현의 제문제」
발표 ▶ 월공스님(남원 영선사 주지)
토론 ▶ 묘주스님(동국대 정각원장)

III 부

16:20 - 종합토론

좌장 : 한보광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6:40 - 제28차 정기총회

목 차

1. 「금산사 점찰신앙의 재현 필요성」
 <발표> 한보광(동국대 명예교수) 9
2. 「점찰법회의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
 <발표> 박미선(대림대 외래교수) 15
 <토론> 김진무(충남대 외래교수) 33
3. 「금산사 점찰법회의 실행과 미륵신앙」
 <발표> 김상영(중앙승가대 교수) 37
 <토론> 김방룡(충남대 교수) 59
4.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발표> 이재수(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63
 <토론> 한상길(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89
5. 「불교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프로그램」
 <발표> 최현주(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강의교수) 93
 <토론> 원영상(원광대 교수) 125
6. 「점찰법회, 작법(점찰행법)의 고증과 재현의 제문제」
 <발표> 월공스님(남원 영선사 주지) 129
 <토론> 묘주스님(동국대 정각원장) 189

금산사 점찰신앙의 재현 필요성

한보광 - 동국대 명예교수

이번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와 한국정토학회의 학술세미나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중앙승가대학 교수이고, 금산사 주지이며,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장이신 성우큰스님과 「금산사와 점찰신앙」에 대한 세미나를 한 번 갖기를 오래전부터 논의해 왔다. 금산의 역사에서 많은 발자취와 고승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眞表律師와 점찰법회는 통일신라시대 새로운 참회신앙형태로 민중에 뿌리를 내렸다. 특히 진표율사는 금산사에서 출가하여 위법망구의 정진으로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의 가피를 받아 『점찰경』과 가사, 발우, 189개의 簡子를 전수받았다. 특히 이중에는 8번째와 9번째의 간자는 미륵보살의 손가락뼈로 만들어졌으며 그 외는 沈檀木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진표율사는 이러한 간자를 가지고 금산사에서 통일신라의 민중에게 새로운 귀의처를 만들었고, 참회불교를 재현 시켰다.

신라에 점찰법회가 도입된 것은 진표이전부터이다. 그리고 점찰법회의 근거는 중심경전인 『占察善惡業報經』¹⁾으로 보통 『占察經』이라고 한다. 이 경은 수나라 開皇 13년(593) 이후에 疑僞經의 논란이 있었지만, 『大周刊定衆經目錄』에는 天冊萬歲元年(695)에 眞經으로 편입되었다.²⁾ 『점찰경』이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점찰법회가 개최된 것은 신라

1) 天竺三藏 菩提燈 譯 『占察善惡業報經』(大正藏17, 901-910).

2) 『大周刊定衆經目錄』 권1 大乘單譯經目錄(大正藏55, 379).

시대부터이다. 진평왕대 圓光법사가 嘉栖寺(오늘날 운문사)에서 占察寶를 개설하였으며, 고려 일연스님이 방문하였을 때도 一百結의 전답이 있었다고 한다.³⁾ 또한 安興寺의 비구니 智惠가 점찰법회를 개설하게 된 연기설화가 있으며, 매년 2회를 시행하였다고 한다.⁴⁾ 이상은 통일신라 이전의 점찰법회에 관한 것이지만, 통일 후에는 더욱 성행하게 된다.

道場寺의 점찰법회는 원효와 蛇福의 관계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장애자였던 사복이 어머니가 돌아가서 원효에게 장례식을 부탁하므로 원효는 사복과 함께 장례하는 도중에 사복이 어머니와 함께 땅 밑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후세인들이 그곳에 道場寺를 세우고 매년 3월 14일에 점찰회를 개최했다고 한다.⁵⁾ 그리고 흥륜사 六輪會도 점찰법회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⁶⁾ 이는 불국사, 석굴암을 창건한 김대성과 관련이 있다. 김대성의 전생에 牟梁里의 福安家에 고용살이를 할 때 興輪寺의 漸開라는 스님이 시주를 나와서 흥륜사의 육륜회를 설하기 위해 보시를 권유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의 전답을 시주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⁷⁾

그러나 신라에서 대표적인 점찰법회는 진표율사가 금산사에서 실행한 점찰법회이다. 이에 대해 학문적으로 정리한 논문은 김영태의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가 대표적이다.⁸⁾

이 논문에서 진표의 점찰교법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정리 되어 있다. 진표에 관한 기록은 『三國遺事』의 「眞表傳簡」⁹⁾과 「關東楓岳鉢淵藪石記」¹⁰⁾ 및 『宋高僧傳』의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¹¹⁾과 『新僧傳』의 「眞表」¹²⁾와 『新修科分六學僧傳』의 「眞表」¹³⁾ 등 5

3) 一然 撰, 『三國遺事』 권4 義解5 圓光西學(韓佛全6, 342, 중)

4) 一然 撰, 『三國遺事』 권5 感通7 仙桃聖母隨喜佛事(韓佛全6, 357, 상)

5) 一然 撰, 『三國遺事』 권4 義解5 蛇福不言(韓佛全6, 349, 중)

6)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불교학보』 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2) p.103.

7) 一然 著, 『三國遺事』 권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韓佛全6, 367, 중)

8)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불교학보』 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2) pp.99-136.

9) 一然 撰, 『三國遺事』 권4 義解5 眞表傳簡(韓佛全6, 350, 상)

10) 상동, 關東楓岳鉢淵藪石記(韓佛全6, 351, 중)

군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미륵보살의 간자가 전수되는 과정에서도 다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진표는 경덕왕대(742~764)의 고승이며, 완산주 만경사람으로 12세에 금산사의 崇濟法師 문하에서 출가하였다. 그는 23세(740)때에 몸을 돌보지 않고 참회를 한 끝에 7일만에 지장보살로부터 瑞祥受戒로 淨戒를 받았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용맹정진 참회하여 미륵보살의 감응으로 『점찰경』 2권과 證果簡子 189개를 받았다. 미륵보살은 그에게 간자를 주면서 “이 189개의 간자 중에서 제8간자는 新得妙戒에 비유되고, 제9간자는 增得具戒에 비유되는데 이 두 간자는 나의 손가락뼈이며, 나머지 간자는 모두 沈檀木으로 만든 것으로 諸煩惱에 비유된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전법하여 사람을 제도하는 방편으로 삼으라.”고 하였다.

이후 진표는 금산사에 주석하면서 해마다 점찰법회를 개설하여 많은 사람들을 교화하였고, 동해의 溟洲에서는 물고기떼가 모여 들어 다리를 만들므로 수중에서 법을 설하고 계를 주었다고 한다. 이 소문을 들은 경덕왕은 궁중에 모시고 보살계를 받았으며, 많은 시주를 하였다. 고려시대 일연스님이 명주의 그곳에 갔더니 진표의 骨石이 鉢淵寺에 있었다고 한다.

중국에 유학을 간일도 없는 진표의 행적이 중국에 까지 알려져서 『송고승전』에 게재된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 기록에는 ‘백제국 금산사 진표전’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금산사 진표의 점찰법회를 중국에서도 널리 알려졌다고 볼 수 있다.

그의 중심 사상은 지장보살로부터 『점찰경』과 淨戒를 받았으므로 瑞祥受戒로 5계와 비구계, 보살계를 뜻하며, 미륵보살로부터 189개의 簡子를 받아 점찰법회를 지속하였다. 따라서 그는 『점찰경』의 신봉자이며, 철저한 참회법을 실천한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교화장소는 어디까지나 금산사를 중심으로 행하였으며, 중국에까지 금산사는 점찰 참회도량이며, 점찰법회도량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상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미륵신앙

11) 明律 編, 『宋高僧傳』 권14, 「百濟國 金山寺 眞表傳」(大正藏50, 793-794)

12) 『新僧傳』 권7, 「眞表」(大正藏50, 997-998)

13) 元曇噩 述, 『新修科分六學僧傳』 권28 定學 證悟科2 「眞表傳」(卍續藏133, 929, 상)

과 점찰법에 의한 참회불교라고 할 수 있다.¹⁴⁾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 의하면, 진표는 점찰법을 속리산의 永深, 融宗, 佛陀에게 가사와 발우, 『점찰경』과 189개 간자를 전하면서 속리산의 길상초가 있는 곳에 길상사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개설하였다고 한다.¹⁵⁾ 이곳에서 영심은 사찰을 크게 개창하여 오늘날의 법주사가 되었으며, 法相宗의 미륵도량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다시 永深은 이 간자를 팔공산에 있던 心地에게 전해 팔공산 桐華寺도 점찰법회를 개설하게 되었다.¹⁶⁾ 신라말 釋沖이 고려태조에게 진표의 가사와 간자 189개를 받쳤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⁷⁾ 이후 고려 왕실에서는 잘 모셔두고 예경하였으나 고려 睿宗이 9번째의 간자를 잃어버려서 상아로 만들어 다시 동화사로 돌려보냈는데 일연이 직접 보니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이상으로 진표율사와 금산사의 점찰법회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점찰법회의 근본도량은 진표율사가 주석하였던 금산사이며, 그 후 법주사, 동화사도 점찰참회도량이 되었다. 모두 미륵도량이며, 미륵신앙의 중심지이지만, 금산사는 중국에 까지 널리 알려진 국제적인 미륵 점찰참회도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논자는 오래전부터 오늘날 금산사에서 점찰참회법회를 재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점찰법회를 잘 못 이해하면 점이나 보는 비불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이론적인 『점찰경』이라는 경전이 있고, 이 경전에서는 점찰 방법과 참회의식까지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참회를 겸비한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점찰법회의 중심도량인 금산사에서 다시 재현하여 무형문화재로 등재되기를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봉암사결사로 인해서 새롭게 정비된 것도 많이 있지만, 잃은 것도 많다. 전통적인 천도재의식을 모두 타파하고 죽비 삼배로 진행하다보니 불교정화 이후 태고종에서 영가천도의식을 영산재라고 하여 제50호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말았다. 수

14)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불교학보』 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2), p.128.

15) 一然 撰, 『三國遺事』 권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韓佛全6, 351, 하-352, 중)

16) 一然 撰, 『三國遺事』 권4 義解5 心地繼祖(韓佛全6, 353, 상)

17)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研究」, 『불교학보』 9집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72), p.134.

륙재나 생전예수재도 타 종단에서 등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천태종에서는 생전예수재를 등록하기 위해 수차례의 세미나와 장시간의 시현을 하고 있다. 다행히 올해 봉은사에서 역사적인 기록을 찾고, 정토학회와 함께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서울시 무형문화재로 등록되었다고 한다.

만약 금산사에서 점찰법회를 역사적인 고증을 거치고 학문적인 자료를 정립하지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 등록을 신청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얼마전에 타종단에서 논자에게 점찰법회를 무형문화재로 등록하려고 하니 추천서를 부탁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논자는 점찰법회는 금산사가 되어야 하므로 추천할 수 없다고 거절한 일이 있었다.

이번 세미나와 앞으로 더 보완하여 금산사에서 점찰신앙이 재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점찰법회의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

박미선 _ 대림대 외래교수

• 목 차 •

- I. 머리말
- II. 점찰법회의 유래와 전래
- III.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과 내용
- IV. 점찰법회의 한국적 변용
- V. 맺음말

I. 머리말

『삼국유사』 「진표전간」조에 의하면, 경덕왕대 진표율사는 금산사 승제법사에게 출가하여 그 가르침에 따라 망신참(亡身懺)을 수행한 결과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친견하였고, 특히 미륵보살로부터 『점찰선악업보경』(이하 『점찰경』)과 간자 189개를 받았다. 이에 진표는 금산사에서 매해 단(壇)을 열고 법시(法施)를 널리 베풀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점찰법회였다. 이 법회는 이후 제자 영심과 심지(心地) 등에게 전수되어 여러 지역에 널리 시행되었다.¹⁾ 물론 신라에 점찰법회가 처음 실시된 것은 7세기 원광에 의해서였지만,²⁾ 진표의 점찰법회는 『점찰경』과 189개 간자를 사용하여 신라만의 점찰법회를 체계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점찰경』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중국에서 이 경에 의거하여 점찰법회가 시행되기도 했으며, 일본에서도 8세기 이후 시행되었다고 한다.³⁾ 다만 점찰법회의 내용을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신라의 경우로, 여기에는 진표와 그 제자들의 공이 크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점찰법회에 대한 연구는 원광과 진표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⁴⁾ 신라 점찰법회의 변화상과 의미를 고찰하거나,⁵⁾ 미륵신앙 · 지장신앙과 관련 또는 법상종과의 관계⁶⁾ 등에 주목해 왔으며, 뿐만 아니라 점찰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분석을 통해

1) 『三國遺事』 卷3 義解5 眞表傳簡.

2) 『三國遺事』 卷3 義解5 圓光西學.

3) 일본에서는 점찰경이天平 9년(737)에 초래되었다고 하며, 『日本靈異記』 下卷에 수록된 延曆 6년 景戒의 설화를 목문상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있다(大塚千紗子, 2016 「日本靈異記と占察善惡業報經」, 중앙대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학술대회).

4) 圓光 관련 논문으로 신종원, 1991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사상의 재조명」; 최연식, 1995 「원광의 생애와 사상」 『태동고전연구』 12; 박미선, 1998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 사상과 교화활동」 『한국사상사학』 11; 박광연, 2002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김두진, 2004 「원광의 계참회신앙과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박미선 2005 「원광의 점찰법회와 삼계교」 『한국사상사학』 24 등이 있으며, 眞表 관련 연구로는 김영태, 1972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연구」 『불교학보』 9; 채인환, 1986-8 「신라 진표율사 연구 (1)(2)(3)」 『불교학보』 23-25; 박광연, 2006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한국사상사학』 26; 박미선, 2011 「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동방학지』 155 등이 있다.

5) 박미선, 2013,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인식』, 혜안.

6) 김남윤, 1995 『신라 법상종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이기백, 1986 「진표의 미륵신앙」 『

‘占’이라는 방편을 이용한 이유, 대승 계율 또는 『대승기신론』과의 관계 등에 주목한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⁷⁾ 기록상 삼국 중 신라에서만 시행된 것으로 이해해 왔으나, 최근 목간의 발견으로 백제에서의 점찰법회가 시행되었을 가능성도 언급되었다.⁸⁾

이러한 연구 성과를 참조하여 본 발표에서는 점찰법회가 중국에서 시작되었을 때의 상황과 신라에 전해지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분석을 통해 점찰법회내용과 그 시행 목적을 검토한다. 이에 진표에 의해 점찰법회가 한국적(신라적) 변용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점찰법회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II. 점찰법회의 유래와 전래

현전하는 기록에 따를 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점찰법회가 시행된 것은 7세기 신라 진평왕대였다.

A. ① 원광은 살고 있는 가서갑(嘉栖岬)에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하여서 항규(恒規)로 삼았다. 이때에 어떤 단월니(檀越尼)가 점찰보에 받을 헌납하였는데 지금 동평군(東平郡)의 밭 100결이 이것이고 옛 장적이 아직 남아 있다.⁹⁾

② 나는 선도산의 신모이다. 네[智慧]가 불전을 수리코자 하는 것이 반가워 금 10근을 시주하여 돕고자 하니 벽에 53불과 6류성중과 여러 天神, 五岳의 신들을 그려라. 또한 매년 봄 가을 3월과 9월10일에 선남선녀를 모아 일체중생을 위하여 점찰법회를 열어 이를 규례로 삼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 정미숙, 2000, 「진표의 미륵신앙과 이상사회론」, 『지역과 역사』 7. ; 조인성, 1996,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진단학보』 82. ; 홍윤식, 1997,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 『불교학보』 34.

7) 望月信亨, 1977, 『佛敎經典成立史論』, 東京: 法藏館 ; 金鎮烈 譯, 1995, 『불교경전의 성립연구』, 불교시대사 ; 遠藤純祐, 2000, 「『占察善惡業報經』の信仰」, 『現代密敎』 13. ; 阿川正貫, 1994, 「占察善惡業報經にみる大乘戒の中國的受容」, 『佛敎文化研究』 39. ; 師 茂樹, 2011, 「占察經の成立と受容-なぜ占いが必要とされたのか」, 『日本佛敎學會年報』 77.

8) 이장웅, 2018,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 부여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2.

9) 『三國遺事』 卷3 義解5 圓光西學.

으라.¹⁰⁾

實는 법회 등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 비용을 마련하는 기금이므로 원광이 가서잡에 점찰보를 설치했다는 것은 점찰법회를 시행했다는 의미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원광은 589년(진평왕 13) 3월에 진(陳)에 들어가 구법했다고 하는데,¹¹⁾ 이 해는 진나라가 멸망하는 해이다. 한편 『속고승전』에서는 원광이 진나라 때 금릉(金陵)으로 들어가 이 해에 수(隋)의 장안(長安)으로 발길을 옮겼다고 전하므로, 원광의 입진(入陳) 시기는 589년 이전이라 생각된다.¹²⁾ 600년(진평왕 22)에 귀국한 원광은 대백제에 참전하러 가는 길에 가서잡을 찾아온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주었고 이들은 602년에 전사하였다.¹³⁾ 이로 보아 원광은 귀국 후 가서잡에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광의 점찰법회는 중국 유학 시절에 배운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 시기 중국에서 시행된 점찰법회 관련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B. 廣州의 어떤 사람이 탑참법(塔懺法)을 행하는데, 가족으로 2매의 첩자를 만들어 하나에는 풀자를 쓰고 다른 하나에는 썩 자를 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던져 선을 얻으면 좋고, 악을 얻으면 좋지 않다고 하였다. 또 자박법(自撲法)으로 죄를 멸한다고 하여 남녀가 함께 섞여 몰래 행하고 있었다. 靑州(현 산둥지역)에서도 한 거사가 똑같이 이 법을 행하였다.

개황 13년(593) 어떤 사람이 광주 관사에게 ‘이것은 요망하다’고 고하였다. 이에 관사가 불러 묻자 그 사람은 탑참법은 『점찰경』을 따른 것이고, 자박법은 제 경전 중에 보이는 태산이 무너질 듯 하는 五體投地를 따른 것이라 하였다.

광주의 사마 곽의(郭誼)가 장안에 와서 『점찰경』의 도리를 믿지 못하도록 명을 내려줄 것을 왕에게 아뢰었다. (왕이) 내사시랑 이원조(李元操)로 하여금 곽의와 함께 보창사의 대덕 법경(法經) 등에게 물어보도록 하였다. 법경은 『점찰경』은 모록에 이름이나 번역처가 없고 탑참법도 여러 경들에 보이지 않으므로 유행시켜서 안 된다고 하였다. 이에 칙명으로 유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¹⁴⁾

10) 『三國遺事』 卷5 感通7 선도성모수희불사.

11) 『三國史記』 卷4 진평왕 11년.

12) 박미선, 1998, 앞의 논문, pp.22-23.

13) 『三國史記』 卷45 列傳5 貴山.

이는 비방장(費長房)이 597년에 찬술한 『역대삼보기(歷代三寶紀)』에 실린 내용이다. 6세기 말 광주와 청주 등지에서 『점찰경』에 근거를 둔 탐참법이 유행하였다. 뒤에서 살펴 보겠지만 『점찰경』에 탐참법은 등장하지 않으며, 목륜을 만들어 ‘숙세의 선악 업’을 점쳐 관찰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 방식은 다르지만 첩자든 목륜이든 ‘던져서 점’을 친다는 형식이 유사하고, 무엇보다 ‘선악 업’의 관찰이라는 목표가 동일하므로 『점찰경』에 근거했다는 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광주나 청주 등 지방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고 수도 장안에까지 알려졌으며 황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¹⁵⁾ 탐참법이 아니라 『점찰경』이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여러 장경에 포함되어 아울러 인용·유전하고 있다’고 언급할 뿐만 아니라 『점찰경』의 譯者로 ‘菩提登’의 이름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역대삼보기』에서였다. 이 시기 『점찰경』이 널리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을 근거로 한 탐참법과 같은 법회가 빈번하게 실시되었다고 생각된다. 어쩌면 점찰법이 다양하게 변형되어 각지에서 시행되었을 지도 모른다.

최근에 점찰법을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발전하고 동아시아에서도 성행한 ‘호상행(好相行)’과 관련시켜 이해한다. 호상행은 참회멸죄의 증거로서 불·보살의 모습을 눈앞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점찰경의 점찰법(=목륜상법)도 악업을 참회로 멸한 것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설해져 있어 호상행과 같은 방법이라 보고 있는 것이다.¹⁶⁾ 그리고 목륜상법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占뿐만 아니라 인도의 몽점(蒙占)도 바탕이 되었으며, 경전보다 부처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감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占이 요구되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⁷⁾ 그러나 ‘점’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어느 문화에나 존재했던 것이고, 『점찰경』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僞經)이므로 목륜상법의 근거도 중국적 전통에 바탕을 두고 보아

14) 『歷代三寶紀』 卷12. : 『大正新修大藏經』 卷49, 106下.

15) 遠藤純祐, 2000, 「占察善惡業報經」의 信仰, 『現代密教』 13, p.291.

16) 山部能宜, 2000, 「『梵網經』における好相行の研究」, 『北朝・隋・唐 中国仏教思想史』 通号2.

17) 師 茂樹, 2011, 「占察經の成立と受容-なぜ占が必要とされたのか」, 『日本佛教學會年報』 77 ; 한편 돈황에서 『점찰경』 잔본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목륜상참법이나 탐참법이 보이지 않아, 이를 통해 『점찰경』의 돈황지역에서 전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陈明, 1999, 「占察善惡業報經의流传研究」, 『南亞研究』 1期). 그렇다면 『점찰경』과 점찰법은 중국적 전통이 강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야 할 것이다. 한편 이 탐참법이라는 용어에서 첩자를 던지는 행위뿐 아니라 ‘참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다. 위 기록에서 보듯이 ‘죄를 소멸시키기 위해’ 자박법을 행했다고 하므로, 자박법은 곧 참회법이었다. 물론 자박법이라는 용어 또한 『점찰경』에는 보이지 않는다. 도교에 ‘고두자박(叩頭自搏)’이라는 자박법(自搏法)이 있는데 이 또한 참회 의식이자 예배의식이었으므로 자박법(自撲法)이 도교 자박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기도 한다.¹⁸⁾ 위 기록에서도 자박법의 근거로 『점찰경』이 아니라 여러 경전에 보이는, 불교 일반에 통용되는 오체투지를 언급하였다. 오체투지는 비교적 간단한 실천 방법이고, 이를 당시 중국인들에게 익숙한 도교 용어인 자박법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용함으로써 점찰법회가 민간에 거부감 없이 널리 수용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占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하기 쉽고 단순하며, 그에 비해 속세의 업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점찰경』은 594년 법경(法經)이 찬한 『중경목록』이나 언종(彦琮)의 『중경목록』에서 이미 의록(疑錄)으로 분류되었고,¹⁹⁾ 664년 도선(道宣)의 『대당내전록(大唐內典錄)』에서도 여전히 ‘의위경론(疑僞經論)’에 속했다. 695년 명전(明佺)의 『대주간정중경목록』에서 비로소 진경(眞經)으로 입장(入藏)되었다. 수대에 『점찰경』의 유포가 금지되었다고 해서 이 경전과 점찰법이 종적을 감춘 것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중국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점찰경』과 점찰법회가 신라에도 전해졌던 것이다. 원광이 일찍이 진나라 금릉으로 유학한 후 수나라 장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 청주 등지에서 탐참법을 목도했을 수도 있고, 589년~600년까지 장안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점찰경』을 둘러싼 논의를 접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므로 비록 중국에서 『점찰경』의 유통이 금지되었지만, 원광이 신라에 점찰법회를 전하는 것은 가능했을 것이다. A-②에서 보듯이 같은 진평왕대 안흥사 비구니 지해도 이 법회를 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점찰법회가 신라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반발은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원광이나 지혜에 의해 시행

18) 楊聯陞, 1961, 「道敎之自搏與佛敎之自撲」, 『塚本博士頌壽記念 佛敎史學論集』, p.962. ; 장애순, 1996, 「中國撰述의 僞經研究」, 『불교학보』 33, p.17.

19) 『大正新修大藏經』 卷55, 126中~下. ; 『大正新修大藏經』 卷55, 172中~下.

된 점찰법회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중국의 사례를 볼 때 과거 선악 업의 관찰과 이에 대한 참회가 중심이 되었을 것이다.

Ⅲ.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과 내용

점찰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내용을 통해 점찰법회의 의미를 살펴보자. 『점찰경』은 상하 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하가 전혀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권에서는 앞서 언급한 점찰법, 즉 목륜상법의 순서와 방식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고, 하권에서는 대승을 구하는 데 필요한心和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상권의 내용을 살펴보면, “상법(像法)이 다하고 말법(末法)에 미쳐 선근이 적은 중생을 위한 방편을 묻자 목륜상법(木輪相法)을 이용하여 속세의 선악의 업과 현재의 고락길흉 등을 점쳐 살펴야 한다.”라고 하였다.²⁰⁾ 목륜상법이란 새끼손가락 크기의 나무에 가운데 4면을 편편하게 하고 양끝으로 비스듬히 깎아 쉽게 굴러가는 목륜을 이용하여 ① 속세 선악 업의 차별과 ②그 업의 구근(久近)·강약·대소, 그리고 ③삼세 중 받는 과보 차별상을 살피는 것을 말한다.

C. 첫 번째 목륜상법에는 10개의 목륜이 필요하다. 각 목륜의 한 면에 10선 중 한 쉼을 쓰고, 그 선의 반대편에 10악 중 한 쉼을 쓴다. 이 10개의 목륜을 던져 나타나는 업을 관찰한다.

두 번째는 3개의 목륜을 만들어 身·口·意를 각각 목륜에 대응시켜 4면에 각각 굽고 길게, 가늘고 짧게, 굽고 깊게, 가늘고 얇게 선을 새긴다. 첫 번째의 10륜을 던져 나온 악업이 신·구·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살핀 후 3개의 목륜 중 해당하는 것을 던져 그 악업의 강약·대소 등을 살핀다.

세 번째는 6개의 목륜을 만들어 각 목륜의 3면에 1·2·3, 4·5·6, … 16·17·18의 숫자를 차례로 쓴 후 6개의 목륜을 3회 던져서 나온 수의 합을 관찰하는데, 그 과보차별상이 모

20) 『占察經』 卷上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02

두 189가지이다.²¹⁾

이는 『점찰경』 상권에서 말하는 목륜상법을 요약한 것이다.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좇아 길흉을 점쳐 보는 일을 경계하면서도 목륜상법을 제시한 것은 “업이 모이면 마음을 따라 서로 나타나고 과보가 일어나 서로 호응하여 어긋나지 않지”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즉 과보는 업의 산물인 바 드러난 목륜의 상을 통해 업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목륜상을 던지기 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일체 부처와 법장과 성현,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다.

목륜상법을 통해 업을 관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善을 얻고, 身·口·意 3업에서 모두 善業을 얻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으나, 惡業을 보게 될 경우 이를 없애기 위해 ‘참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D. 낮에는 (장엄한) 방 안에 있으면서 三 時로 명호를 부르되 일심(一心)으로 과거의 7불과 53불을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며, 시방의 방위· 삼세에 계시는 부처님과 모든 法藏, 일체 성현께 차례로 예배한다. 그 뒤 명호를 부르면서 지장보살에게 예배하고 자신의 죄를 아뢰며, 권청, 수회, 회향하는 서원을 차례로 아뢴다. 밤이 되어 또 三 時로 공경하고 공양하며 허물을 뉘우치면서 발원해야 한다.

날마다 이같이 참회를 행하되 죄가 경미하면 7일을 지난 뒤 청정함을 얻게 될 것이다. 혹은 이칠일 혹은 삼칠일, 칠칠일이 지난 뒤에 청정함을 얻기도 한다. 죄가 지극히 무거운 사람은 용맹스러운 마음을 내어 몸과 목숨을 돌보거나 아끼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정진하면 千日 안에 청정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만일 청정해졌음을 알고자 하면, 수행시작 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에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두 번째 윤상을 한꺼번에 쥐고 연달아 세 번 던져 신·구·의로 지은 업이 모두 순수한 선(善)이면 청정함을 얻은 것이라 말할 수 있다.

하루 六時로 7불과 53불을 비롯한 제불과 법장, 성현에게 예배하고 이어 지장보살에

21) 『占察經』 卷上에 기록된 목륜상법을 요약한 것이다.

22) 『占察經』 卷上.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02中.

게 예배한 후 자신의 죄를 아뢰어 뉘우치는 참회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죄가 경미할 경우 참회한 지 7일만에 청정함을 얻을 수 있지만 무거운 경우라도 1000일 이내에 청정한 상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수행한 지 7일 후부터 신·구·의 3개의 운상을 던져 모두 善이 나오면 청정상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번째 목륜상법은 업의 강약·대소를 관찰뿐 아니라 참회·멸죄의 여부를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렇게 참회하여 善相을 얻은 사람들만이 계율을 받을 수 있으며, 비록 훌륭한 계사(戒師)가 없더라도 제불·보살을 증명법사로 삼아 스스로 십중계(十重戒)²³⁾와 삼취정계(三聚淨戒)²⁴⁾를 차례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특히 삼취정계는 출가자가 지켜야 하는 계율인 바, 이 계를 얻은 사람은 곧 비구·비구니라 할 수 있다. 즉 『점찰경』에서는 자서수계(自誓受戒)에 의한 출가를 인정하는 것으로, 출가와 재가의 경계를 낮추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지극한 마음이 아니어서 선한 輪相을 얻지 못하면 설사 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계율을 얻었다고는 하지 못한다.”고 하여 지극한 마음과 輪相이 전제조건으로 중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²⁵⁾ ‘지극한 마음’이 강조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대로 마음을 따라 업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목륜상과 자신의 상황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그 원인은 ‘지극한 마음’이 부족했던 것에 있다고 본다.

마지막 세 번째 목륜상법은 과보차별상의 관찰로, 6개의 목륜에, 1~18까지의 수가 이용된다. 6과 18이라는 수는 분별하고 집착하여 6근(根)이 생기고, 6근이 밖의 대상 경계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등의 6진(塵)을 마주함으로써 6식(識)을 일으킨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 목륜상법에 의해 189가지의 악한 과보와 착한 과보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하며, 189가지 각 과보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예컨대 1, 3, 4의 과보상은 각각 상승, 중승, 하승을 구하여 不退를 얻는다고 하고, 10, 11, 12는 각각 상승, 중승, 하승을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상이라고 한다. 이처럼 출세간적인 선악의 과보도 있으나 49

23) 『범망경』에 근거를 둔 대승계율로, ①不殺生 ②不偷盜 ③不婬 ④不妄語 ⑤不酤酒 ⑥不說四衆過 ⑦不自讚毀他 ⑧不慳惜加毀. ⑨不瞋心不受悔. ⑩不謗三寶를 말한다.

24) 섭율의계(攝律儀戒)·섭선법계(攝善法戒)·섭화중생계(攝化衆生戒)를 말한다.

25) 『범망경』에서 호상을 중시하는 데 비해, 『점찰경』은 운상을 중시하고 있어 대승계경으로 매우 특이하고 급진적이라고 보기도 한다(『점찰선악업보경』にみる大乘戒の中國的受容, pp.86-87).

의 부유해지기를 바라면 재산이 가득 찬다거나, 50의 벼슬자리를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과 같은 세속적인 과보도 있다. 뿐만 아니라 116의 군주와 인민들이 악하여 굶주림이 일어나는 것, 119의 군주가 무도(無道)하여 나라에 재앙과 난리가 일어나는 것 등 군주와 인민 또는 군주와 관련된 과보차별상도 언급되고 있다. 이는 점찰법의 대상이 말세에 선군이 적은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설해진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목륜의 4면 중 3면에만 수를 기입했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운상을 세 번을 던져도 도무지 나타나는 것이 없으면, 이 사람은 곧 이미 무소득(無所得)을 얻은 것이다’라고 하여 이는 과보차별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점찰법 또한 ‘지극한 마음’으로 행해야 한다. 속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설령 점을 쳐서 살핀다 하더라도 잘 맞지 않으며, 다만 거짓되고 잘못될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목륜상법을 행하기 전에, 그리고 악업을 참회하는 과정에서 ‘지극한 마음’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점찰경』의 하권에서는 마음에 대한 분석과 서술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E. 심의(心義)에는 두 가지 형상이 있는데, 첫째는 內相이요, 둘째는 外相이다. 內相에는 또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眞이요, 둘째는 妄입니다. 眞은 이른바 마음 바탕의 본래 형상은 여여(如如)하여 다르지 않고, 청정하고 원만하여 장애가 없으며, 미묘하고 은밀하여 보기 어렵다. 일체의 처소에 두루하여 항상 무너지지 않고, 일체의 법을 건립하고 나서 자라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妄은 생각을 일으켜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반연하여 헤아리고 기억하는 등의 일이니, 비록 또 계속 이어져서 일체 경계를 생기게 하는 것이나, 안은 허망하고 거짓된 것이어서 진실함이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²⁶⁾

즉 심을 내상과 외상으로 나누고 내상을 다시 진·망으로 구별하여, 진은 일체법을 건립·생장시키고, 망은 일체경계를 만들어낸다고 하였다. 나아가 일체법은 불생불멸이라 진여·자성청정심이지만, 이 마음은 일체법을 의지하고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여래장(如

26) 『占察經』 卷下.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07中.

來藏)이라 하며, 여래장은 무량무변하며 불가사의하고 무루청정한 공덕의 업을 구족한 것이라 하였다. 즉 심을 진여와 생멸, 자성청정심과 여래장, 즉 진망화합(眞妄和合)으로 보고 일체법이 이러한 마음의 작용임을 설명한 것이다.

나아가 심과 일체법의 관계를 법신(法身)과 일체 중생의 관계에도 적용하였다. 즉 중생의 갖가지 과보는 부처님의 법신에 의지하여 존재하고 건립되고 지라나 법신 속에 머물고 있으며, 법신을 본체로 삼음으로써 법신의 분계(分界)를 벗어날 수 없다. 일체 중생의 몸 안에 있는 법신은 사라지지 않으므로 번뇌가 끊어질 때 도로 법신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즉 번뇌에 덮여 있는 법신은 곧 여래장이라 할 수 있다. ‘중생·보살·부처는 세간의 가명(假名)과 언설(言說)에 의지한 차별이며, 법신의 체(體)라는 점에서 평등하다’고 하였다.²⁷⁾ 중생과 부처가 다르지 않으며,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번뇌를 없애고 청정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점찰경』에서는 유심식관(唯心識觀)과 진여실관(眞如實觀)을 제시하였다. 유심식관은 일체 제법이 오직 마음에 의해 생기는 것임을 관찰해 하는 것이므로 둔한 근기를 가진 이는 이를 먼저 닦아야 하고, 진여실관은 심성이 불생불멸하므로 일체 분별의 생각 자체를 여의는 것으로 영리한 근기를 가진 이가 수행할 방법이라 하였다.²⁸⁾

다만 이러한 信解를 배웠다 하더라도 善根業이 박하여 그 마음은 의심하고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자는 ‘항상 지장보살의 명호를 송염(誦念)하고, 타방의 현재하는 정국(淨國)에 태어나려면 그 세계의 부처님의 명호를 오로지 송염하라’고 하였다. 신심을 攝護하는 불·보살의 뛰어난 방편이 있으므로 불보살의 명호를 송염하는 것만으로 불·보살의 본원력에 의해 타방의 불국토에 왕생할 수 있고, 거기서 부처를 친견한다면 그 신심은 결코 흔들림이 없기 때문인 것이다.

마지막에 이 법문의 이름을 ‘점찰선악업보’ 외에 ‘소제제장 증장정신(消除諸障 增長淨信)’, ‘선안위설 영리겁약 속입견신결정법문(善安慰說 令離怯弱 速入堅信決定法門)’, ‘개

27) 『占察經』 卷下.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07下~908上.

28) 『占察經』 卷下.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08上·中.

시구향대승자 진취방편현출심심구경실의(開示求向大乘者 進趣方便顯出甚深究竟實義)'이라 하였다.²⁹⁾ 즉 『점찰경』 하권은 악업이나 장애의 제거를 통한信心的 증진 또는 堅信을 목적으로, 이것이 곧 대승으로 향하는 방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점찰경 하권을 관통하는 心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수행법 및 이에 대한 信의 강조는 기존 연구에서 밝힌 바 『대승기신론』과 매우 유사하다. 『대승기신론』 또한 『점찰경』과 마찬가지로 법경의 『중경목록』에서는 의혹부에 편입되었으나 『역대삼보기』에서는 번역자로 진제(眞諦)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수나라 때 이에 대한 소(疏)와 인용이 있는 것을 볼 때 대체로 550년대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으로 추정한다.³⁰⁾ 『점찰경』 또한 앞서 『역대삼보기』의 기록을 통해 광주(廣州) 등 중국 남부에서 유행하고 6세기 말에 진위가 논쟁이 되는 사항을 볼 때 진말수초(陳末隋初)의 위경으로 여겨지는 바, 두 경의 찬술 시기가 비슷한 점에서 경 속에 담긴 사상 및 주제 또한 유사성을 띠 가능성이 있다.

두 경전은 공통적으로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는데, 여래장사상은 '자성청정심(自性淸淨心) 객진번뇌(客塵煩惱)', 즉 중생의 마음은 본래 청정하지만 외적인 요인에 의해 오염되어 있으므로 이 번뇌를 제거하여 중생이 여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9가지 비유로 여래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여래장경』이 420년경 불태발타라(佛馱跋陀羅)에 의해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5세기 초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여래장 관련 경전들이 번역되었다. 또한 5세기 초 『열반경』이 번역되면서 일천제(一闍提)의 성불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여래장과 불성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속에서 찬술된 『대승기신론』과 『점찰경』에 자연스럽게 여래장사상이 담길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신·신해·신심을 강조하는 이들 경론에서 중생에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다는 근거를 제공하는 여래장은 그 찬술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³¹⁾

29) 『占察經』 卷下. : 『大正新修大藏經』 卷17, 910下.

30) 望月信亨, 1977, 『佛敎經典成立史論』, 東京: 法藏館. ; 金鎮烈 譯, 1995, 『불교경전의 성립 연구』, 불교시대사, p.544.

31) 박미선, 2007, 『『점찰경』의 성립과 그 사상』, 『역사와 실학』 32, pp.268-269.

다만 『대승기신론』의 경우 원효와 의적, 태현 등이 주석서를 저술하는 등 신라 불교계에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중국에서 최초의 주석서를 쓴 법장의 경우 이 논서를 불완전한 사상으로 평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라의 유식학 승려들은 이 논서를 중시하면서 일천제의 성불설을 주장하였으나, 중국의 유식학 즉 법상종에서는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을 주장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대승기신론』에 비판적이었다.³²⁾ 이러한 『대승기신론』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점찰경』 및 점찰법회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점찰경』은 말세의 선근이 부족한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목련상법을 언급하였는데, 점찰법회를 수용한 7-8세기 신라에서는 말세 인식이 강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V. 점찰법회의 한국적 변용

앞서 언급한 A에서 보듯이 진평왕때 원광에 의해 신라에 점찰법회가 전해졌고, 안흥사의 지혜가 점찰법회를 열기도 하였다. 원광의 경우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오계를 주었고, 진평왕에게 보살계를 수계하는 등³³⁾ 계를 중시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다만 귀산과 추항에게는 보살계가 아닌 세속오계를 준 것으로 보아 가서갑에서 실시된 점찰법회에서 수계까지 이루어졌을 지는 의문이다. 원광이 가서갑에 ‘점찰보’를 두었다고 하므로 보시를 통한 공덕·선업을 강조하지 않았을까 한다. 지혜의 안흥사 경우에도 선도산 신모가 불전 수리 비용을 제공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2회 점찰법회가 시행되어 보시가 기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복은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원효를 찾아가 함께 장사 지낼 것을 부탁하였다. 원효가 사복의 어머니에게 포살·수계하고 묻으려 할 때 사복이 그 어머니를 안고 연화장

32) 최연식, 2005, 「8세기 신라 불교의 동향과 동아시아 불교계」, 『불교학연구』 12, pp.252-253.

33) 『三國遺事』 卷3 義解5 圓光西學.

세계로 들어갔다. 후대 사람들이 도량사를 세우고 매년 3월에 이들을 기리며 점찰법회를 열었다고 한다.³⁴⁾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소였으나 경전을 운반한 공덕으로 현세에 인간으로 태어났고, 현생에 과부였으나 내세에 연화장세계로 들어갔다. 그녀의 삶은 전생의 업과 윤회의 관계를 잘 보여주기도 하지만, 현생의 업과 연화장세계의 연결 고리는 명확하지 않다. 이 설화에서는 원효가 그녀를 위해 포살·수계한 점이 주목된다. 포살은 한 달에 2번 자신의 죄를 뉘우쳐 선을 기르고 악을 없애는 참회법으로 원효에 의해 참회와 수계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한다. 훗날 사람들이 도량사를 세우고 점찰법회를 행했다는 것은 이러한 참회와 수계를 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³⁵⁾ 즉 점찰법회에서 참회와 수계가 점차 강조됨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신라의 오대산신앙을 보면, 각 대에 불·보살상을 안치하고 그 불·보살과 관련된 독경 경전과 예참법을 제시해 두고 있다. 이중 남대 지장방에 점찰예참이 행해졌는데,³⁶⁾ 점찰법회의 참회법이 수행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오대산신앙은 각 대에 사(社)를 결성하고 있었으므로 점찰법회가 사와 같은 공동체적 수행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 고려시대 서방 극락왕생을 목표로 모인 수정사에서 보름에 한 번 점찰법을 실시하였고, 악보(惡報)를 얻은 자를 위해 함께 참회하여 선보(善報)를 얻을 때까지 하였다고 한다.³⁷⁾ 즉 선악 업의 관찰, 참회, 멸죄의 확인 등을 위한 수행법으로 점찰법이 실시되었다.

신문왕대 흥륜사에서 육륜회가 시행되었다.³⁸⁾ 육륜회란 6개의 윤을 사용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라 생각되며, 점찰법의 3번째 과보차별상을 관찰하는데 6개의 윤이 필요했으므로 이 육륜회가 곧 점찰법회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통일 이후 점찰법회는 선악 업의 관찰에서 더 나아가 과보차별상의 관찰로 확대·변화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경덕왕 때 활동한 진표는 친견수계를 목표로 망신참회를 통해 지장보살로부터 계를,

34) 『三國遺事』卷4 義解5 蛇福不言.

35) 김상현, 1991, 「사복설화에 나타난 화엄사상」, 『신라화엄사상사연구』, 민족사, pp.178-179.

36) 『三國遺事』卷3 塔像4 臺山五萬眞身.

37) 權適, 「智異山水精社記」 『東文選』 권64.

38) 『三國遺事』卷5 孝善9 大城孝二世父母 神文代.

미륵보살로부터 189개의 간자를 받았다. 그 뒤 그는 금산사로 와서 계단을 설치하고 매년 법시를 베풀었으며, 다시 속리산을 거쳐 고성군에 이르러 발연수를 창건하고 점찰법회를 열었다. 진표의 점찰법회는 미륵보살로부터 받은 189개 간자로 행해졌는데, 189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 번째 목륵상법인 과보차별상의 수이다. 진표가 참회하고 수계한 점을 보면 『점찰경』에 설명된 첫 번째 목륵상법부터 세 번째 목륵상법까지 시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점찰경』에서는 6개의 목륵을 세 번 던져 그 수의 합으로 과보상을 살펴본다고 하였지만, 진표는 189개의 간자를 사용하였으므로 그 시행 방식은 달랐다고 하겠다. 진표의 점찰법은 이후 제자들에 의해 속리산 법주사와 팔공산 동화사 등으로 확대되면서 신라만의 점찰법회를 확립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고려시대에 점찰법회는 진표의 제자가 세운 법주사와 동화사 등을 중심으로 지속되었다. 한편 앞서 언급한 수정사의 경우처럼 참회수행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고, 왕실을 중심으로 추선의례의 성격을 가진 법회가³⁹⁾ 개설되기도 하는 등 많은 성격의 변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점찰이라는 방법은 『현행서방경(現行西方經)』과 같은 고려 후기 위경의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⁴⁰⁾

점찰법회의 수용과 확립, 변화의 과정은 불교 사상의 흐름과도 연결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점찰경』은 여래장사상을 바탕으로 찬술되었는데, 원광이 『여래장경사기』 3권과 『대방등여래장경소』 1권을 저술했다고 하니⁴¹⁾ 그가 점찰경 및 점찰법회에 주목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신라의 오대산신앙은 문수신앙을 기반으로 밀교가 결합하면서 당시 신라사회에 널리 신앙되던 불·보살을 배치하고 독경과 예참의 수행법을 갖추도록 하였다. 이는 밀교에서 강조하는 의식·의례적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이에 점찰법은 점찰예참의 형태로 오대산신앙 속에 포함되었던 것이다.⁴²⁾

진표의 경우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친견하는데, 지장보살은 『점찰경』의 설주이며 미륵

39) 金富軾, 『俗離寺占察會疏』 『東文選』 卷110. ; 劉羲 「兜率院占察會疏」 『東文選』 卷110.

40) 라정숙, 2017, 「고려시대 점찰법회의 실행과 의미」, 『불교연구』 46.

41) 『한국불교찬술문헌목록』, 동국대학교, 1992, p.7.

42) 박미선, 2013 앞의 책, p.110.

보살은 당시 법상종의 성행과 결부되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덕왕~혜공왕에 이르는 시기에 자연재해와 기근, 전염병의 발생빈도가 다른 시기보다 높았고, 경덕왕대에 이러한 재앙을 시국 정치의 잘잘못과 연결시켜 논의되기도 하였다. 중국 법상종계 승려들은 극락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아미타불보다 예토에서 인간을 구제하는 미륵불의 자비심이 더 깊음을 내세운 바,⁴³⁾ 당시 신라에서 현세적 요소를 갖춘 미륵신앙이 더 주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성덕왕대 김지성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감산사에 아미타불상과 미륵보살상을 조성한 예나⁴⁴⁾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이 각각 미륵불과 미타불로 성도하는 예를⁴⁵⁾ 통해 미륵신앙이 강조되어 감을 읽을 수 있다. 점찰법회의 경우 선악 업의 관찰과 참회, 수계 그리고 과보차별상의 관찰이므로 극락왕생보다 현세적인 미륵신앙과 결합할 소지가 많았다고 하겠다.⁴⁶⁾

신라 말 고려초 선종의 유행과 천태종의 성립으로 새로운 수행법 등이 제시되고, 고려 사회에서 아미타정토신앙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점찰법회의 성격도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⁴⁷⁾ 그러나 선악 업을 관찰하고 악업을 제거하기 위해 참회한다던지, 왕실에 의해 열린 점찰법회가 원통한 영혼의 구제라는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를 위해 업장을 고백하고 참회한다는 점에서 ‘악업에 대한 참회’를 강조하는 점찰법회의 특징은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변형이 가능한 것이 점찰법회의 장점이라고 하겠다.

43) 김영미, 1994, 『신라불교사상사연구』, 민족사, p.212.

44) 韓國古代社會研究所 編, 1992, 「감산사 아미타불·미륵보살 조상기」,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III,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45) 『三國遺事』 卷3 塔像4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46) 진표의 미륵신앙을 불교적 메시아, 미륵하생신앙과 관련해서 보거나(윤여성, 1989, 「신라 진표의 불교신앙과 금산사」, 『전북사학』 11·12), 진표는 미륵상생신앙을 추구하였으나 백성들에게는 하생신앙을 강조하였을 것이라 분리해 보기도 하고(김혜완, 1992 신라 하대의 미륵신앙, 『성대사림』 8), 금산사 방등계단인 도솔천과 미륵전을 통해 미륵상생·하생 신앙적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홍윤식, 1988, 「금산사가람과 미륵신앙」,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47) 라정숙, 2017 앞의 논문.

V.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 『점찰경』은 상하 2권은 6세기 경 중국에서 찬술된 위경이다. 상권은 말세의 선근이 부족한 중생을 위한 방편으로 목륜상법을 상세히 기술하였고, 하권은 대승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신심·신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하권은 『대승기신론』과의 유사성이 일찍부터 지적되었으며, 여래장사상을 담고 있다.

『점찰경』의 가장 큰 특징은 어느 경전에서도 볼 수 없는 목륜상법으로, 10개의 목륜을 통해 속세의 선악 업을 관찰하고 악업이 나온 경우 신·구·의 3개 목륜 중 그에 해당하는 목륜을 던져 업의 강약·대소를 확인한 후 참회한다. 수행한 지 7일 후부터 신·구·의 3개의 목륜을 던져 모두 선업을 얻어야 비로소 참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후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개의 목륜을 3회 던져 과보차별상을 관찰하는데, 그 차별상은 189가지이다. 이러한 점찰법은 중국에서 탑참법·자박법으로 민간에서 유행하였는데, 점이라는 형식의 익숙함과 업과 과보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명료함 등이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탑참법은 『점찰경』의 목륜상법보다 더 간소화된 것으로, 점찰법의 다양한 변형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 시기 중국 유학을 다녀온 원광에 의해 신라에 점찰법회가 전해졌으며, 이후 진표와 그 제자들에 의해 참회·수계를 거쳐 189개의 간자를 이용한 독자적인 방식의 점찰법회가 확립되어 널리 전파되었다. 그 제자들이 활동한 속리산과 팔공산 동화사 등을 중심으로 점찰법회는 고려시대까지 이어졌다. 다만 시기에 따라 강조되는 점찰법의 내용이나 목적이 달라졌는데, 이러한 점찰법의 유연성이 점찰법회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 생각된다.

「점찰법회의 유래와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의 논평문

김진무 - 충남대 외래교수

‘점찰법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신라의 원광(圓光)이 처음으로 이 법회를 열었고, 삼국통일 후 진표(眞表)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이 법회의 소의경전인 『점찰경』의 원명은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인데, ‘지장보살업보경(地藏菩薩業報經)’ 또는 ‘대승실의경(大乘實義經)’이라고도 한다. 상하 2권으로 되어 있는 이 경은 지장보살이 설주(說主)가 되어 있으며, 경의 내용은 말법시대(末法時代)의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방편을 교시하고 있다.”라고 하며 그와 관련된 대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다.

박미선 선생의 본 논문은 바로 이와 관련한 주제로 본문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점찰법회가 통일신라시기에 금산사에서 진표율사에 의하여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오늘 금산사 학술대회에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점찰법회와 관련하여 “점찰법회의 유래와 전래”, “『점찰선악업보경』의 구성과 내용”, “점찰법회의 한국적 변용”의 세 가지 분야에 대하여 상세히 논술하고 있다.

논문에 있어서 주제의 설정과 각 부분에 있어서의 논술 역시 소논문으로서의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상당히 잘 전개된 논문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 있어서도 상당히 상세하게 주적을 달고 있지만, 본 논평자도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선행연구 검색을 하다가 다음과 같은 박미선의 선행연구가 존재

함을 발견하였다.

『新羅 占察法會 研究』(연세대학교 대학원 2007.2. 박사학위논문)

「新羅 占察法會와 密敎」(『東方學志』 155집, 연세대학교출판부, 2011. 9.)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韓國古代史研究』 49집, 서경문화사, 2008.3.)

『占察經』의 成立과 그 思想」(『역사와 실학』 32집상, 역사실학회 2007.6.)

「圓光의 占察法會와 三階敎」(『韓國思想史學』 24집, 한국사상사학회, 2005. 6.)

「新羅 圓光法師의 如來藏思想和 敎化活動」(『韓國思想史學』 11집, 한국사상사학회, 1998. 12.)

「신라 원광법사의 여래장사상과 교화 활동」(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2.)

이로부터 보자면, 논자는 석사학위로부터 ‘점찰법회’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고, 아마도 우리 학계에서 있어서 이 분야에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전문가가 아닐까 한다. 따라서 본 발표논문에도 있어서 내용과 논술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를 제기할 점은 없어 보인다.

다만, “중국에서 9가지 비유로 여래장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여래장경(如來藏經)』이 420년경 불태발타라(佛馱跋陀羅)에 의해 번역된 것을 시작으로 5세기 초에서 6세기 초에 걸쳐 여래장 관련 경전들이 번역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평자가 많은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문제는 본 논문에서 논하는 주제와는 그렇게 깊은 관련은 없다.

『여래장경(如來藏經)』은 양대(梁代)의 승우(僧祐)가 찬술한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 권2는 “大方等如來藏經(釋法炬出大方等如來藏一卷, 佛馱跋陀出大方等如來藏一卷)”라고 하여 “불태발타라(佛馱跋陀羅)”가 역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수대(隋代) 언종(彦琮)이 찬술한 『중경목록(衆經目錄)』 권1에서는 “大方等如來藏經一卷, 晉義熙年佛馱跋陀羅譯”라고 하여 “불태발타라(佛馱跋陀羅)”의 번역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CBETA에서 현존하는 『여래장경』은 “[東晉]天竺三藏佛陀跋陀羅譯, 『大方等如來藏經』과 [唐]三藏沙門不空奉詔譯, 『大方廣如來藏經』”의 2권이 검색된다. 그런데 관련된 자료에 따르면, “불태발타라”는 420년경에 바로 『大方廣佛華嚴經』을 번역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지하다시피 『大方廣佛華嚴經』은 60권으로 현존하는 경전이다. 그러므로 60권의 『화엄경』을 번역하면서 동시에 『여래장경』을 번역하였을까? 더욱이 『화엄경』과 『여래장경』은 사상적으로 서로 충돌하는 경전인데? 따라서 논자가 언급한 것이 『출삼장기집』에 나오는 “불태발타라”인지, 아니면 “불타발타라”의 오기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논문을 읽으면서 평소에 늘 지냈던 의문이 떠올라 논자에게 질문하고 싶다. 불교에서는 세간법의 체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인과율(因果律)’을 설하여 자신이 지은 업(業)은 반드시 자신이 받을 수밖에 없음을 설한다. 예컨대, 『중아함경』 3권 『가미니경(伽彌尼經)』에는 ‘아주 무거운 돌’을 물속에 던져놓고 “떠올라라!”라고 기도하거나 축원하여도 결코 떠오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자신이 지은 업은 철저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점찰법회’에서 자신이 지은 악업을 참회한다면, 과연 업보가 감경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게 메타포될 수 있는 점이 있다. 옛날에 본 “밀양”이라는 영화에서처럼 살인자가 하나님(혹은 목사)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온’을 누림에 분노하는 주인공(전도연 분)이 떠오르는데, 불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친다고 오해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불교에서는 어떠한 논리로 ‘참회’ 등으로 ‘업보’가 감경하거나 사라질 수 있는 것인가?

논평자는 이에 대한 답이 바로 『점찰경』의 하권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한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에서는 각주 “1) 『三國遺事』 卷3 義解5 眞表傳簡, 14) 『歷代三寶紀』 卷12 ; 『大正新修大藏經』 卷49, 106下” 등과 같이 원문을 삽입하고 있지 않는데, 논자와 같이 반드시 원문을 대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히 갑갑함을 느낀다. 물론 CBETA에서 찾으면 되지만, 원문을 삽입해 주는 수고를 베풀어 주었으면 바란다.

이상으로 간략한 논평과 질문을 마치며, 뛰어난 발표논문에 감사한다.

* 오타: 비방장(費長房) ⇄ 비장방(費長房)

금산사 점찰법회의 설행과 미륵신앙

김상영_ 중앙승가대 불교학부 교수

• 목 차 •

- I. 머 리 말
- II. 금산사의 창건과 義寂, 順濟
- III. 진표의 교화행과 점찰법회
- IV. 점찰법회의 계승과 ‘미륵성지’ 금산사
- V. 맺 음 말

I. 머리말

금산사는 개산 1,400년을 지난 고찰이자 명찰이다. 이처럼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금산사는 한국불교사 전반에 걸쳐 많은 역할을 해왔으며, 금산사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고승도 다수 배출하였다. 하지만 유구한 역사에 비해 금산사의 역사를 전하는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현실이다.

금산사 역사와 관련한 대표적 자료로 『金山寺事蹟』이 있다. 1600년대의 중창 불사를 회향한 이후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中觀 鐵面(1567-?)이 편찬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물론 17세기에 진행된 불사에 대해서는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정유재란 이전의 사찰 역사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등의 일부 자료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할 만큼 내용이 매우 소략하다. 『금산사사적』과 함께 1934년 경 包光 金映遂(1884-1967)가 편찬한 『금산사지』가 있다. 이 자료 역시 일제강점기의 일부 역사를 제외하면 그 내용이 오히려 『금산사사적』보다 더 소략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¹⁾ 이러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두 자료는 금산사 역사를 전하는 소중한 자료임이 분명하다. 또한 이들 자료 이외에도 각종 사서와 佛書, 문집, 금석문 등의 자료를 통해 단편적인 금산사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그동안 금산사 역사와 관계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왔다. 첫째, 眞表와 관계된 연구이다. 진표는 신라 교학불교의 발전이 정점에 달해 있던 시기를 살다간 고승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단 한편의 저술도 남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표 관련 연구는 이미 상당한 양에 이르고 있으며, 연구내용 또한 초기의 개설적 단계²⁾를

1) 이 두 자료를 중심으로 아세아문화사에서 『금산사지』(한국학문헌연구소 편, 한국사지총서, 1983)라는 자료집을 간행한 바 있다.

2) 김남윤, 「신라 미륵신앙의 전개와 성격」, 『역사연구』 2, 역사학연구소, 1993. 11.

-----, 「신라중대 법상종의 성립과 그 신앙」, 『한국사론』 11, 서울대 국사학과, 1984

-----, 『신라법상종연구』,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김상현,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의 사상과 문화』, 일지사, 1999.

김영태, 「신라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 연구」, 『불교학보』 9,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72. 10

-----, 「점찰법회와 진표의 교법사상」, 『한국불교사상사-송산박길진박사 화갑기념』, 1975.

벗어나 더욱 심화되고 다양화되는 양상³⁾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그가 펼친 점찰교법은 점찰법회 연구⁴⁾의 한 축을 이루며 최근까지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둘

- 윤여성, 「신라 진표의 불교신앙과 금산사」, 『전북사학』 11·12합, 전북사학회, 1989. 12.
 -----, 『신라 진표와 진표계 불교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 중흥기반」, 『한국문화의 전통과 불교 -연사홍윤식교수정년퇴임 기념논총-』, 2000.
 이기백, 「진표의 미륵신앙」, 『신라사상사연구』, 일조각, 1986.
 조용헌, 「진표율사 미륵사상의 특징」, 『한국사상사학』 6, 한국사상사학회, 1994.
 조인성, 「彌勒信仰과 新羅社會-眞表의 彌勒信仰과 新羅末 農民蜂起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진단학보』 82, 진단학회, 1996. 12.
 채인환, 「신라 진표율사연구」 1·2·3, 『불교학보』 23·24·25,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86·1987·1988 :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토방, 1997.
 황수영, 「금산사오층석탑 중창기」, 『미술사학연구(구 고고미술)』 130, 한국미술사학회, 1976.
 홍윤식, 「신라시대 진표의 지장신앙과 그 전개」, 『불교학보』 34,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1997. 12.
- 3) 김남윤, 「진표의 전기자료 검토」, 『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김승호, 「전승집단에 따른 기억의 투사양상-眞表傳承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77, 어문연구학회, 2013.
 김흥삼, 「無極의 「關東楓岳鉢淵籤石記」 撰述」,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4.
 노종상, 「진표율사의 밀교수행 연구(I)」,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15권 1호,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14. 6.
 박광연,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6.
 -----,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 재고찰」, 『불교학연구』 37, 불교학연구회, 2013.
 박미선, 「진표 점찰법회의 성립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9, 한국고대사학회, 2008. 3.
 정미숙, 「진표의 미륵신앙과 이상사회론」, 『지역과 역사』 7, 2000.
 조경철, 정동락, 「『삼국유사』 「진표전간」의 진표행적에 대한 비판적 검토」,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4,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2013. 4.
 최복희(오인), 「진표의 망신참과 탐참법」, 『역사민속학』 54, 한국역사민속학회, 2018.
- 4) 라정숙, 「고려시대 占察法會의 실행과 의미」, 『불교연구』 46, 한국불교연구원, 2017.
 박광연, 「원광의 점찰법회 시행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43, 한국역사연구회, 2002. 3.
 박미선, 「원광의 점찰법회와 삼계교」, 『한국사상사학』 24, 한국사상사학회, 2005.
 -----, 『신라 점찰법회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占察經』의 成立과 그 思想」, 『歷史와 實學』 32, 역사실학회, 2007. 6.
 -----, 「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동방학지』 155, 연세대 국학연구원, 2011. 9.
 -----,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인식』, 한국연구총서 제83집, 해안, 2013.
 남무희, 「(서평)박미선,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 윤회인식』」, 『한국고대사탐구』 16,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4. 4.
 신종원, 「원광과 진평왕대의 점찰법회」,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1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1. 2 : 『신라초기불교사연구』, 1992.

째, 고려 유가종과 관계된 연구이다. 금산사는 고려시대, 특히 11-12세기 유가종을 대표하는 宗刹로서의 寺格을 지니고 있는 도량이다. 慧德王師 韶顯(1038-1096)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이 시기 금산사와 유가종 관련 연구는 이미 상당한 양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⁵⁾ 이들 두 가지 주제 이외에도 금산사 방등계단⁶⁾과 조선시대 금산사 역사⁷⁾와 관련한 최근 연구는 그동안 부진했던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성과라 하겠다.

이 발표문은 금산사 점찰법회의 설행 역사와 금산사 미륵신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금산사의 창건과 義寂⁸⁾, 順濟

이장웅, 「百濟 法華信仰과 占察懺悔 -부여 능산리사지 '宿世結業' 목간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92, 한국고대사학회, 2018. 12.

5) 이 주제와 관련하여 발표자는 개략적인 연구사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고려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유가종찰'로서의 사격」,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학술세미나 자료집, 금산사·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2014. 4. 18).

6) 박광연, 「관단 사원과 계단-고려전기 금산사의 교단에서의 위상-」,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11.

이경화, 「중국 당 道宣의 계단과 금산사 계단」, 『역사학연구(구 전남사학)』 35,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09.

이수미, 「진표율사와 방등계단-『점찰선악업보경』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8, 한국불교학회, 2018. 11.

금산사 방등계단에 대한 최근 연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 계단의 조성 시기를 비정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특히 박광연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이 계단의 조성 시기를 진표 활동기 이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계단은 고려시대 금산사의 官壇 설치와 연계시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견해이다. 발표자는 금산사 방등계단을 진표의 활동과 연계시켜 보는 기존의 시각에 동의한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치밀한 검증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7) 오경후, 「조선 중후기 금산사와 선교겸수 경향」, 『불교학보』 72,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9. 황인규, 「조선시대 금산사의 역사적 전개와 사격」, 『불교학보』 73,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5. 12.

8) 의적의 저술과 사상 등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김영미, 「신라 승려 의적과 보살계수계의례」, 『사학연구』 126, 한국사학회, 2017. 6.

박광연, 「身延文庫藏 『無量壽經述記』와 義寂의 사상 경향」, 『동국사학』 5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6.

-----, 「의적 『菩薩戒本疏』의 기초 연구-쇼묘지(稱名寺)가나자와(金澤)문고 소장 寫本 소개를 겸하여-」, 『한국사상사학』 56, 한국사상사학회, 2017. 8.

차차석, 「의적의 『法華經論述記』에 나타난 一乘觀과 그 사상적 배경 고찰」, 『한국불교학』 79, 한국불교학회, 2016.

등에 관계된 내용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금산사는 진표가 주석하기 이전인 7세기 무렵부터 이미 ‘유식도량’으로서의 사격을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III장에서는 진표의 교화행과 점찰법회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미 이 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상당 양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진표불교’의 핵심인 대중교화와 점찰교법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 IV장에서는 점찰법회의 계승과 ‘미륵성지’ 금산사의 사격에 관계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표의 점찰법회는 고려시대 이후 금산사 역사에서 활발하게 전승되지 못하였다. 이것을 단순히 자료 부족에 起因한 결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실제로 금산사의 점찰법회나 점찰신앙 전통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발표자는 금산사가 네 차례에 걸친 사격 변화⁹⁾를 거쳤으며, 점찰법회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금산사의 중심 의례나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보고 싶다. 발표문의 성격상 논리 비약이나 전거 제시가 충분하지 못한 내용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추후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¹⁰⁾

최연식, 「의적의 사상경향과 해동법상종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불교학연구회, 2003.

-----, 「의적 연구의 현황과 과제」, 『동국사학』 5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6.

모로시게키, 「의적과 신라의 유식사상」, 『동국사학』 56, 동국역사문화연구소, 2014. 6.

9) 금산사 창건 이후 의적이 주석하던 7세기 무렵의 사격은 유식학을 연찬하는 ‘유식도량’, 순제와 진표가 주석하던 8세기 무렵부터의 사격은 ‘미륵점찰도량’, 소현이 주석하던 11세기부터 조선 전기까지는 유식학을 연찬하는 한편 유가종단 전체의 미륵신앙 체계에 부응하는 ‘유가종찰’, 조선중기 이후는 ‘호국도량’의 사격을 각각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견해이다. 진표의 점찰법회는 ‘유가종찰’로서의 사격을 다져나가던 시기에 자연스럽게 금산사의 중심 신앙의례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10) 금산사 역사와 관련한 발표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이 발표문의 일부 내용은 이들 연구에 기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밝혀두고자 한다.

- 「고려시대 瑜伽宗의 역사와 金山寺」, 『금산사의 역사와 인물』, 학술대회발표논문집, 금산사·중앙승가대 불교사학연구소, 1999

- 『미륵도량 모악산-금산사 사지』, 금산사, 2005

- 「고려시대 금산사의 역사와 ‘유가종찰’로서의 사격」, 『금산사와 한국의 유식사상』 학술세미나 자료집, 금산사·중앙승가대 불교학연구원, 2014

- 『금산사』,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조계종출판사, 2016. 12

- 「금산사의 역사와 고승」, 『모악산 금산사-도솔천에서 빛을 밝히다』 2019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전시도록, 불교중앙박물관·제17교구본사 금산사, 2019

II. 금산사의 창건과 義寂, 順濟

금산사의 창건은 599년 또는 600년(백제 법왕 원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창건설과 관련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635년 경 중관 철면 스님이 편찬한 『금산사사적』이며, 이 자료에 “599년(백제 법왕 1) 법왕이 즉위하여 살생을 금지하는 법을 반포하고, 이듬해에 금산사에서 38명의 승려를 득도시켰다.”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사적의 이 내용은 『삼국사기』의 기록, 즉 법왕이 그의 즉위년에 살생을 금지시켰다는 것과 그 이듬해 王興寺를 창건하고 승려 30명을 득도시켰다는 내용을 조금 바꾸어서 옮겨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이 때문인지 1934년 경 『금산사지』를 편찬한 김영수는 “599년 법왕의 資福寺로 터를 열기는 하였지만(開塋) 당시의 사찰 모습은 소규모로 대가람의 체모를 형성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진표율사의 중창을 開山으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국 『송고승전』에서도 진표율사를 창건주로 소개하고 있다.

비록 599년, 또는 600년 창건설에 대한 뚜렷한 문헌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문제는 있지만, 진표 스님 이전에 금산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발연사비』, 『삼국유사』 등의 자료는 진표가 “금산사의 송제(崇濟, 또는 順濟) 법사 문하로 가서 출가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놓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의 연구¹¹⁾에 의해 진표보다 앞선 7세기 후반 무렵 신라 유식학승 의적이 이 곳 금산사에 주석하였다는 새로운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결국 599년 창건설은 그 시기상 신뢰할 만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금산사는 의적·순제 등의 주석에 이어 762년 진표율사가 주석하면서 비로소 대가람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한편, 삼국시대에 조성된 많은 사찰들은 과거불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다. 금산사 역시 과거불과 인연이 있음을 밝힌 내용이 있다. 1492년(성종 23) 작성된 「금산사 오층석탑중창기」에 금산사는 과거불인 가섭불 때의 옛 절터를 중흥한 것이라는 내용이 실려 있

11) 김상현, 「신라 화엄학승의 계보와 그 활동」, 『신라문화』 1,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4.

최연식, 「의적의 사상경향과 海東法相宗에서의 위상」, 『불교학연구』 6, 불교학연구회, 2003.

는 것이다. 1971년 금산사 경내의 5층 석탑을 해체 수리하는 과정에서 「금산사오층석탑 중창기」가 발견되었다. 이 기문에 의해 금산사는 1492년(성종 23) 5층 석탑을 중수하는 불사를 진행하였으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문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의 석탑 중수 불사를 주도한 인물은 세조와 그의 서자 德原君 李曙였다. 세조는 즉위 이후 6, 7년이 지난 무렵 조정을 위해 옛 禪刹을 중수하라는 내용의 교지를 내렸다고 한다. 이에 의해 信靑을 비롯한 學虛 竺文 戒闇 了明 覺空 覺林 覺梅 祖敏 등의 금산사 승려들이 불사 후원자를 모집하고 왕실을 위한 설법을 하였으며, 아울러 전각과 요사 10여 기의 단청을 하고 퇴락한 5층 석탑을 중수하는 불사를 추진해 나갔다.¹²⁾ 석탑의 해체는 1492년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장육불상이 땀을 흘리고 탑 안에 봉안되어 있던 석가여래사리와 정광여래사리가 분신하는 등의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였다고 한다.¹³⁾ 비록 후대의 자료이긴 하지만, 이것 역시 금산사의 전통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7세기 중·후반 경 활동한 신라 유식학승 의적의 금산사 주석 사실은 금산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금산사는 진표 이전에 이미 ‘유식도량’으로서의 사격을 확립하고 있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대각국사 의천(1055-1101)은 금산사를 방문하여 의적의 영정에 제를 올리고 「祭金山寺寂法師文」이라는 제목의 제문을 지었다. 비록 전문은 전하지 않지만, 제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모년 모월 모일에 求法沙門 某(의천)는 삼가 차와 과일을 올리고 엎드려 신라 대법사이신 故 금산사 寂公의 영에 제사드립니다. 저는 일찍이 海東僧傳을 읽어 법사의 도와 덕과 행과 원을 두루 보았으며...(이하 결락)¹⁴⁾

12) 금산사 5층탑 중수와 관련한 연구로 이분희의 논문이 있다(「금산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고찰」, 『동악미술사학』 15, 동악미술사학회, 2013).

13) 이 기문의 첫머리에 금산사는 가섭불의 옛 터에 세워진 국보 제일 선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를 통해 15세기 후반 무렵 금산사의 사격이 유가종 사찰에서 선종 사찰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살필 수 있다.

14) 「祭金山寺寂法師文」, 『대각국사문집』 권16, 한국불교전서 4책, p.555中.

의천의 『대각국사문집』에는 또 다른 내용, 즉 “終南山의 분파가 처음 동쪽으로 흘러들어 왔을 때, 權宗(유가종)에서 마음을 돌린 寂公이 있었네. 지금 세상은 모두 자기 주장만 고집하는데, 그대만은 자신을 비우고 (적공의) 유향을 사모하네.”¹⁵⁾라는 시구가 실려 있기도 하다. 중국에서 화엄종이 전래되었을 때, 유가종에서 마음을 돌린 ‘적공’이라는 스님이 있었다는 표현인데, 여기서의 ‘적공’ 역시 의적 스님을 지칭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처럼 의천은 신라의 고승 의적을 크게 추앙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의천이 의적의 이름 앞에 금산사를 특기하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다. 보통 한 고승의 앞에 사찰 명을 별도로 밝히고 있는 것은 그 사찰과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적어도 의천이 활동했던 11세기 후반 경에는 의적과 금산사의 관계가 특별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을 살필 수 있다. 의적 스님은 신라 3대 저술가로 평가될 만큼 다량의 저술을 남긴 대표적 유식학승이다. 이러한 의적이 금산사에 주석하였다는 사실은 이후 고려시대에 이르러 금산사가 고려 유가종을 대표하는 종찰로 정착되는 데 있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크다.¹⁶⁾

7세기의 의적 주석 이후 금산사는 순제-진표의 시기에 대가람의 면모를 갖추어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진표는 순제의 문하로 출가하였으며, 순제는 진표의 신앙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삼국유사』 「발연수석기」와 「진표전간」의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① 진표율사는 전주 벽골군 도나산촌 대정리 사람이다. 나이 12살에 이르러 뜻이 출가에 있으니 아버지가 허락하였다. 율사는 金山藪 順濟法師에게 가서 출가하였다. 순제는 사미계법을 주고, 『供養次第秘法』 1권과 『점찰선악업보경』 2권을 전하며 말하기를 “너는 이 계법을

15) 「聞資善大師論議後有作」, 『대각국사문집』 권20, 같은 책, p.565下

16) 의적은 『보살계본소』에서 『점찰경』을 거론하고 있다. 박광연은 이같은 사실을 주목하면서 “이처럼 신라에서는 『점찰경』을 계법, 특히 출가자의 자서수계를 인정하는 경전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진표의 자서수계 실천이 의적과 같은 『점찰경』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박광연,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앞의 책, p.12).

가지고 미륵·지장 두 성인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고 하였다. 율사가 가르침을 받들고 이별하여 물러나와 명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나이가 이미 27세가 되었다.¹⁷⁾

② 나이 열두 살에 이르러 금산사 崇濟法師의 강석하에 들어가 출가하여 배우기를 청하였다. 그 스승이 일찍이 일러 말하기를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善道三藏에게서 수업을 받았고 연후에 오대산으로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신에 감응하여 오계를 받았다”고 하였다. 진표가 “삼가 수행하기를 어찌하여야 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하자, 승제법사가 “정성이 지극하면 곧 1년을 넘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표가 스승의 말을 듣고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선계산 不思議菴에 석장을 머무르고 삼업을 갖추어 수련하여서 亡身懺(?) 하였다.¹⁸⁾

12세의 나이로 금산사에서 출가생활을 시작한 진표 스님은 어느 날 스승에게서 『공양차제비법』 1권과 『점찰선악업보경』 2권을 받았다. 이와 함께 스승으로부터, “너는 이 계법을 지니고 미륵과 지장의 두 성인 앞에서 간절히 구하고 참회하여 친히 계법을 받아 세상에 널리 전하라.”는 당부를 듣는다. 한편, 「진표전간」에는 승제법사가 진표에게 “나는 일찍이 당나라에 들어가 善道三藏에게서 수업을 받았고 연후에 오대산으로 들어가 문수보살의 현신에 감응하여 오계를 받았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진표가 “삼가 수행하기를 어찌하여야 계를 받을 수 있습니까?”라고 스승에게 물으니, 스승이 “정성이 지극하면 곧 1년을 넘기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였다는 내용도 전한다. 이에 진표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물러나와 두루 명산을 유력하면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진표의 스승인 순제는 중국 정토교의 대성자인 선도 삼장(613-681)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선도→승제로 이어지는 사상적, 신앙적 특성이 진표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는

17) 真表律師 全州碧骨郡 都那山村大井里人也 年至十二志求出家父許之 師往金山藪順濟法師處零染 授授沙彌戒法 傳教供養次第秘法一卷 占察善惡業報經二卷曰 汝持此戒法於彌勒·地藏兩聖前 懇求懺悔 親受戒法 流傳於世 師奉教辭退 遍歷名山 年已二十七歲(『삼국유사』 권4 義解5 「關東楓岳鉢淵藪石記」).

18) 年至十二歲 投金山寺崇濟法師講下 落彩請業 其師嘗謂曰 吾曾入唐受業於善道三藏 然後入五臺感文殊菩薩現受五戒 表啓曰 勤修幾何得戒耶 濟曰 精至則不過一年 表聞師之言 遍遊名岳 止錫仙溪山不思議菴 該鍊三業以亡身懺□□□(『삼국유사』 권4 義解5 「真表傳簡」).

앞으로 보다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¹⁹⁾

금산사는 창건 이후 의적이 주석하던 7세기 무렵부터 이미 유식학을 연찬하는 ‘유식도량’으로서의 사격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순제와 진표가 주석하던 8세기 이후 금산사의 사격은 변화되기 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의적에서 순제에 이르는 시기의 금산사 역사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순제와 진표를 유식학승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앞선 『삼국유사』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순제는 스승 선도의 불교신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진표 역시 스승 순제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순제가 진표에게 전해주었다는 『공양차제비법』²⁰⁾과 『점찰선악업보경』, 그리고 미륵·지장 두 성인에게 ‘懇求하고 懺悔하여 戒法을 親受’하라는 가르침은 이후 ‘진표불교’를 형성해가는 데 있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결국 순제-진표가 주석하던 시절의 금산사는 유식도량에서 미륵신앙을 중시하는 ‘미륵점찰도량’으로 점차 그 사격이 변화되어간 것으로 보고 싶다.

III. 진표의 교화행과 점찰법회

진표율사는 금산사를 ‘미륵성지’로 확정해놓은 고승이다. 뿐만 아니라 스님은 이곳 도량을 대규모로 중창함으로써 巨刹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하였다. 진표의 금산사 중창에 대해서는 1199년(신종 2) 螢峯이 금강산 鉢淵寺에 세운 「발연사비」²¹⁾의 “진표는

19) 박광연은 선도-순제-진표의 관계에 대해, “唐初 정토신앙의 유행에 발맞춰 관불삼매가 매우 성행하였다. 특히 善導는 관불삼매를 수행의 핵심으로 삼았는데, 진표의 수행은 선도가 말하는 참회법과 매우 비슷하다. 「진표전간」에서 진표의 스승이 순제이고, 순제가 당에서 선도 삼장에게 배움을 받았다고 언급한 것은 진표의 수행이 당 정토종의 관불삼매 수행과 무관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것 같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박광연,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 재고찰」, 앞의 책, pp.287-288).

20) 『공양차제법』의 전래와 수지는 신라 밀교신앙의 수용과 전개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박광연의 논문(「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앞의 책, pp.17-27), 그리고 박미선의 논문(「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앞의 책, pp.20-22) 내용을 참조하기 바란다.

21) 이 비의 원래 이름은 「관동풍악산발연수진표율사진신골장입석비명關東楓岳山鉢淵齋眞表律師

교법을 받고 금산사를 중창하기 위해 산을 내려왔다. 大淵津에 이르렀을 때 용왕이 나타나 玉으로 된 가사를 바쳤다. 스님은 용왕이 거느린 8만 권속의 호위를 받으며 금산사에 이르렀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몇 일만에 절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²²⁾ 아울러 「발연사비」의 내용만 본다면 이때의 중창이 단기간에 끝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 비문의 전후 내용과 여타 자료를 참조해볼 때 진표의 금산사 중창은 762년부터 766년에 이르는 大役事였음을 알 수 있다.

금산사를 대가람으로 변모시킨 진표는 신라불교사 뿐 아니라, 한국불교사 전체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고승이다. 그는 특이한 수행법과 점찰교법을 통해 대중교화에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景德王에게 보살계를 설하는 등 당시 신라 사회에서도 극진한 존경을 받았다. 또한 미륵보살과 지장보살 모두에게 친히 감응을 받았던 일화가 전해 내려오면서 그는 신앙사적 차원에서도 중시되고 있다.

이러한 중요성을 감안한 때문인지, 진표와 관련한 자료는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있는 편이다. 먼저 『삼국유사』의 「진표전간」과 「心地繼祖」 항목에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앞서 소개했던 「발연사비」에도 적지 않은 내용이 실려 있다. 또한 그의 높은 명성으로 인하여 중국에도 일부 자료가 전하는데, 『송고승전』·『神僧傳』·『新修科分六學僧傳』·『高僧摘要』 등에 관련 내용이 남아 있다. 이들 자료는 상호간에 서로 다른 내용이 뒤섞여 있어, 최근까지도 진표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기초적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박광연은 진표 관련 각종 기록들에 모두 등장하는 공통 요소로 네 가지를 들었다. 그는 “첫째는 참회 수행, 둘째는 금산사에서 교화, 셋째는 지장보살 및 미륵보살의 감응, 넷째는 계법의 강조이다. 이를 근거로 거칠게 말한다면 진표에게 확실한 것은 금산사, 지

眞身骨藏立石碑銘」이며, 『삼국유사』에는 「관동풍악산발연수석기(石記)」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이하 「발연사비」로 줄임.

22) 다소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李重煥의 『擇里志』에도 “모악산 남쪽에 있는 금산사는 본래 그 터가 용이 살던 못으로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다. 신라 때 조사가 여러 만 석의 소금으로 메워서 용을 쫓아내고 터를 닦아 그 자리에 大殿을 세웠다고 한다. 대전의 네 모퉁이 뜰 아래에서 가느다란 물줄기가 주위를 돌아 나온다.”는 내용의 설화가 있다. 결국 진표의 중창 과정에 연못을 메우는 일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아닐까 한다.

장보살 및 미륵보살, 계법, 참회 수행뿐이라고도 할 수 있다.”²³⁾고 하였다. 발표자는 이러한 견해를 존중하면서 이른바 ‘진표불교’의 대표적 특성을 몇 가지로 나누어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진표는 律師로서 뚜렷한 위상을 지니고 있는 고승이다.

진표는 통상 율사의 호칭이 수반된다. 그의 법명을 생략한 채 그냥 ‘율사’로 표기된 자료도 적지 않다. 그만큼 진표는 戒法을 중시하였으며, 지금까지 동아시아 불교사를 대표하는 율사로 인식되어오고 있다. 『송고승전』 권14에 수록된 그의 전기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은 ‘明律篇’에 속해 있기도 하다.²⁴⁾ 율사는 기본적으로 출가자에게 요구되는 律에 정통하였을 것이고, 출가자, 재가자 상관없이 자발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戒의 보급에도 앞장섰을 것이다.²⁵⁾ 율사 진표의 삶은 고려 유가종 승려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말 유가종승이자 금산사 중창주인 圓明 海圓(1262-1340)은 원나라 황제가 칭송하고 정중하게 모실 정도로 명망 높은 지계행자였다.²⁶⁾ 금산사에 세워져 있는 방등계단 역시 율사 진표와 연관된 유산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

둘째, 진표는 정진과 참회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수행자였다.

출가 이후 진표의 수행은 처절하다는 표현이 가능할 정도였다. 진표는 그야말로 온몸을 내던지는 참회행으로 일관된 수행을 하였는데, 그의 이러한 수행을 일컬어 ‘亡身懺法’

23) 박광연,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 재고찰」, 앞의 책, p.283.

24) 김승호는 『송고승전』에 진표 전기가 수록된 의미에 대해 “對唐유학 체험조차 없었던 진표가 중국의 문헌전승에 오른 것을 보면 그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알 수 있거니와 한중간 인물전승이 얼마나 활발하게 교류되고 있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국외전승이다 보니 진표의 출가시기, 고향, 師僧 등 기본적 정보들마저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나기도 한다.”고 하였다(「전승집단에 따른 기억의 투사양상 -眞表傳承을 중심으로-」, 앞의 책, p.124).

25) 박광연, 「신라 진표의 미륵신앙 재고찰」, 같은 책, p.291.

26) 해원의 생애는 李穀(1294-1351)이 지은 「대승은 복원사 고려제일대사원공비」(『가정문집』 所收)에 의해 비교적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해원은 1305년 元에 들어갔는데, 원나라는 당시 목축을 생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가축의 고기를 먹고 고기 국물을 마시며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원은 그 곳에서 2년여를 생활하면서도 굶주림은 참을지언정 육식과 마늘 등의 냄새 나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철저한 계행을 유지함으로써 安西王으로부터 더욱 두터운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 철저한 계행으로 명성을 떨치던 그는 안서왕에 이어 황제 武宗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았으며, 무종에 이어 즉위한 인종에게도 극진한 예우를 받았던 것으로 전한다.

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결국 진표는 온 몸을 내던지는 망신참법 끝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의 감응을 받는다. 『발연수석기』에는 불사의방에서의 진표 수행 장면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는 쌀 20두를 썬 말려서 식량으로 삼았으며 5흡의 쌀을 하루의 식량으로 하고, 1흡은 덜어 쥐를 먹였다고 한다. 이러한 진표의 식사법은 『공양차제법』의 ‘隨意食法’을 따른 것이라 한다.²⁷⁾ 『발연수석기』의 “발분하여 몸을 바위 아래로 던지니 갑자기 청의동자가 손으로 받쳐 돌 위에 놓아 주었다. 율사가 다시 3·7일을 기약하고 밤낮으로 수행하여 돌에 몸을 던지며 참회하니, 3일에 이르러 팔뚝이 부러져 떨어졌다. 7일째 되던 밤에 지장보살이 손에 석장을 흔들며 와서 쓰 다듬으니 팔이 전과 같아졌다.”는 내용은 진표의 망신참법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셋째, 진표는 금산사의 실질적 개산조와도 같은 존송을 받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산사는 이미 7세기부터 뚜렷한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금산사를 크게 중창한 진표는 ‘중창조’로서의 위상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진표가 금산사를 창건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는 『송고승전』 내용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7세기의 의적이나 진표의 스승 순제 역시 금산사 창건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 11세기 금산사를 크게 중창한 혜덕 소현은 금산사 경내에 ‘진표영당’을 별도로 건립하였다. 이것은 이 시기 금산사 사중에서 진표를 창건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대표적 사례가 아닐까 한다.

넷째, 진표는 대중교화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고승이었으며, 점찰법회는 대중교화를 수행하기 위한 대표적 방편이었다.

진표는 망신참법의 철저한 수행으로 두 분 보살로부터 감응을 전해 받았다. 이후 그는 일평생 대중교화에 정진하였다. 당시 신라사회는 엄격한 골품제 체제 아래에서의 신분 차별상이 극심하던 때였다. 일반 평민과 노비들이 살아가던 삶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처절하고 힘든 것이었다. 이러한 중생들에게 다가가 불법을 설파하고 계도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소중한 의의가 있는 일이다. 당시 대부분의 승려들은 고착된 신

27) 박미선, 『신라 점찰법회와 밀교』, 앞의 책, p.22.

분제 사회의 틀에서 벗어나려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불법을 청해 듣는 대중은 왕실 세력과 일부 귀족층에 불과할 뿐이었다. 진표 역시 경덕왕과 왕실 귀족세력으로부터 귀의를 받았고 그들로부터 후한 보시를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진표는 이에 머물지 않고 보다 많은 대중들에게 불법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민중들에게 그만의 독특한 교법인 점찰교법과 계행의 중요성을 전달함으로써 신분의 굴레가 주는 억압과 무기력한 삶을 보다 희망적으로 가꾸어갈 수 있도록 하는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진표의 전기에 「眞表傳簡」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일연은 ‘간자를 통한 전법활동에 전념했던 고승’으로 진표를 남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IV. 점찰법회의 계승과 ‘미륵성지’ 금산사

고려시대 전기의 금산사 역사는 혜덕왕사 소현에 의해 영도되었다. 그는 고려 중기 유가종단을 이끌었던 대표적 고승이자 이 시기 금산사 도량을 크게 중창한 중창주이기도 하다. 소현의 중창은 금산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고려 중기의 금산사는 고려 불교를 대표할만한 사세를 갖추게 되었다. 스님의 생애는 지금 금산사 경내에 세워져 있는 「慧德王師眞應塔碑」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살펴 볼 수 있다.

소현은 1079년부터 금산사에 주석하기 시작하였으며, 비문 내용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는 금산사에 주석하면서 광교원을 설립하였다. 소현은 이곳 광교원을 통해 고려 유가종과 관련한 많은 일들을 추진하였는데, 다양한 주석서의 수집과 간행 사업이 가장 돋보인다. 즉 소현은 중국 법상종의 고승 자은 기대사의 저술 등 총 32부 353권에 달하는 전적들을 수집하여 교정을 하고 그것들을 경판으로 만들어 간행하였던 것이다. 이 때 간행된 경판의 전체 목록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전후 내용으로 보아 유식학 관련 주요 저술이 판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식 관련 전적의 판각과 유통은 학승다운 소현 스님의 면모를 잘 살필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소현은 단지 학문만을 중시하는 고승이 아니었다. 그는 신앙, 특히 유가종의 신앙적 배경이라든가 그 계통과 관련한 신행을 무척 중시하였다. 그는 먼저 고려 유가종의 중심 신앙인 미륵신앙의 선양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비문에는 “미륵불의 탕화를 그려 봉안하고 매년 7월 14일에 법연法筵을 열어 승려들을 모아 예참·귀의하고, 또한 재를 크게 베풀어 주변에 시주하고 법석을 파하였는데 1075년부터 1096년에 이르기까지 무려 22년간 계속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1096년은 그의 입적 연도가 되므로 결국 소현은 1075년부터 입적할 때까지 금산사에서 미륵신앙을 선양하는 대규모 법회를 매년 개최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법회에 대해서는 당시 왕실에서도 높은 관심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1083년 당시 임금이던 宣宗이 미륵불 탕화불사 소식을 듣고 여러 채화와 어서를 하사하였으며, 이후에도 이 불사가 있을 때마다 여러 시주물을 내려 보냈다는 기록이 전한다. 하지만 이때의 법회에서 점찰법회가 함께 행해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소현은 유가종의 역사에서 중시되는 여러 조사들을 선양하는 일도 병행하였다. 그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화가들을 모집하여 광고원에 마련된 금당 내부에 비로자나불과 중국 법상종의 2대 고승인 현장·기 대사 두 분의 상을 그려 봉안토록 하였다. 비문의 또 다른 내용에 의하면 스님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석가여래, 현장, 기 대사, 해동 6조 등의 상을 그려 유가종 각 사찰에 봉안토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 그린 해동 유가종의 6대 조사²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여하튼 소현은 유가종의 중심 신앙과 역사적 고승들을 선양하기 위해 금산사를 중심으로 무척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 나갔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그의 이러한 노력은 “상을 보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공경하는 마음에서 믿음이 생기며 믿음으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다(靚像生敬 自敬生信 自信得慧).”는 소신에서 비롯한 것으로 파악된다.

28) 해동 6조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원효, 태현, 진표와 소현의 스승인 지광국사 해린 등은 6조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 금산사 광고원 구역에는 이들 여섯 분의 고승 진영을 봉안한 ‘해동6조영당’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 진표의 제자 가운데 영심, 보종, 신방, 체진, 진해, 진선, 석충 등은 모두 산문의 開祖가 되었다. 특히 영심은 진표의 간자를 전한 인물로 주목되는데, 그의 전법 교화지는 속리산(법주사)이었다. 진표의 제자들이 금산사에 계속 머물면서 점찰법회를 설행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혜덕왕사 소현은 금산사 주지를 지내면서 유가종단도 함께 이끌어 나갔다. 소현은 유식 전적을 간행,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고려 유가종의 宗史를 체계화하면서 한편으로 현장, 기 대사, 해동 6조 등의 상을 그려 유가종 각 사찰에 봉안토록 하였다. 그가 이 시기 진행했던 중창불사는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廣敎院區에 같은 규모(3칸)의 ‘해동6조영당’과 ‘진표영당’을 건립하였다. 이를 두고 진표를 別祖의 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

□ 금산사 이외의 사찰에서 점찰법회를 개설한 사례가 발견된다. 이들 대부분의 사례에서 진표를 언급한 내용이 보이며, 매우 구체적인 점찰의례의 경우도 확인된다. 이것은 원광-진표로 이어지는 신라 점찰법회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꾸준히 계승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지리산 수정사는 유가종 소속 승속이 함께한 결사운동 사례로 주목되는데, 여기에서도 구체적인 점찰의례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진표와 그가 행한 점찰교법은 고려 유가종에서 소중하게 인식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 소현은 고려 유가종의 신앙체계를 정비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유식학승으로서의 면모를 뚜렷하게 지니는 한편, 일평생 미륵신앙을 견지²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현은 의적시대의 ‘유식도량’, 그리고 순제-진표시대의 ‘미륵점찰도량’을 융합하는 금산사의 새로운 사격을 구상했을 수도 있다. 이 시기 금산사는 분명 고려 유가종 전체를 선

29) 소현은 1096년(숙종 1) 12월 18일 금산사 奉天院에서 세랍 59세, 법랍 48세를 일기로 입적하였다. 비문에 의하면 그는 양치질을 한 다음 미륵여래의 명호를 염하고 사후서원을 발원하여 마친 후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부좌를 한 채 입적에 들었다고 한다.

도하고 아우르는 ‘유가종찰’로서의 사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 진표의 제자들

① 법을 얻은 제자 중 영수는 영심, 보종, 신방, 체진, 진해, 진선, 석충 등이고 모두 산문의 開祖가 되었다. 영심은 곧 진표의 간자를 전하였는데 속리산에 살면서 법통을 계승하였고 단을 만드는 법은 占察六輪과 조금 다르나 산중에서 전하는 본래의 규범과 같았다.³⁰⁾

• 혜덕 소현과 금산사

② 스님께서서는 일찍이 금산사 남쪽으로 약 60여 보쯤 떨어진 경치 좋은 곳을 골라 한 개의 院을 창립하고 그 이름을 廣敎院이라고 하였다. 이곳에서 경전을 필사하고 경판을 새겨 보관하였으며, 원의 가운데에는 별도로 금당 한 곳을 조성하여 비로자나불과 현장·기 두 분 대사의 상을 그려 봉안하였다. 태강 9년(1083)부터 스님의 말년에 이르기까지 자은 기대사가 찬술한 『법화현찬』 『유식술기』 등 장소 32부 353권을 수집하여 교정을 보고(그 근본을 바로잡고) 장인들을 모집하여 경판을 만들었다. 그 종지와 먹 등은 모두 개인적으로 구비해 유통시킨 것이었으니 이는 法施를 널리 행한 것이다.³¹⁾

• 금산사 이외의 점찰법회

③ 삼계가 오직 마음에 달렸으므로 一眞과 청정함이 같건마는, 중생이 깨닫지 못하여 六道의 부침에 괴로워하고 있고, 벗어날 기약 없는 고해에서 갇은 괴로움과 근심을 맛보고 있습니다.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한 거울로 널리 비춰, 사람들이 제 가슴 속에 보배를

30) 得法之衲領曰永深·寶宗·信芳·体珎·珎海·真善·釋忠等 皆爲山門祖 深則真表簡子住俗離山爲克家子 作壇之法與占察六輪稍異 修如山中所傳李規(『삼국유사』 권4 義解5 「眞表傳簡」).

31) 師曾於金山寺 選勝于寺之南 武六十許步地 創設一院 額號廣敎 仍筆刻雕經板置于院 院之中 別造金堂一所 并繪畫盧舍那及契基二師像 其堂自太康九年 至師之末年 搜訪慈恩所撰法華玄贊惟識述記等 章疏三十二部 共計三百五十三卷 考正其本 募工開板 私具紙墨 印布流通 以廣法施也(「金山寺慧德王師眞應塔碑」).

감추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곤궁함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 모든 참회의 軌範과 의식을 베풀어 보여서, 생각을 일으키게 하는 방편으로 삼았으니, 보현보살의 열 가지 소원은 갖추어 화엄경에 말하였으며, 진표 스님의 부지런함은 마침내 미륵불에 감통하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영세토록 행하여지고, 부처님의 은택은 恒河의 모래같이 많은 大千世界에 흡족합니다.³²⁾

④ 歡喜와 率陁가 비록 仁方의 국토를 間隔 지었으나,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특히 淨戒의 법문을 열었습니다. 律師(진표?)의 신심에 붙이지 아니하면, 누가 보살의 참된 부탁을 전하겠습니까. 영묘한 불문에 한번 나가면 妙化가 무궁합니다. 모든 것을 받들어 행하여서 부지런히 참회하고 감사하면, 그것은 위험한 城을 벗어나는 빠른 길이며, 고해를 건너가는 미더운 항해가 될 것입니다.(중략) 훌륭한 法士들을 불러 모아, 장황하게 法筵을 열었습니다. 妙音에 삼천 대천세계에 두루 퍼져서 자비의 설을 믿고 받아들이면, 聖簡의 九를 얻은 자와 八을 얻은 자는 그것으로써 업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점치며, 밤낮으로 겸손하고 정성스럽게 하면, 그림자나 메아리처럼 감응한다고 운운합니다. 혹은 귀하고 혹은 천한 부류와, 聖이니 賢이니 하는 무리들, 무릇 고의로 살해되었거나, 잘못 死傷된 자들의 혼이, 원통한 맘을 풀고 맺혀진 한을 녹여 버리지 않는 자가 없으며, 신기한 것이 화하여 냄새나고 썩은 것이 되는 것이니, 당장의 옛날에 가졌던 욕신을 포기 하며, 번뇌는 곧 菩提가 되어, 속히 시방세계의 여러 부처님을 보게 하소서.³³⁾

⑤ 저승에서나 이승에서나 중생들은 윤회의 테두리에 고착되었으나 10에 8~9는 보살

32) 三界唯心 同一眞之清淨 衆生不覺 困六道之漂沉 無有出期 備嘗苦患 惟佛以圓鏡而普照 憫人有寶藏而自窮 □設諸懺悔之軌儀 示之發起之方便 普賢之願 具宣說於華嚴 眞表之勤 終感通於彌勒 教行永世 澤洽恒沙(金富軾, 『俗離寺占察會疏』, 『동문선』 제110권 疏).

33) 歡喜率陁 雖隔仁方之國土 地藏慈氏 特開淨戒之法門 非付律師之信心 孰傳菩薩之眞囑 靈門一出 妙化無窮 凡厥奉行 克勤懺謝 出危城之捷路 濟苦海之信航 (中略) 招集勝士 張皇法筵 妙音周三千大千 信受慈悲之說 聖簡得九者八者 以占業報之成 日夜殷勤 影響感應云云 或貴或賤之品 曰聖曰賢之流 凡爲故殺誤傷 無不解冤釋結 神奇化爲臭腐 頓拋昔日之有身 煩惱卽是菩提 速見十方之諸佛(劉羲, 『兜率院占察會疏』, 『동문선』 제110권 疏).

이 구제의 문을 열어 두었으니, 진실로 정성껏 기도한다면 그 누군들 이롭게 건너지 않으리까. 앞드려 생각건대, 아무는 본래 참된 법을 숭봉하여 우선 빠진 자를 건져 주려고, 公으론 三界의 미혹한 무리들이 아직 고해에 헤매는 것을 잊지 못하며, 私로는 六親의 가까운 권속이 혹시 저승에 막혀 있을 것을 염려하여, 조금이나마 선근을 심어서 명복을 기도할까 합니다. 이에 蕭寺의 金身을 모신 땅에 나아가 眞公(진표)이 簡牘을 던진 의식을 강하오니, 경을 읽는 소리가 우레처럼 널리 들리고, 향을 사르는 연기가 구름처럼 퍼 집니다. 소가 비록 賤畜이나 혹 눈물을 흘리거든, 사람은 본래 영물인데 어찌 마음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앞드려 원하건대, 돌아가신 부모·육친들이 빨리 서늘한 은택에 목욕하여 몽땅 뜨거운 번뇌를 씻어 버리며, 一子地 를 거쳐 스스로 正覺의 몸을 이룩하고, 九品臺에 올라선 친히 여래의 모습을 보게 되며, 나아가서는 바람에 쓸리는 毛道の 무리들까지 저 金繩으로 만든 경계의 고을에 이르러지이다.³⁴⁾

⑥ 모든 社에 참가한 사람에게는 그가 생존했거나 사망하였거나 불문하고 나무쪽에다 이름을 새겨두었다. 15일마다 『점찰업보경』에서 말한 바에 의하여 나무쪽을 꺼내어 바퀴에 던져서 선악의 報應을 점쳤다. 점쳐서 나온 대로 선과 악을 두 개의 상자에 나누어 놓고 그 惡報에 빠진 사람은 회원들이 그를 위하여 대신 참회하고 다시 바퀴에 던져서 善報를 얻게 한 후 그만둔다. 또 처음에는 선보를 얻었다가 나중에 악보로 떨어질 것을 염려하여, 마침내 다시 1년마다 한 번씩 바퀴에 던져 점을 쳐서 만일 다시 떨어져 버린다면 곧 처음과 같이 대신 참회한다. 이것은 구름처럼 모여든 대중과 함께 해탈을 얻어서 미래의 세계에까지 꺼지지 않는 법의 등불을 점하려 함이니, 이른바, “집 밖을 나서지 않고도 두 가지 이익에 모두 넉넉하다.” 한 것이다.³⁵⁾

34) 彼焉此焉衆生着輪迴之聚 九者八者菩薩開津濟之門 苟能精祈 誰不利涉 伏念某崇眞有素 拯溺爲先 公未忘三界之迷倫 尙淹苦海 私亦念六親之近屬 或滯重泉 擬種善根 小營冥福 投蕭寺側金之地 講眞公擲簡之儀 梵唱雷宏 眞香雲布 牛雖賤畜而猶或垂淚 人本靈物而得不迴心 伏願先亡父母六親等 遄沐清冷 頓離熱惱 過一子地 自成正覺之身 升九品臺 親觀如來之相 及毛道隨風之類 到金繩作界之鄉(이규보, 「占察會疏」, 『동국이상국전집』 제41권 釋道疏).

35) 凡與於入社者 無問存亡 刻名爲簡 每值半月 依占察業報經說 出簡擲輪 占善惡之報 以所得善

· 이규보의 진표 인식

⑦ 또 이른바 ‘不思議方丈’이란 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물어서 구경하였는데, 그 높고 험함이 효공의 방장의 만배였고 높이가 1백 척쯤 되는 나무사다리가 곧게 절벽에 걸쳐 있었다. 3면이 모두 위험한 골짜기라, 몸을 돌려 계단을 하나씩 딛고 내려와야만 방장에 이를 수가 있다. 한번만 헛디디면 다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나는 평소에 높이 한 길에 불과한 樓臺를 오를 때도 두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신이 아찔하여 굽어볼 수 없던 터인데, 이에 이르러는 더욱 다리가 와들와들 떨려 들어가기도 전에 머리가 벌써 빙 돈다. 그러나 예전부터 이 勝跡을 익히 들어오다가 이제 다행히 일부러 오게 되었는데, 만일 그 방장을 들어가 보지 못하고 또 眞表大士의 像을 뵈지 못한다면 뒤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그래서 어정어정 기어 내려가는데, 발은 사다리 계단에 있으면서도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었다.

드디어 들어가서 부싯돌을 쳐서 불을 만들어 향을 피우고 律師의 眞容에 예배하였다. 율사는 이름이 진표이며 벽골군 대정촌 사람이다. 그는 12살 때 현계산 불사의암에 와서 거처하였는데 현계산이 바로 이 산이다. 그는 冥心하고 가만히 앉아 慈氏와 지장을 보고 자 하였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보이지 않자 이에 몸을 구렁에 던지니, 두 명의 청의동자가 손으로 받으면서 말하기를, “대사의 법력이 약한 때문에 두 성인이 보이지 않습니다.”하였다. 그래서 그는 더욱 노력하여 삼칠일에 이르니, 바위 앞 나무 위에 자씨와 지장이 현신하여 계를 주고, 자씨는 친히 『점찰경』 2권을 주고 아울러 1백 99 梘을 주어 導往의 도구로 삼게 하였다. 그 방장은 쇠줄로 바위에 박혀 있기 때문에 기울어지지 않는데, 세속에서 전하기를 바다 용이 그렇게 한 것이라 한다.³⁶⁾

惡 分爲兩函 其陷惡報者 會衆爲之代懺 還復擲輪 得善報乃已 又慮其有初得善報而後墮惡報 乃復於每年 一擲輪以占之 如或顛墜 則復代懺如初 欲與雲集之衆 同一解脫 限未來際 傳無盡燈 所謂不出一堂 而二利俱足者也(權適, 『智異山水精社記』, 『동문선』 제64권 記)

36) 又問所謂不思議方丈者求觀之 其高險萬倍於曉公方丈 有木梯高可百尺 直倚絕壁 三面皆不測之壑 回身計級而下 乃得至於方丈 一失足則更無可奈何矣 予平日登一臺一樓高不過尋丈者 以頭病故 猶眩眩然不得俯臨 至是益悚然股抖 未入而頭已旋矣 然自昔飽聞勝跡 今幸特來 若不入見其方丈 又不得禮眞表大士之像 則後必悔矣 於是盤桓蒲北而下 足猶在級而若將已墮者 遂入焉 敲石取火 焚香禮律師眞容 律師者 名眞表 碧骨郡大井村人也 年十二 來棲賢戒山不思議巖 賢

戒山者 卽此山是已 眞心宴坐 欲見慈氏地藏 踰日不見 乃投身絕壑 有二青衣童子以手奉之曰 師法力微小 故二聖不見也 於是努力益勤 至三七日 巖前樹上 有慈氏地藏現身授戒 慈氏親授占 察經二卷 并與一百九十九柱 以爲導往之具 其方丈 以鐵索釘巖故不敬 俗傳海龍所爲也(이규보, 『南行月日記』, 『동국이상국전집』 제23권 記 : 『동문선』 제66권 記)

「금산사 점찰법회의 실행과 미륵신앙」의 논평문

김방룡 _ 충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우선 ‘금산사와 점찰신앙’을 주제로 금산사와 한국정토학회가 주최하는 뜻깊은 학술대회에 토론자로 참석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자인 김상영 교수는 한국불교사상사 분야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서 오늘의 주제인 「금산사 점찰법회의 실행과 미륵신앙」에 대한 훌륭한 발표를 해주었다 생각합니다.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선 발표자(이하 논자)의 글을 제식으로 간단히 요약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一. 본 발표문은 논자가 밝힌 바와 같이 “금산사 점찰법회의 실행 역사와 금산사 미륵신앙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하에 크게 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첫째, 2장의 ‘금산사의 창건과 의적, 순제’를 통하여, 일반적으로 금산사 창건에 대해 알려진 ‘순제-진표’ 외에 7세기 중·후반 활약했던 유식학승 ‘의적’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다. 논자는 금산사는 의적 당시 ‘유식도량’으로서 사격을 유지하고 있다가, ‘순제-진표’가 주석하면서 ‘미륵점찰도량’으로 사격이 변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3장의 ‘진표의 교화행과 점찰법회’에서는 진표가 율사로서 뚜렷한 위상을 지닌

고승이었으며, 정진과 참회로 일관된 삶을 살았던 수행자였고, 금산사의 실질적인 개산조로 존중되고 있으며, 점찰법회 등을 통하여 대중 교화에 뚜렷한 업적을 남긴 고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셋째, 4장의 ‘점찰법회의 계승과 미륵성지 금산사’에서는 진표의 제자와 혜덕왕사 소현의 미륵신앙의 존중 모습 그리고 금산사 이외의 점찰 법회 등을 통하여 진표 이후 금산사의 점찰법회가 계승되어 온 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二. 논자의 발표문에는 ‘의적’의 존재를 부각시켜 금산사의 역사를 앞당기고 있는 점과 금산사의 역사를 7세기 무렵 ‘유식도량’, 8세기 무렵 ‘미륵점찰도량’, 11세기부터 조선 중기까지 ‘유가도량,’ 조선 중기 이후 ‘호국도량’ 등 시기에 따라 사격을 넷으로 나누어 보고 있는 점 등은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지닌 의미 있는 성과라 생각된다. 논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 드리고자 한다.

첫째, 유식사상과 미륵신앙 혹은 미륵점찰 신앙의 관련성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특히 논자는 “소현은 유식학승으로서 일평생 미륵신앙을 견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소현은 의적시대의 유식도량, 그리고 순제-진표시대의 미륵점찰도량을 융합하는 새로운 사격을 구상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현에게 있어서 유식사상과 미륵점찰 신앙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사상적 입장에서 이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의적은 의상의 10제자 중의 하나로 중국에 가서 유식을 공부한 인물로 알고 있다. 우선 의적과 소현의 사상 간에 유식사상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의적이 중국에서 자은 규기와 함께 유식론을 주석하였고 소현이 자은 규기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는 점에서 그 공통점을 유추할 수는 있으나, 한국불교 내의 유가종의 계승 면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점을 유추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셋째, 논자는 금산사의 사격을 시기별로 4시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현

재 금산사는 조계종의 교구본사로 자리하고 있다. 금산사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현재 금산사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견해를 듣고 싶다.

넷째, 찬영의 『송고승전』에 원효, 의상과 더불어 진표가 소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 당시 진표의 국제적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진표가 중국에 널리 알려져 있을 수도 있지만, 찬영이 특별히 진표나 혹은 진표가 머문 전주, 김제, 익산 지역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륵신앙은 진표 이전 무왕 대에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어 있어서 이러한 지역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만약 논자의 가설대로 ‘순제-진표’ 이전의 금산사가 유가종의 사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백제시기 금산사의 지역에 유가종이 득세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끝으로, 점찰법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 점찰법회와 미륵신앙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도 궁금하다. 그리고 점찰법회의 유행이 민중들에게 불교를 보급화하였다는 점 말고, 불교의 사상과 수행의 면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논자의 견해를 듣고 싶다.

감사합니다.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

이재수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 목 차 •

I. 머리말

II. 점찰법회의 문화콘텐츠화 토대

1. 점찰법회 관련 문화유산 활용의 토대 구축
2. 점찰법회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III. 점찰법회 체험형 콘텐츠화 방향

1. 체험경제요소를 통해 본 점찰법회 가치의 구현
2. 메타버스와 체험형 콘텐츠를 위한 체험요소

IV. 맺는말

I. 머리말

위없는 큰 불도[道]는 법이 없으면 세울 수 없으며, 참다운 진리의 가르침[法]은 의례 [儀式]가 없으면 베풀어 낼 수 없다¹⁾는 말에 불교의례의 핵심이 담겨 있다. 붓다의 깨달음에 도달하는 길은 가르침은 교학적 체계를 통해 전해지며, 이는 의례를 통해서 갈래지어지고 현실에서 구현되어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의미로 의례의 기능과 역할을 강조한 말이다. 불교의례는 거룩하고 장엄하여 누구나 쉽게 다가가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불교의례 가운데 말법시대의 나약하고 겁 많은 중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점치는 방법을 통해 선악의 차별상과 과보를 알게 하고 이를 극복하고 참회하여 올바른 길로 이끄는 점찰법회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본 논의는 점찰법회를 현대적으로 확산하기 위해서 체험형 콘텐츠로 그 특성을 특화시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하고 이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현대인들은 스마트미디어를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전송하며 나누고 있다. 잠깐 동안의 게임을 통해 즐거움을 누리는 현실에서 현실의 나의 모습과 과거, 미래의 일을 점쳐서 이를 극복하고 참회하는 점찰법회의 구조는 스마트미디어 시대에 불교가 베풀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신앙과 체험의 계기라고 본다. 우리의 행위의 선악에 따른 과보의 차별상을 알고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의 원동력을 제공한다. 나아가 잘못을 참회하고 신앙의 길로 이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점찰법회는 흥미를 주고 재미로 이끌어 진실한 세계를 교육하고 참회와 발심을 통해 향상일로를 걷게 한다. 이러한 특징을 체험형 콘텐츠라는 도구로 장엄하고 재미라는 공감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지옥의 고통에 빠진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지장보살의 본원력을 바탕으로 한 지장신앙과 참회의 길을 더욱 확산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1) 韓定燮 註, 「머리말」, 『新編增註 釋門儀範』, 法輪社, 1982. p.2.

II. 점찰법회의 문화콘텐츠화 토대

신라 때 진표율사는 금산사의 승제법사에게 출가하여, 온몸을 던져 참회 수행(亡身懺)을 통해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을 친견하였다. 지장보살의 가피를 받고 미륵보살에게는 『점찰선악업보경』과 간자 189개를 받았다고 전한다. 진표율사는 금산사에서 매해 점찰법회를 통해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였다. 그러한 가르침은 널리 베풀어 졌다.²⁾

『점찰선악업보경』을 근거로 지장신앙을 선양하기 위한 점찰법회의 운영과 진흥을 위한 물질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점찰보(占察寶)를 설치한 원광(圓光)법사가³⁾ 있고, 지혜(智慧) 비구니는 안흥사(安興寺) 불사를 위해 고심하던 차에 꿈속에 선도산(仙桃山) 신모가 출현하여 점찰법회를 통해 불사를 일으키라는 현몽을 받았다.⁴⁾ 이러한 점찰법회의 역사를 현실에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체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점찰법회 관련 문화유산 활용의 토대 구축

점찰법회는 문화유산의 가운데 불교의례의 범주로 말할 수 있다. 과거의 보존하고 계승할 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서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문화재보호법>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8항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이라는 연구관련 조항이 있다. 이를 근거로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이 법령에 따라 문화재 활용을 포함한 2017~2021년 기본계획 등이 연구된 바 있다. 여기에서 ‘문화재 향유 및 소통기회 확대’를 핵심전략으로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강화, 역사문화자원 관광콘텐츠 육성, 문화재현장 국민참여 확산, 스마트한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2) 『三國遺事』 권3 「義解」5 「眞表傳簡」. 점찰법회를 먼저 전한 이는 원광법사이다(『三國遺事』 권3 「義解」5 「圓光西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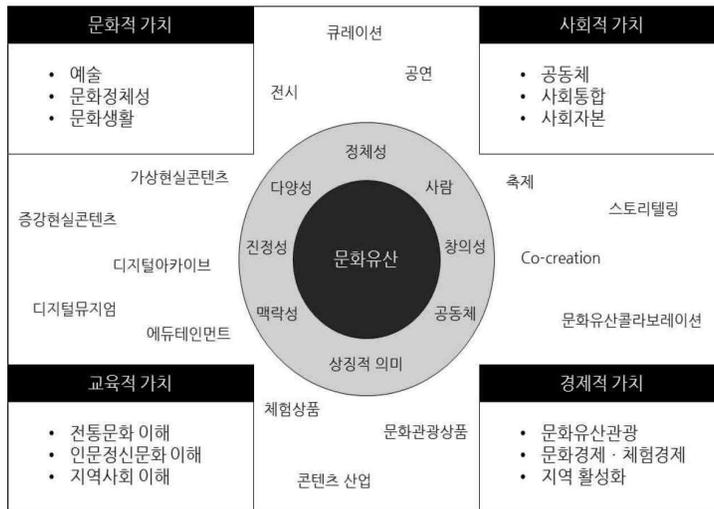
3) 『三國遺事』 권3, 「義解」5, 「圓光西學」.

4) 『三國遺事』 권5, 「感通」7, 「仙挑聖母隨喜佛事」.

구현 등을 단위과제로 책정하였다.⁵⁾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것은 유산에 담긴 가치를 발견해 새롭게 생명을 불어 넣거나 변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⁶⁾에 그치지 않고, 문화유산에 내재된 기능 또는 능력(무형문화재의 경우)을 잘 살려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는 반드시 문화유산이 가진 역사적, 예술적, 경관적 가치나 기능 또는 능력을 살려 “효율적으로 이용”⁷⁾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유산의 활용은 유산에 담긴 가치가 문화적으로 예술, 문화정체성, 문화생활에 도움을 주고, 사회적으로 공동체, 사회통합, 사회자본 형성에 기여한다. 또한 교육적으로 전통문화, 인문정신문화, 지역사회를 이해시키며, 경제적으로 관광, 문화경제, 지역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이러한 다양한 가치를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문화유산 활용의 가치

5) 컬처앤로드 문화유산활용연구소, 『문화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2017, PP.173~174.

6) 장호수, 『(새로 고쳐 쓴) 문화재학 이론과 방법』, 백산자료원, 2011, p.336. ; 장호수, 『문화재 보존·활용론』, 민속원, 2012, p.79.

7) 김창규, 『문화재관리의 이론과 실제』, 동방문화사, 2012, p.282.

또한 이 가치들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유산과 다양성, 창의성, 진정성, 상징적 의미 등의 다양한 개념과 방법들이 결합되고 융합되면서 창조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⁸⁾

본 연구의 출발점은 점찰법회에 내재된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오늘날의 종교문화유산의 핵심적인 토대로 보존하며, 더욱이 이를 체험하고 누리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2. 점찰법회의 문화콘텐츠화 방향

논자는 점찰법회에 담긴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한 토대가 문화콘텐츠 개발이라고 제안한다. 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점찰법회의 내용과 역사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역사문화자원 가운데 기록유산이다. 이를 디지털화하여 콘텐츠 제작과 활용의 기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이미 대장경 관련 자료 및 『삼국유사』를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디지털화⁹⁾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의 정리 및 기록들은 발굴하고 원천자료들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의 기본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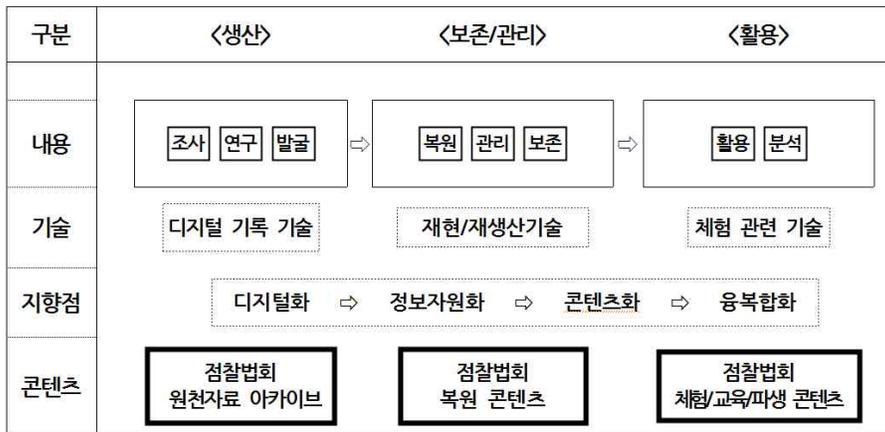
둘째는 원천자료를 분석하고 재구성을 통해 콘텐츠 제작의 토대가 되는 스토리를 발굴한다. 즉 역사적으로 점찰법회가 이루어진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사건, 인물, 장소 등으로 구분하여 스토리를 정리할 수 있다. 점찰법회의 성격은 무엇이고 이를 알기 쉽게 해설할 수 있는 부분도 스토리텔링의 영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나아가 점찰법회의 체험과 신앙담을 담은 새로운 스토리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점찰법회의 봉행과 관련한 신앙사례, 체험담과 관련 구술 증언을 채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스토리 발굴은 우선 신문, 잡지 등에 기고문을 중심으로 자료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을 일차로 사

8) 임학순, 『문화비즈니스연구소 콜로키움 발표 자료집』 Vol.2018 No.1, 가톨릭대학교 문화비즈니스연구소, 2018, p.42.

9)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http://kabc.dongguk.edu/> (2019.10.8. 검색)

료적 가치를 우선시 한다.

점찰법회에서는 『점찰선악업보경』에 근거하여 말법중생에게 목류상법(木輪相法)으로 과거세의 선악업과 현재의 고락과 길흉을 점쳐서 살피게 한다. 그 선악업은 인연의 화합을 따라 생겨난 것이므로 인연이 다하면 없어지는 것이다. 선악업은 마음을 따라 생겨난 것이고 길흉의 차별상은 과보로 나타난 것이다.¹⁰⁾ 참회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법회이다. 통일신라 때 점찰법회가 활발히 이루어 졌으며 지장신앙 의례가 정착되었다.¹¹⁾



<그림 2> 디지털시대 문화유산의 가치사슬과 점찰법회 콘텐츠화

문화유산을 디지털화 해서 콘텐츠로 개발하는데 가치사슬은¹²⁾ 3단계의 발전단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것은 ‘생산 단계’에서 출발하여 디지털화하고 ‘보존·관리 단계’를 통해 재현 및 재생산하고 ‘활용 단계’로 가서 문화유산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여기에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버전의 원본과 복사본이 생산되는데 이를 디지털 문화유산¹³⁾이라 한다. 디지털화는 단순히 사진촬영과 같은

10) 『占察善惡業報經』(大正藏17, 902b), “當用木輪相法, 占察善惡宿世之業、現在苦樂吉凶等事。緣合故有, 緣盡則滅。業集隨心, 相現果起。”

11) 문상련(정각), 「지장신앙의 전개와 신앙의례」, 『정토학연구』 15, 2011, pp.145-149.

12) 이춘근 외, 『문화재 활용 가이드북』, 문화재청, 2007.

복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염두에 두고 재창조, 변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로 재창조되는 것도 가치사슬로 이어진다. 물론 이도 디지털적인 접근이지만,¹⁴⁾ 단순한 디지털 복제, 또는 웹사이트 구축에 그쳐서는 안된다. 콘텐츠화도 활용을 기반으로 한 확산과정으로 이어져 복합적인 파생콘텐츠 창작으로 확장될 것이다.

점찰법회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단계적 방법과 범위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기획의 단계에서 전문가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불교의례와 신앙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연구해온 불교학자와 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 등의 연구자와 실행의 주체가 참여하는 기획이 필수적이다. 점찰법회는 지장신앙을 중심으로 신라 원광법사, 진표율사에 의해 설행되어 온 만큼 고대사에 대한 이해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만큼 불교사를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가 기획 단계부터 참여해야만 한다. 단순한 디지털 기술을 통한 단순한 영상 제작쯤으로 콘텐츠화를 생각한다면, 점찰법회가 지니고 있는 의미와 가치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 불교의례와 관련한 문화콘텐츠화는 불교의례의 구조, 역사적 텍스트, 의례문, 범패, 음악, 소리, 설단, 장엄, 의복, 지물, 공양물 등에 대한 디지털화는 의례의 복합적인 구조와 실행 과정에 따라 체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1차적으로 기본이 되는 원천 자료를 채취는 활용을 목적으로 원천자료 디지털화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디지털화를 목적으로 기록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 정보 구축을 위한 아카이브 구축을 목표로 원천자료를 디지털화 한다. 물론 이는 체계적인 조사, 발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때 점찰법회와 관련된 1차 원천자료, 연구논문, 스토리텔링을 위한 텍스트 구축까지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점찰법회 관련 사진 및 영상촬영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아카이빙이 기본 토대가 된다.

13) The Collections Trust, *"Mapping the use of digital technologies in the heritage sector"*, London: Heritage Lottery Fund, 2010, p.3.

14) 한국과학기술원,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전시운영방안 연구보고서』, 문화재청, 2013, p.46.

셋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점찰법회의 신앙적 의미와 맥락이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한다. 이때 점찰법회의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한다. 예컨대 진표율사의 경우 전기의 주요한 내용의 차이를 검토하여 스토리텔링을 해야 한다. 『송고승전』과 『삼국유사』에 나타난 자료를 통해 진표율사의 생애의 중요한 사건관련 그 키워드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¹⁵⁾

<표 1> 진표율사 전기 주요 내용 키워드 비교표

구분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	關東楓岳鉢淵藪石記	眞表傳簡
저자	찬녕(贊寧)	영금(瑩岑)	일연(一然)
저작시기	988년	1199년	1281년
출생		聖德王33년(734)	聖德王17년(718)
출생지	百濟 金山	全州碧骨郡都那山村 大井里	完山州 萬頃縣
출가	開元연간(713~741)	12세 金山寺(746)	12세 金山寺(730)
출가인연	두꺼비[蝦蟆]		
스승		順濟法師	崇濟法師
수계 (보살친견)	地藏·彌勒菩薩	27세 上元원년, 景德王19년 (760) 不思議房 29세 景德王21년(763) 부사의방에서 彌勒·地藏菩薩로부터	23세 孝成王 4년(740) 不思議庵에서 地藏菩薩 나중에 靈山寺에서 彌勒菩薩로부터
교법	金山寺에서 戒法 傳授	景德王21년(762) 金山寺에서 法을 펴	景德王11년(752) 金山寺에서 法을 펴
금산사	創建	創建(?)	重創
金山寺 佛事		惠恭王2년(766) 彌勒丈六像 奉安, 金堂 남쪽벽에 彌勒菩薩 受戒像	
수행법	懺悔法	懺悔法	亡身懺悔
戒法傳授	地藏菩薩 : 方便	地藏菩薩 : 方便 地藏菩薩 : 戒本	地藏菩薩 : 淨戒
簡子傳授	彌勒菩薩 : 受記 8者和 9者 108簡子 8者 : 信熏 9者 : 本有 非牙非玉	彌勒菩薩 : 2개의 簡子 8者 : 始覺/新熏成佛種子 9者 : 本覺/法 手指骨	彌勒菩薩 占察經二卷, 證果簡子 189개 8簡子 : 新得妙戒 9簡子 : 證得求戒 手指骨, 沈檀香
傳承者		永深·融宗·佛陀	永深·寶宗·信芳·體珍·珍海

15) 『宋高僧傳』 권14, 「明律篇」제4, 「唐百濟國金山寺眞表傳」(大正藏50, 793c)

『三國遺事』 권4, 「眞表傳簡」(韓佛全6, 350a)

『三國遺事』 권4, 「東楓岳鉢淵藪石記」(韓佛全6, 351b)

		永深의 勇猛懺悔	·眞善·釋忠 : 山門開祖 永深 : 法統繼承
教化 行績		金山寺	金山寺 法施
			阿瑟羅州 : 물고기教化
		鉢淵藪	景德王 菩薩戒
		俗離山 吉祥寺	鉢淵藪
入 寂		鉢淵寺	俗離山:永深
		(遺骨收拾 : 瑩岑)	鉢淵寺

이러한 부분의 미묘한 차이들을 염두에 두고 역사학자들의 자문을 통해¹⁶⁾ 스토리라인을 도출해 스토리텔링을 하여 2차 콘텐츠 제작에 도움을 받도록 한다.

넷째, 점찰법회의 준비, 설행, 회향 등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플랫폼 별 확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불교의례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데, 점찰법회의 구조를 이루는 『점찰경』의 기본적인 이해를 통한¹⁷⁾ 스토리텔링으로 쉽고 간결한 정보제공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점찰경』의 기본적인 의례과정에 대한 정리에서 스토리 라인을 뽑아내어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점찰법회를 복원하는데 이를 현실에 맞도록 의례로 구성하는 데는 다른 차원의 고민이 필요하다. 수록재나 예수재와 같이 의례문이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경전에 의거해 법회를 설행하는 것은 불교의례 전문가들의 논의와 정리가 필요한 문제이다.

예컨대 점찰법회의 핵심적인 요소인 목륜과 같은 경우는 새끼손가락 정도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데, 길이는 한 치가 약간 못되게 하고, 한 가운데는 사방을 네모 모양으로 편편하게 직사면체로 하는데, 양 끝으로 갈수록 비스듬히 점점 기울어지게 깎는다. 목륜을 손으로 쥐고 위로 올렸다가 옆으로 던지면 쉽게 구를 수 있도록 모서리를 다듬어야

16) 진표의 점찰법회에 대해서는 金煥泰,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 研究」, 『佛教學報』 9, 1972. ; 채인환, 「신라 진표율사 연구(II) - 점찰의 (占察) 계의와 방법」, 『불교학보』 24, 1987 등을 필두로 본격적인 연구는, 박미선, 「眞表 占察法會의 成立과 性格」, 『韓國古代史研究』 49, 2008. ; 박미선, 「新羅 占察法會와 密敎」, 『동방학지』 155, 2011. ; 오인(최복희), 「진표의 망신참과 탐참법」, 『역사민속학』 54, 2018 등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다.

17) 『점찰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위경으로서의 특징을 박미선, 「『占察經』의 成立과 그 思想」, 『역사와실학』 32, 2007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한다고 하였다.¹⁸⁾

아울러 점치는 방법에 따라 3가지 차별이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 『점찰경』에 따르면 점찰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를 도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점찰경』의 삼륜상법의 차이

구분	십륜상법	삼륜상법	육륜상법
목륜수	10개	3개	6개
목적	지난 세상에 지은 선악업의 종류와 차별을 알게 함	지난 세상의 쌓인 업의 오래되고 가까움과 지은 바 強弱·大小를 살펴봄	三世 내에서 받는 과보의 차별을 봄
윤상	형태	3륜 각각 신·구·의를 쓴다. 한 윤상에 정중앙 4면에 각각 1)굵고 길게 끝까지, 2)가늘고 짧게, 3)굵고 깊게, 4)가늘고 얇게 새김	6륜의 각각의 3면에 1·2·3, 4·5·6 등의 숫자를 18까지 차례로 기재함
	의미	십선/십악은 일체선법과 악법을 상징	선악의 깊이와 행업의 차별을 4가지로 구분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심으로 지방 일체 불법승지장보살 등에 예배 - 죄업장 소멸 발원 - 香花 등 공양구로 공양 - 나무지장보살마하살 1천 번 칭명 - 발원 후 - 목륜상을 손에 쥐고 던져 나타나는 업을 관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번째 10륜을 던져 나온 악업이 身·口·意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를 관찰 - 각 업에 해당하는 3륜을 던져 악업의 강약·대소·원근을 살펴 - 이렇게 악업을 관찰한 후 이를 없애기 위해 懺悔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륜을 3번 던져 그 나온 수를 합계함 - 합을 관찰하여 선악을 결정함 - 3세의 과보인 선과 악의 상에는 189종의 차별상이 있음

이러한 3가지 윤상법을 알기 쉽게 스토리텔링을 통해 순서와 차례대로 콘텐츠화 하며, 여기에는 반드시 게임의 요소를 부가하여 배경음악과 화면효과 및 2D·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특히 『점찰경』의 189가지 삼세 선악의 차별상이 설해져 있는데,¹⁹⁾ 이는 점찰법회의

18) 『占察善惡業報經』(大正藏17, 902b), “欲學木輪相者, 先當刻木如小指許, 使長短減於一寸, 正中令其四面方平, 自餘向兩頭斜漸去之. 仰手傍擲, 令使易轉, 因是義故, 說名為輪.”

19) 『占察善惡業報經』(大正藏17, 905b),

체험적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구분하여 보면, 선은 121가지, 악은 68가지이며, 현재의 과보는 160가지, 과거는 11가지, 미래는 18가지 등의 차별이 있다.²⁰⁾ 이를 분석하여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점찰경』의 189가지 선악의 차별상의 분석

구분	차별상	선	악	삼세과보	
		(121)	(68)		
1	상승을 구하여 불퇴전의 경지를 얻음	求上乘得不退	善		現世果報 (160)
2	구하는 과를 현재에 바로 증득함	所求果現當證	善		
3	중승을 구하여 불퇴전의 경지를 얻음	求中乘得不退	善		
4	하승을 구하여 불퇴전의 경지를 얻음	求下乘得不退	善		
5	신통을 구하여 성취함	求神通得成就	善		
6	4무량심[四梵]을 닦아서 성취함	修四梵得成就	善		
7	세선을 닦아서 성취함	修世禪得成就	善		
8	받고자 하는 미묘한 계율을 얻음	所欲受得妙戒	善		
9	일찍이 받았던 계율을 갖추	所曾受得戒具	善		
10	상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물지 못함	求上乘未住信		惡	
11	중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물지 못함	求中乘未住信		惡	
12	하승을 구하지만 아직 믿음에 머물지 못함	求下乘未住信		惡	
13	관찰하여 보는 사람은 친한 벗이 됨	所觀人爲善友	善		
14	듣은 바를 따르면 이것이 바른 믿음	隨所聞是正信	善		
15	관찰하여 보는 사람은 나쁜 벗이 됨	所觀人爲惡友		惡	
16	듣은 것을 따르면 올바른 가르침이 아님	隨所聞非正教		惡	
17	관찰하는 사람이 진실한 덕망이 있음	所觀人有實德	善		
18	관찰하는 사람이 진실한 덕망이 없음	所觀人無實德		惡	
19	관찰하는 이치가 그릇되지 않음	所觀義不錯謬	善		
20	관찰하는 이치가 틀려서 잘못됨	所觀義是錯謬		惡	
21	외우는 것이 틀렸거나 잘못되지 않음	有所誦不錯謬	善		
22	외우는 것이 틀려서 잘못됨	有所誦是錯謬		惡	
23	수행함이 틀렸거나 잘못되지 않음	所修行不錯謬	善		
24	보고 듣는 것이 선한 모습임	所見聞是善相	善		
25	증득함이 바르고 진실함	有所證爲正實	善		
26	배운 것이 틀려서 잘못됨	有所學是錯謬		惡	
27	보고 듣는 것이 선한 모습이 아님	所見聞非善相	善		
28	증득함이 바른 법이 아님	有所證非正法		惡	
29	얻음이 샅된 귀신에 사로잡힘	有所獲邪神持		惡	
30	말함이 샅된 지혜의 변설임	所能說邪智辯		惡	
31	현지로 얻은 게 비인의 힘임	所玄知非人力	善		
32	당연히 먼저 지혜를 보는 도를 익힘	應先習觀智道	善		

20) 智旭 述, 『占察善惡業報經疏』 권상(卍新續藏 21, 435c), “△二詳列三, 初有百六十數明現世果報, 二有十一數明過去果報, 三有十八數明未來果報, 今初.”

33	당연히 먼저 선정의 길을 익힘	應先習禪定道	善	
34	배운 것을 관하면 장애가 없게 함	觀所學無障礙	善	
35	배운 것을 관하면 그것이 곧 바름	觀所學是所宜	善	
36	배운 것을 관하여도 바름이 아님	觀所學非所宜		惡
37	배운 것을 관하면 그것이 바로 과거세에 익혔던 것임	觀所學是宿習	善	
38	배운 것을 관하지만 과거세에 익혔던 것이 아님	觀所學非宿習		惡
39	배운 것을 관하면 선이 자꾸만 늘어남	觀所學善增長	善	
40	배운 것을 관하여도 방법이 적음	觀所學方便少		惡
41	배운 것을 관하여도 진취가 없음	觀所學無進趣		惡
42	구하는 과보를 현재에 얻지 못함	所求果現未得		惡
43	출가하기를 구하여 벗어날 수 있음	求出家當得去	善	
44	법문 듣기를 구하여 가르침을 얻음	求聞法得教示	善	
45	경전을 구해서 읽고 외움	求經卷得讀誦	善	
46	하는 일을 관하면 바로 악마의 일임	觀所作是魔事		惡
47	하는 일을 관하면 일이 성취됨	觀所作事成就	善	
48	하는 일을 관하여도 일이 성취되지 않음	觀所作事不成		惡
49	큰 부자 되기를 바라면 재산이 가득함	求大富財盈滿	善	
50	벼슬자리를 구하면 반드시 얻음	求官位當得獲	善	
51	수명을 구하면 수명을 늘림	求壽命得延年	善	
52	세간의 신선을 구하면 반드시 얻음	求世仙當得獲	善	
53	학문을 관하면 많이 통달함	觀學問多所達	善	
54	학문을 관하여도 통달함이 적음	觀學問少所達		惡
55	스승과 벗을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師友得如意	善	
56	제자를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弟子得如意	善	
57	부모를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父母得如意	善	
58	아들과 딸을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男女得如意	善	
59	처첩을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妻妾得如意	善	
60	동반할 이를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同伴得如意	善	
61	염려하는 일을 관하면 마음에 화합됨	觀所慮得和合	善	
62	관하는 사람이 마음에 성내는 생각을 품음	所觀人心懷恚		惡
63	원한이 없기를 구하면 큰 기쁨을 얻음	求無恨得歡喜	善	
64	화합하기를 구하면 마음대로 됨	求和合得如意	善	
65	관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기뻐함	所觀人心歡喜	善	
66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게 됨	所思人得會見	善	
67	생각하는 사람을 다시는 만나지 못함	所思人不復會		惡
68	청하여 부르면 사람이 와서 모임	所請喚得來集	善	
69	미워하는 대상을 여의게 됨	所憎惡得離之	善	
70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를 가까이 할 수 있음	所愛敬得近之	善	
71	모으려고 관하면 사람이 모이게 됨	觀欲聚得和集	善	
72	모으려고 관하여도 사람이 모이지 않음	觀欲聚不和集		惡
73	청하여 부르는 사람이 오지 않음	所請喚不得來		惡
74	기약한 이가 틀림없이 오게 됨	所期人必當至	善	
75	기약한 이가 오지 않음	所期人住不來		惡
76	관하는 이가 편안하고 길하게 됨	所觀人得安吉	善	
77	관하는 이가 편안하고 길하지 않음	所觀人不安吉		惡
78	관하는 이의 몸은 이미 없음	所觀人已無身		惡

79	보기를 희망함을 반드시 보게 됨	所望見得觀之	善	
80	찾아 구함을 찾게 됨	所求覓得見之	善	
81	듣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은 말을 들음	求所聞得吉語	善	
82	보고자 구해도 마음대로 안 됨	所求見不如意		惡
83	의심함을 관하면 곧 그것이 진실함	觀所疑卽爲實	善	
84	의심하는 것을 관하면 진실치 않음	觀所疑爲不實		惡
85	관하는 사람들이 화합하지 않음	所觀人不和合		惡
86	부처님의 일을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됨	求佛事當得獲	善	
87	공양거리를 구하면 반드시 얻게 됨	求供具當得獲	善	
88	살림살이를 구하면 마음대로 이룸	求資生得如意	善	
89	살림살이를 구해도 적게 얻음	求資生少得獲		惡
90	구하는 게 있으면 모두 다 얻게 됨	有所求皆當得	善	
91	구하는 게 있지만 모두 얻지 못함	有所求皆不得		惡
92	구하는 게 있으면 적게 얻음	有所求少得獲		惡
93	구하는 게 있으면 마음대로 됨	有所求得如意	善	
94	구하는 게 있으면 당장에 빨리 얻음	有所求速當得	善	
95	구하는 게 있으면 오래되어야 겨우 얻게 됨	有所求久當得		惡
96	구하는 게 있어도 잃어버리게 됨	有所求而損失		惡
97	구하는 게 있으면 좋은 이익을 얻음	有所求得吉利	善	
98	구하는 게 있지만 괴로움만 받음	有所求而受苦		惡
99	잃어버린 것을 관하면 바로 찾게 됨	觀所失求當得	善	
100	잃어버린 것을 관해도 영원히 못 찾는 것	觀所失永不得		惡
101	잃어버린 것을 관하면 저절로 되찾음	觀所失自還得	善	
102	재난과 액운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면 벗어나	求離厄得脫難	善	
103	병이 낫기를 구하면 병이 낫는 것	求離病得除愈	善	
104	가려고 하는 곳을 관하면 걸림이 없음	觀所去無障礙	善	
105	가려고 하는 곳을 관해도 걸림이 있음	觀所去有障礙		惡
106	머무는 곳을 관하면 편안히 머뭄	觀所住得安止	善	
107	머무는 곳을 관해도 편안치 못함	觀所住不得安		惡
108	향하여 가는 곳마다 모두 편안함	所向處得安快	善	
109	향하여 가는 곳마다 액난이 있음	所向處有厄難		惡
110	향하여 가는 곳에 악마의 그물에 덮임	所向處爲魔網		惡
111	향하여 가는 곳에 깨우쳐 교화하기 어려움	所向處難開化		惡
112	향하여 가는 곳에 깨우쳐 교화할 수 있음	所向處可開化	善	
113	향하여 가는 곳에서 스스로 이익을 얻음	所向處自獲利	善	
114	유람하는 길에는 괴롭고 해로움이 없음	所遊路無惱害	善	
115	유람하는 길에는 괴롭고 해로움이 있음	所遊路有惱害		惡
116	군주와 백성들이 악하여 굶주림	君民惡饑饉起		惡
117	군주와 백성들이 악하여 온통 병들	君民惡多疾疫		惡
118	군주와 백성이 착하여 나라가 풍요롭고 즐거움	君民好國豐樂	善	
119	군주가 무도하여 나라에 재난이 일어남	君無道國災亂		惡
120	군주가 덕행을 닦아 재난이 사라짐	君修德災亂滅	善	
121	군주가 악행을 행하여 나라가 장차 망함	君行惡國將破		惡
122	군주가 선행을 닦아서 나라를 다시 세움	君修善國還立	善	
123	피할 곳을 관찰하여 재난을 면함	觀所避得度難	善	
124	피할 곳을 관하여도 재난을 벗어나지 못함	觀所避不脫難		惡

125	머무르는 처소의 중생들이 안온함	所住處衆安隱	善	
126	머무르는 처소에 장애와 재난이 있음	所住處有障難		惡
127	의지하는 마을의 대중들이 편안하지 않음	所依聚衆不安		惡
128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온갖 재난이 없음	閑靜處無諸難	善	
129	괴이함을 관해도 손해가 없음	觀怪異無損害	善	
130	괴이함을 관하면 손해가 있음	觀怪異有損害		惡
131	괴이함을 관해도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음	觀怪異精進安	善	
132	꿈 꾸었던 것을 관하면 손해가 없어짐	觀所夢無損害	善	
133	꿈 꾸었던 것을 관하여도 손해가 생김	觀所夢有所損		惡
134	꿈 꾸었던 것을 관하면 편안하게 정진할 수 있음	觀所夢精進安	善	
135	꿈 꾸었던 것을 관하면 길하고 이로워짐	觀所夢爲吉利	善	
136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면 속히 여윌 수 있음	觀障亂速得離	善	
137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면 점차로 여윌 수 있음	觀障亂漸得離	善	
138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여도 여의지 못함	觀障亂不能離		惡
139	장애와 혼란스러운 일을 관하면 일심으로 없앴	觀障亂一心除	善	
140	어려운 일을 관하면 속히 해탈할 수 있음	觀所難速得脫	善	
141	어려운 일을 관하여도 오래되어야 벗어날 수 있음	觀所難久得脫		惡
142	어려운 일을 관하면 슬픔과 고뇌를 받음	觀所難受哀惱		惡
143	어려운 일을 관하여도 정진하여 해탈함	觀所難精進脫	善	
144	어려운 일을 관하면 목숨이 장차 다함	觀所難命當盡		惡
145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크게 조화되지 않음	觀所患大不調		惡
146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사람 아님들이 괴롭힘	觀所患非人惱		惡
147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사람 아님과 화합함	觀所患合非人	善	
148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치료할 수 있음	觀所患可療治	善	
149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치료하기 어려운 것	觀所患難療治		惡
150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정진하여 낫게 함	觀所患精進差	善	
151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오랫동안 괴로워 함	觀所患久長苦		惡
152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도 스스로 장차 낫게 함	觀所患自當差	善	
153	향하여 가는 곳이면 의원이 충분히 고칠 수 있음	所向醫堪能治	善	
154	치료할 곳을 관하면 바로 상대하여 치료함	觀所療是對治	善	
155	먹은 약에서 효력을 얻게 됨	所服藥當得力	善	
156	근심되는 일을 관하면 다 제거하여 나올 수 있음	觀所患得除愈	善	
157	향하여 가는 곳이라도 의원이 고치지 못함	所向醫不能治		惡
158	치료해야 할 곳을 관하여도 상대해 치료하지 못함	觀所療非對治		惡
159	먹은 약에서 효력을 얻지 못함	所服藥不得力		惡
160	근심되는 일을 관하여 목숨이 장차 다함	觀所患命當盡		惡
161	지옥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地獄道中來	善	
162	축생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畜生道中來	善	
163	아귀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餓鬼道中來	善	
164	아수라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阿修羅道中來	善	
165	인간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人道中而來	善	
166	하늘의 세계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天道中而來	善	
167	속가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在家中而來	善	
168	출가로부터 벗어나오게 됨	從出家中而來	善	
169	일찍이 부처님을 만나 공양하며 지내오게 됨	曾值佛供養來	善	
170	일찍이 몸소 현성에게 공양하며 지내오게 됨	曾親供養賢來	善	

過去果報
(11)

171	일찍이 심오한 법을 얻어 듣고 지내오게 됨	曾得聞深法來	善		未來果報 (18)
172	몸을 버리고 나면 지옥에 빠지는 것	捨身已入地獄		惡	
173	몸을 버리고 나면 축생이 됨	捨身已作畜生		惡	
174	몸을 버리고 나면 아귀가 됨	捨身已作餓鬼		惡	
175	몸을 버리고 나면 아수라가 됨	捨身已作阿修羅		惡	
176	몸을 버리고 나면 이의 세계에 태어남	捨身已生人道	善		
177	몸을 버리고 나면 인간의 왕이 됨	捨身已爲人王	善		
178	몸을 버리고 나면 천상의 세계에 태어남	捨身已生天道	善		
179	몸을 버리고 나면 천상의 왕이 됨	捨身已爲天王	善		
180	몸을 버리고 나면 심오한 법을 들음	捨身已聞深法	善		
181	몸을 버리고 나면 출가할 수 있음	捨身已得出家	善		
182	몸을 버리고 나면 거룩한 스님을 만남	捨身已值聖僧	善		
183	몸을 버리고 나면 도솔천에 태어남	捨身已生兜率天	善		
184	몸을 버리고 나면 깨끗한 불국토에 태어남	捨身已生淨佛國	善		
185	몸을 버리고 나면 부처님을 찾아뵈게 됨	捨身已尋見佛	善		
186	몸을 버리고 나면 하승에 머물	捨身已住下乘	善		
187	몸을 버리고 나면 중승에 머물	捨身已住中乘	善		
188	몸을 버리고 나면 과증을 얻음	捨身已獲果證	善		
189	몸을 버리고 나면 상승에 머물	捨身已住上乘	善		

이러한 과보의 차별은 과거, 현재, 미래와 선·악을 구분하여 교육적 체험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160가지 현재과보 가운데 선업이 96가지, 악업이 64가지로 선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을 잘 보아야 한다. 과거의 과보 11가지는 모두 선이다. 즉 인간의 모습을 얻은 것은 과거의 선업을 통해 인간의 모습을 얻었기 때문에 선을 더욱 강조하여 향상일로로 나아가 갈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미래과보는 선이 14가지, 악이 4가지이다.

선악의 차별상은 보드게임의 보드판과 같이 간단히 이름만 쓰는 차원의 1차원적인 보드판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스마트폰에서 구현할 수 있는 점찰법회를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할 경우에는 각각 2D, 3D 애니메이션으로 개발하여 하나하나의 선악의 차별상이 훌륭한 교육교재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할 수도 있다.

예컨대 성불도놀이판을 사례로 들 수 있다. 성불도 놀이는 육도윤회를 벗어나 등각, 묘각, 대각의 깨달음의 세계로 이르게 되는 이치를 이해시키고, 염불정진(念佛精進)을 권장하여 신심을 고양시키는 불가의 전래 놀이이다. 나무아미타불을 쓴 주사위 3개를 만들어 나무아미타불 염불을 하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대중도 함께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한다.

각각 주사위에 따라서 인간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옮겨 가는 놀이다. 특히 보드게임 <성불도 게임>이 불교박람회에서 선보여 호평을 받은 것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림 3> 성불도 놀이(원각사 소장)



<그림 4> 보드게임 <新 성불도 게임>

여기에서 『점찰경』의 189가지 삼세과보 선악의 차별상은 기본적인 인간사의 모습이다. 체험형 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예컨대 감로도와 같은 경우는 3단의 구도로 중앙 아래 부분에 아귀가 중심이고, 하단의 지옥의 고통을 받는 중생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중단의 우란분재의 공양과 추선으로 감로의 즐거움을 얻고 인로왕보살의 인도를 받아 반야용선을 타고 상단의 불보살님들의 보살핌을 입어서 아미타불의 극락정토로 왕생하는 구도이다. 흥천사 감로도의 하단부분에는 근대의 일상이 그려져 있다. 근대식 재판, 교복입고 학교폭력을 휘두르는 모습, 대장간의 소년공, 해전과 전투기가 나는 전장, 전선을 점검하는 전기공, 근대식 거리의 일상이 그려져 있다. 시대적 변천의 상황이었던 근대적 일상을 고통스러운 삼악도의 범주로 수용하여 중단의 재의식으로 극락세계에 도달하려는 능동적인 수용이라고 본다.²¹⁾ 이처

럼 근대불화에서도 시대적 인식과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림 5> 흥천사 감로왕도 부분(하단), 스님들의 공양의식 아래 전쟁 장면

또한 점찰법회의 도량을 장엄하여 공양거리를 준비하는데, 갖가지 향·꽃·영락(瓔珞). 당기(幢)·번기(幡)·일산과 온갖 보배로 된 미묘한 꾸미개·여러 가지 음악·등축·음식·의복·침구·탕약, 나아가 시방에 있는 갖가지 장엄에 필요한 공양 거리 등을²²⁾ 준비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맞는 공양거리를 준비하고 사진, 음향, 음원, 동영상 등의 자료를 채취하여 디지털화가 진행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반드시 품질의 기준과 품질보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급변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되도록 최신 기록매체와 확장성을 고려해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21) 고병철, 「일제하 한국 불교의 근대성 수용 방식」, 『한신인문학연구』 4, 2003, p.95.

22) 『占察善惡業報經』(大正藏17, 902b), “有一切種種香華、瓔珞、幢幡、寶蓋、諸珍妙飾、種種音樂、燈明、燭火、飲食、衣服、臥具、湯藥, 乃至十方所有一切種種莊嚴供養之具.”

Ⅲ. 점찰법회 체험형 콘텐츠화 방향

1. 체험경제요소를 통해 본 점찰법회 가치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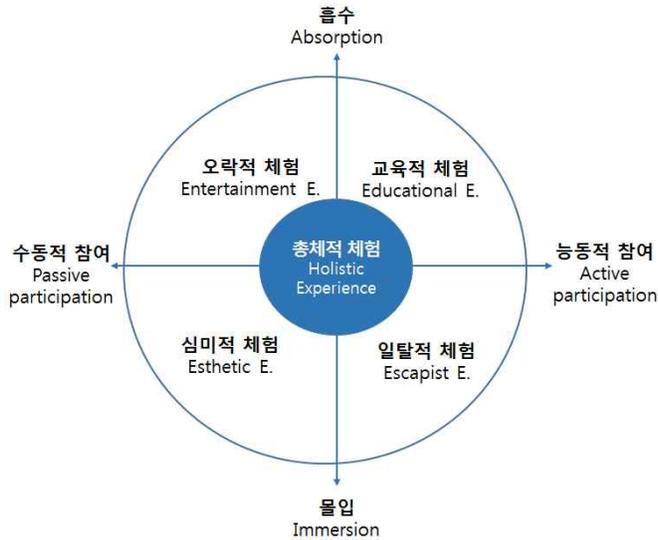
문화산업 영역에서는 문화를 매개로 정서와 체험을 제공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경쟁우위를 통해 차별화되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매자가 재화를 지불하고 자신이 원하는 정서와 경험을 구매하는 것이 관광산업의 영역에 속하고, 문화적인 체험과 공연 관람과 같은 경우는 문화산업의 영역이다. 종교적인 체험도 재화가 개입이 된다면 세속적인 경제활동의 틀에서 논의될 수 있다.

Pine과 Gilmore(1998)는 소비자가 생산 또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얻게 되는 경험을 체험이라고 하였다. 이 체험의 영역을 고객 참여(customer participation)와 연관성(connection)이라는 틀을 기준으로 4가지 요소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고객 참여는 공연(performance) 등에 참여하는 적극성을 기준으로 수동적,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고, 연관성은 환경과의 관계(environmental relationship)를 토대로 흡수와 몰입을 축으로 구분하였다.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 등 4가지 체험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최근 문화관광축제장에서 축제 방문객의 체험만족의 정도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의에 따르면²³⁾, 체험경제의 영역에서 교육적, 오락적, 심미적, 일탈적 체험 순으로 그 중요도가 부각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불교의 종교 활동의 영역에서 그 예를 함께 들어보고자 한다.

오락적 체험(Entertainment Experience)은 즐거움을 제공하는 것 흥미와 재미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대부분의 여가활동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대부분 감각적 쾌락을 이끌어내는데, 수동적인 참여를 흡수해내는 것으로 감각기관

23) 용석홍, 박철호, 한수정, 「문화관광축제의 체험경제요소, 체험만족, 행동의도간의 관계 연구. : Pine과 Gilmore의 체험경제이론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31-2(한국관광레저학회, 2019), pp.161-169.



<그림 6> 4가지 체험요소(Pine & Gilmore)

즉, 오근(五根)의 즐거움과 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산사음악회, 뮤지컬이나 연주회, 음악회 등의 관람형의 상품을 소비하여 즐거운 쾌락과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교육적 체험(Educational Experience)은 개인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몰입을 유도하는 특성이 있다. 교육적인 체험을 통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효과를 가지게 된다. 특히 사찰의 불교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불교는 물론 일반적인 지식 또는 기술의 습득과 관련한 체험을 이끌어 내는 활동을 말한다.

일탈적 체험(Escapist Experience)은 능동적으로 참여(active participation)를 통해 몰입(immersion)하는 체험인데, 대표적으로 테마파크나 놀이동산과 같이 일상적인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에 몰입하는 경우이다. 롯데월드나 오락용 시뮬레이터 가운데 요즈음의 4D라이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템플스테이와 같이 산사에서의 체험은 일반적인 경험과 다른 영역의 체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심미적 체험(Esthetic Experience)은 수동적인 참여를 통한 몰입의 영역으로 물리적

환경이나 공간 등에 대한 소비자의 수동적 경험을 통해 느끼는 미적 감각을 체험하는 요소이다. 즉 여행지나 특정한 공간의 분위기에 매료되어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점찰법회에서 오락적 체험은 목련을 던져서 점을 보는 행위에 달려있다. 이는 중생들의 즐거움을 이끌어내고 대중적인 경험을 이끌어내는 요소이다. 이 오락적 체험은 개인에서 집단으로 이끌어 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점찰법회와 같은 공동의 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교육적 체험은 『점찰경』에서 제시하는 선악의 행위에 따른 과보의 차별을 보게 하고 그 차별상의 원인인 업은 조건 지어진 것이므로 이는 우리의 주체적인 노력(참회와 염불 수행, 선업 등)을 통해 극복하고 그 길을 이끄는 법사의 인도로 함께하는 과정에 불교의 가르침과 세계관을 확장하는 신앙과 교육의 과정이 담겨있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생활, 삶의 터전에서 벗어나 정갈한 장소인 사찰에서 법회를 하고, 또한 사찰과 같은 공간이 아니라면 도량청정과 장엄을 통해 일상에서 벗어나 지장신앙의 경험에 몰입하게 되는 체험을 이끌어 낸다.

심미적 체험은 점찰법회를 설행하는 과정에서 법회 공간의 장엄요소 즉 지장보살상이나 불화, 향과 꽃 촛불 등의 불교적 정서와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체험을 이끌어 낼 수 있다.

Pine과 Gilmore(1998)의 체험경제적 요소는 소비자들에게 체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하고 있다.²⁴⁾ 체험을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테마(theme)로 체험의 기본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꼽는데, 스토리텔링을 통해 이야기 거리를 제공하고 몰입과 소비자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게 한다. 둘째는 긍정적 단서(positive cues)와 인상(impression)의 조화가 필요한데, 소비자에게 각인시킬 인상을 미리 계획하고 단서를 준비한다. 여기에는 시간과 공간, 기술과 진정성 및 규모 등을 통해 정리해 낸다. 셋째 부정적 단서(negative cues)의 제거가 필요하고 넷째 기념품(memorabilia)을 통해 기억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24) 송학준, 「2012 여수엑스포 방문객의 체험이 지각된 가치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호텔경영학연구』 22-6, 2013.

수단으로 삼으며, 다섯째 오감을 통한 몰입(engage in all five senses)이 필요하다는 등 5가지의 체험디자인 원칙을 제시하였다.²⁵⁾

이러한 요소를 점찰법회에 투영하면 첫째 점찰법회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점찰법회의 진표율사의 이야기, 점찰법회의 과정과 효능에 대한 이야기 및 선악의 차별상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하다. 둘째 점찰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심리적인 효능과 긍정적인 단서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선악업에 따른 우리의 불행 즉 길흉화복은 조건 지워진 것[緣起]이므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의 굴레에 빠져있다는 부정적이고 겁악한 생각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점찰법회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문화상품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점찰법회에서 재미, 몰입, 놀라움이라는 지각요소를 결합한²⁶⁾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개발이 필요하다.

2. 메타버스와 체험형 콘텐츠를 위한 체험요소

2010년 이후부터는 가상현실, 증강현실 기반의 첨단 기술이 확산되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역사문화 콘텐츠들이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백제 금동대향로, 경주 황룡사 복원, 석굴암 등 고대의 역사문화콘텐츠들이 지자체의 축제나 이벤트와 결합하면서 지역의 브랜드화와 관광객유치의 수단으로 매우 경쟁적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기존의 VR 콘텐츠들은 고대사 영역에서 주로 제작되었다. 이는 체험콘텐츠의 수요가 많은 것은 빈약한 사료로 인한 역사적 상황을 상상력에 의해 복원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²⁷⁾ 그런데 하나의 문화유산, 유적을 대상으로 하는 콘텐츠는 정보제공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25) 김용훈, 「체험경제시대의 템플스테이의 관광만족에 대한 연구」, 『불교학보』 60, p.332.

26) 추승우, 「체험경제이론을 기초로 한 고객 체험품질 향상을 위한 체험마케팅 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관광레저연구』 29-4, p.19.

27) 최희수, 「체험형 역사콘텐츠와 한국고대사 -역사적 상상력의 제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 연구』 84, 2016, p.211.

지금까지 가장 성공적인 역사문화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꼽는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²⁸⁾의 경우를 살펴보자. 석굴암의 제작과정과 구조적 특성들이 관람객의 눈높이에서 벗어나 다양한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석굴암이 지니는 신앙적 가치 체계적 특성과 당시 신라인들이 예불을 올리면서 느꼈을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과 경외감 등은 체험요소에서 배제되어 있다.²⁹⁾

체험형 콘텐츠는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고, 느낄 수 없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복원을 넘어 역사적 상상력과 체험요소가 담겨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틀로 메타버스(metaverse)를 제안하고자 한다. 메타버스는 다차원의 우주를 말하는데, 1992년 닐 스티븐슨(Neal Stephenson)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유래한 개념이다.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이나,³⁰⁾ 생활할 수 있는 가상세계를 말한다. 즉 실생활과 같이 사회,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는 가상현실공간이다.³¹⁾ 메타버스의 세계는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되는데, 증강(Augmentation)과 시뮬레이션(Simulation) 사이의 축과 내재적 요소와 외재적 요소 사이의 축으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있다.³²⁾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은 현실공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어서 2D 또는 3D로 구현된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사람들에게서 적은 거부감으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다.³³⁾ 사용자가 단말기를 통해 금산사를 촬영하면 미륵전에 미륵전의 설명이나 사전에 구축된 정보를 체험하여 현실에 영역에 정보를 덮어씌우는 것을 말한다.

28) 석굴암 HMD 트래블 체험관

<http://indigoent.com/projects/2015-seokguram-hmd-experience/> (2019.10.8. 검색)

29) 최희수, 위의 논문, p.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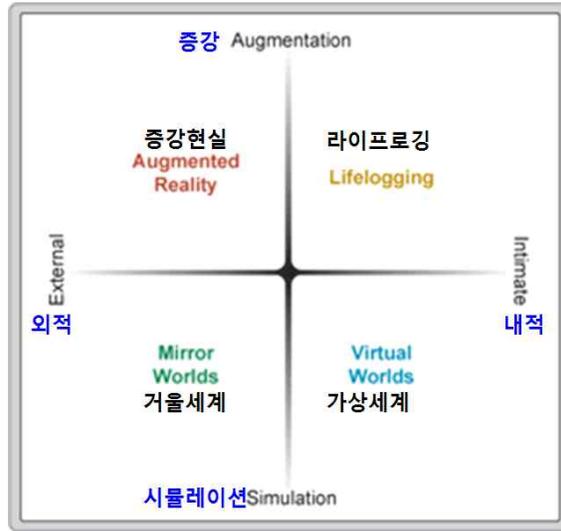
30) 서성은, 「메타버스 개발동향과 발전전망 연구」, 한국 HCI 학술대회, 2008, p.1451.

31) 류철균·안진경, 「가상세계의 디지털 스토리텔링 연구」, 게임산업저널 2007년 1호, 2007, p.33.

32) John Smart·Jamais Cascio·Jerry Paffendorf, 「Metaverse Roadmap」, A Cross-Industry Public Foresight Project, 2007.

<http://www.metaverseroadmap.org/MetaverseRoadmapOverview.pdf> (2019.10.8. 검색)

33) 김한철 외, 「메타버스에 기반한 차세대 U-Biz 고찰」, 『Samsung SDS Journal of IT Services』 6-1, p.180.



<그림 7> 메타버스(Metaverse)의 4가지 범주

라이프로깅(Lifelogging)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이다. 센서가 부착된 스마트 워치를 통해 나의 생체정보와 활동 정보가 저장되고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

거울세계(Mirror Worlds)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³⁴⁾ 가상세계이다.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같이 전세계 위성 사진을 업데이트하여 시시각각 극적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가상세계(Virtual World)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³⁵⁾ 아바타를 통해 현실과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른 세계를 체험하는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된 세계이다.

증강현실을 이용하여 신라 때 진표율사의 금산사 창건과 점찰법회를 설행하는 모습을 금산사에 투영하여 관람객들이 금산사에서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과거의 점찰법회 모

34) John Smart·Jamais Cascio·Jerry Paffendorf, 위의 글, p.7.

35) 배경우, 「모바일을 매개로 한 미래월드, 현실공간 연동 서비스 디자인」, 아주대학교대학원, 2010, p.2.

습을 볼 수 있다.

라이프로깅은 목련의 용도와 주요한 사용자, 진표율사의 간자 등의 요소를 체험하고 각 목련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할 수 있다.

거울세계는 역사적 추이에 따라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반영한 점찰법회와 금산사의 사찰 영역과 불사의 변화 양상을 투영하여 살펴볼 수 있다.

가상세계는 신라 점찰법회를 복원하여 진표율사가 되어 본다면, 캐릭터를 통해 전찰을 선행하고 각 선악의 차별상에 따른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험형 콘텐츠의 제작은 반드시 콘텐츠에 담긴 종교적인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고증해 낼 수 있는 각각의 체험요소의 반영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불교학자, 역사학자를 비롯한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메타버스의 유형과 점찰법회의 체험의 요소를 도표로 정리해보자.

<표 4> 메타버스 유형과 점찰법회 체험요소

메타버스	점찰법회 관련 내용	예시	체험요소
증강현실	금산사 디지털 복원 및 목련 사용	금산사에 진표율사 점찰법회 선행을 투영	현재 존재하지 않는 요소를 체험
라이프로깅	관련 인물의 하루 일상과 목련의 용도에 따른 활용	진표율사의 하루/점찰행자의 참회 일상	신분별 일상체험 및 기능과 역할의 이해
거울세계	신라, 고려, 조선 시대를 반영한 점찰법회 선행	신라, 고려, 조선시대 금산사	시대별 점찰법회 사찰의 공간 구성과 변화상
가상세계	신라 점찰법회 복원, 캐릭터를 통해 점찰을 선행	금산사 잔표율사 점찰법회 복원	신분별 역할체험, 캐릭터를 통한 체험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점찰법회의 선행 공간에서 지장신앙의 체험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지장보살상 또는 지장보살화를 단순히 재현하여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데 그치지 않고 지장보살 신앙의 체계를 입체적으로 조망하여³⁶⁾

36) 한태식(보광), 「지장사상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15, 2011. 참조.

콘텐츠 개발의 토대를 마련한다. 죄업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해탈시키겠다는 본원을 세운 지장보살의 캐릭터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것과 지장보살의 세계, 점찰법회가 설행되는 공간을 콘텐츠화하는데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이 필요하다. 밝고 어두운 조명, 다양한 기쁨과 괴로움의 은유적인 표현, 무섭고 즐거움에 대한 음향 등의 고려를 통해 선악의 메타포를 확장할 수 있는 배경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IV. 맺는말

불교의례는 불교의 종교적 특징을 나타내고 실천하는 공동체의 종교문화적 표현양식과 역사적 사회적 소통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는 의미적, 심미적, 유희적 기능을 모두 담고 있다. 붓다의 가르침의 실천과 그 경험의 체득을 통해 붓다의 세계로 나아가는데 불교의례라는 프리즘을 통해 불교 공동체는 모든 시간, 공간을 통해 다양한 생명과 화해와 소통한다.

점찰법회는 그러한 불교의례 가운데에서도 말법시대의 중생들에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비로움을 점치는 대중적인 행위를 통해 선악의 차별상으로 보여주고 그 진실을 여실히 알게 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을 제공하여 청정한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

점찰법회는 『점찰선악업보경』에 근거하여 말법중생에게 목류상법(木輪相法)으로 과거세의 선악업과 현재의 고락과 길흉을 점쳐서 살피게 한다. 선악업의 본질을 알게 하고 불과 참회를 통해 고통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본 논의에서는 점찰법회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단계적 방법과 범위를 제안하였다. 첫째, 기획의 단계에서 전문가집단의 참여가 필수적이고, 둘째, 1차적으로 기본이 되는 원천 자료를 채취는 활용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셋째,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점찰법회의 신앙적 의미와 맥락이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점찰법회의 준비, 설행, 회향 등의 전 과정에서 다양한 포맷으로 플랫폼 별 확장성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여기에서 점찰경의 점찰하는 세 가지 방법을 입체적으로 비교하였고 189가지 삼세 선악의 차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성불도 놀이와 같은 보드게임의 사례를 도입할 수 있다.

점찰법회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Pine과 Gilmore가 제안한 체험의 네 가지 요소인 오락적 체험, 교육적 체험, 일탈적 체험, 심미적 체험에 착안하여 이에 따라 점찰법회의 체험요소를 제안하였다. 점찰법회에서 오락적 체험은 목련을 던져서 점을 보는 행위에서 재미있는 체험적 요소를 이끌어 내고, 교육적 체험은 불교 선악의 차별상과 이를 극복하는 가르침과 세계관을 확장하게 한다. 일탈적 체험은 일상을 벗어난 도량에서 청정과 장엄을 통해 지장신앙에 몰입하는 계기를 주며, 심미적 체험은 점찰법회 설행 과정에서 법회 공간의 장엄요소에서 불교적 정서와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체험을 상품화하는 방향으로 첫째 점찰법회의 구성요소와 관련한 스토리텔링, 둘째 점찰법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심리적인 효능과 긍정적인 단서를 준비하며, 셋째 선악업은 극복될 수 있다는 부정적 단서를 떨치고, 넷째 점찰법회를 상징하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문화상품으로 개발하며, 다섯째 점찰법회의 오감만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구성요소의 개발이 필요함을 밝혔다.

점찰법회를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하여 역사적 상상력과 체험요소가 담겨져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틀로 메타버스(metaverse)를 제안하였는데, 증강현실, 라이프로그,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이다. 이에 따라 점찰법회와 관련한 내용과 체험요소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점찰법회의 설행 공간에서 지장신앙의 체험을 이끌어 내는 콘텐츠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논의를 통해 불교의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점찰법회의 가치와 의미가 확산되어 지장신앙의 체험의 영역에 접근하는데 이바지하길 바란다. 점찰법회가 체험형 콘텐츠로 개발되어 누구나 쉽게 삶의 선악의 차별상의 본질을 알고 고통에서 벗어나 지장보살의 대자비의 세계에 다가가길 기대해 본다.

「점찰법회의 체험형 콘텐츠 개발 전망」의 논평문

한상길 -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과학문명이 급속히 발전해가는 현대사회에서 각종의 다양한 점술문화가 확장하고 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우울함을 벗어나기 위해 이들 점술에 다가간다. 막연한 기대감이라도 가져보려는 심리가 상업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재미삼아 해본다.”는 가벼운 마음이겠지만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었고, 산업으로서의 규모가 계속 확대 추세에 있다. 사주·명리학·역학의 고전적 형태에서 서양의 점성술, 타로카드, 칼라카드 등 생소하고 낯선 문화가 곳곳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이 대학의 사회교육기관, 평생교육원 등에서도 여러 관련 강좌를 운영하고 있다.

불교의 점찰신앙은 전생과 업보, 참회와 수행이라는 일련의 교리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점복에 그치지 않고 참회와 성찰, 수행을 통한 불법의 실천을 강조한다. 이러한 신앙적, 사상적 토대에서 점찰법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가 이 논문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이견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다. 다만 점찰법회의 현대적 개발과 보급, 정착을 통해 포교의 새로운 분야가 열리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두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1. 점찰법회와 생전예수재

점찰법회는 지장신앙을 토대로 한다. 알다시피 지장신앙은 우리나라 불교신앙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널리 신앙되고 있다. 지장신앙을 모티브로 하는 대표적 의례가 생전예수재이다. 생전에 미리 명부시왕전에 복을 쌓음으로써 죽어서 명부의 시왕을 만나 극락에 갈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신앙적 근거에서 출발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년월일에 따라 저마다 살아 있을 때 갚아야 할 빚을 지고 있고, 이를 예수재를 통하여 갚는다는 것이다. 여기서 빚이란 불교경전을 읽어야 할 빚과 돈 빚이다.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경전을 읽고 보시를 하여야 한다. 경전을 읽는 것은 예수재를 올리는 것으로 가능하고, 보시는 지전(紙錢)을 사는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빚을 갚으면 영수증과 같은 징표를 받아 그 한 조각을 불사르고 남은 조각은 간직하였다가 죽은 뒤에 가지고 가서 시왕전에 바친다. 이 징표는 죽은 뒤에 명부시왕을 만났을 때에 빚을 갚았음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다.

이와 같이 예수재는 단순하고 간결한 구조를 지닌다. 오늘날에도 여러 사찰에서 성행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즉 현대인들의 직관적, 즉시적 욕구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구조이다. 그런데 점찰법회는 예수재와 많이 다르다. 점찰, 즉 점을 치기 전에 반드시 참회수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의 일상에서 자신의 업보를 참회, 수행해야 하는 구조는 점찰법회의 콘텐츠를 현대화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점찰신앙의 구조와 절차를 콘텐츠화 하는 과정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발표자의 생각을 듣고 싶다.

2. 점찰법회와 『관음영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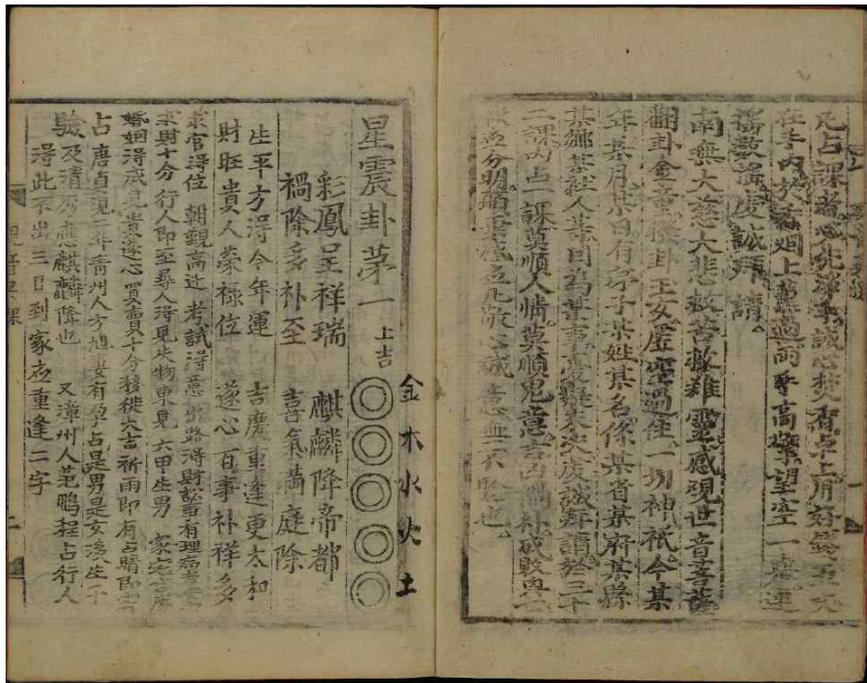
필자가 설명한 점찰법회와 성불도 놀이는 공통적으로 점복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불교문화에서 특이한 점복신앙 사례가 『관음영과(觀音靈課)』이다. 이 책은 중국 관음신앙에서 유래한 점복서로서 32개의 점괘를 풀이하고 있다.

점괘를 얻는 방법은 먼저 손을 씻고 분향한다. 한 면에 목·화·토·금·수의 오행(五

行)을 표기한 동전 다섯 개를 손에 쥐고 성심으로 ‘나무대자대비구고구난영감관세음보살 (南無大慈大悲救苦救難靈感觀世音菩薩)’이라 기도 축원한다. 동전을 차례로 던져 나온 괘를 가지고 길흉을 판단하게 된다. 괘의 결과에 따라 인생의 길흉화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상길(上吉)·중길·하길 등으로 점괘를 설명한다. 점괘를 금·목·수·화·토의 오행에 따라 표시하고, 점괘의 개요를 오언절구로 설명하고 칠언절구로 그 길흉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생활상의 주요 관심대상을 구관(求官)·모사(謀事)·질병 등 18종으로 분류하여 4언1구로 이들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다.

현재 18세기 화엄사 간행본이 전하므로 조선후기에 이 관음참법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점을 칠 때의 점괘 형태가 도판에 그려져 있고, 사용했던 목제 점괘와 주머니가 함께 남아 있어 불교 점찰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관음영과」와 점괘, 원각사 소장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프로그램

- 템플스테이와의 접목을 중심으로 -

최현주 _ 동국대학교 미래융합교육원 강의교수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占察善惡業報經』의 등장과 한국 전개

III. 『占察善惡業報經』의 점찰사상과 윤상법

IV. 윤상법을 활용한 포교프로그램
(템플스테이와의 접목을 중심으로)

V.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본 연구자는 『占察善惡業報經』의 사상이 현대적 포교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응용할 가치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占察善惡業報經』의 내용에는 그동안 살아온 자신의 업을 돌아보고 현재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하는 가르침이 있다. 특히 인과법칙 속에서 현실을 통찰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경전이라는 점에서 현대적인 시의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점찰법의 사상적 토대가 되는 『占察善惡業報經』의 내용을 마음챙김과 결부시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응용한다면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전제 속에서 불교 포교의 방편적인 효과로 유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자 하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자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는 살아가면서 겪는 실존적인 문제들의 고통과 막연한 인생의 고민으로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통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는 통계청의 기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자 수는 1만 3,092명으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평균의 약 2.5배 수준이며, 14년 동안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 중이며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자살 동기는 경제문제나 생활문제(26.0%)도 있지만 정신적 문제(28.0%)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 이러한 정신적인 문제의 확산은 사실 실존적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대의 발전으로 산업화, 자본주의, 민주주의, 대도시화, 핵가족화 및 다문화의 시대를 넘어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하는 시대에 사는 우리의 가치관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중문화 매체의 급속한 발달을 가져왔고, 이는 물질만능주의와 상업주의 그리고 성공 위주의 신화로 인간의 존엄성을 왜곡하고 은폐하며 위협하고 금전

1) 통계청 <http://www.kostat.go.kr/>, KOSIS 통계표(사회조사보고서, 2014).

적 성공만으로 개인의 가치를 정하게 된 현실에 놓이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사회 속에서 현대인들은 자존감에 상처를 받고 삶의 공허를 느끼며 좌절하고 무의미하게 살고 있다. 자신만의 고유한 삶에 대한 자각 없이 대중매체를 통한 인기로 삶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추종하며 입시지옥, 치열한 경쟁, 취업난, 빈부의 격차, 경제악화, 자연재해, 인재난등으로 상대적 불안감과 빈곤감을 느끼며 불안과 소외 등 정신적 고통으로 트라우마가 늘어나는 위기의 시간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치유프로그램을 찾고, 만들고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완전한 자기 이해를 돕는 데에는 한계 상황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占察善惡業報經』의 내용에는 인간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알게 해주고, 그러한 삶의 고통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전의 중요한 특징인 점찰의 방편활용과 참회수행이 현대적 포교프로그램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영역에서 실존적 체험치료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특히 『占察善惡業報經』이 강조하는 윤상법을 중심으로 점찰사상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의미를 제공해 줄 수 있으며, 프로그램으로 응용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II. 『占察善惡業報經』의 등장과 한국 전개

1. 『占察善惡業報經』의 등장과 전래

『점찰경』의 찬술과 유포는 6세기 말에서 전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데, 내용이나 서술 방식 면에서 僞經으로 보며, 대략 550년대 찬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렇다면 『점찰경』도 550~590년대 사이, 대략 陳末隨初에 찬술된 것으로 볼 수 있겠

다.2)

『占察善惡業報經』이 유포되고 실천되던 6세기 중기 이후는 참법(懺法)이 유행하던 시기라는 점, 그리고 지장신앙을 중시하던 삼계교와의 관련 점에서 볼 수 있다. 초기 불교의 자자와 포살에서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는 참법은 특히 중국에서 남북조의 양무제(재위 502~549년)의 『자비도량참법』의 발간 이후로 청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참법 문헌이 나타나는 중요한 수행 형태의 하나이다. 양의 무제의 『마하반야참문』, 『금강반야참문』, 간문제(簡文帝)의 『열반참문』, 『육근참문』, 『회고만문』, 심약(沈約)의 『참회문』 등의 참회문 역시 이 시기 이후 유행한다.3)

이 시대에 이렇게 참법이나 참회문 등이 나타난 이유로는 중국불교 특유의 응보신앙과 남북조 시대의 전쟁 등, 불안한 정치사회상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4) 그러므로 『占察善惡業報經』은 중국 특유의 응보신앙 속에서 점술과 참법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으로 6세기 중반 이후에 이 경전이 유포되고 실천되었다는 것은 다분히 같은 시기의 참법의 유행과 깊은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영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이 경전의 국내 전래와 전개에 관련된 사료들을 정리5)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신라 진평왕 시대에 『占察善惡業報經』의 실천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원광이 점찰보를 세운 것은 중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아마 613년 이후의 일일 것이다. 앞서 주장한 것처럼 『占察善惡業報經』이 6세기 중반 이후에 편찬된 경이라면 중국과 약 50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우리나라에도 『占察善惡業報經』이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占察善惡業報經』은 주지하다시피 지장신앙과 관련이 깊은 경전

2) 박미선, 『신라 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윤회 의식』, 혜안, 2013, p.42.

3) 廣弘明集(T52), p.330c, “廣弘明集悔罪篇第九 謝勅為建涅槃懺啟(梁簡文) 六根懺文(梁簡文) 悔高慢文(同上) 懺悔文(沈約) 陳群臣請 隋武帝懺文(江總一名沈約) 陳梁皇帝依經悔過文(十首)”

4) 김종근, 『자비도량참법』의 수행체계 연구, 『불교학연구』 33호, 불교학연구회, 2012, p.403.

5) 김영태, 『新羅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 研究』, 『불교학보』 9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1972, pp.990-135. ; 김영태, 『占察法會와 眞表의 教法思想』, 『新羅佛敎研究』, 민족문화사, 1986, pp.381-403. 김영태는 『삼국유사』에 나타난 점찰관계 사료를 점찰법회와 점찰교법 관련 두 부류로 분류하였는데, 본 연구는 『占察善惡業報經』의 전파에 관련 깊은 진표의 전기류, 고려조의 기록을 포함하여 4부류로 분류하여 대략적인 시대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이다. 국내의 지장신앙의 전래 관련 자료는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없고 단지 일본 자료에 백제 위덕왕(威德王) 24년(577년)에 백제에서 지장상을 일본에 보낸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위덕왕의 아버지인 성왕(재위 523~554)대에 이 존상이 만들어졌다고 한다.⁶⁾ 이런 점에서 6세기 초중반에 이미 지장신앙이 백제에 있었음이 확실하다. 그러나 『占察善惡業報經』의 경전 전래와 실천의 유무는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占察善惡業報經』의 출현을 6세기 중반 이후로 본다면 만약 백제에 지장 신앙이 이미 있었다 하더라도 『占察善惡業報經』의 전래는 신라보다 조금 빠르거나 거의 비슷한 시기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신라의 예를 통해 대략적인 우리나라의 『占察善惡業報經』의 전래와 실천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2. 진표율사와 점찰법회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원광이 가장 먼저 『占察善惡業報經』의 실천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占察善惡業報經』의 전개는 백제의 유민이었던 신라 진표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진표의 전기는 3종이 있는데 북송 태종단공(太宗端拱) 원년(988)에 찬녕(贊寧)이 지은 『송고승전』 권14, 「백제국금산사진표전」이다. 그 다음이 고려승 영잠(瑩岑)이 고려 신종 2년(1199)에 지은 「관동풍악산발연수진표율사진신골장입석기명(關東楓嶽山鉢淵藪眞表律師眞身骨藏立石記銘)」(이후 「입석기명」으로 표기)으로 이것은 아래의 진표전간에 포함되어 있다. 또 하나가 일연이 충렬왕 6년(1280)에 지은 『삼국유사』 권4, 「진표전간」이다. 각 기록에는 행적은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연대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그의 행적을 정확히 복원시키고 있지 못한 형편이지만 대략적 활동 시기를 경덕왕(재위 742~765)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⁷⁾ 그런데 진표가 전라도 만경

6) 김영태, 「지장신앙의 전래와 수용」,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장신앙의 재조명』, 운주사, 1991, pp.38-39.

7) 이것은 진표전간을 따랐을 경우이다. 만약 입석기명을 따른다면 해공왕(재위 765~780)이 될 것이다. 그의 스승 승제가 당의 선도에게 배웠다는 내용과 『송고승전』에 진표의 출가 시기가 개원연간(713~742)이라 한 점을 생각하면 진표전간의 연대가 좀 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현에서 출생한 백제 유민이라는 사실을 세 곳 모두 밝히고 있다. 특히 『송고승전』은 「唐百濟國金山寺真表傳」⁸⁾이라는 제목을 달아 진표가 백제인임을 말해 주고 있다. 「진표전간」의 기록에는 신라 성덕왕 17년(718)생이고, 「입석기명」에 따르면 성덕왕 33년(734)생이다. 무엇을 따르더라도 백제의 멸망 이후 반세기 이상 지난 뒤임에도 『송고승전』이 백제국을 표기한 것은 백제를 신라의 땅이 아니라 당이 복속한 국가로 생각한 소이도 있으려니와 아마도 이는 진표와 백제 사이의 관계가 깊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진표전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진표는 법사의 말을 듣고 이름난 산을 두루 유람하다가 선계산(仙溪山)의 불사의암(不思議庵)에 머물면서 삼업(三業)을 닦아 망신참법(亡身懺法)으로 계를 얻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처음 7일 밤을 기한으로 온 몸을 돌에 쳐서 무릎과 팔이 부서지고 바위 낭떠러지로 피가 비오듯 하였지만 보살의 감응은 없는 것 같았다. 몸을 버릴 결심으로 다시 7일을 더 잡았는데, 14일째 되는 날 마침내 지장보살을 뵈고 정계(淨戒)를 받았다. 곧 개원(開元) 28년 경진(서기 740) 3월 15일 진시(辰時)였다. 진표의 나이 23세이었다. 하지만 뜻이 미륵보살에 있었기 때문에 중지하지 않고 곧 영산사(靈山寺)[변산(邊山)]이라고도 하고 능가산(楞伽山)이라고도 한다.]로 옮겨 또 처음과 같이 부지런히 용감하게 수행하였다. 그러자 과연 미륵보살이 나타나 『점찰경』 두 권이 경전은 곧 진(陳)나라와 수(隋)나라 사이에 외국에서 번역된 것으로 지금 처음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 미륵보살이 이 경전을 주었을 뿐이다.]과 아울러 증과(證果)의 간자(簡子, 작은 손가락 크기로 만든 점치는 점대로, 점과의 글이 적혀 있다.) 189개를 주면서 말하였다. “그 중 제8간자는 새로 얻은 오묘한 계율을 비유한 것이고, 제9간자는 구족계를 얻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이 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빼이고 나머지는 모두 침단목으로 만들었으니, 여러 번뇌를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 세상에 불법을 전하고 사람들을 구제하는 뗏목으로 삼거라.”⁹⁾

기존 연구는 받아들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남윤, 「진표의 전기 자료 검토」, 『국사관논총』 78, 국사편찬위원회, 1997, pp.85-114. ; 박광연,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pp.1-32 참조.

8) 宋高僧傳(T50), p.793c.

9) 三國遺事(T49), p.1007b, “表聞師之言 遍遊名岳 止錫仙溪山不思議庵 該鍊三業 以亡身懺得戒法 初以七宵為期 五輪撲石 膝腕俱碎 雨血崑崖 若無聖應 決志捐捨 更期七日 二七日終 見地藏菩薩 現受淨戒 即開元二十八年庚辰三月十五日辰時也 時齡二十餘三矣 然志存慈氏 故不敢中止

그런데 「입석기명」에는 그 내용이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순제법사는 사미계법을 전해주고 『공양차제비법(供養次第秘法)』 1권과 『占察善惡業報經』 2권을 전해주면서 말하였다. “너는 이 계법을 가지고 미륵과 지장 두 보살 앞에서 간절히 법을 구하고 참회하여서 친히 계를 받아 세상에 널리 펼치도록 하여라.” 율사는 가르침을 받들고 작별하고 물러나와 명산을 두루 다녔다. 나이가 27세였던 상원(上元) 원년 경자(서기 760)에 쌀 20말을 썬 말려 양식을 만들어서 보안현(保安縣)에 가서 변산에 있는 불사의방(不思議房)에 들어갔다. 쌀 다섯 홉을 하루 양식으로 삼았는데, 그중 한 홉은 덜어서 쥐를 길렀다. 율사는 미륵상 앞에서 부지런히 계법을 구했지만, 3년이 되어도 수기(授記, 부처가 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발분하여 바위 아래로 몸을 던졌는데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동자가 손으로 받들어 바위 위로 올려놓았다. 율사는 다시 분발하여 21일을 기한으로 밤낮으로 부지런히 수도하였다. 돌로 몸을 두드리며 참회했다니 3일 만에 손과 팔이 부러져 땅에 떨어졌다. 7일째 되는 날 밤, 지장보살이 손에 쇠로 된 지팡이를 흔들면서 와서 보호해주자 손과 팔이 예전처럼 되었다. 보살이 마침내 가사와 바리때를 주자, 율사는 그 영험에 감동하여 더욱 더 정진하였다.

21일이 다 되자,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천안(天眼)을 얻었고 도솔천중(兜率天衆)들이 오는 형상을 보았다. 이때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앞에 나타났는데, 미륵보살이 율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하였다. “좋구나, 대장부여! 이처럼 계를 구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간절히 참회하는구나!” 지장보살은 『계본(戒本)』을 주었다. 미륵보살은 다시 간자 두 개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9, 다른 하나는 8이라고 쓰여 있었다. 미륵보살이 율사에게 말하였다. “이 두 간자는 바로 내 손가락 뼈이다. 이것은 시각(視覺)과 본각(本覺) 두 각(覺)을 비유한 것이다. 또 제9간자는 법이고, 제8간자는 신熏成佛種子(新熏成佛種子)이다. 이것으로 응당 인과응보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현세의 육신을 버리고 대국왕(大國王)의 몸을 받아서 후에 도솔천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을 한 후 두 보살은 곧 사라졌으니, 때는 임인년(서기 762) 4월 27일이었다.

위의 두 내용은 모두 진표가 망신참을 통해 지장과 미륵의 양 보살을 만난 것을 기록

乃移靈山寺(一名邊山又楞伽山)又勲勇如初 果感彌力 現授占察經兩卷(此經丹陳[11]隋間外國所譯 非今始出也 慈氏以經授之耳)并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 謂曰 於中第八簡子喻新得妙戒第九簡子喻增得具戒 斯二簡子是我手指骨 餘皆沈檀木造 喻諸煩惱 汝以此傳法於世 作濟人津筏”

하고 있으나 「진표전간」에는 미륵보살이 『占察善惡業報經』과 189간자(제 8, 9간자를 포함)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입석기명」에는 순제(송제)가 『占察善惡業報經』과 『공양차제비법』을 주고 미륵보살이 제8과 9간자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입석기명」은 미륵보살이 진표에게 나중에 대국왕이 된 후 도솔천에 왕생할 것을 수기하는 내용과 「진표전간」에는 나타나지 않는 밀교수행이 나타나고 있다.¹⁰⁾ 위 내용의 망신 참법이란 『역대삼보기』에 나타난 자박법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자박법이란 오체투지의 일종이지만 박(撲)이란 ‘태산이 무너지는 형국’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오체투지가 아니라 몸을 강하게 땅에 부딪히는 형태의 고행이다. 정토종의 대성자인 선도(善導, 613-681)의 제자 회감(懷感, ?~7세기말)은 『釋淨土群疑論』에는 다음과 같이 자박법을 설명한다.

회과(悔過)를 드러내어 모든 죄를 참회함에 오체를 땅에 던지길 태산이 무너질 듯이 하며, 스스로 머리털을 뽑고 몸을 세워 땅에 던져 이리저리 구르며 스스로 두드려 코에서 피가 나면 참회한 죄가 소멸하며 심안이 열려 부처님 색신이 단엄하고 미묘하여 수미산과 같이 빛이 대해에 비춤을 보게 되니, 이것이 어찌 참회경문(懺悔經文)의 자박의 법(自撲之法)이 아니겠는가?¹¹⁾

10) 박광연에 따르면 「입석기명」에 나타난 식사법은 『공양차제비법』의 수의식법(隨意食法)을 따른 것이라 한다.(박광연, 「진표의 점찰법회와 밀교 수용」, 『한국사상사학』 26, 한국사상사학회, 2006, pp.22-24.) 수의식법이란 음식을 4분하여 본존과 자신, 동료와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신라승 불가사의(不可思議)의 『차제식법소』에는 여기에 더하여 “소식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이미 줄인데서 1/3을 조수(鳥獸)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먹는다(節量至幾許 隨已所堪三分留一施諸鳥獸 餘便自食)”(大毘盧遮那供養次第法疏(韓佛全3, p.386ab)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입석기명의 진표의 식사법과 일치한다. 『공양차제비법』은 인도의 밀교승인 당의 선무외(637~735)가 725년 역출한 것으로 선무외의 제자 신라승 의림(義林)과 불가사의(不可思議)가 있었기 때문에 진표전간의 시기를 따르던 입석기명의 시기를 따르던 당시 신라에는 이미 소개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므로 입석기명의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을 가진 내용이라 할 수 있다.

11) 『釋淨土群疑論』(T47), p.76c, “發露悔過 懺悔諸罪 五體投地 如大山崩 自拔頭髮 舉身投地 婉轉自撲 鼻中血出 懺罪消滅 心眼得開 見佛色身 端嚴微妙 如須彌山光顯大海 此豈不是懺悔經文自撲之法”

이런 점에서 진표의 망신참법은 자박법과 유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훗날 그의 제자인 영심(永深), 심지(心地)가 복숭아나무에 떨어지거나 팔뚝과 이마에 피가 흐를 정도로 참회한 후 교법을 전수받는다라는 내용을 볼 때 그 후에도 전통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¹²⁾

그런데 자박법의 수행은 상식적으로도 불교의 정신과 동떨어져 있고, 또 그런 이유로 수나라에서 금지되기도 하였다. 진표는 계율을 중시한 백제불교의 전통을 가진 인물로 『占察善惡業報經』의 참회를 통해 이전의 惡業을 씻고 제 8, 9간자로 상징되는 계법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인간상으로 태어나게끔 불자들을 지도하였다. 계법을 설함으로서 이적을 보여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면하게 했다는 내용¹³⁾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당시의 계법은 단지 도덕적 계율이 아니라 신비적 힘을 가진 불법 자체를 의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다시피 진표는 계율이 강한 백제 미륵신앙의 전통 속에 있었다. 김두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미륵의 설법 내에는 계론이 가장 중요시되었다. 그것은 상생신앙이나 하생신앙이거나를 구별하지 않고, 천중이나 인중을 제도하기 위해 절대 불가결한 것이다. 특히 혼탁한 사회에서 사람들을 제도하여 이상사회를 이끌기 위해 계율은 엄격한 것일 수밖에 없다. 또한 인간이 도솔천에 내왕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계를 지녀야 하는데, 곧 오계와 팔재계와 구족계를 지

12) 『三國遺事』(T49, p.1,008c), “이때 속리산의 대덕 영심(永深)과 대덕 융종(融宗), 그리고 불타(佛陀) 등이 찾아와서 거듭 청하였다. ‘저희들이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와서 계법을 구하오니 법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울사가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세 사람은 복숭아나무에 올라가 거꾸로 땅에 떨어지며 용맹스럽게 참회하였다. 울사는 그제야 교(敎)를 전하고 이마에 물을 뿌리고, 드디어 가사와 바리때, 『공양차제비법』 1권과 『占察善惡業報經』 2권, 간자 189개를 주었다(時俗離山大德永深 與大德融宗佛陀等 同詣律師所 申請曰 我等不遠千里來求戒法 願授法門 師默然不答 三人者 乘桃樹上 倒墮於地 勇猛懺悔 師乃傳教灌頂 遂與袈裟及鉢 供養次第秘法一卷 占察善惡業報經二卷 一百八十九姓.)”; 三國遺事(T49, p.1,009b), “불당을 향해 가만히 예를 올렸는데, 팔꿈치와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으니 예전에 진표 공이 선계산(仙溪山)에서 피를 흘렸던 일과 같았다.(向堂潛禮 肘頰俱血 類表公之仙溪山也)”

13) 三國遺事(T49, p.1,008c), “울사는 이들을 위해 계법을 설하자 사람들이 받들어 지키고 삼보를 지극히 공경하였다. 얼마 후 고성 해변에 무수히 많은 물고기들이 죽어 밀려왔다. 사람들이 이것을 팔아, 먹을 것을 마련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師爲說戒法 人人奉持 致敬三寶 俄於高城海邊 有無數魚類 自死而出 人民賣此爲食 得免死).”

니고 몸과 마음으로 정진하여 十善을 닦아야 한다.¹⁴⁾

망신참회를 통해 계법을 받는 진표는 단지 율사가 아니라 이적을 나타내는 불법의 신비한 힘을 지닌 인물로 추앙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입석기명」에서 보이듯 그가 밀교의 영향을 받은 것에도 기인할 것이다. 백제 유민의 자각을 뚜렷이 했던 그의 민중에 대한 영향력은 당시 신라 왕실에 의해 견제되기도 하였다.¹⁵⁾ 이와 같은 점들을 볼 때 진표는 백제유민으로서 백제 특유의 계율을 강조하는 미륵신앙에 기반을 둔 인물로 계법을 받기 위해 『占察善惡業報經』을 통해 지장신앙과도 연결이 된다. 그러나 그에게 본질적인 것은 고통받는 중생들의 새로운 미륵세계였고 이를 위해 『占察善惡業報經』의 참회와 계법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하는 한 방법으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미륵은 미래불이지만 『占察善惡業報經』의 지장은 석가모니와 미륵을 이어주는 현재 이익의 성격이 강한 보살이기 때문이다.

III. 『占察善惡業報經』의 점찰사상과 운상법

『占察善惡業報經』이 상권에서는 점찰을 통한 참회를 행하고, 하권에서는 여래장의 대승법문을 설하고 있는데, 說主로 지장보살을 등장¹⁶⁾시키고 있다. 지장보살의 역사적 기

14) 김두진, 「백제의 미륵신앙과 계율」, 『백제연구총서』 3권, 충남대백제연구소, 1993, p.74.

15) 조인성, 「미륵신앙과 신라사회」, 『진단학보』 82호, 진단학회, 1996, pp.43-44, “[진표를 계승한]심지(心地)는 헌덕왕의 아들이었다고 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는 민애왕을 위해 세운 동화사 비로암 삼층석탑의 건립을 주관하였던 심지(心智)와 같은 인물로 생각된다. … 그러므로 심지가 불골간자를 얻었다는 것은 경덕왕과 그의 인척들이 진표로부터 계를 받고 많은 재물을 시주하였다는 것과 함께 진표의 신앙운동을 회유하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려고 하였던 신라 왕실의 노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옳다고 생각된다.”

16) 『占察善惡業報經』(T17, p.902a), “此善男子發心已來 過無量無邊不可思議阿僧祇劫 久已能度薩婆若海 功德滿足 但依本願自在力故 權巧現化 影應十方 雖復普遊一切刹土常起功業 而於五濁惡世化益偏厚 亦依本願力所熏習故 及因眾生應受化業故也 彼從十一劫來 莊嚴此世界 成熟眾生 是故在斯會中 身相端嚴 威德殊勝 唯除如來 無能過者 又於此世界所有化業 唯除遍吉 觀世音等諸大菩薩 皆不能及 以是菩薩本誓願力 速滿眾生一切所求 能滅眾生一切重罪 除諸障礙

원은 정설이 없지만 기존 연구에 따르면 아마도 고대 인도의 지신(地神, pṛthivi)에서 파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마나베코사이(眞鍋廣濟)의 연구에 따르면 고대인도의 地神은 대지를 수호하고 재산을 모으고, 질병을 치료하며, 적을 항복시키는 여신으로 신앙되었다고 한다.¹⁷⁾ 이를 견뢰지신(堅牢地神)이라고도 한다. 이 고대인도의 여신이 불교에 수용되어男神으로 신앙되었으며, 불교의 외호자로서의 역할이 일찍이 『아함경』에서부터 후대 밀교의 『금광명경』등에까지 나타난다.¹⁸⁾ 한편 하타니료타니(羽溪了諦)는 『大乘大集地藏十輪經』의 설처인 佉羅帝那山을 서역 코탄(Khotan) 근처의 카라카쉬(Kara-Kash)의 코마리(Kohmari)산으로 주장하고, 지장신앙의 기원은 인도라 할지라도 그 불교적 신앙의 발전은 중앙아시아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¹⁹⁾ 지장은 보통 범어로 ‘Kṣiti garbha’로 이해되어 왔으나 그 근거가 없다가, 근년의 연구에서 ‘kṣiti garbha sūtra’라는 경전명이 산티데바(Śāntideva)의 『대승집보살학론』(Śikṣā samuccaya)에서 발견되었으나 상세한 것은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²⁰⁾ ‘kṣiti’는 땅을 의미하고, ‘garbha’는 자궁, 혹은 숨김(藏)을 의미하기 때문에 ‘ksiti garbha’는 단어 그대로 지장을 의미한다. 일본 찬술로 알려진 지장경전인 『地藏發心因緣十王經』에는 음차된 한자로 ‘乞叉底薩子波’로 지장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ksiti garbha’라는 범어가 인도에서 전래되어 지장으로 한역된 것일 개연성은 충분하다.²¹⁾ 지장보살은 十善業(살생·투도·사음·양설·악구·기어·망어·탐욕심·진심·치심)의 실천을 가르친다. 十善業의 실천을 통해 기존의 죄를 참회하고 새로운 업을 창조하여 새로운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중생을 이끄는 것이다. 요컨대 지장보살신앙은 상근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말법의 하근

現得安隱 又是菩薩 名為善安慰說者 所謂 巧演深法 能善開導初學發意求大乘者 令不怯弱 以如是等因緣 於此世界 眾生渴仰 受化得度.”

17) 眞鍋廣濟, 『地藏菩薩の研究』, (京都: 三密堂書店, 1960), pp.2-3.

18) 한보광, 「한국불교에 있어서 지장의례의 역할」, 『현대사회에 있어서 지장신앙의 재조명』, 영명사, 1991, p.78.

19) 羽溪了諦, 「大集經と佉羅帝との關係」, 『羽溪了諦博士米壽祝賀紀念佛教論說選集』, 東京: 大東出版社, 1971, pp.680-695.

20) 頼富本宏, 『庶民のほとけ』,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84, p.98.

21) 한보광, 「지장사상에 관한 연구」, 『정토학연구』 제15, 한국정토학회, 2011, pp.12-13 참조.

기, 혹은 최하근기의 일반 민중들이 실천하는 최후의 신앙 형태인 것이다. 이것이 점찰 사상의 근간이 되어 十善業의 계율을 지키는 수행의 방편으로 강조되는 것이다. 『占察善惡業報經』에 나타난 점찰법(占察法), 혹은 목륜상법(木輪相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경전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만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악한 세상이 오면, 모든 비구, 비구니, 우바새, 우바이가 세간과 출세간의 인과법(因果法) 중에 아직 결정적인 믿음을 얻지 못하였으면 무상(無常)이라는 생각, 괴로움이라는 생각,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생각, 깨끗함이 없다는 생각을 닦아 배워서 현전(現前)에서 성취할 수 없으며, 4성제와 12인연의 법을 부지런히 관할 수도 없고, 진여와 실제, 남이 없고 죽음이 없는 것 등의 법도 부지런히 관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을 부지런히 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필경에는 열 가지 악의 근본 허물을 짓지 않을 수 없으며, 삼보(三寶)의 공덕이 되는 갖가지 경계에 대해서도 전일하게 믿을 수 없고, 3승(乘)의 안에서도 모두가 일정한 방향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만일 가지가지의 장애되는 일이 있으면, 우려가 더욱 늘어나며, 혹은 의심하거나 혹은 후회하여 일체의 이치에 대하여 마음이 분명하고 뚜렷하지 못해서 바라는 것만 많고 괴로움만 많아서 여러 가지 일에 얽매이고 끌려 다니므로 하는 일이 안정되지 못하며, 생각이 흔들리고 혼란하여 수도하는 일을 그만두고 말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장애하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목륜상(木輪相)의 법을 써서 지난 세상에 지었던 선악(善惡)의 업과 현재의 고락(苦樂)과 길흉 등의 일을 점을 쳐서 살펴야 할 것입니다.²²⁾

말세에는 불법을 닦기가 어렵기 때문에 十惡을 저지르게 되고 장애가 생겨 수행을 퇴굴하게 된다. 그러므로 목륜상법의 방편을 통해 과거의 업과 현재의 결과를 잘 살펴 자신을 되돌아보고, 보다 높은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 장애가 되는 업을 소멸해야 한다. 이럴 때 과거의 업과 현재의 과를 관하는 방편이 목륜상법, 혹은 점찰법이다.

22) 『占察善惡業報經』(T17, p.902b), “若佛滅後 惡世之中 諸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於世間出世間因果法 未得決定信 不能修學 無常想苦想無我想不淨想 成就現前 不能勤觀四聖諦法及十二因緣法 亦不勤觀真如實際無生無滅等法 以不勤觀如是法故 不能畢竟不作十惡根本過罪 於三寶功德 種種境界 不能專信 於三乘中 皆無定向 如是等人 若有種種諸障礙事 增長憂慮 或疑或悔 於一切處心不明了 多求多惱 眾事牽纏 所作不定 思想擾亂 廢修道業 有如是等 障難事者 當用木輪相法 占察善惡宿世之業現在苦樂吉凶等事”

특히 이는 세속적인 점과는 달리 불법을 성취하고 해탈을 얻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세속적인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로써 어떤 이익에 탐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만일 부처님의 제자라면 다만 이와 같은 상법(相法)만을 학습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귀의하여야 할 것이니, 관찰할 대상의 일은 진실로 모두 알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버리고서 도리어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따르고 쫓아서 갖가지 길하고 흉한 따위의 일을 점쳐 보는 일을 탐하여 집착하거나 익히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을 즐겨 익히는 이가 있으면 거룩한 도에 깊은 장애가 될 것입니다.²³⁾

세속적인 점법은 길흉과 화복을 미리 알아보아 이를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점찰법은 자신의 과거의 업과 그로 인한 오늘날의 과보를 바로 알아 업을 참회하고 업의 과보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참회멸장의 수행 방편인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경전에는 목륜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하고 있다.

선남자여, 목륜상을 배우려고 하는 이는 먼저 새끼손가락만 하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야 하는데, 그 길이는 한 치가 조금 못되게 할 것이요, 한 가운데는 사방이 네모지고 편편하게 직사면체로 할 것이며, 그 나머지는 양 끝으로 나아갈수록 비스듬히 기울어지게 점점 깎아 내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손으로 잡아 위로 올렸다가 곁에 던지면 쉽게 구를 수 있게 모서리를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 이름을 윤(輪)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또한 이 상(相)을 의지하여 중생들의 삿된 소견과 의심의 그물을 파괴하고 바른 도에 전향(轉向)하여 안온한 곳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윤이라고 합니다.²⁴⁾

23) 『占察善惡業報經』(T17, p.902b), “若佛弟子 但當學習如此相法 至心歸依 所觀之事 無不誠諦 不應棄捨如是之法 而返隨逐世間卜筮種種占相吉凶等事 貪著樂習 若樂習者 深障聖道”

24) 『占察善惡業報經』(T17, p.902b), “善男子 欲學木輪相者 先當刻木如小指許 使長短減於一寸 正中令其四面方平 自餘向兩頭斜漸去之 仰手傍擲 令使易轉 因是義故 說名為輪 又依此相 能破壞眾生邪見疑網 轉向正道 到安隱處 是故名輪”

輪은 위의 내용에 따르면 대략 성인 남성의 새끼손가락 정도의 길이로 나무로 만들되 중간을 사각형으로 양 끝부분은 둥글게 깎아 잘 구르는 형태로 만들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윤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바퀴처럼 잘 구르기 때문이고, 한 편 이를 통해 불도에 이르는 바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상에는 3종이 있다. 제1윤상은 열 개의 윤이 있는데 여기에 각각 十善을 기재하여 전생의 선악을 점친다. 제2윤상은 세 개의 윤이 있는데 전생업의 오래됨과 가까움, 지은 업의 강약과 대소의 차별을 점친다. 제3윤상은 여섯 개의 윤이 있는데 과보의 차별을 점친다.

1) 제1윤상법

제1윤상의 10개의 각각의 윤에는 중간에 두 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어 하나엔 十善의 하나를 반대에는 그에 반대되는 十惡을 기재한다. 이것을 던져 자신의 전생의 선악의 업을 점찰한다. 이 때 경위의 수는 완전히 十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또 十善과 十惡이 섞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확률적으로는 十善과 十惡이 섞여 나오는 것이 당연히 많은 경우를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十善과 十惡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윤이 十善과 十惡의 중간쯤에 비스듬히 멈추어 十善인지 十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열 개의 윤이 모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은 확률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경전에서는 이 경우는 이미 무루지혜를 얻은 이의 결과라고 한다. 그리고 十善만 나오거나 十惡만 나오는 것도 확률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이와 같은 점찰의 결과를 두고 자신이 금생에서 받은 고락길흉과 번뇌업습을 견주어 그렇다는 생각이 들면 이 점찰은 유효한 것이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이것은 점찰이 잘못된 것이므로 다시 점을 쳐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제1윤상의 점찰을 행하기 전에 삼보와 보살에 예경, 서원, 공양하고, 따로 지장 보살을 공양하고 명호를 외워야 한다. 그 순서와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시방일체제불법승에 예배하고 서원을 한다.
- ② 지장보살에 예배, 서원한다.
- ③ 시방일체제불법승에 공양한다.
- ④ 지장보살에 공양한다.
- ⑤ 지장보살의 명호를 소리 내어 외우거나 송념(誦念)하여 천 번한다.
- ⑥ 점찰의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기를 지장보살에 부탁하며 율을 던진다.

이와 같은 점찰은 자신의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경우를 점찰하는 경우도 동일하다.

2) 제2윤상법

제1윤상법을 통해 전생의 선악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 선과 악의 구근(久近), 강약, 대소는 알 수 없으므로 이것은 제2윤상에 의지하여야 한다. 제2윤상에는 3개의 율이 있고 각각의 율은 身口意를 상징한다. 각각의 율은 4면을 나누어 한 면에는 굵고 긴 선을 기재하여 모서리에 미치게 한다. 다음 면은 짧고 가는 선을 기재한다. 그 다음 면은 거칠고 길게 판다. 마지막 면은 짧고 가늘게 판다. 굵고 긴 선은 그 선한 업을 쌓아온 지 오래되고 강함을, 가늘고 짧은 선은 선한 업을 쌓아온 지가 오래지 않고 아직 힘이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굵고 길게 판 면은 뼉을 오래 전부터 행해 와서 그 힘이 강함을, 가늘고 짧게 판 면은 뼉이 오래되지 않고 아직은 힘이 약함을 의미한다.

제1윤상에서 얻는 선과 악에 대해 각각 해당하는 身口意의 율을 던져 점찰한다. 그러므로 총 10회의 점찰을 행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 1윤상에서 身의 경우는 불살생(혹은 방생)과 불사음(혹은 지계)의 선을 얻었고, 口에는 불기어(혹은 진리어)와 불양설(혹은 화합어)의 선을 얻었고, 意에는 불탐(혹은 무욕심)의 선을 얻는다. 이는 먼저 불살생과 불사음에는 신의 율을 던져 점찰하고 불기어와 불양설은 구의 율을 던져 점찰한다. 불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의 율을 던져 점찰한다.

그런데 제1 윤상법에서는 선, 즉 불살생을 얻었지만 제2 윤상법에서 악을 의미하는 거칠게 판면을 얻는다면 바르게 점찰된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 『占察善惡業報經』은 특

별한 대책을 말하지는 않지만, 제1 윤상법에 나타난 것처럼 바른 결과를 얻기 위해 삼보와 보살에 대한 예배, 공경, 서원이 필요할 것으로 강조한다.

제2윤상법의 결과가 진실에 부합하며 악한 결과를 얻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라도 악이 나타난다면 참회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비로소 선정과 지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불교의 수행차제는 계정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다. 계의 수지를 통해 심신의 안정, 즉 경안이 있어야만 비로소 정을 얻을 수 있고 정이 얻어져야 혜를 얻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윤상법의 결과를 통해 선정과 지혜 이전에 참회를 통해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 하는 『占察善惡業報經』의 수행과정은 불교의 수행차제에 합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속세에 익혔던 악한 마음이 맹렬하여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상에서 틀림없이 많은 악을 짓고 무거운 계율을 범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참회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서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곧 많은 장애가 생겨서 그것을 얻을 수도 없거니와, 혹은 실심(失心)하여 착란(錯亂)하거나 혹은 바깥의 사된 것에 괴로움을 받을 것이며, 혹은 사된 법을 받아들여 나쁜 소견만 더욱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참회의 법을 먼저 닦아야만 합니다. 만일 계율의 근본이 청정하고 과거 세상에서 중한 죄를 미약하고 얇게 지었으면, 곧 모든 장애를 여의게 될 것입니다.²⁵⁾

인용문은 참회 없이, 다시 말해 청정한 계율의 수지가 우선하지 않으면 선정과 지혜의 수행은 그 성취는 고사하고 오히려 더 부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占察善惡業報經』에 나타난 참회의 과정은 다음과 같다.²⁶⁾

25) 『占察善惡業報經』(T17, p.903c), “所以者何 此人宿習惡心猛利故 於今現在必多造惡 毀犯重禁 以犯重禁故 若不懺悔令其清淨 而修禪定智慧者 則多有障礙 不能剋獲 或失心錯亂 或外邪所惱 或納受邪法 增長惡見 是故當先修懺悔法 若戒根清淨 及宿世重罪得微薄者 則離諸障”

26) 이 과정을 박미선은 다음과 같이 9종의 순서의 분류하고 있다. ①장엄, ②향화공양, ③신체와 의복의 청정, ④예불, ⑤참회, ⑥권청, ⑦수회, ⑧회향, ⑨단정히 앉아 청명염불함. 박미선, 『신라점찰법회와 신라인의 업, 윤회 의식』, (서울: 혜안, 2013), p. 82.

- ① 참회 장소의 마련과 청정 및 불단 장엄 그리고 신체와 의복을 청정히 한다.
- ② 하루 세 때에 불명을 칭명하고 과거 7불, 53불에 대한 예배 및 방위에 따라 일체 제불에 예배한다.
- ③ 시방삼세 일체 삼보에 예배한다.
- ④ 지장보살에 대한 칭명과 예배, 그리고 죄업의 고백, 권청과 서원을 한다.
- ⑤ 조용한 방에서 홀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른다.
- ⑥ 밤에는 불을 밝힐 수 있는 경우는 세 때에 공경, 공양, 죄의 고백, 발원하고, 불을 밝힐 수 없는 경우는 일심으로 칭명이나 염송한다.

이와 같은 참회를 멈추지 말고 수행해야 하는데 7일, 14일, 21일, 41일에 청정함을 얻게 된다. 또는 백일, 이백일, 천일에 이르러 청정함을 얻기도 한다. 중간에 방일하지 않고 꾸준히 참회를 행하면 천일 안에 분명히 청정함을 얻는다고 한다. 청정함을 얻는다는 것을 참회가 성취된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참회 7일 이후부터 아침저녁으로 제2륜상의 3개의 윤을 한꺼번에 세 번을 던져 그 결과가 모두 선한 업으로 나타나면 증명된 것으로 본다.

이 참회의 과정에는 지극한 마음(至心)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이에 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선남자여, 내가 말하는 지극한 마음이란, 간략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처음 배워 익힐 적에 구하고 원하는 지극한 마음이요, 둘째는 뜻을 잘 거두어서 전일하게 정진하며, 용맹스러움을 성취하여 서로 호응하는 지극한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 지극한 마음을 얻는 이라야 선한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극한 마음에 다시 하중상(下中上)의 세 가지 구별이 있다. 어떤 것이 그 세 가지인가? 첫째는 한 마음(一心)이니, 이른바 생각을 잡아매어 혼란을 일으키지 말고 마음이 분명하고 또렷한 데에 머무는 것이요, 둘째는 용맹스러운 마음(勇猛心)이니, 이른바 전일하게 구하여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서 몸과 목숨을 돌보지 않는 것이요, 셋째는 깊은 마음(深心)이니, 이른바 법과 더불어 서로 호응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²⁷⁾

지극한 마음이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어떤 일에 흥미가 생겨 자발적으로 열심히 즐기 하는 마음이고 또 하나는 정신을 집중하여 끊임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을 말한다. 참회하는 마음이란 정신을 집중하여 딴 생각을 끊고(一心), 한시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정진해야 하며(勇猛心), 자신의 진심을 다해 정성을 쏟을 때(深心)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이러한 참회의 마음 자세는 템플스테이의 경우에 참가자의 자세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3) 제3운상법

제3운상은 3세 동안에 받은 과보의 차별을 점찰하는 것이다. 제1과 2운상법은 과거의 업의 종류와 그 시간적 구근(久近), 업의 강약과 다소(多少)를 알아보는, 주로 '원인'을 알려는 것인데 비해 제 3운상법은 '과보'에 집중점이 있다는 점이 특별하다.

제3운상법에는 6개의 운이 필요하다. 각 운에는 3면을 내고 제 1운에 1,2,3을, 제2운에 4,5,6을 제3운에 7,8,9를, 제4운에 10,11,12를, 제 5운에 13,14,15를, 제 6운에 16,17,18을 기재한다. 이에 대해 『占察善惡業報經』은 불교 교리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은 모든 수는 모두 1이라는 숫자로부터 일어나서 1로 근본을 삼는 것인 줄 꼭 알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수의 상(相)이란 모든 중생들의 6근(根)의 무더기는 모두 여래장(如來藏)의 자성이 청정한 마음과 하나의 진실한 경계(一實境界)로부터 일어나서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여 그것으로써 근본을 삼는 것임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니, 이른바 하나의 진실한 경계에 의지하였기 때문에 저 무명(無明)이 생겨나 하나의 법계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헤아려 허망한 경계를 나타냅니다. 분별하고 취하고 집착하여 모인 업의 인연으로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근(根)이 생기고, 안의 6근을 의지하기 때문에 밖의 대상 경계인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등의 6진(塵)을 마주하는 것이며, 눈, 귀, 코,

27) 『占察善惡業報經』(T17, p.905a), “善男子 我所說至心者 略有二種 何等為二 一者 初始學習 求願至心 二者 攝意專精 成就勇猛 相應至心 得此第二至心者 能獲善相 此第二至心 復有下中上三種差別 何等為三 一者一心 所謂係想不亂 心住了了 二者勇猛心 所謂專求不懈 不顧身命 三者深心 所謂與法相應 究竟不退 若人修習此懺悔法 乃至不得下至心者 終不能獲清淨善相”

혀, 몸, 뜻 등 6식(識)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6식에 의지하기 때문에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안에서 뜻대로 안 된다는 생각(違想), 뜻대로 잘 된다는 생각(順想),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非違想), 뜻대로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非順想)을 일으켜 열여덟 가지의 느낌을 내는 것입니다.²⁸⁾

인용문을 통해 제3윤법의 6개의 윤은 6근, 6경, 6식의 6을 말하는 것이고, 각 윤의 3개의 면은 근경식을 상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실경계의 하나에서부터 189라는 수로 상징되는 18개의 일체 세계가 나타난다는 성기(性起)적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제3윤상법은 이 6개의 윤을 한꺼번에 던져 총 세 번을 던진 후 나타난 수를 합산하여 수를 낸다.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에서 189까지 총 190개가 된다. 0이 나온다는 것은 6개의 윤이 세 번 모두 비스듬히 나와 그 숫자를 판명치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에는 이미 점찰자가 무소득의 경지를 얻은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점찰을 통해 얻은 숫자에 따라 189종의 과보를 경전은 설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얻은 과보의 내용과 평소 자신에게 문제가 되고 있던 수행이나 현실 등의 문제가 동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진실된 점찰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경전을 특별한 내용을 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1윤상법의 삼보와 보살에 대한 예배, 공경, 서원이나 제2윤상법의 참회법을 다시 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지극한 마음이어야만 진실한 점찰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점술이 가진 동시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있고, 『占察善惡業報經』의 근본 목적인 과보의 차별을 점찰하는 데 있기보다는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데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만약 과보의 차별이라는 점찰의 결과에 집착한다면 이것은 『占察善惡業報經』의 진정한 의의를 망실하고 세속의 점술과 다를 바 없이 될 수도 있다.

28) 『占察善惡業報經』(T17, p.905a), “當知如此諸數 皆從一數而起 以一為本 如是數相者 顯示一切眾生六根之聚 皆從如來藏自性清淨心一實境界而起 依一實境界以之為本 所謂依一實境界故 有彼無明 不了一法界 謬念思惟 現妄境界 分別取著 集業因緣 生眼耳鼻舌身意等六根 以依內六根故 對外色聲香味觸法等六塵 起眼耳鼻舌身意等六識 以依六識故 於色聲香味觸法中 起違想順想非違非順等想 生十八種受”

IV. 운상법을 활용한 포교프로그램(템플스테이와의 접목을 중심으로)

1. 템플스테이의 정의와 운상법의 활용

1) 템플스테이의 정의

템플스테이는 좁은 의미로 파악하자면 ‘사찰(temple)’과 ‘머물다(stay)’의 합성어로 사찰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활문화를 체험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머무르는 것을 의미한다.²⁹⁾ 다양한 기존 자료에서 제시하고 있는³⁰⁾ 템플스테이의 개념을 종합하면 “사찰에서 장·단기적으로 머물며, 사찰에서 이루어지는 일상 행위와 경내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체험하고, 심신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종합문화·생활체험”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 템플스테이란 명칭이 사용된 것은 2002년 한·일 공동 월드컵 때 부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한국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숙박문제 해결대안으로 사찰에서의 숙박시설 도입과 함께 수행자의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이에 정부는 숙박시설과 화장실등 편의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했고, 전국 33개의 사찰에서

29)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2).

30) 허갑중(2004), 전통사찰에서 기획한 법회, 다례등과 같은 프로그램이나 예불, 발우공양 등과 같이 일상적인 사찰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장, 단기적으로 사찰에 머무르는 것.

김개천(2005), 1박2일 이상 산사에서 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산사의 문화를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지칭.

심원섭(2009), 일상생활을 떠나 사찰에서 단기간 체류하며 사찰의 일상과 스님의 수행사적 삶을 체험 해보는 프로그램을 지칭.

OECD(2009), 템플스테이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고안된 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자에게 예불, 발우공양, 참선,다도 등 다양한 불교문화 프로그램 제공.

전병길·정윤조(2011), 템플스테이는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찰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적극적인형태의 방문체험.

문화체육관광부(2011), 한국의 전통문화와 불교문화가 결합된 숙박시설.

전병길·김기범(2012), 사찰에서의 생활을 통해 사찰문화를 몸소 체험하는 적극적인형태의 방문 체험으로 볼수 있으며, 템플스테이를 ‘숙박을 통한 불교문화(유산) 생활체험으로 정의.

한국불교문화사업단(2012)한국의 사찰에서 머물며 한국불교의 전통문화, 수행정진, 사찰내·외문화관광적자원과 자연환경 및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하는 것.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불교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하는 불교계의 입장과 한국만의 특별하고 색다른 숙박시설을 발굴하여 공급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가 부합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황현철, 박재현, 2008) 그렇다면 템플스테이가 전통사찰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의 기능을 네 가지로 명시하고 있다. 첫째, 종교수행 기능으로써 종교적 수행과 포교라는 본래의 기능이며, 둘째, 역사문화 보전 기능으로 사찰건축과 사찰 내에 소장된 역사,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역사문화적 유산가치(heritage value)를 창출하며, 셋째, 생태환경보존기능으로 산중사찰은 임상을 양호하게 보존함으로써 산의 건전한 산림생태가치(ecological value)를 창출하고, 넷째, 관광휴양자원기능으로 전통사찰의 자연성과 역사문화성이 서로 어우러져 독특하고 수려한 경관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이호길, 한동기, 2009) 여기에 연구자는 한 가지를 추가한다면 아상, 인상, 중생상에서 마음과 정신이 오염되어 번뇌에 시달리는 도시인들에게 오염된 상태를 정화시키는 마음치유의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근래 들어 일상의 각박함을 달래려는 도시인들에게 전통적인 산중사찰 뿐 아니라 도심사찰은 마음의 위안과 안식을 제공해주는 의미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사찰을 방문하여 심신의 휴식을 하려고 하는데 사찰에서의 휴식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사찰에서의 휴식은 방문자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음을 수련하는 장을 열어준다는 점이다. 휴식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는 가운데 체험하는 운상법에는 정신을 집중하여 딴 생각을 끊고(一心), 한시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정진하여(勇猛心), 진심을 다해 정성을 쏟아(深心) 깊이깊이 자신을 검토하고 조사하게 한다. 그러므로 사유해야 할 것을 알고, 사유할 수 없는 것들을 제거하며 비로소 자기 안에 자재하는 불성을 찾아 원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한다. 즉 운상법에는 자신의 과보를 살펴 과보의 차별을 알아차리고, 善業과 惡業을 돌아보고, 참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밝혀 한 존재로서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자각하는 내용이 세세히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운상법을 활용한 템플스테이의 체험에서 불교홍포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2) 윤상법의 응용

(1) 윤상법에 나타난 十善業과 十惡業의 응용

경제 불황과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많은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순간 현재의 어려운 문제를 질문하며 점찰하게 한다. 점찰을 하는 순간 十善業의 상징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또는 과거로부터 축적되어 고착된 내면을 투사하여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참가자들의 내면을 개방하고, 억압된 정서들을 분출하여 감정을 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 연구자는 심리상담소를 15년동안 운영하며 윤상법에서, 점찰사상에서 제시하는 상징을 응용하여 자기성찰에 도움을 준 주관적 사례의 경험으로 내담자들의 소감문을 가지고 윤상법을 활용한 마음톡톡 힐링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한다.

점찰사상에 나타난 十善業이 지니는 상징은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상태, 수준, 또는 관점에 따라 즉 개인의 근기에 따라 느낌이 다를 수는 있지만 같은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상징으로 개인, 가족, 동료, 친구, 선후배등 공동체 안에서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번뇌를 연상기법과 투사기법, 동시성의 원리로 응용 활용하여 일치성 있는 상담을 진행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회적, 가정적, 정서적 불안과 개인적 우울, 분노의 근본 원인 즉 번뇌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향을 바라보고, 알아차림으로 용서와 참회의 형식으로 惡業을 善業으로 변환시키는, 또는 더욱 높은 차원의 善業으로 승화시키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자연현상과 우주의 과학적 물질현상을 이야기한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인간은 자신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표현을 하였는데, 윤상법에서 보여주는 상징에 나타난 메시지를 통해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아픔을 자각하여 치유하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잠재된 순수한 자신을 만나므로 자아 존중감을 발견하는 모습을 경험하였다. 그것

은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있는 심리상태를 객관적으로 통찰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들여다 보고 인지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마음도 수용하게 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속에서 갈등이 완화되는 변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는 점찰의 상징에서 보여주는, 개인과 전체가 가지는 번뇌와 고통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임을 알게 하였다. 뿐만아니라 점찰 도구의 상징이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자신의 내면을 살펴봄으로 자신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야하는지를 자각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3) 운상법을 응용 활용한 마음톡톡 힐링템플스테이 응용프로그램 및 효과

(1) 운상법을 응용 활용한 마음톡톡 힐링템플스테이 응용프로그램

누가', '언제', '어디서(장소)', '무엇을(물건 혹은 대상)', '어떻게', '하였나(행동)'에 따라 각각의 카드는 점찰되어진다. 또한 운상법에 나타난 십선업의 상징을 응용한 단어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하여 십선업카드 또는 단어(감정카드, 인물카드)카드를 선택하게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카드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참회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며 마음을 챙긴다.

< 자신을 알아차리는데 좋은 질문들 >

- ①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② 당신의 삶에서 지금 무엇을 개선해야 합니까? (당신의 삶에서 변화시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당신은 지금 무엇을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 ③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④ 살아가는 동안 시간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 ⑤ 당신은 무엇을 지금보다 더 원하십니까?
- ⑥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⑦ 당신이 아플 경우, 누가(무엇이) 당신을 아프게 했습니까?

- ⑧ 아픔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 ⑨ 치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할까요?
- ⑩ 당신을 더 잘못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 ⑪ 지금의 상황이 당신에게 무슨 교훈(배움)이 있을까요?
- ⑫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 ⑬ 지금보다 편안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⑭ 지금보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 ⑮ 지금보다 금전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 ⑯ 당신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 ⑰ 당신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가요?
- ⑱ 당신이 원하는 데로 안될 때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⑲ 당신의 삶에서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⑳ 삶에서 누구를(무엇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십선업카드, 업의 강약카드, 십악업의 카드 >

방생(放生)	근면(勤勉)	정음(正淫)	정어(正語)	진어(眞語)
남을 살리는 생활을 하라	남을 돕는 생활을 하라	깨끗한 생활을 하라	성실한 말을 하라	정직한 말을 하라
애어(愛語)	실어(實語)	보시(布施)	자비(慈悲)	지혜(智慧)
화합될 말을 하라	고운 말을 하라	욕심을 버리는 생각을 하라	기뻐하는 생각을 하라	슬기로운 생각을 하라
				
선업이 오래되고 강함	선업이 오래되지 않고 약함	악이 오래되고 강함	악이 오래되지 않고 약함	

살생(殺生)	투도(偷盜)	사음(邪淫)	망어(妄語)	기어(綺語)
죽이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음란한 것	거짓말 하는 것	꾸며대는 것
양설(兩舌)	악구(惡口)	탐애(貪愛)	진에(瞋恚)	치암(痴暗)
이간질 하는 것	나쁜 말을 하는 것	탐내는 것	성내는 것	어리석은 것

< 감정단어카드 예시 184개 >

감각적	낙관적	모험적	설득력	용기	자유	직관적	카리스마
감사	낙천적	목표 지향적	섬세함	우호적	재치	진실	쾌활함
감성적	낭만적	민첩함	성실	유연함	적극적	진취적	탁월함
강인함	논리적	믿음	솔직함	유쾌함	적응력	집념	탐구심
강직함	도덕적	밝음	순수	융통성	전문성	집중력	통찰력
개방적	도움	배려	신뢰	의리	절제	착함	평안
결단력	도전의식	부드러움	신중함	의지력	정의로움	창의적	평정심
겸손	독립적	분별력	안정적	이성적	정직	창조성	평화
공정함	따뜻함	분석적	여유로움	이해력	정확함	책임감	포용력
균형	리더십	사교적	열정적	이해심	조화로움	충명함	헌신
긍정적	명량함	사랑	영성	인내	존경	추진력	협력
기쁨	명석함	사려깊음	예술적	자비	주도적	충성	호기심
꼼꼼함	명확함	생동감	온유함	자신감	즐거움	친절	활력
끈기	모범적	생명력	완벽함	자연스러움	지혜	친화력	희망적

사랑	존재	내면의 소리	창조성	권력	무소유	자각	용기
홀로있음	외로움	내부의 변화	도약	비전	변형	통합	외부의 변화
과거/전생	환상	완성	깨달음	가능성	경험	참여	전체성
성공	스트레스	여행	소모	억압	근원	친밀감	축제
고요함	집착	꿈	투사	렛고	게으름	조화	흘러감
분열	고립	미루기	비교	짐	도덕성	죄책감	슬픔
탄생	순간으로 살기	안내	외부인	타협	인내	평범함	무르익음
우리는 하나	성숙	나눔	강렬함	집중	유희	힐링	수용
신뢰	이해	통제	정치적	타툼	마음	풍요	꽃피어남

< 인물카드 예시 184개 >

어머니	아버지	오빠	동생	언니	삼촌	아저씨	이모부
이모	고모	고모부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이웃집 아주머니
이웃집 아저씨	선배	후배	애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남동생
여동생	남자선배	여자선배	상사	아는 사람	동료	모르는 사람	시어머니
시아버지	형수	매형	형부	처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조카
조카며느리	조카사위	사위	며느리	위임자	반항하는 자	분노자	기쁘게하는 자
감사하는 자	실망자	무서운 자	무서워 하는자	회피자	비판자	도망자	방관자
관리자	판단자	수행자	다기능수행자	염려하는 자	행복한자	이기적인 자	양육자
도움을 주는 자	도움을 받는 자	전문가	환경보호자	환경운동가	즐거움을 쫓는 자	탈진한자	지친 자
무거운 짐을 진 자	운동하는 자	노숙자	추방자	왕따 자	휴식하는 자	귀가얇은 자	툼툼거리는 자
신바람이 나는 자	춤추는 자	게으른 자	노래하는 자	슬퍼하는 자	안내자	극단적인 자	협력자
앞을 보는 자	과거에 사로잡힌 자	부정적인 자	긍정적인 자	재주가 있는 자	아픈 자	치료자	치유자
상담자	내담자	부담되는 자	편안한자	부자	봉사자	친절한 자	화내는 자
충동적인 자	답답한 자	헤메는 자	부러워하는 자	잘난척하는 자	거만한자	예의가 없는 자	희망을 주는 자

결정하는 자	가벼운 자	무거운 자	비웃는 자	경솔한 자	남 탓하는 자	꿈만꾸는 자	생각만하는 자
연구자	분석자	숨겨주는 자	비밀을 지켜주는 자	솔직한자	거짓말하는 자	홍보는 자	아침하는 자
비위를 맞추는 자	비위를 상하게 하는 자	지켜주는 자	참는 자	속이는 자	다치게 하는 자	음란한 자	음흉한 자
진실한자	욕심이 많은 자	욕심이 없는 자	그릇되지 않은 자	그릇된 자	약속을 지키는 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놀이만 하는 자
일 만하는 자	완벽한 자	이쁜 자	못난다고 생각하는 자	못난 자	폭력자	성추행자	비밀이 많은 자
계산적인 자	계산 못하는 자	못참는 자	공부하는 자	특별한자	기도하는 자	장사하는 자	기술자
거래자	미운 자	리드하는 자	재주가 없는 자	타협하는 자	주재하는 자	중재하는 자	우유부단 한자
사치하는자	낭비하는자	핑계되는자	자기합리화 하는자	앞서가는 자	집중하는 자	힐링하는 자	수용하는 자
신뢰감이 있는 자	신뢰감이 없는 자	피해주는 자	정치적인 자	타투는 자	억압하는 자	자랑하는 자	고통스러운 자

윤상법에 나타난 상징을 동시성과 투사성의 원리에 입각해 지금 여기에서 드러나는 변뇌와 자신이 속한 환경과 인관관계에서의 부정적 갈등을 자각하고, 자신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불성을 찾아가도록 도와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과 행동의 변화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이해하고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프로그램 참여 후 생각과 마음이 정리될 수 있다는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점찰 사상이 담겨진 템플스테이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종결 후 내면의 변화를 경험한 참가자에게 받은 후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윤상법을 활용한 마음톡톡 힐링템플스테이 (내 마음이 들리니?)		
참가자 이름	생일정보	연락처 및 주소
지 ○ ○	1984년 09월 06일생 (여자)	생략
참가자의 발달사 및 가족상황		

<p>언니와 남동생 삼형제로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돈을 벌어 오라 해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중학생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벌러 다녔다.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엄마는 자주 매를 맞으며 지냈다. 그리고 형제들과 내담자를 툭하면 욕하고 때리셨다.</p> <p>그래서 밖에서 돌아다니고 남의 친척집살이를 하다가 쫓겨나곤 하던 생활이 청소년기의 삶이라고 했다. 결국 엄마는 일본으로 도망치시고, 그 후 한국에 왔다가 다시 일본으로 가시곤 하는 중 몇 번의 만남을 통해 어머니를 살펴보면 여러 남자들과 생활한 듯싶다고 했다. 그 중 몇몇 남자는 자신도 기억을 한다고 했다. 아빠는 새로운 여자랑 살고 있다. 지금은 두 분 다 만나지 않고 있다. 보고 싶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지만 만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그러는 과정에 삼형제는 살기위해 노점에서부터 시작해 안 해 본 장사가 없다고 했다. 그중 내담자가 가장 생활력이 강해 돈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지쳐서 안정된 직장을 찾아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으나 적응이 어려워 자꾸 옮기게 되었다. 결혼을 해서 안정을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자신이 없다고 했다.</p>		
<p>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참여 동기</p>		
<p>결혼에 대한 불안, 작은 직장이동으로 인한 불안함과 직장 내에서의 관계 형성의 불편함을 호소</p>		
시간/날짜/회차	프로그램 내용	준비물
1회차 (2H)	예불(삼배),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나누기(자기소개), 점찰사상과 윤상법에 나타난 개요의 설명과 十善業 이해하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2회차 (2H)	지금의 주 호소문제를 질문하고 윤상법을 응용한 감정카드 또는 인물카드로 이해하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3회차 (2H)	지금 현재의 나의 에너지를 윤상법을 응용한 감정카드 또는 인물카드로 살펴보기, 나의 주 에너지 (강점, 약점)	필기도구, 점찰도구
4회차 (2H)	지금의 나의 가족 또는 대인관계 에너지를 윤상법을 응용한 감정카드 또는 인물카드로 살펴보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5회차 (2H)	의식에 감춰진 나만의 두려움의 에너지를 윤상법을 응용한 감정카드 또는 인물카드로 알아차리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6회차 (2H)	미해결된 나의 에너지를 윤상법을 응용한 감정카드 또는 인물카드로 살펴 알아차리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7회차 (2H)	조용한 곳에서 지장보살의 명호를 부르며 용서 또는 참회하기	필기도구, 점찰도구
8회차 (2H)	점찰에 나타난 윤상법의 상징이 진실에 부합하기를 지장보살에 부탁하며 비전 세우기, 자신에게 편지쓰기, 마무리(회향)	필기도구, 점찰도구

2. 윤상법을 활용한 마음톡톡 힐링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효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나서

먼저 저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마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 했던 과정속에서 번뇌와 고통이 컸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니 시작 때보다 조금은 타인을 이해하고, 가족을 용서하고, 포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생겨 인생을 헤메게 된다면 다시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위한 행복이란 뭔가... 또 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찾아보며, 나의 삶에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 보도록 도전해 보겠습니다. 분명 살아가는데 있어서 좋은 일, 기쁜 일, 슬픈 일, 용서할 일, 등 모든 일들이 제게 있을텐데 앞으로 잘 이겨 낼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에너지 많이 사용하리라 다짐합니다. 프로그램 참여 내내 저는 위로 받았고 사랑받았습니다. 저에게 고정관념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처님 공부하며 그 안에서 지금보다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³¹⁾

(마음톡톡 힐링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프로그램 종결 후 참가자의 승인을 받은 후기 내용으로 효과입증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가자는 자신의 문제를 점찰도구의 상징인 윤상법의 응용을 통하여 과거의 업의 크기와 현재 무엇을 해야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자각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

31) 2019.03.23 ~ 2019.05.04.(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례후기)

서 외부에서 받게 되는 내부의 감정을 직면하여 살핌으로 자신과 만나는 상징에서 자등명, 법등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점찰기능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점찰사상의 뿌리를 두고 있는 윤상법의 응용으로 불법포교에 적극 활용하기를 연구자는 바란다.

V. 나가는 말

불교계는 ‘포교활동을 잘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재가자나 출가자는 고개를 숙이거나 피하고 싶은 게 현실이다. 이미 우리는 신도수의 변화와 출가자수의 감소를 보면서 불교 포교 활동에 대해 적색경보가 울리고 있는 상황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각 종단과 지도자는 이에 대해 적극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불자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변화를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나 실천하기 위한 방편의 노력은 출재가자 뿐만 아니라 불교지도자들에게 커다란 고민을 하게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갤럽의 조사결과를 보면 앞으로 입장료를 내고 사찰을 방문하는 불자들도 크게 감소할 것이고, 사찰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활동을 할 신도들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큰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적 홍보 대안이 없는 상태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나홀로 시대와 N포세대, Z세대가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 장기적 서민경제불황은 불교 포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 요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출재가자 중심으로 전문포교사를 양성하여 각 사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포교 주체의 역량 평가, 포교 대상에 대한 접근방법, 포교 방법의 개발, 포교 프로그램 내용의 구축, 포교 재정의 확보와 배분 실태등을 살펴보면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기에 포교의 활동은 점점 침잠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삶이 고통스럽거나 죄를 지으면 그 업보에 따라 지옥에 간다는 것과 자신이 원하는 원을 세워 간절하게 빌어서 성취하는 기

복 불교와 지장보살에 대한 기도를 통해 惡業을 소멸하고 자신과 조상을 지옥에서 구제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사찰에서 기도하며, 스님들과 함께 불법에 의지하고, 종교를 받아들이고, 예불경,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경전을 무조건 외우고 사경하는 것이 불자들의 활동이었는데, 요즘 현대인들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적고,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사라지고, 인터넷 중심의 워드시대로 사경도 안하고, 참회에 대해서도 의심하고, 그러다 삶이 힘들어지면 단절과, 고립, 또는 자살로 치달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예전보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종교나 명상을 이야기하면 근기가 약한 그들은 비현실적이라며 회피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므로 포교 방법에 있어 포교 대상의 수준과 대상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즘 주제를 검색해 보면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포교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이는 최근 매스컴이나 블로그, 인터넷카페, 유튜브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점찰사상의 근간이 되고 있는 점찰의 운상법을 활용하여 불교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중심의 포교 방안을 포교활동에 적극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점찰의 상징이 심리상담의 도구로 활용되어 어떤 문제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신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아차리고, 이에 불성을 찾는 최상의 방법이 불법임을 알릴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찰사상을 통한 운상법의 활용이 응용불교상담으로 재미있고 편안하게 접근하여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해주는 기도와 불교 명상의 세계로 초대하고, 불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준 것과 같이 현대인들에게도 쉽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출세가자들이 먼저 점찰사상에 나타난 운상법을 바르게 알고, 이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며, 바르게 전법하고, 수행 정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을 강조하는데 있어 점찰사상에 나타난 운상법의 활용이 번뇌와 고통을 극복 할 수 있는 예방의 효능성이 있다는 것

이다. 그러므로 인간 누구에게나 주어진 삶의 중심과제에서 기본적으로 의식의 태도를 보상하는 기능으로 윤상법을 통한 마음챙김을 하는 상담의 영역에서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현상세계에는 대극적 요소가 있는데, 대극적 요소인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에서 우리는 의식과 무의식의 통합을 이루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고 한 존재로써 전체성(全體性)을 달성해 나가는 불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즉 점찰의 사상을 가벼이 점을 치는 행위로 왜곡하고 전락할 것이 아니라 불교응용 상담의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여 불교포교보급으로 확산되어 불교가 발전하기를 바란다.

「점찰사상의 보급을 위한 현대적 포교프로그램 - 템플스테이와의 접목을 중심으로」의 논평문

원영상 _ 원광대학교 교수

1. 오늘날 불문(佛門)으로의 초대, 적극적으로는 불법의 흥포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점찰법에 착안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발표자는 이미 우리 조상들이 현실에서 구사하였던 전통을 이 시대에 되살리는 한편, 새롭게 구성하여 중생구제의 방편으로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실제 템플스테이에서 이를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현대포교의 활성화를 높이자고 하는 것만으로도 박수를 받을만합니다. 더욱이 진표율사와 점찰법으로 유서가 깊은 금산사에서 본 연구가 발표되고 있다는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 본 발표의 내용은 민중의 정서와 불법의 묘용을 잘 융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상응(時機相應)의 대승정신이라고 봅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점찰선악업보경』을 둘러싼 한국의 역사와 그 사상, 그리고 그 활용인 윤상법에 관한 부분이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잘 활용하여 이에 대한 전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윤상법을 활용하여 발표자가 직접 운용한 포교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으로 신선하고도 의미 깊은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여러 측면에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본 발표 내용의 좋은 점은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너무나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본 논평자의 입장에서 떠오르는 두어가지 의문점을 여쭙보고, 그 의문의 해소를 통해 본 논문의 의의가 더욱 드러나기를 희망합니다.

1) 일반적으로 드는 의문이라고 봅시다만, 기존의 대승불교의 다양한 방편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방식이 점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점(占)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제도(濟度) 측면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폭넓은 사고 혹은 인식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간에서 행해지는, 아마도 그 어떤 역사보다도 오랜 ‘점’이라는 세계를 불법의 세계와 연동시킬 수 있는지, 그것은 고도의 심리적인 통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래의 운명을 알아 볼 수 없을까, 라는 민중의 의식을 잘 활용한 것이 점찰이라고 봅니다. 더욱이 『점찰선악업보경』이라는 위경을 통해 불법의 적극적인 전파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뛰어난 방편을 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은 하나의 우연적 확률을 근거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비해 인과는 철저한 과학적 인식을 토대로 합니다. 물론 과거를 볼 수 없음으로 인해 과학이라고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논리성에 입각한 과학과 인문적 통찰, 그리고 신앙에 대한 굳건한 틀을 통해 인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단지 우연성과 놀이에 가까운 점을 통해 불교의 핵심교의로 나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불일치가 되는, 말하자면 과연 불교에서 이를 방편으로 수용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지금도 몇몇 스님들은 사주나 점을 통해 하나의 포교방편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것 또한 점찰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발표자께서는 이 점에 대해 “특히 이는 세속적인 점과는 달리 불법을 성취하고 해탈을 얻기 위한 것이지 결코 세속적인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로써 어떤 이익에 탐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해 경전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고 하며,

“세간의 점쟁이나 무당을 따르고 쫓아서 갖가지 길하고 흉한 따위의 일을 점쳐 보는 일을 탐하여 집착하거나 익히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경전의 경계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불교 교의의 측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수록 현대인들은 이 점에 대해 눈을 뜨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2) 흥포의 입장에서 템플스테이를 통한 운상법의 현대적 접목을 발표자께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우 흥미있고, 의미가 풍부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에서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대중성을 놓고만 본다면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일종의 성불도(成佛圖, 일종의 윗놀이와도 같은 것으로 육도의 여러 상황을 놓고 오르락내리락 하며 성불의 가치를 높이는 놀이) 놀이와도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놀이에다 의미 부여를 하여 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숙고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원래 점찰법의 시대적 상황이 지니고 있는 말법에 대한 인식이 현대인들에게도 먼저 이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말법은 현대에 있어 자본주의 혹은 사회시스템의 한계 등 다른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말법적인 요소의 핵심은 인간의 한계라는 점입니다. 정토교에서 말하는 범부로서 인간의 번뇌구족한 한계가 보편적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시대의 한계 내에서의 인간의 한계가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간 자신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점찰법에서 말하는 참회를 통한 업장의 소멸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점찰법이 최종적으로 목표하는 계율수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운상법을 이용한 프로그램도 또한 같은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인 상담과 다를 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연상기법과 투사기법, 동시성의 원리로 응용 활용하여 일치성 있는 상담을 진행”했으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 사

회적, 가정적, 정서적 불안과 개인적 우울, 분노의 근본 원인 즉 번뇌를 알아차리고, 자신의 성향을 바라보고, 알아차림으로 용서와 참회의 형식으로 악업을 선업으로 변환시키는, 또는 더욱 높은 차원의 선업으로 승화시키는 변화를 볼 수 있었다.”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기법으로서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으며, 그 결과 또한 불교적 사유를 깊게 하고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 믿음과 서원을 향한 대승불교 고유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점찰법의 근본 정신을 되살리는 방법이 더욱 깊이 연마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4. 참으로 좋은 연구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후반부에서 포교를 위해 종단 구성원들 또한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단지 점찰사상의 응용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 높고 깊은 정진이 요청되고 있다는 점에서 본 발표는 많은 유익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占察法會, 作法(占察行法)의 고증과 재현의 제문제

곽점식(월공) - 영선사 주지

• 목 차 •

I. 들어가는 말

II. 占察行法, 作法의 고증

1. 『占察經』내의 行法 종류
2. 表師의 189簡子 占察行法과 派生된 占察行法

III. 占察作法(占察行法)의 재현

1. 占察行法(占察 作法)의 기본, 占察簡子の 제작
2. 占察行法 재현의 제문제

IV. 마치는 말

첨부자료 01. A사찰 占察法會 동참자 占察結果表

I. 들어가는 말

국보 제306호와 보물 제419로 지정된 『三國遺事』를 저술하신 普覺國師 一然是 「眞表傳簡」(이하 「傳簡」)¹⁾에서 占察法會 作法의 근본이 되고 있는 『占察善惡業報經』(이하 『占察經』)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찬탄하였다.

만약 『占察經』이 번역한 사람, 시간과 장소가 분명치 않다 하여 가히 의심스럽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또한 麻를 짚어지고 金을 버리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 그런고 하면 저 경의 문구를 자세히 보면 深密하기가 悉壇이며, 더러운 허물을 세척하고 나태한 범부자들을 激昂케 함이 이 經典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으로 또한 大乘懺이라고 이름 했으며 또 六根聚 가운데에서 나왔다고도 했다. 開元.貞元 두 釋教錄 속에는 正藏으로 편입되어 있으니, 비록 性宗의 밖이지만 그 가르침의 모양은 大乘으로 거의 또한 넉넉한데 어찌 搭撲의 두 懺과 더불어 함께 말할 수 있으랴?²⁾

인용된 글 외에도 一然是 『三國遺事』에서 『占察經』과 그 經典에 근거해 작법을 행하였던 眞表律師(이하 「表師」)에 대해 무한한 존경을 표하고 있다.

또 明末淸初에 『占察經』을 비롯해 다양한 저술을 남긴 古吳比丘 智旭(1596~1655)³⁾은 다음과 같이 『占察經』과 그 속에서 권하는 占察行法을 칭찬하며 修行토록 勸하고 있다.

만약 佛弟子가 正法으로 세상을 벗어나는 것을 닦고자 하거나, 현재에 여러 장애의 인연을 없애고자 하는 자, 五逆과 十惡의 無間の 중대한 업을 멸하여 없애고자 하는 자 … 菩薩의 三聚淨戒를 얻고자 하는 자, 모든 禪三昧를 얻고자 하는 자 … 모두 응당 이 懺悔法을 받아 지녀야한다. 무슨 까닭인가? 이것은 釋迦如來의 格外弘慈이며, 地藏菩薩 悲願의 틀이라 부

1)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7,b18),

2)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8,a04), “若曰『占察經』無譯人時處。爲可疑也。是亦擔麻棄金也。何則詳彼經文。乃悉壇深密。洗滌穢瑕。激昂懶夫者。莫如茲典。故亦名大乘懺。又云。出六根聚中。開元貞元二釋教錄中編入正藏。雖外乎性宗。其相教大乘殆亦優矣。豈與搭撲二懺同日而語哉。”

3) 『占察善惡業報經玄義』(卍續藏74, 0406,b06), “藕益沙門古吳 智旭 述。”

르니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함도 없고, 즐거움을 주지 않게 하는 것도 없다. 이 修行에 의지함은 깨끗한 믿음이 견고하고 넓고 밝은 길과 같으니 의당 자세히 믿을 바이다.⁴⁾

그 외에도 智旭은

이것(占察行法)을 정신이 나가도록(神劑) 만드는 末世에 공경하면 方便 가운데에 殊勝한 방편이 된다. 내가 장애가 심한 것을 슬퍼하고 法亂이 무성하게 되어 律敎禪의 종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뒤섞여 잘못되었을 때 다행히 이 經典을 만나 나의 迷雲을 열어 理를 觀하고 事의 儀를 분명하게 실천할 수 있었다.⁵⁾

라는 의견을 남김으로써 『占察經』과 占察行法이 修行에 큰 도움을 줌과 동시에 올바른 行法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들의 시대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占察經』과 占察行法을 통해 實證적인 모습을 보인 분으로 表師께서 분명히 실재하였다. 또한 지금 시대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어져 이미 占察行法의 이론적 기반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韓國佛敎 修行에서는 1회적 행사를 제하고는 『占察經』에 근거한 修行을 찾기 어렵다.

다행히 A사찰⁶⁾에서 20년을 넘게 지속적으로 占察行法을 행하고 蓄積한 자료가 있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여러 占察行法 가운데 經典에서 설한 일부분만 行하졌고 농산촌의 소규모 사찰에서 행해진 것이라 자료가

4) 『占察善惡業報經行法 第1卷 勸修第二』(卍續藏74, 0578,c20), “若佛弟子欲脩出世正法者。欲現在無諸障緣者。欲除滅五逆十惡無間重業者。欲求資生眾具皆得充饒者。欲令重難輕遮皆得消滅者。欲得優婆塞沙彌比丘清淨律儀者。欲得菩薩三聚淨戒者。欲獲諸禪三昧者。欲獲無相智慧者。欲求現證三乘果位者。欲隨意往生淨佛國土者。欲悟無生法忍圓滿證入一實境界者。皆應受持脩行此懺悔法。何以故。此是釋迦如來格外弘慈。地藏菩薩稱機悲願。無苦不拔。無樂不與。依此脩行。淨信堅固。如經廣明。所宜諦信。”

5) 『占察善惡業報經行法 第1卷 緣起第一』(卍續藏74, 0578,b18), “此誠末世對症之神劑。而方便中之殊勝方便也。予悲障深。丁茲法亂。律敎禪宗。淆訛匪一。幸逢斯典。開我迷雲。理觀事儀。昭然可踐。”

6) A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영선사(靈仙寺)를 말함. 사찰명의 반복으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A를 사용함.

충분하지는 않지만 실제 비교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구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진다.

II. 占察行法, 作法의 고증

占察法會의 行法은 크게 『占察經』에 직접 근거한 行法, 經典에 근거를 두고 表師의 修行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189箇子법, 經典과 189箇子법에 근거한 파생법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經典에서 근거한 占察行法을 살펴보자.

1. 『占察經』에 설해진 行法 종류

『占察經』에서 占察行法에 대해 전체적으로 소개 되는 대목은 이러하다.

그 輪의 相은 3가지 종류의 차별이 있나니 무엇 등이 셋이 되는가 하면, 첫 번째 輪相은 능히 속세의 지은바 善惡業의 종류의 差別을 보이는 것으로 그 輪은 열이 있습니다. 두 번째 輪相은 능히 宿世의 집합된 업이 오래고 가까움, 지은 바의 강하고 약함, 크고 작음 등의 차별을 보이는 것이며 그 輪은 셋이 있습니다. 세 번째의 輪相은 능히 삼세 가운데의 보를 받는 차별을 보이나니 그 輪에는 여섯이 있습니다.⁷⁾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宿世의 지은바 善惡業報의 差別을 能히 보여주는 제1占察行法(이하 「제1占察」)
- 지은바 업의 久近과 強弱, 大小의 差別을 能히 보여주는 제2占察行法(이하 「제2占察」)

7)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b28), “其輪相者有三種差別。何等爲三。一者輪相。能示宿世所作善惡業種差別。其輪有十。二者輪相。能示宿世集業久近所作強弱大小差別。其輪有三。三者輪相。能示三世中受報差別。”

- 三世중에 받는 차별의 보를 能히 보여주는 제3占察行法(이하 「제3占察」)

이 기본 3가지 占察行法외에도 『占察經』에는 修行에 있어 중요한 검증 방편으로 쓰이는 占察行法이 더 있다. 『占察經』이 구조는 堅淨信菩薩이 부처님께 법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부처님은 그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地藏菩薩을 찬탄하시며 答辯者로 地藏菩薩을 추천하신다. 이에 堅淨信菩薩이 地藏菩薩에게 묻고 보살이 답하는 방식이다. 地藏菩薩은 제2占察 까지를 자세히 說하시고 나서 특별한 것을 거론한다.

善男子여, 응당 아소서. 만약 未來世의 여러 衆生 등이 生老病死에서 제도되어 해탈함을 구하고자 하여 처음으로 發心하여 禪定을 닦아 익히고 無相의 智慧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응당 먼저 宿世의 지은바 惡業의 多少와 輕重에 대하여 觀해야 합니다. 만약 惡業이 많고 두터운 이는 곧 禪定과 智慧를 배우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니 응당 먼저 懺悔의 法을 닦아야 합니다. 무슨 까닭인가 하면 이 사람이 宿習의 惡心이 猛利한 연고로 지금 현재에서 반드시 많은 악을 짓고, 重禁을 毀犯하기 때문입니다. 重禁을 犯한 연고로, 만약 懺悔하지 않으면 그로 하여금 淸淨하게 그리고 禪定智慧를 닦는 것에 곧 많은 障礙가 있어서 능히 廻하여 획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失心하여 錯亂 되기도 하고, 혹은 바깥의 샷된 것에 뇌고로움을 받기도 하며, 혹은 邪法을 받아들여 惡見을 增長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고로 마땅히 먼저 懺悔法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戒根이 淸淨해지고 및 宿世의 重罪가 微薄하여지는 것을 얻은 者는 곧 여러 장애를 여일 것입니다.⁸⁾

여기서 地藏菩薩은 懺悔와 戒根淸淨(이하 「淸淨」)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정리하셨다. 修行者들이 生老病死에서 제도 해탈하고 그것을 위해 禪定과 智慧를 배우려는 것은 出家를 막론하고 모두의 希願이다. 하지만 직접 겪어 보지만 다양한 사유에 의해 修行은

8)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3.c06), “應知善男子。若未來世諸衆生等。欲求度脫生老病死。始學發心修習禪定無相智慧者。應當先觀宿世所作惡業多少及以輕重。若惡業多厚者。不得即學禪定智慧。應當先修懺悔之法。所以者何。此人宿習惡心猛利故。於今現在。必多造惡毀犯重禁。以犯重禁故。若不懺悔。令其淸淨而修禪定智慧者。則多有障礙不能剋獲。或失心錯亂。或外邪所惱。或納受邪法增長惡見。是故當先修懺悔法。若戒根淸淨。及宿世重罪得微薄者。則離諸障。”

쉬운 길이 아니다. 이것에 대해 地藏菩薩은 그 원인으로 惡業多厚를 지목했고 소멸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懺悔法을, 그 懺悔法으로 인해 淸淨의 경지를 얻으면 그 장애가 사라진다고 說하셨다. 이어서 참회 修行精進에 대해 장소, 시간, 방법, 예배, 발원 등에 대해 자세하게 說하시고 있는데 그 詳細함은 지금 시대의 어떤 修行 텍스트들도 감히 따라가지 못할 수준이다. 올바른 修行의 출발점으로 규정된 淸淨. 그 淸淨에 대한 명확한 檢證法이 제4占察行法(이하 「제4占察」)이다.

선남자여! 만약 淸淨하여진 모양을 알고자하면 修行을 시작한 이후로 七日이 지난 뒤에 응당 매일 매일의 晨朝에 제2輪相을 써서 손 가운데 갖추어 놓고 잇달아 三擲할 것입니다. 만일 身口意가 모두 순전히 선한자라면 이름하여 淸淨을 얻었다고 합니다.⁹⁾

이 제4占察은 修行의 경지를 판별하는 검증 방편으로 도구를 쓰는 것은 論難이 있을 수 있으나 有形의 客觀의 檢證手段이 부족한 불교의 현실에서 볼 때 혁신적이 修行方便이 될 수 있다. 불교 내에는 수많은 修行法들이 존재하지만 公平無私한 檢證法이 드물다. 불교의 檢證은 대개 개인적 혹은 스승과 弟子 사이에서 진행된다. 그러나 『占察經』의 제4占察은 出在家를 막론하고 누구도 쉽게 피해갈 수 없는 검증수단으로 설정되었다. 이런 檢證法으로 인해 占察行法에서는 불순한 의도들이 개입될 여지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궁극에 도달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淸淨을 얻음은 生老病死에서 해탈 제도되는 修行의 기본이 된다. 이 중요한 修行의 계위를 제4占察行法으로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이런 檢證法의 존재로 占察行法에서 행자들은 겸손할 수가 있다. 자신이 淸淨을 얻었다고 말을 할 때 대중 앞에서 제4占察로 검증해야 하니 이것은 쉽지 않은 결론이다. 제4占察은 확률적으로 성취하기 쉽지 않다.

『占察經』에서는 제3占察에 부가하여 제5占察行法(이하 「제5占察」)으로 분류 될 수 있는 한 가지가 더 있다.

9)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4,a28), “善男子。若欲知得淸淨相者。從始修行過七日後。應當日日於晨朝。以第二輪相具安手中頻三擲之。若身口意皆純善者。名得淸淨。”

善男子여, 이것을 一百八十九種의 善惡果報의 差別相이라고 이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占察하는 법은 마음에서 觀하는 바의 주된 생각의 일을 따르는 것이나 만일 숫자의 합계와 뜻이 맞으면 어긋나거나 잘못이 없는 것이지만, 만약 그 던지는 바의 합한 수가 마음과 더 붙어 관하는 바의 주된 생각의 일이 서로 합당하지 아니하면 지극한 마음이 아니라고 이름하며, 헛되고 잘못된 것이라 이름합니다. 그 세 번을 던졌으되 모두가 나타나는 바가 없는 이는 이 사람은 곧 이미 無所有를 얻은 것이라 이름 합니다.¹⁰⁾

이 제5占察은 六輪을 쓰는 제3占察의 연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占察行法은 아니다. 그렇기에 제5占察로 분류하는 것은 학자들이 합의를 해야 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結果를 봤을 때 無所有라는 새로운 修行階位를 알아내는 方便이 되었으므로 제5占察로 분류되어도 된다고 여겨진다. 六輪을 三擲하여 세 번을 모두 六輪이 숫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확률이다. 실제로 A사찰의 20여 년 동안 진행된 徹夜精進에서 특정한 자격을 갖춘 勇猛精進者들에 의해 진행된 773회의 제3占察에서 이런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 정도면 제5占察이라 정의해도 무방하다.

2. 表師의 189簡子占察行法과 派生된 占察行法

1) 表師의 189簡子占察行法 (이하 「189簡子占察」)

『占察經』에는 나오지 않지만 表師께서 행하신 占察行法이 따로 있다. 「傳簡」의 글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뜻이 慈氏에게 있었던 까닭으로 감히 中止하지 않고 靈山寺(一名으로는 邊山 또는 楞伽山)로 옮겨서 또 처음과 같이 懃勇했다. 과연 미륵께서 감응하시어 위신력으로 나타나 『占

10)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6.c06), “善男子。是名一百八十九種善惡果報差別之相。如此占法隨心所觀主念之事。若數合與意相當者。無有乖錯。若其所擲所合之數。與心所觀主念之事不相當者謂不至心。名爲虛謬。其有三擲而皆無所現者。此人則名已得無所得也。”

察經』兩卷(이 經은 陳隋 시절에 외국에서 번역된 바로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慈氏께서 이 經經을 주었을 뿐이다.)과 189개의 證果簡子を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이 가운데 第八簡子是 새로 얻은 妙戒를 비유한 것이요, 第九簡子是 일찍이 具戒 얻음을 비유한 것이다. 이 二簡子是 나의 手指骨이며, 나머지는 모두 沈檀木으로 만든 것으로 모두 煩惱에 비유한 것이다. 너는 이것으로써 세상에 傳法하여 사람을 구제하는 津筏로 삼아라.¹¹⁾

이 내용을 보면 表師의 189簡子占察은 순전한 修行의 과보로서 획득 되었다. 당연히 占察行法の 하나로 당위성이 부여된다. 『占察經二卷』권 證果簡子 189개, 거기다 제8과 제9簡子が 彌勒의 손가락뼈이니 불보살의 직접 聖刹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서는 189簡子を 모두 받았다.

關東楓岳鉢淵藪石記에서는 내용이 약간 다르게 전해지기도 한다.

地藏이 戒本을 주고 慈氏께서 二性을 주셨는데, 하나는 九者라고 적혀 있고, 하나에는 八者라고 써어 있었다. 表師에게 말씀하시길. 이 二簡子是 나의 手指骨이니 이것은 始本の 二覺을 비유한 것이다. 또 九者是 法 그 자체이고, 八者是 新熏成佛種子이니, 이것으로써 마땅히 果報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대는 이 몸을 버리면 大國王의 몸을 받고 그 후에는 兜率에 가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말씀을 마치고 두 성인은 곧 사라졌다.¹²⁾

이 내용을 보면 表師는 慈氏께 189簡子を 동시에 받은 것이 아니라 제9와 제8簡子を 받은 후 그것을 기초해 189의 簡子を 제작하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表師가 189簡子を 온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다음 기록에서 확실히 알 수 있다.

11) 『三國遺事』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7.c02), “然志存慈氏。故不敢中止。乃移靈山寺(一名邊山又楞伽山)又勲勇如初。果感彌力。現授『占察經』兩卷(此經丹陳隋間外國所譯。非今始出也。慈氏以經授之耳)并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謂曰。於中第八簡子喻新得妙戒。第九簡子喻增得具戒。斯二簡子是我手指骨。餘皆沈檀木造。喻諸煩惱。汝以此傳法於世。作濟人津筏。”

12) 『三國遺事』卷4,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藪石記」(大正藏49, 1008.b12), “地藏授與戒本。慈氏復與二性。一題曰九者。一題八者。告師曰。此二簡子者。是吾手指骨。此喻始本二覺。又九者法爾。八者新熏成佛種子。以此當知果報。汝捨此身受大國王身。後生於兜率。”

이때 속리산의 고승 永深이 融宗, 佛陀 등과 함께 을사의 처소에 이르러 청하여 말했다. 우리들은 不遠千里하고 戒法을 구하고자 왔으니 法門 주시기를 원합니다. 을사가 默然하고 대답치 않으니 세 사람은 桃樹 위로 올라가 땅에 거꾸로 떨어지면서 勇猛하게 懺悔했다. 이에 을사가 傳敎하며 灌頂하고 袈裟와 鉢, 供養次第秘法一卷과 占察善惡業報經二卷, 一百八十九의 牒를 주었다. 다시 彌勒의 眞性인 九者和 八者 주면서 경계하여 말하기를 九者是 法 그 자체이고, 八者是 新熏成佛種子다. 내가 너희들에게 付囑하였으니 이것을 가지고 俗離山으로 돌아가라. 산에 吉祥草가 난 장소가 있으니, 거기에 精舍를 세우고 이 敎法을 의지해 널리 人天을 제도하고 後世에 流布토록 하라. 永深 등이 가르침을 받들고 곧바로 俗離에 가서 吉祥草가 난 곳을 찾아 절을 세우고 吉祥寺라고 이름했다. 永深은 이곳에서 처음으로 占察法會를 열었다.¹³⁾

永深 등이 戒法과 法門을 구하기 위해 勇猛懺悔하자 表師는 그에 대한 傳敎 과정에서 彌勒의 眞性인 8,9 외에 189의 牒를 전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므로 189를 이용한 占察法會는 분명히 존재했다. 表師 외에도 189簡子로 占察法會를 봉행한 경우가 있을지 모르는 추정 되는 내용도 있다.

또 本朝의 文士인 金寬毅가 편찬한 바인 王代宗錄을 살펴보면 二卷에 이르길 新羅의 大德釋沖이 太祖 表律師의 袈裟一領과 戒簡子 189枚를 바쳤다고 한다. 지금 桐華寺에 주어 傳하는바인 簡子和 同異한지는 詳細히 알 수 없다.¹⁴⁾

이 기록의 占察簡子が 桐華寺의 簡子라면 表師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큰 변화가 없지만 “未詳同異”로 표기 되었으니 아닐 경우 189簡子を 쓴 경우가 더 생길 수 있다.

13)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關東楓岳鉢淵藪石記」(大正藏49, 1008.c14), “俗離山大德永深與大德融宗佛陀等同詣律師所。伸請曰。我等不遠千里來求戒法。願授法門。師默然不答。三人者乘桃樹上。倒墮於地。勇猛懺悔。師乃傳敎灌頂。遂與袈裟及鉢。供養次第秘法一卷。日察善惡業報經二卷。一百八十九牒。復與彌勒眞性九者和八者誠曰。九者法爾。八者新熏成佛種子。我已付囑汝等。持此還歸俗離山。山有吉祥草生處。於此創立精舍。依此敎法。廣度人天。流布後世。永深等奉敎。直往俗離。尋吉祥草生處。創寺名曰吉祥。永深於此始設占察法會。”

14)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心地繼祖」(大正藏49, 1009.c17), “又按本朝文士金寬毅所撰王代宗錄二卷云。羅末新羅大德釋沖獻太祖。以表律師袈裟一領戒簡百八十九枚。今與桐華寺所「傳簡」子。未詳同異。”

189占察簡子の 모양이나 行法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기록된 부분이 없기에 기록들을 모아 미루어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다. 우선 모양을 추론해보자. 189占察簡子の 모양은 앞서 해설한 원본에 남아 있다.

“并證果簡子一百八十九介。謂曰。於中第八簡子喻新得妙戒。第九簡子喻增得具戒。斯二簡子是手指骨。餘皆沈檀木造。喻諸煩惱。”¹⁵⁾

이 부분에서 簡子の 모양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表師가 미륵으로부터 189개를 온전히 받았는데 2개는 손가락뼈의 모양이 분명하다. 나머지 187개의 원료는 沈檀木이라는 밝혔다. 여기서 8,9만을 특별히 만들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모양이 모두 같다면 占察簡子は 뼈 모양의 유백색이어야 한다. 그러면 나무들도 그렇게 맞추면 된다. 그러나 이럴 경우 189簡子占察에서 사용되는 간자만 189개가 되니 구분이 쉽지 않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뚜렷하게 구분되는 색깔이 유백색의 특별간자가 제작되고 나머지는 짙은 다른 색상으로 제작 되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또 크기에 대해서도 추론이 가능하다. 占察簡子에 써질 글자는 어떻게 처리했을까? 앞선 十輪, 三輪, 六輪이 모두 글자가 쓰여 있으니 189간자도 써졌을 것이다. 힌트는 “於中第八簡子喻新得妙戒 第九簡子喻增得具戒”에 있다. 이 내용은 『占察經』의 제3占察의 結果 189가지를 적어놓은 본문과 일치한다. 『占察經』의 본문은 “八者所欲受得妙戒 九者所曾受得戒具”¹⁶⁾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占察簡子の 숫자가 같고 8,9의 經典 문구가 같다면 나머지도 經典과 같은 글자가 적혔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占察簡子は 상당히 길쭉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占察經』에서는 각 숫자마다 제목을 합쳐 총8자인데 이 내용을 넣으려면 상당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占察에 무엇이 적혔는지 알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글자 크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들 눈의 건강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대개의 占察行法이 徹夜를 기반으로 열렸다는 것을 감

15)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7,c03).

16)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b07).

안하면 작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占察의 輪을 던져 굴려야 하기에 두께는 두껍지 않았음도 추정할 수 있다. 실제 行法에서는 189개를 모두 합쳐 두 손으로 모아 들 수 있는 정도의 크기. 길이는 약간 긴 모양의 占察簡子라는 말이 된다.

189簡子占察의 行法은 宋高僧傳 기록으로 類推가 가능하다. 새로이 譯하지 않고 蔡印 幻의 글을 인용한다.

慈氏가 몸소 三法衣와 瓦鉢을 授與하였으며, 다시 이름을 賜하되 眞表라 하였다. 또 무릎 아래에서 두 물건을 내어 주시니, 뼈도 아니요, 옥도 아니요, 籤檢 하는 法具였다. 一은 題하여 九者라 하였고 一은 題하여 八者라 하였으니, 각 二字씩이었다. 眞表에게 건네주시면서 이르시기를, “만약 사람들이 戒를 구하거든 마땅히 먼저 罪를 참회케 하여야 하느니라, 罪와 福은 持하고 犯하는 것으로 성품을 삼는다.” 하시고, 다시 百八籤을 더 주시니, 그 籤의 위에는 108가지 煩惱의 名目이 號名되어 있었다. “만약 戒를 구하는 사람은 혹은 90일, 혹은 40일, 혹은 3·7 일 동안 修懺을 修行하되 괴로움이 이르기까지 精進하여야 하며, 기한이 차서 끝나거든 九와 八의 二籤을 가지고, 百八籤에 합쳐 섞은 것을 佛前에서 공중을 향해 던져서 땅에 떨어지면 그것으로써 罪가 소멸하였는지 아직 소멸되지 못하였는지를 증험할 것이니라. 만약 108개의 籤은 다 四畔으로 뛰어서 떨어지고 오직 八과 九의 두 개 籤만이 壇의 가운데에 뚜렷하게 선 사람은 곧 上品의 戒를 얻은 것이다. 만약 많은 籤이 멀리 떨어져 나갔지만 혹은 하나나 둘이 남아서 九와 八의 籤에 닿는 것이 있거든 그것을 잡아서 무슨 이름의 煩惱인가를 보고, 그 사람으로하여금 다시 懺悔케 하고, 끝나거든 거듭 懺悔한 그 煩惱의 籤을 가지고 九와 八의 籤에 합친 것을 던져서 그 煩惱籤이 떨어져나간 사람은 中品戒를 얻었다고 이름한다. 만약 많은 籤이 九와 八의 籤을 덮어 묻어버리게 된 사람은 罪를 소멸하지 못하였으므로 戒를 얻지 못하며, 설사 다시 참회하기를 더하여 90일을 지난 다 하더라도 下品戒를 얻게 될 뿐이다.” 하시면서, 慈氏가 거듭 가르쳐 이르시기를, “八者是 新黨이며, 九者是 本有이다”라고 하였다.¹⁷⁾

17) 『宋高僧傳 卷14』(大正藏50, 794.a~b), “慈氏躬授三法衣瓦鉢。復賜名曰眞表。又於膝下出二物。非牙非玉乃籤檢之制也。一題曰九者。一題曰八者。各二字。付度表云。若人求戒當先悔罪。罪福則持犯性也。更加一百八籤。籤上署百八煩惱名目。如來戒人。或九十日。或四十日。或三七日。行懺苦到精進期滿限終。將九八二籤參合百八者。佛前望空而擲其籤。墮地以驗罪滅不滅之相。若百八籤飛逗四畔。唯八九二籤卓然壇心而立者。即得上上品戒焉。若衆籤雖遠。或一二來觸九八籤。拈觀是何煩惱名。抑令前人重覆懺悔已。正將重悔煩惱籤和九八者。擲其煩惱籤。去者名中品戒焉。若衆籤埋覆九八者。則罪不滅。不得戒也。設加懺悔過九十日得下品戒

앞선 기록이 189占察簡子を 가지고 占察을 한다면 宋高僧傳의 기록은 108籤+2籤의 조합이다. 모두 表師에 대한 기록인데 三國遺事와는 내용이 다르다. 이것에 대해 一然是 “108籤子是 무엇인가? 저108煩惱의 이름으로 인식한 것으로 의심 되며 이것은 經文을 揅尋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며 “189占察簡子が 옳은데 경을 보지 않고 적은 오류의 結果라고 주장했다.”¹⁸⁾ 그러나 一然의 혹평에도 불구하고 宋高僧傳의 이 기록은 189簡子を 가지고 진행되는 占察行法을 실행 모습을 알 수 있게 해준다. 八과 九의 두 개 籤이 판단 기준이 되어 擲輪하여 나타난 모습으로 上上品, 中品戒, 下品戒로 나누고 그것에 맞춰 맞춤형 懺悔精進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表師의 189簡子占察에 대입하면 行法을 바로 만들 수가 있다. 하지만 내용은 달라진다. 189簡子占察이 본경에 충실한 반면 108+2占察은 108번뇌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占察經의 내용이 189簡子의 내용이 어떤 結果를 의혹을 즉각 해소하는 結果를 도출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108+2占察行法은 별도의 108번뇌를 설정하여 그것을 소멸하는 것에 精進의 가닥으로 삼게 되는 것이다. 이 경우 表師에 의해 구분 되는 占察行法은 둘이 된다. 본래의 189簡子占察과 108簡子占察行法(이하 「108簡子占察」)이다. 일연과 다르게 이 두 行法은 모두 취해도 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경전에 기초하고 부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한 다양한 방법들은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의 하나로 볼 수 있고 풍부한 내용은 다양성의 시대에 적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기타의 派生된 占察行法

(1) 智異山 水精社記의 占察行法

智異山 水精社記는 權適이 水精結社와 창건주인 津億이 폐사되었던 五臺寺를 새롭게

焉。慈氏重告誨云。八者新熏也。九者本有焉。；蔡印幻，「新羅 眞表律師 研究(Ⅰ)」，『佛教學報』23，1986 pp.12-13.

18) 『三國遺事』卷4，義解第五，「心地繼祖」(大正藏49，1009,c15)，“而宋傳但云。百八籤子。何也。恐認彼百八煩惱之名而稱之。不揅尋經文爾。”

창건하게 된 내력을 쓴 글로 『東文選』卷64에 실린 글이다. 그 중에 占察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무릇 결사에 들어온 사람들과 더불어 存亡을 묻지 않고 이름을 占察 簡에 새겼다. 매번 半月에 닿으면 『占察業報經』에서 설한 것에 의하여 簡을 꺼내어 擲輪하여 善惡의 報를 占察하였다. 善惡의 얻은바로써 兩函으로 분류했다. 그 惡報에 陷한자는 會衆이 代懺하였다. 擲輪하여 善報를 이미 얻으면 다시 還하였다. 또 그 처음에 善報를 얻었으나 뒤에 惡報에 떨어지는 것을 염려하여 이에 다시 每年에 一回 擲輪하여 占察한 뒤 혹 顛墜하면 곧 다시 처음과 같이 참회했다. 雲集之衆이 더불어 同一解脫코자 함이니 未來際의 限까지 無盡燈을 전하고 이른바 一堂에서 벗어나지 않고 양쪽이 이익을 구족하는 것이다.¹⁹⁾

이것은 결사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懺悔精進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占察은 修行精進을 하는 指南으로 존재하고 精進하는 이들이 공동체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매우 모범적인 파생 占察行法이라 여겨지고 모인 대중을 雲集之衆이라 표현했으니 과거의 占察法會에 대한 대략을 짐작할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마음과 精進력을 알 수 없다. 누구도 개관적이지 못한다. 때로는 스스로의 精進력을 과하게 판단하기도 하고 너무 모자라다고 여기는 수도 있다. 어느 경우던 옳지 못하다. 이 때 수정사 占察行法은 단번에 의혹을 해결한다. 擲輪에 의해 명확한 결론이 나오므로 善報를 得한자는 만족과 안도를 얻어 精進에 전념이 가능하고 惡報를 得한 자는 두려움으로 겸손해지며 더 精進에 전념이 가능하리라. 수정사의 占察行法이 우수한 것은 이 때 惡報의 結果를 받은 精進의 道伴들을 위해 大衆이 함께 擲輪하여 代懺을 하여 구하였다고 하니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디에 비교하겠는가? 그런 분위기에서 雲集之衆은 자명한 일이다. 역사 속에 占察行法으로 이처럼 숨은 精進의 歷史가 있는데 그 殊勝함을 몰라보고 있는

19) 權適, 『東文選 卷之六十四, 『智異山水精社記』, “凡與於入社者。無問存亡。刻名爲簡。記每值半月。依占察業報經說。出簡擲輪。占善惡之報。以所得善惡。分爲兩函。其陷惡報者。會衆爲之代懺。還復擲輪。得善報乃已。又慮其有初得善報而後墮惡報。乃復於每年。一擲輪以占之。如或顛墜。則復代懺如初。欲與雲集之衆。同一解脫。限未來際。傳無盡燈。所謂不出一堂。而二利俱足者也。”

韓國佛敎는 크게 기억해야 한다. 占察은 이런 偉大性이 있다. 수정사의 占察行法 역시 새로운 占察 프로그램의 하나다.

(2) 기타 파생 占察行法

다음은 신라 九山禪門 중 하나인 闍崛山門의 開祖인 梵日國師(810~889)와 연관된 내용이다. 梵日國師가 正趣菩薩을 만나는 과정에서 불안하기 위해 簡子로卜하는 이야기다.

그 뒤에 崛山祖師 梵日是 太和年(827~835) 가운데에 入唐하여 明州의 開國寺에 이르렀다. 左耳가 截한 一沙彌가 衆僧의 末에 있다가 師와 더불어 말하였다. “吾도 또한 鄉人입니다. 집이 溟州 界인 翼嶺縣 德耆坊입니다. 師께서는 他日에 만약 本國에 돌아가거든 모름지기 吾를 지어주셔야 합니다.”… 會昌 七年 丁卯(847)에 還國하여 오자 崛山寺를 창건하고 세우고 傳敎하였다. 大中 十二年 戊寅(858) 二月 十五日에 夜夢에 과거에 본바 있는 沙彌가 窗下에 이르러 말하기를 … 어찌 늦습니까하니 祖師가 驚覺하였다. … 水中에 一石佛이 있어 들어올려 나오게 하니 左耳를 截한 類로 전에 봤던 沙彌였고 곧 正趣菩薩의 像이었다. 이에 簡子를 만들어 그 營構의 地를 점(卜)쳐보았더니 洛山의 위가 吉하다하므로이에 三間의 殿을 지어 그 상을 모셨다.²⁰⁾

이 기록에서는 占이나 察, 觀이 아닌卜을 썼기에 연관성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례가 있다.

이에 地(心地)가 簡子를 頂戴하고 歸山하니 岳의 神이 仙子 둘을 인솔하여 山椒에서 맞아

20) 『三國遺事』 卷3, 塔像第四,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大正藏49, 0996,c24), “後有崛山祖師梵日。太和年中入唐。到明州開國寺。有一沙彌截左耳在衆僧之末。與師言曰。吾亦鄉人也。家在溟州界翼嶺縣德耆坊。師他日若還本國。須成吾舍。既而遍遊叢席。得法於鹽官(事具在本傳)以會昌七年丁卯還國。先創崛山寺而傳敎。大中十二年戊寅二月十五日。夜夢昔所見沙彌到窗下。曰。昔在明州開國寺與師有約。既蒙見諾。何其晚也。祖師驚覺。押數十人到翼嶺境。尋訪其居。有一女居洛山下村。問其名。曰德耆。下村。問其名。曰德耆。女有一子年才八歲。常出遊於村南石橋邊。告其母曰。吾所與遊者有金色童子。母以告于師。師驚喜。與其子尋所遊橋下。水中有一石佛。昇出之。截左耳類前所見沙彌。卽正趣菩薩之像也。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洛山上方吉。乃作殿三間安其像。”

地를 인도하여 岳上에 앉히고 岳下에서 歸伏하고 공손히 戒를 받았다. 地가 말하길”이제 장차 땅을 가려서 聖簡을 奉安하려합니다. 이것은 吾輩가 능히 指定할 바가 아니니 三君들과 더불어 憑高하여 擲簡하여 卜하고자 請합니다. 이에 神등과 더불어 峰巔에 올라 사쪽을 향하여 서쪽을 향하여 擲하였다. 簡子가 風颺하여 날아갔다. 이때에 神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 “礙岳이 遠退하니 砥처럼 평평하고 落葉이 飛散하니 광명이 생겨나네 佛의 骨簡子를 찾아 얻었으니 投誠하여 淨處를 邀하고자 하옵나이다.” 노래를 마치고 簡子를 林泉中에서 찾아 곧 그 땅에 構堂하고 奉安하였다. 지금 桐華寺 籤堂 북쪽에 있는 小井이 이것이다.²¹⁾

梵日の 기록 원문은 “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이고 심지의 기록은 “憑高擲簡以卜之”인데 모두 卜을 사용했고 둘 다 장소를 찾는 내용이다.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 심지의 기록은 실행하기 어렵지만 梵日の 것은 제3占察로 분명히 가능한 일이다. 梵日の 기록에서 “乃作簡子卜其營構之地 洛山上方吉”했다는 것은 간자를 제작해 어떤 질문을 던졌고 結果로 洛山上方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내용과 방법은 정확하게 제3占察과 같다. 제3占察은 실제 일상생활이나 수행생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을 맞아 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의혹되는 바를 푸는方便이기 때문이다. 梵日の 상황을 類推하면 여러 후보지를 적어 두고 제3占察을 통해 하나하나 점검하고 재차 확인했다면 바로 結果가 나온다. 보충설명하면 낙산을 예로 들어서 洛山上方, 洛山中方, 洛山東方 … 이런 식으로 적합후보지가 나왔는데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3占察은 완벽하게 답을 준다. 실제 이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것이 제3占察인데 상황을 만들어보자. 참회精進을 한 다음 地藏菩薩의 앞에서 질문을 던진다. “佛恩을 입어 가슴 벽차게도 正趣菩薩의 像을 만났습니다. 좋은 도량에 모시고자 하니 地藏菩薩께옵서는 奉安할 장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하는 바가 진실에 칭합하고 서로 응하게 하시옵소서. 정취보살을 모시는 저리로 洛山의 上方이 적합합니까?” 이런 질문은 『占察經』 근거해 기본을 지키며 다양하게 만들면 된다. 다만 다

21)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心地繼祖」(大正藏49, 1009,b16), “乃授簡子。地頂戴歸山。岳神率一仙子。迎至山椒。引地坐於岳上。引地坐於岳上。歸伏岳下謹受正戒。地曰。今將擇地奉安聖簡。非吾輩所能指定。請與三君憑高擲簡以卜之。乃與神等陟峰巔。向西擲之。簡乃風颺而飛。時神作歌曰 礙岳遠退砥平兮 落葉飛散生明兮 覓得佛骨簡子兮 邀於淨處投誠兮 既唱而得簡於林泉中。卽其地構堂安之。今桐華寺籤堂北有小井是也。”

양한 답이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洛山의 上方이 적합합니까?”라고 하듯 단답형이 가능한 명확성을 가져야 한다. 용맹精進한 精進력이 있다면 제3占察에서는 당연히 그에 합당한 답이 나온다. A사찰의 제3占察의 예에서 확인 되었다. 그러므로 梵日은 제3占察을 행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되면 제3占察의 실제 사례에 속한다. 그러나 혹여 다를수도 있으니 파생으로 분류했다. 다만 梵日과 심지에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占察行法은 경전의 5가지 占察 외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占察행법에 대해 정리해보면,

순번	명칭	내용	목론갯수
1	제1占察行法	宿世의 지은바 善惡業報의 差別	10개
2	제2占察行法	지은바 업의 久近과 強弱, 大小의 差別	3개
3	제3占察行法	三世中에 받는 차별의 報, 欲決疑意者	6개
4	제4占察行法	淸淨에 대한 명확한 檢證法	3개
5	제5占察行法	無所有를 알려주는 占察행법	6개
6	189簡子占察行法	三世中에 받는 차별의 報	189
7	108簡子占察行法	108가지 煩惱 消滅	108+2
8	派生 占察行法	智異山 水精社記의 占察行法 等等	

표 1. 占察行法の 종류

Ⅲ. 占察作法(占察行法)의 재현

『占察經』은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논서 없이 바로 修行의 현장에 적용되는 經典이다. 내용이 쉽게 구성 되어 있고 아무리 찾아도 흠이 발견 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다. 일목요연한 정리, 經口의 단 하나도 소홀하거나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一然是 “詳彼經文 乃悉壇深密 洗滌穢瑕 激昂懶夫者 莫如茲典”²²⁾이라고 단정지었다. 一然의 이 의견은 전혀

22)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8,a07),

거짓이 아니다. 佛陀의 八萬藏經이 모두 優秀하지만 그 내용을 이해하려면 눈 밝은 善知識들의 특별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많은 甲論乙駁이 이루어진다. 『占察經』의 下卷은 그런 유형이지만 上卷은 經典 자체가 완벽하고 자세한 修行 指針書이다. 『占察經』같은 완벽한 내용은 본적이 없다. 더구나 占察行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대에 겨우 개발이 된 인터넷, 컴퓨터 서버와 온라인시스템이 必須다. 表師는 占察수행의 代表修行者이면서도 특이하게 제1, 제2占察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이 두 占察은 컴퓨터와 온라인 서버시스템의 後援이 없으면 무용지물과 같다. 혹 表師께서는 그런 占察行者 기록 관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럴 염려가 없는 제3占察만을 취하셨을 수도 있다. 『占察經』은 隋代에 공식적으로 등장했으나 늦게 잡아도 1500년 전에 세상에 등장하였다. 그런데 제1, 제2 占察을 행한 수행자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대에 비로소 가능케 되었다. 최소한 그 격차를 지나야 실제 修行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내용을 품었으니 占察經을 極讚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占察經』에 근거해 占察作法을 어떻게 재현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여기서 용어의 정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占察作法은 占察에 관한 장소, 시간, 단장업 등의 총체적인 것을 말하지만 占察行法은 범위를 줄여 실제적 占察行法에 초점을 두는 개념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보인다. 이것은 아직 규정이 없으므로 학자들이 용어를 통일해야 옳다. 작법진행에 있어서는 첨부자료를 낸 A사찰의 實例를 중심으로 기술해 본다.

1. 占察行法(占察 作法)의 기본, 占察簡子の 제작

1) 제작원리

占察行法을 하기 위해서는 占察簡子が 반드시 필요하다. 『占察經 上卷』에서는 너무나 쉽게 占察簡子の 제작에 대해 설명했고 제작에는 큰 어려움 없다.

善男子여! 木輪相을 배우려는 자는 먼저 마땅히 小指가 허락하는 정도의 나무를 깎을지니, 하여금 長短은 一寸으로 줄이고 정중앙은 하여금 그 四面을 方平하게 만들며, 나머지는 자연히 兩頭를 향하여 비스듬히 점차 가야 합니다. 손을 따라 가까이 던지면 하여금 易轉해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뜻을 因한 연고로 이름을 輪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相에 의지하여 능히 衆生의 邪見과 疑網을 파괴하고 바른 도에 轉向하여 安隱處에 도달하게 하니, 이러한 연고로 이름을 輪이라 하는 것입니다.²³⁾

이 經典 글귀에 의지해 占察簡子를 製作하면 된다. 表師께서 미륵불의 記號를 받으실 때 그 原料를 밝히는 기록에 沈檀木으로²⁴⁾ 나오지만 『占察經』 자체에는 “先當刻木”이라 하여 단순히 나무라고만 표시 되어 있다. 그렇기에 굳이 나무의 종류를 가릴 필요 없다. 단 종교적인 성스러운 聖物이므로 귀한 나무를 사용해야 옳다.

A사찰에서는 占察簡子 製作에 사찰 주변 산에 있는 ‘싸리나무’를 사용했다. 싸리나무는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그 중 흔한 싸리나무보다 두께가 두꺼운 종류가 있다. 두꺼운 싸리나무로 簡子를 만들어 본 結果 단단하고 변형이 없다. 처음 색상은 밝은 유백색이고 좋은 향기가 나며 시간이 지나면 약간의 황색 빛이 돌고 점점 색상이 짙어진다. 싸리나무는 대개 직선의 모양을 하고 있어 占察簡子の 제작으로 매우 합당하다. 表師의 증과簡子の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기록을 보면 싸리나무가 매우 흡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 보통 ‘手指骨’은 유백색이고 단단하니 매우 유사하다. 간자의 모습을 描寫한 추가적인 글을 살펴보자.

本朝 睿王이 일찍이 聖簡을 취해 대궐 안에서 瞻敬했는데, 홀연히 九者의 一簡을 잃어 牙로 대체하여 本寺로 돌려보냈다. 지금은 곧 점차 변하여 同一色이 되어 新古가 難卜이다. 그 재질은 牙도 아니고 玉도 아니다.²⁵⁾

23)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b23), “善男子。欲學木輪相者。先當刻木如小指許。使長短減於一寸。正中令其四面方平。自餘向兩頭斜漸去之。仰手傍擲令使易轉。因是義故。說名爲輪。又依此相。能破壞衆生邪見疑網。轉向正道到安隱處。是故名輪。”

24)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眞表「傳簡」』(大正藏49, 1007,c07).

25) 『三國遺事 卷4, 義解第五, 「心地繼祖」』(大正藏49, 1009,b25), “本朝睿王嘗取迎聖簡。致內瞻

즉, 고려 16대 예종(睿宗, 재위 1105~1122)²⁶⁾이 聖簡을 대궐로 모셔 공경했는데 九者의 證簡이 사라져 대체 占察簡子を 象牙로 만들었고 이후 세월이 변해 진본인 八者 證簡과 구분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 占察簡子是 유백색일 확률이 높고, 재료 구하는 접근로나 분포도, 加工을 생각한다면 싸리나무는 최적이라고 여겨진다.

싸리나무 외에도 사찰 주변에서 쉽게 귀할 수 있고 귀하게 대접받는 나무는 櫨木인 느티나무가 있다. 이 나무도 유백색이 나며 나무가 단단하여 변형이 없다. 하지만 占察簡子로 사용할 가지는 가늘고 반듯해야 하기에 느티나무 작은가지는 아직 여물지 않거나 변형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占察簡子 제작에는 가지가 필요하지 큰몸통이 아닌 것도 留意하자.

싸리나무로 占察簡子を 제작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經典에 언급한대로 兩頭의 길이를 계산에 넣어 일정한 크기로 잘랐다. 이때 먼저 전체 크기를 정해야 하는데 “木如小指許 使長短減於一寸”이 기준이다. 작은 손가락과 1촌이라는 분명한 조건이 나온다. 여기서 혼란이 온다. 보통 사람을 기준해 작은 손가락에 1촌이면 매우 작은 모양이 된다. 종교적 聖物인데 그렇게 되면 威儀가 상실된다. 그래서 A사찰에서는 법에 맞추면서도 鎮重한 威儀가 나오기를 연구해 小指는 취하고 一寸은 늘리는 쪽으로 결론지었다. 經典에서는 指의 기준이 되는 특정한 대상을 지목하지 않았기에 제작자의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다. A사찰에서는 종교 聖物로서의 鎮重함으로 결론지어 가늘고 약간 긴 占察簡子가 제작 되었다. 반면 현재 알려진 中國 쪽의 占察簡子들은 一寸에 무게를 뒤서 짧고 굵은 것이 特徵이다. 選好度에 따라 다르겠지만 A사찰의 簡子가 종교적 鎮重함은 더 있다. 中國쪽의 것은 주사위와 닮아 있고 마치 장난감과 같은 모양새다. 慈氏께서 손가락이 아닌 뼈라고 하신점도 A사찰 簡子가 더 법에 맞음을 보여준다. 손가락 안의 뼈는 실제로 굵지 않다. 그러나 中國쪽은 占察簡子の 기본틀은 대동소이하지만 다양한 색상과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하고 판매하는 곳이 셀 수 없이 많으니 占察簡子가 거의

敬。忽失九者一簡。以牙代。送還本寺。今則漸變。同一色難卞新古。其質乃非牙非玉。”
26) 예종(睿宗, 1079~1122).

없는 韓國佛敎로서는 큰 부러움과 경계가 된다. ‘占察’이라는 주제로 ‘Google’에서 검색해 ‘이미지’로 넘어가면 지금 시대 中國에서 제작된 占察簡子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기본 크기를 결정해 裁斷한 뒤에 모양을 잡는 것으로는 砂布를 이용했는데 中國쪽은 직접 砂布에 갈아 手作業으로 제작하거나 기계를 사용하는데 A사찰은 처음부터 기계를 사용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hand grainder라 불리는 작은 기계에 다양한 규격대로 砂布 장착이 가능해서 약간의 정성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어렵지 않게 제작이 가능하다. 다만 占察簡子は 쉽게 제작하기는 어려우므로 분실이나 기타 사유를 염려하여 첫 제작 시에 여분을 제작해 두면 현명한 일이 된다. 占察簡子の 보관은 A사찰에서는 주머니를 사용했는데 中國에는 주머니와 함께 고급 木盒을 이용하고 있다. 占察簡子 중간의 四角을 잡는 것은 약간의 기술을 요하며 hand grainder는 굉음을 내기에 여성들은 힘들고 남성들이 도움을 줘야 한다. 하지만 기계의 도움이 없이 手作業으로 만든다면 많은 공력이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A사찰의 占察簡子は 兩頭를 합친 전체길이가 약7.5cm고 가운데 四角 몸통 부분은 5cm, 두께는 1cm였다. 이렇게 하면 손으로 움켜잡기가 매우 수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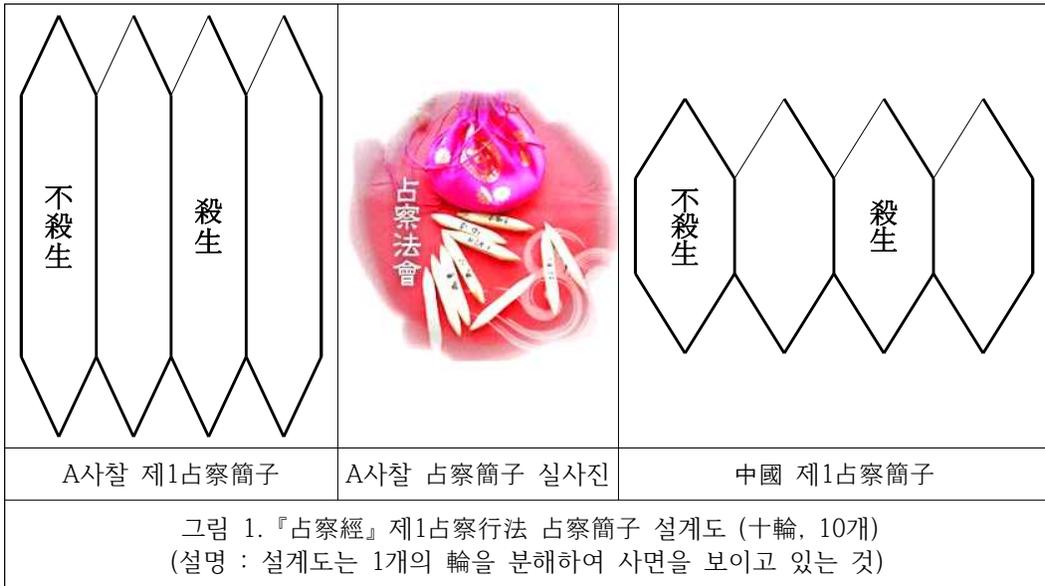
2) 제1占察簡子の 제작

제1占察行法에 사용 되는 제작기법도 『占察經』에 자세하다.

만약 宿世의 지은바 善惡業報의 差別을 觀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나무를 깎아 十輪을 만들며, 이 十輪에 의지해 十善의 이름을 씁니다. 一善이 주가 되어 一輪에 있게하며 一面에 기록합니다. 다음으로 十惡을 써서 十善을 對하도록 해서 하여금 相當하게 하며 또한 각기 一面에 기록합니다.²⁷⁾

27)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c03), “若欲觀宿世所作善惡業差別者。當刻木爲十輪。依此十輪書記十善之名。一善主在一輪。於一面記。次以十惡書對十善令使相當。亦各記在一面。”

이 내용대로 10개의 기초가 되는 輪을 제작한 뒤에 각 輪 四角의 한 면에 글자로 十善을 각각 적고 마주보는 자리에는 十惡을 각각 적으라는 것이다. 어렵지 않게 적을 수 있는데 주의점이 하나 있다. 종이가 아닌 나무에 글을 쓰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잘 지워지지 않는 필기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마르지 않은 나무는 글자의 번짐 현상이 상당할 수 있으니 명심해야 한다. 글자를 적을 때 갑작스러운 번짐이 있으면 당황하게 되고 실수가 생길 수 있다. 미리 제작에 대한 안내가 담긴 經典 어구와 十善十惡을 정리해두기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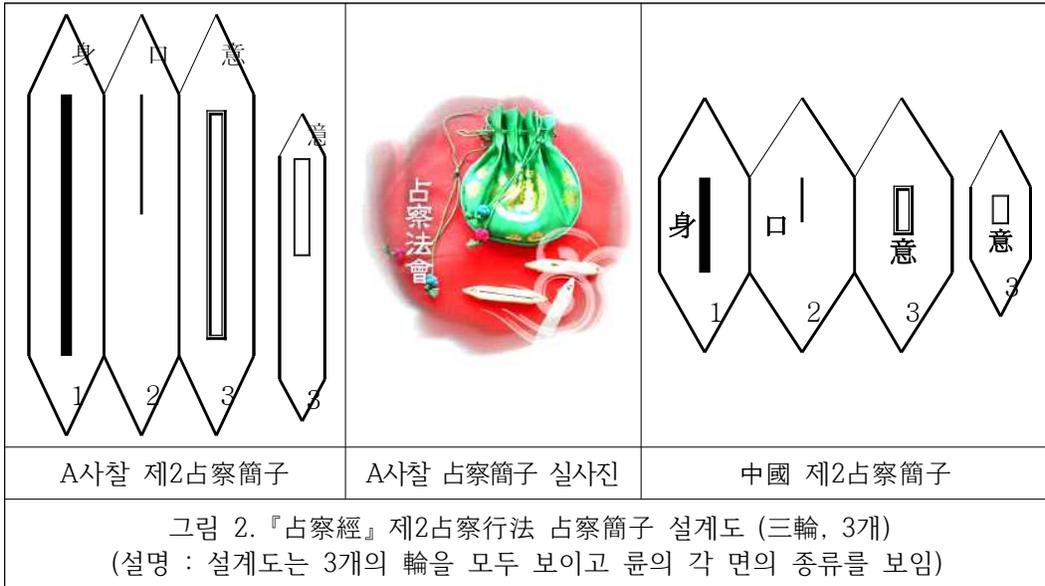
3) 제2占察簡子の 제작

제2占察簡子の 제작에 대해 『占察經』은 다음과 같이 안내했다.

마땅히 다시 나무를 깎아 三輪을 만들어야 하며, 身口意로써 각 一輪의 主가 되고 글자로

기록해야 합니다. 또 輪의 一面 정중앙에 一劃을 근되 하여금 麤長하게 하여 반을 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二面に 한 획을 근는데 하여금 細短하여 하여금 반에 이르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第三面に 곁에 획과 같이 조각하리니 하여금 麤深하게합니다. 다음에 第四面에는 또한 역시 곁에 조각하게 하는데 하여금 細淺하게합니다.²⁸⁾

여기서 A사찰과 中國의 簡子是 1면과 2면, 4면은 같지만 3면에서 차이가 난다. 中國 것이 곁에서 머물며 짧고 거칠게 조각한 반면 A사찰은 전체에 이르도록 깊이 조각했다. 실제 占察行法에서는 占察의 結果를 따로 정리해야 하는데 占察簡子が 뚜렷하고 빠르게 구분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A사찰의 제작방법이 옳다고 여겨진다. 身口意를 표시한 위치도 A사찰은 輪의 상단에 적은 반면 中國 輪은 중앙에 기록했다. 이것 역시 輪의 빠른 구별에 있어 A사찰의 방법이 더 유용함을 제작시 참고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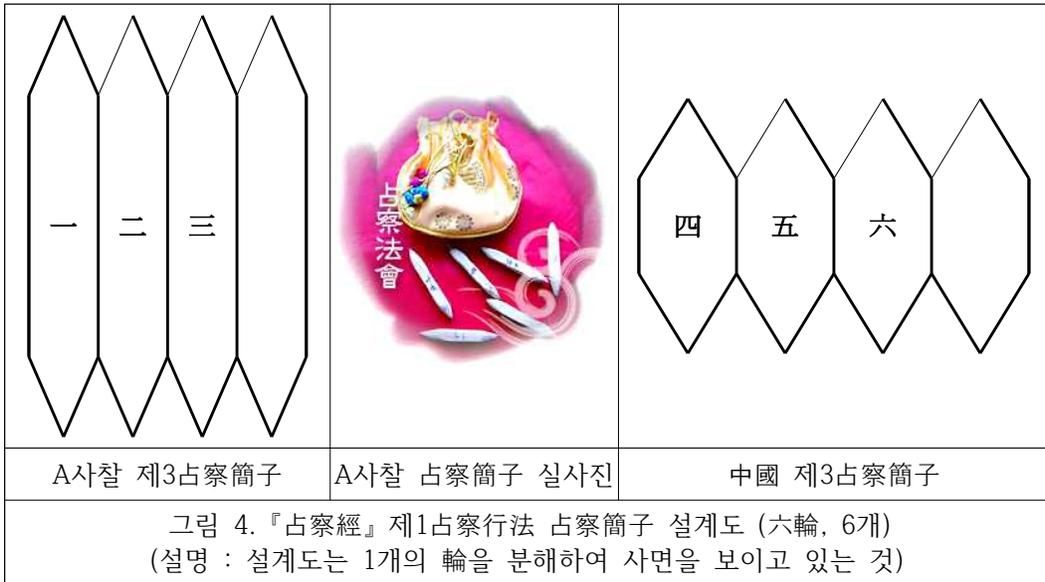


28)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3.b07), “當復刻木爲三輪。以身口意各主一輪書字記之。又於輪正中一面書一畫。令麤長使徹畔。次第二面書一畫。令細短使不至畔。次第三面作一傍刻如畫令其麤深。次第四面亦作傍刻令使細淺。”

4) 제3占察簡子

제3占察簡子 역시 經典에서 안내한대로 제작하면 된다.

善男子여! 만약 三世 가운데서 받는 과보의 차별을 占察하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다시 나무를 깎아 六輪을 만들어야 하며, 이 六輪에 1·2·3, 4·5·6, 7·8·9, 10·11·12, 13·14·15, 16·17·18 등의 수를 기재합니다. 一數를 一面에 주가 되게 하여 各 三面에 글자를 쓰는데 숫자로 하여금 次第를 不錯不亂하여야 합니다.²⁹⁾



제3占察簡子の 기본 제작기법은 앞서 설명한 크기의 차이를 제하고는 A사찰과 中國이 모두 같다.

29)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a15), “善男子。若欲占察三世中受報差別者。當復刻木爲六輪。於此六輪。以一二三四五六七八九十十一十二三十四五十六七十八等數書字記之。一數主一面各書三面。令數次第不錯不亂。”



A사찰이 占察簡子を 만든 것은 1998년 11월경이다. 이때 우리나라는 超高速은 물론이고 低速의 모뎀 인터넷 보급도 매우 적었던 때였다. 당연히 A사찰은 이 때 占察에 관한 中國쪽의 상황은 전혀 알지 못하였고 누구의 조언을 받음도 없이 순수하게 『占察經』에 의해서만 占察簡子が 제작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교 사진 자료가 광범위하게 보급된 상태에서 A사찰과 中國의 簡子是 大小長短만 차이가 날뿐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구조를 가졌고 보관하는 방법도 유사했다. 이것은 『占察經』이 그만큼 詳細한 설명을 가진 經典이라는 반증이다. 中國쪽에는 관리를 하는 주머니에 ‘南無阿彌陀佛’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다. 地藏菩薩은 釋迦牟尼佛, 彌勒佛과 연관이 되지 阿彌陀佛과는 거리가 있는데 占察簡子を 보관하는 주머니에 南無阿彌陀佛을 적었다는 것은 옳지 못하니 주의해야한다.

2. 占察行法 재현의 제문제

1) A사찰 占察法會 자료 분석

① A사찰 占察法會 概要

A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金山寺의 末寺(사설사암)로 보통의 농산촌 寺刹이며 國道에서 약 500미터 떨어져 있다. 문화재 사찰은 아니며 『三國遺事』에 전한 表師의 행장을 보고 발심한 주지스님의 원력으로 精進이 시작되었다. 1998년 9월부터 地藏祈禱

를 特化해 念佛 徹夜祈禱精進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9년 8월 250회차를 기록했다. 참여 인원은 현재 30~40명 수준이고 이전에 최대 80명을 넘긴 경우가 있었다. 이 徹夜精進 말미에 사전 제시된 특정 조건에 해당 되고, 희망하는 佛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1, 제2, 제3의 占察行法을 修行중이다. 특정 조건이라 함은 徹夜精進 3회에 제1占察, 추가 3회에 제2占察, 추가 3회에 제3占察을 修行하고 제3占察을 행한 이들에 한해 개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 자유롭게 추가로 제3占察을 행한다. 초창기에는 3연속 徹夜祈禱 참석이라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지만 중간 이후에는 참여 횟수로만 구분하고 있다. 수십회 이상 지속적으로 참여한 대중일부에 대해서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3회 占察을 바로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준다. 精進이 특이한 것은 주지스님 1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체 기도 精進은 다음 표와 같은 구조이고 2015년 7월 201회차를 기점으로 기본틀이 약간 변형 되었다.

구분	내 용							명 칭
1기	예불 및 법회		지장정근	수계	예불	다과	占察行法	지장徹夜祈禱占察法會
2기	예불	정근	참회	정근	예불	다과	占察行法	지장徹夜참회기도占察法會

표 2. A사찰의 지장철야참회기도精進 내용

② A사찰 占察法會 結果

A사찰에서는 徹夜精進이 시작된 1998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출석과 占察結果에 대해 자료를 워드프로세서로 정리해 놓았고 <첨부자료 1>로 논문에 첨부하였으며 그 분석 자료에 의하면 結果는 다음과 같다.

徹夜祈禱참여	占察참여	제1占察 3회 徹夜 참	제2占察 6회 徹夜 참	제3占察 9회 徹夜 참	제3占察 추가
992명	349명	342명	213명	195명(+7명)	578회
100%	35.18%	34.4	21.47	19.65	
표 3. A사찰 占察法會 結果					

자료에서 제3占察 +7은 占察을 행한 佛子들 가운데에서 제1占察과 그에 연관되는 제2占察을 생략하고 제3占察로 바로 간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총7명이 그에 해당 되어 전체 참여자는 349명이었지만 제1占察은 342명이다. 그 외에도 지속적인 徹夜精進 참여자 가운데는 占察行法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佛子들이 있는데 그 사유는 다양하다.

자료를 추가로 분석해 실제로 占察行法을 진행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結果에 대한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제1占察만 골라 結果表를 만들었다. 최초의 占察은 A사찰이 최초 徹夜精進을 시작한 1998년 9월에서 3개월이 되던 1998년 11월이었다.

항목	占察 結果										총계
	십 선 (十善)	불살생 (不殺生)	불투도 (不偷盜)	불사음 (不邪淫)	불망어 (不妄語)	불기어 (不綺語)	불악구 (不惡口)	불양설 (不兩舌)	불탐욕 (不貪欲)	불진에 (不瞋恚)	
占察結果	87회	68회	97회	62회	105회	72회	95회	92회	88회	96회	862회
	25.43%	19.88	28.36	18.12	30.70	21.05	27.7	26.9	25.73	28.07	25.20%
십 악 (十惡)	살생 (殺生)	투도 (偷盜)	사음 (邪淫)	망어 (妄語)	기어 (綺語)	악구 (惡口)	양설 (兩舌)	탐욕 (貪欲)	진에 (瞋恚)	사견 (邪見)	총계
	98회	99회	79회	100회	102회	100회	76회	104회	76회	85회	919회
占察結果	28.65%	28.9	23.09	29.23	29.82	29.23	22.2	30.40	22.2	24.85	26.87%
총인원	185명	167명	176명	162명	207명	172명	171명	196명	164명	181명	1781명
	54.09%	48.83	51.46	47.36	60.52	50.29	50.00	57.30	47.95	52.92	52.07%
표 4. A사찰 1998.11~2019.06 제1占察 행한 342명 行法 자료 분석 結果											

이 표는 개인의 제1占察 結果들을 하나로 모아 엮은 것으로 占察行法이 각 개인에게

나오는 結果를 분석한 것은 아니다. 다만 行法을 통해 다양한 모습의 占察結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다른 詳細한 연구가 필요할 경우 첨부된 원본자료를 살펴보면 된다. 占察作法에서 사용하는 占察簡子로의 行法은 일부의 방법이 주사위와 유사해 수학적으로는 확률의 원리와 이어질 수 있기에 일부러 표를 정리하기도 했다. 종교적 結果를 그렇게 분석하는 것은 불경스럽기는 하지만 진심을 다한 結果이기에 주저 없이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첨부된 占察行者 349명의 자료들을 占察의 結果들은 그대로 두고 이름 등 인적 사항은 없앤 뒤 수평은 그대로 두고 수직으로 여러 번 섞어 해당자가 누구인지는 모르도록 했다. 20년 이상의 축적 자료이니 추가 연구에 잘 활용되었으면 한다.

2) A사찰 占察行法の 실례로 알 수 있는 占察作法 재현의 제 문제

지금부터는 A사찰의 實事例 분석을 통해 가장 크게 장애했던 순서대로 정리해보자.

(1) 占察作法은 행자의 상당한 수준을 요한다.

제1占察은 修行의 분류 가운데 기본 바탕이 三十七助道法 중의 하나인 四正勤의 방법이 분명하다. 『佛說信佛功德經』에서 舍利弗은 부처님과 대화중에 四正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다음으로 다시 우리 佛世尊께서 最勝의 법이 있으시니 善을 分別하는 四正勤法이라합니다. 四正勤이라는 已作惡은 하여금 斷하고, 未作惡은 하여금 止하게 하며, 已作善은 하여금 增長하게하며 未作善은 하여금 發生하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등의 법은 天上과 人間에 廣大宣說하여 利益을 얻게하리니 이것을 이름하여 佛의 最勝法이라합니다.³⁰⁾

30) 『佛說信佛功德經』(大正藏1, 256,b06), “復次我佛世尊有最勝法。謂善分別四正勤法。四正勤者。謂已作惡令斷。未作惡令止。已作善令增長。未作善令發生。如是等法。於天上人間。廣大宣說。而作利益。是即名爲佛最勝法。”

“謂已作惡令斷 未作惡令止 已作善令增長 未作善令發生”이라는 四正勤의 정의는 『占察經』의 근본 지향점이다. 『占察經』은 十善과 十惡을 내세워 줄곧 四正勤 修行을 강조한다. 修行者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의 근본 원인을 악업으로 지목했다. 이것이 해결 되고 진정한 修行이 이루어지는 첫 단계를 淸淨이라 이름하고 그 시작을 참회, 더욱 자세히 알아가는 파악하는 방편으로 제1, 제2 占察行法이 동원 되었다. 그러나 占察을 통한 四正勤 修行法은 일정 조건을 요한다. 修行者가 글을 알아야 하고, 四正勤의 법에 대해 이해해야 하며, 指南이 되는 글을 정리해서 전달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되었다고 해도 實事例에서는 일부 부작용이 났다. 修行精進을 하며 최소한 徹夜精進기도 3회 참석의 대중들에게 占察行法을 진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結果지를 받은 뒤 抗議를 받는 일도 있었다. 자기를 가르치려 일부러 이렇게 했느냐는 오해를 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경우가 여러 차례 발생했고 실제로 精進을 멈추기 까지 했다. 제1과 제2는 언뜻 간단해 보이는 체계지만 실제 적용에서는 상당한 장벽에 부딪힐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원인에는 나오는 結果가 실제 당사자의 성격 등에 적중 되는 수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占察은 특별한 방법이고 四正勤 수행이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占察行者는 기본이 필요하다. 단언하지만 A급 수행자들을 위한 방편이다.

(2) 인터넷 서버 구축과 온라인 시스템 필수 구축

四正勤을 修行하는 것이 개인 문제라면 占察作法 전체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hardware적인 문제가 있다. 占察行法을 하며 가장 크게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占察行法자 개인들의 자료 관리와 신속한 結果 통보였다. 제1, 제2占察은 구조상 평생 단 한번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그 나온 結果를 引例者가 있어 四正勤이 올바르게 실천되도록 修行 안내서와 같은 警戒의 글을 적어주어야 한다. 結果를 문서 그대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을 아날로그라 이름하고 현재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시스템을 디지털로 명명한다면 A사찰은 반디지털 방식으로 자료를 관리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초보적 단계의 문서관리다. 그러나 이 방식은 大型化, 迅速成에서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 반디지털 방식으로 占察者에게 修行안내서를 제공하였다하여도 당사자가 깨끗하게 持續적으로 보관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占察 자체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매일매일 占察을 인연해 자신에게 結果된 十善악의 結果에 대해 돌아보고 四正勤의 방법으로 精進하려면 본인의 占察結果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보관이 필수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별도의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뒷받침 되지 않는 四正勤에 바탕이 된 제1과 제2 占察은 절대 성공 못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表師께서는 제1과 제2占察을 행하신 기록도 없고 『占察經』의 핵심 가운데에 있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지금도 당면하고 있는 자료 관리의 문제 때문일 수 있다. 表師 당시와 그 후, 지금처럼 인터넷과 온라인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은 모든 시대에서는 제1, 제2 占察은 문제가 된다. 종교적인 鎮重함이 있으려면 占察이 남발 되어서도 안 된다. 韓國佛敎 역사 속에서 중간 斷絶이 있는 占察法會이기에 아직은 占察行法을 하는 곳이 거의 없지만 여러 군데서 행한다면 바로 제1과 제2占察의 관리 문제가 생긴다. 수행 당사자가 말하지 않는다면 제1, 제2占察은 여러번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 때 항상 같은 結果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렇게 관리 된다면 무슨 종교적 鎮重함이 있겠는가? 중앙 서버가 있고 온라인으로 연결된 관리 컴퓨터에서 姓名과 住民番號를 입력하면 모든 정보가 나오게 한다면 그런 不祥事는 생기지 않는다.

이 문제를 지금 시대에 해결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다. 전국에 占察을 행하는 사찰들이 하나의 서버를 중심으로 통신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된다. 통신망의 형태에는 성형(Star) 망, 트리형(Tree) 망, 그물형(Mesh) 망, 원형(Ring) 망, 버스형(Bus) 망 등이 있다고 한다.³¹⁾ 그 중에서 占察法會의 관리 하드웨어로는 성형(Star) 망이 적당하다고 생각 된다.

성형 망은 중앙에 교환기나 서버를 두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마치 별 모양으로 컴퓨터와 같은 단말 장치들이 연결된 형태의 망이다. 즉, 중앙에 위치한 교환기(Switch)가 데이터와 전

31) 채현석, 『차세대 인터넷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양서각, 2001, pp.8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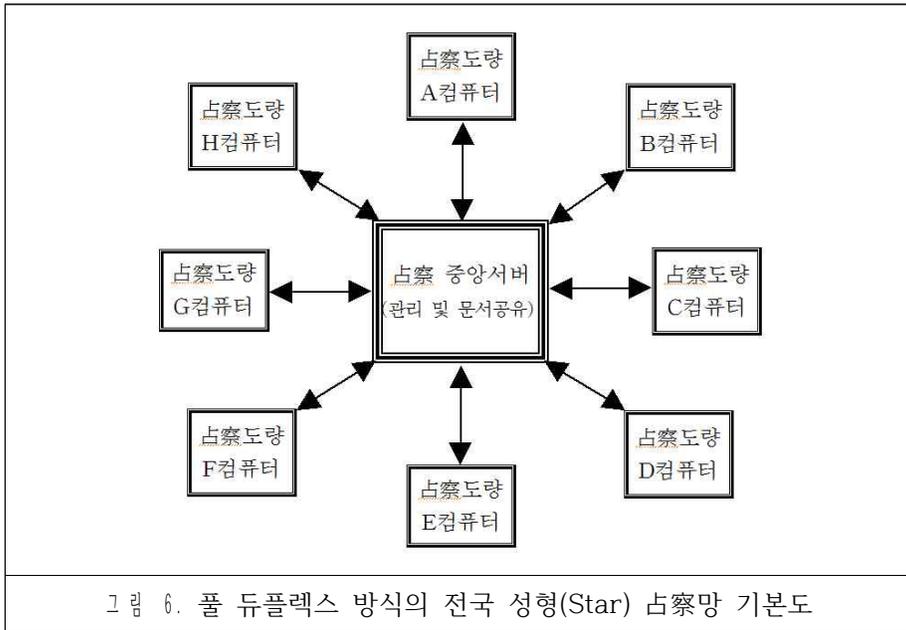
송 경로 배정과 데이터의 송수신을 관리한다.³²⁾

현재 이 시스템은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들이 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면 占察行者의 結果자료들은 관리가 잘 진행 되어 占察行法 보급에 크게 기여하리라 본다. 또 회원제로 서버의 일부를 개방하여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結果를 볼 수 있다면 四正勤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이 통신망과 네트워크 내에서 占察法會를 修行하는 컴퓨터들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공유하는 것이 옳다. A사찰만 해도 그동안 占察行法에 관한 각종 양식 등 축적된 자료들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 그래서 통신망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때에 데이터 전송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컴퓨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한 방향으로만 자료가 전송 되는 심플렉스 통신, 2개의 방향으로 데이터가 흐르지만 1번에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하프 듀플렉스 통신, 동시에 양방향으로 데이터를 흐르게 하는 풀 듀플렉스 방식이 있다고 한다.³³⁾ 당연 풀 듀플렉스 방식으로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옳다. 이것을 통해 각 占察行法 사찰에서는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 占察修行 보급에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이 온라인시스템 서버의 구축은 많은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 되었지만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기존 플랫폼(platform)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비용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그려본다.

32) 채현석, 『차세대 인터넷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조』, 양서각, 2001, p.80.

33) Kris Jamsa.ph.D · 한석진 역, 『인터넷 프로그래밍』, 성안당, 1996, p.24.



하지만 이와 같은 방식의 서버의 구축도 중요하지만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한다.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고 이것을 수리해야 하는 문제, 자료의 백업 문제가 있다. 이런 hardware들의 고장 나는 이유는 디스크 드라이브 26%, 다른 시스템 하드웨어 24%, 소프트웨어 22%, 통신 프로세서 11%, 데이터 네트워크 11%, 사용자 실수 6% 등으로 지목되었다고 한다.³⁴⁾ 서버 구축에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 까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소 복잡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이미 기존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고 占察서버는 대형 서버가 아닐 것이므로 유지 관리에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

(3) 經典의 名 變更을 檢討해야 함

韓國佛敎 修行者들이 占察法會와 『占察經』에 대해 쉬이 접근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경의 제목에도 있다고 여겨진다. 문제가 되는 글자는 占이다. 원래 占은 祭政一致 사

34) 김영실, 『클라이언트/서버』, 하이테크정보, 1995, p.135.

회에서 통치의 근간이 되는 글자로 결코 업수이 여기면 안 되는 글자다. 종교 제사장이 곧 왕이었으므로 제사장이 하는 행위는 왕이 한 것이 된다. 이런 祭政一致 사회의 일부는 티베트와 부탄, 이란 등지에 지금 그대로 살아 있어서 단지 과거의 법만은 아니다. 祭政一致 사회의 단면을 알려주는 대목이 『三國史記』新羅本紀 第二 신라 제9대 伐休王 편에 나온다.

伐休(어떤 곳은 發暉) 尼師今이 왕위에 올랐다. 姓은 昔씨이고 脫解王의 子 仇鄒角干의 子이다. 母의 姓은 金氏 只珍內禮夫人이다. 阿達羅가 薨하였으나 無子이므로 國人들이 왕으로 세웠다. 王은 風雲을 占쳐서 水旱 및 豐儉을 미리 알았고, 또한 사람의 邪正도 알았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聖스럽다고 불렀다.³⁵⁾

이 기록처럼 과거의 왕들은 祭政一致의 군주로서 직접 占을 치기도 했고 “王親祀神宮”이라 하여 神宮에 왕이 직접 제사를 올렸다는 이야기가 다수 등장한다. 또 占치는 이야기는 거의 왕이나 국가의 중대사와 연관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을 보면 占은 왕과 연관 되어 있어 홀대당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글자다.

하지만 세계의 主流는 祭政이 분리가 되었고 종교와 정치는 혹은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며 국가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占자에 대한 꺼려 현상이라 보여진다. 기이한 것은 본래 종교(제사)영역이었던 占이 종교인들 자체도 꺼려하고 있다. 占자를 홀대하는 것이 옳을까?

朝鮮을 구하고 세계 戰爭史에서 勝將으로 깊이 刻印된 汝諧 忠武公 李舜臣(1545~98). 忠武公이 전쟁 중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占을 치고 卦를 받아 큰 도움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注目하는 사람이나 아는 이들이 드물다. 하지만 忠武公의 親筆日記에는 占과 卦, 꿈 등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기록이 무수히 나온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35) 金富軾 撰, 『三國史記 卷第二, 「新羅本紀 第二」』, “王占風雲 預知水旱及年之豐儉 又知人邪正 人謂之聖”.

十三日己丑 날씨는 雨雨다. 獨坐하여 어린 勉의 病勢가 어떠한지 생각하고 擲字하여 占을 쳤다. 곧 卜에서 君王을 見하는 것과 같다는 卦를 얻었다. 極히 吉하다. 再차 擲하였더니 밤에 燈을 얻음과 같다한다. 兩卦가 모두 吉하다. 少舒하고 少舒된다. 또 柳相에 대해서 占쳤더니, 卜에서 海에서 得船하는 것과 같은 卦를 얻었다. 再차 占하였더니 疑하다 得喜함과 같다는 卦를 얻었다. 極히 吉하고 極히 吉하다. 雨가 夕에도 내렸다. … 雨가 晴할지 與否를 占쳐보았다. 곧 卜을 얻기를 蛇가 吐毒하는 과과 같다는 卦를 얻었다. 장차 大雨가 와서 農事에 可염려를 줄듯하다. 農事가 가히 慮된다. 夜에 雨가 물을 대고 물을 대듯 퍼붓었다. …36)

이 기록은 甲午年(1594) 七月 日記 속에 있는 내용이다. 忠武公이 占을 친 것을 지금 시대에 ‘擲字占’으로 이름 부쳤지만 이것은 정식 명칭이 아니고 占은 動詞의 개념으로 써서 실제 점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옳다. 忠武公이 이렇게 글자를 던져 점을 친 것만 14차례다. 忠武公이 없었다면 조선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을 것이다. 빛나는 戰功으로 나라를 지키고 百姓을 구했으며, 침략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던 지금 시대의 개념으로는 海軍提督 忠武公 이순신. 그는 다양한 것을 동원해 진용을 짜고 戰鬪에 임했고 連戰連勝했다. 그런 그가 실제 戰場에서 占을 쳐서 때로는 先술에 응용하고 때로는 마음의 위안을 삼기도 했다. 앞서 伐休王이 행했던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를 보면 占자는 가벼이 여길 글자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占자를 홀대한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풍토가 되었다.

이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분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忠武公의 일기를 포함하여 忠武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朝鮮 正祖 19년(1795) 발간된 『李忠武公全書』에서 忠武公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다. 忠武公 일기 원본에는 저토록 자세하게 占을 친 것을 기록했지만 忠武公全書에서는 대거 글자를 탈락시키고 축소시켜 놓았다. 원본 일기는 150

36) 『李忠武公 친필일기, 「甲午(1594) 七月 十三日」』, “十三日己丑。雨雨。獨坐念勉兒病勢如何。擲字占之。則卜得如見君王卦。極吉。再擲。如夜得燈。兩卦皆吉。少舒少舒。又占柳相。卜得如海得船之卦。再占。得如疑得喜之卦。極吉極吉。雨下終夕。獨坐之情。不自勝。晚宋荃還歸。海雪一斛給送。午後。馬梁僉使及順天來見。乘昏還歸。雨晴與否占之。則卜得如蛇吐毒之卦。將作大雨。爲農事可慮。農事可慮。夜雨如注如注。初更鉢浦探船。捧簡而歸。”

자인데 忠武公全書에서는 44자로 줄여 3분의 2이상을 생략하였다.³⁷⁾ 忠武公이 占친 자체를 생략하지는 않았지만 그 속에 담긴 본뜻이 사라지고 忠武公의 섬세한 마음까지도 없애 버렸다. 이게 학자들이 할 짓인가? 이런 류의 한국사회의 옳지 못한 정신들로 인해 韓國佛敎는 經典의 제목에서조차 꺼려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중요한 것은 흠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위대한 經典인 『占察經』이 占지라는 글자 때문에 대중이 접근하는 것을 막는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 주장은 단순히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만이 아니다. 經典을 綿密히 분석해보면 占이라는 글자를 經名에 사용한 것은 범본 최초 번역자의 오류 내지는 의도적 삽입의 흔적이 보이기 때문이다. 經典이 자세하고 쉬운데다 명문으로 이루어져서 번역 오류가 아닌 의도적 삽입일 확률이 매우 높다.

占察이라 이름이 붙여졌지만 아무리 봐도 ‘占察’이 아닌 ‘觀察’이 옳다. 우선 經典 내용을 보자.

만약 佛弟子가 다만 마땅히 이와 같은 相法을 학습하고 至心歸依하면 觀하는 바의 일이 誠諦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응당 이와 같은 법을 버리고 도리어 世間卜筮의 가지가지 占相을 쫓아 吉凶 등의 일에 貪著하고 樂習하여 隨逐하거나 혹은 樂習하는 자는 깊이 聖道를 장애할 것입니다.³⁸⁾

여기서 地藏菩薩께서는 觀을 중시했고 占은 우려의 부분에 사용했다. 그런데 경의 제목으로 占이 적합할까? 또 占察行法の 주요 대목인 최초 紹介에서는 “能示宿世”³⁹⁾와 “能示三世”⁴⁰⁾라 해서 占이 아닌 示를 썼다. 제1占察에서는 “若欲觀宿世所作善惡業報差

37) 『李忠武公全書卷之六, 「亂中日記二」』, “十三日己丑。雨中獨坐。念勉兒病勢如何。擲字占之。得吉卦。少舒少舒。雨晴與否。又占之則將作大雨。爲農事可慮。”

38)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b20), “若佛弟子。但當學習如此相法至心歸依。所觀之事無不誠諦。不應棄捨如是之法。而返隨逐世間卜筮種種占相吉凶等事貪著樂習。若樂習者深障聖道。”

39)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c01).

40)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c03).

別者”⁴¹⁾라 하여 觀을 썼으며 제2占察은 “若欲占察過去往昔執業久近所作強弱大小差別者”⁴²⁾라 해서 占을 쓰긴 했으나 단순한 점이 아닌 占察로 되어 있다. 뒤에 제2占察의 보충설명에서는 “若觀現在從生以來不樂殺業”⁴³⁾이라하여 다시 觀을 썼다. 제3占察에도 “若欲占察三世中受報差別者”⁴⁴⁾ 역시 占을 사용했으나 察을 붙여 占察로 사용했고 제3占察의 최종 결론을 내는 대목인 “應當三擲此第三輪相 占計合數 依數觀之 以定善惡”⁴⁵⁾에서도 觀을 사용했다. 또 제3占察의 핵심 내용인 “如是所觀三世果報善惡之相 有一百八十九種”⁴⁶⁾이 대목에서도 역시 占이 아닌 觀을 사용했다. 이렇게 『占察經』의 내용은 占이 주가 아닌 觀이 주된 經典이다. 經典의 내용을 분석하면 ‘占察’이 아닌 ‘觀察’이다.

앞선 시대에서는 어떻게 보았는지를 보기 위해 藕益沙門 古吳 智旭의 『占察善惡業報經玄義』에서 경명을 해석한 것을 살펴보자.

第一로 名을 釋한다. 經題는 七字인데 六은 別이고 一은 通이다. 지금은 다만 法을 따른다. 占察의 二字는 觀法의 能으로 묶고 善惡業報의 四字는 觀法의 所로 분류한다. 이것은 能所의 二法으로 해석한 것이다. 다시 兩番이 있으니 처음은 略이고 다음은 廣이다. 처음 略으로 釋하면 占은 瞻視하는 것으로써 義를 삼고 察은 詳審으로써 義를 삼는다. 각각 事와 理가 있으니 事는 大士께서 示하신 바 三種輪相에 의지하여 至誠으로 擲視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占이 되고, 그 相應의 與否를 審諦하여 觀하는 것이니 이름하여 察이 된다. 或은 스스로의 疑를 除하기도 하고 或은 他의 疑를 除하기도 한다. 다만 마땅히 이법을 學習해야하고 世間の 卜筮法은 隨逐하지 말아야 한다. 理는 大士께서 示하신 바 一實境界를 의지하여 행해야하나니 二種の 觀하는 道로 如實히 正을 向하므로 이름을 占이라하고 大士께서 示하신 바 巧說深法에 의지하여 違過의 相을 벗어나고 諦審思惟하기에 이름을 察이라 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스스로 善으로 進趣하고 他로 하여금 또한 善으로 進趣하게 한다. 스스로 怯弱을 벗어나고 타로 하여금 역시 怯弱을 벗어나게하니 이것이 占察의 理다.⁴⁷⁾

41)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2.c04).

42)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3.b07).

43)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3.c03).

44)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a15).

45)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b01).

46)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b02).

47) 『占察善惡業報經玄義 第1卷』(卍續藏21, 0406.b19), “第一釋名者。經題七字。六別一通。別

여기에서 智旭은 略과 廣으로 해석하였는데 略釋에서는 占은 ‘瞻視’로 간단히 정의했다. 이어 事와 理로 다시 해석하였는데 事에서는 ‘擲視’라하여 역시 視의 일종으로 봤지만 理에서는 “理者。依于大士所示一實境界。二種觀道。如實正向。名之為占(理는 大士께서 示하신 바 一實境界를 의지하여 행해야하나니 二種의 觀하는 道로 如實히 正을 向하므로 이름을 占이라하고)”라 하여 觀에 傍點을 찍었다. 事에서도 역시 經典과 같이 世間卜筮法을 경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經名에 占을 고집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경의 본뜻이나 이 경을 詳細히 연구한 智旭의 관점도 占보다는 觀에 중심을 두고 있다. 占이 가진 글자의 의미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韓國佛敎界에 꺼려하는 이들이 다수 있는데 敬명을 占에서 觀으로 바꾸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이와 같은 꺼림은 한국 불교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中國에도 있었다. 버릴 내용도 없고 쉬우며 간결하고 뛰어난 문장으로 역출한 『占察經』의 최초 번역자가 이것을 몰랐을리 없는데 占자를 굳이 敬명에 쓴 것은 『占察經』 역출이 알려진 수대의 기록보다 훨씬 앞선 祭政一致 사회가 해체되던 시기의 번역경일수도 있다. 즉 왕의 글자였던 占자를 敬명에 일부러 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어진 환경들이 분명히 변했으니 경의 내용에 맞게 ‘占察’을 ‘觀察’로 바꾸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觀察善惡業報經’이라 하면 占察을 접하는 최초 시기의 많은 저항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

(4) 법다이 행하여할 제3占察

제1占察과 제2占察이 개인의 장기간에 대한 것을 점검하는 방편이라면 제3占察은 성격이 다르다. 經典에서는 “若欲占察三世中受報差別者”⁴⁸⁾라는 것으로 제3占察의 대표성

七例中。今單從法。占察二字。約能觀法。善惡業報四字。約所觀法。釋此能所二法。復有兩番。初略。次廣。初略釋者。占以瞻視為義。察以詳審為義。各有事理。事者。依於大士所示三種輪相。至誠擲視。名之為占。審諦觀其相應與否。名之為察。或自除疑。或除他疑。但當學習此法。不得隨逐世間卜筮法也。理者。依于大士所示一實境界。二種觀道。如實正向。名之為占。依於大士所示巧說深法。離相違過。諦審思惟。名之為察。由是自善進趣。令他亦善進趣。自離怯弱。令他亦離怯弱。是名理占察也。”

48)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a15).

을 띄우고 있는데 실제 직접 의미는 “若未來世佛諸弟子 於三世中所受果報 欲決疑意者 應當三擲此第三輪相 占計合數 依數觀之 以定善惡”⁴⁹⁾ 이 부분에 담겨 있다. “欲決疑意者”, “의심스러운 뜻을 해결하고자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며 많은 결단을 해야 하는데 상당수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간혹 둘 이상의 선택을 두고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상황을 일부러 만들어 예를 들었던 梵日の 正趣菩薩 奉安 장소의 決定에 대한 것과 같은 상황이다. 마음이 결정이 5:5인 상태인데 망설이는 상태. 우리는 가끔 이런 경우를 當面한다. 제3占察은 많은 경우 이 경우에 行한다. 물론 189의 결론을 보면 修行관 연관된 부분이 상당하기에 修行의 方便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상생활이나 장기적 중요 결정에 행하여지고 큰 공헌을 한다. 제3占察은 섬뜩할 정도의 結果 的中率을 보인다. A사찰이 행하는 방식은 徹夜精進으로 占察行法의 기본을 진행한 다음 마지막에 간략한 절차에 의해 진행한다. 의심스러운 바 결정해야 할 문제를 徹夜에서 관하고 제3占察에서 結果를 묻는 방식이다. 제3占察을 행한 結果가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거의는 질문자의 질문에 맞는 대답이 나오고 의심을 단박에 결정하게 하기도 한다. 너무 적중하는 것을 오히려 걱정해야 하는 수준이다. 引例者는 이 제3占察을 남용하지 말아야 한다.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여 공력을 낭비하는 행자들에게 진실 되게 의혹을 끊고자하는 방편으로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잘못 사용하면 經典에서 우려한대로 占卜으로 갈 수 있다. 제3占察 참여 행자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춰 참여하게 해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제3占察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占察을 행한 그 시간에 즉각 답을 줘야 한다. 왜냐하면 의문이 현재 진행형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역시 서버 구축과 네트워크 구성에 있어 빠른 프린팅이 가능하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제1과 제2占察이 시간을 두고 結果紙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면 제3占察은 즉각 제공되어야 한다. 이 제3占察에서 나올 수 있는 수는 수학적으로 최저 1부터 최대 189인데 『占察經』에서는 각각의 숫자마다 結果를 한 줄씩 기재하고 있다. 제3占察을 하기 위해서는 숫자를 적을 종이와 합산을 할

49)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5.a28).

계산기가 구비 되어야 한다. 서버와 프린터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189의 해설서를 따로 만들어 미리 출력하여 현장에서 해당 숫자의 결과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된다. A사찰은 초기에는 제1과 제2占察처럼 제3占察도 한 달 뒤에 결과지를 제공했으나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해설서를 미리 출력하여 즉각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제3占察의 결과에 대한 경전내의 해설은 간단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占察을 행하는 자에게 올바른 해설서를 주려면 引例者의 경험과 감각이 매우 중요하다. 오래 진행하면 제3占察이 일정한 페턴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된다. 분명한 페턴이 있다. 그 페턴에 맞춰 引例者가 잘 조언해야 한다. 결과지를 보고도 의혹이 풀리지 않는 이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 질문을 들은 뒤 결과지를 보고 서로의 연관성을 찾아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제3占察의 사례와 결과들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실제 행하여 결과들을 축적하면 분명하게 어떤 원칙이나 페턴이 스스로 존재함을 알게 된다.

(5) 올바른 占察法會는 地藏菩薩을 중심으로 한 徹夜精進, 특별법회로 묶여야 함
『占察經』은 특별히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경전의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다음으로 다시 十方三世의 있는바 여러 부처님께 總禮하며, 또 마땅히 마음으로 헤아려 十方의 一切法藏에 두루 예배하고, 다음으로는 마땅히 마음으로 헤아려 十方의 一切賢聖들께 두루 예배합니다. 그런 연후에 다시 따로 이름을 부르며 나 地藏菩薩摩訶薩에게 예배합니다.⁵⁰⁾

이와 같은 發回의 願을 발하여 마치고서는 다시 나머지 고요한 방에 가서 단정히 앉고 一心으로 나의 名號를 혹은 부르거나 외우며, 혹은 고요히 생각하고, 응당 살피서 睡眠을 줄여야 하나니 만약 혼침 惽침이 많은 자라면 응당 道場의 방중에 돌면서 외우거나 생각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夜分時에 이르른 후 燈燭으로 光明을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또한 응당 三時

50)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3.c22), “次復總禮十方三世所有諸佛。又當擬心遍禮十方一切法藏。次當擬心遍禮十方一切賢聖。然後更別稱名。禮我地藏菩薩摩訶薩。”

로 恭敬供養하고 過를 참회하고 發願해야 합니다. 만약 능히 光明을 갖출 수 없으면 응당 곧바로 나머지 靜室中에서 一心誦念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와 같이 懺悔法을 행하면서 하여 금 懈廢치 말아야 합니다.⁵¹⁾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韓國佛敎를 대표하는 念佛修行에는 觀世音菩薩과 地藏菩薩이 있지만 그 대표적 念佛修行을 하면서도 왜 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다. 이것에 대해 地藏菩薩은 『占察經』에서 보살이 명호를 부르는 이유로 修行이 修行답게 되어지는 기초 경지인 淸淨의 경지를 얻기 위한 참회법으로 地藏菩薩의 名號를 부르는 稱名과 默念을 제시하셨다. 이것은 念佛修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다. 이후 『占察經』에서는 여러 대목을 더 할애하여 선정지혜와 출요의 도를 구하지 않는 이들(일반 불자)이라도 액난과 빈궁, 곤고하며, 근심과 뇌고로움으로 핍박을 받는 자가 그것을 벗어나려면 地藏菩薩을 稱誦名號하면 좋은 結果를 얻는다고 강조하신다.⁵²⁾ 더 나아가서는 나의 명호만 불러도 그것으로 자연히 참회회가 성취 된다 라고도 하셨고, 하권에서는 궁극에 이르기 직전 까지도 명호를 부르라고 하셨다. 占察法會는 瑞祥受戒의 概念이다. 藕益沙門께서도 “依於大士所示~”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그 자체가 大士, 곧 地藏菩薩의 회상에서 占察法會가 이루어지고 이것은 곧 보살과의 직접 만남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占察法會는 地藏菩薩을 의지하는行者만이 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하고 占察을 행하기 전 사전 절차는 徹夜祈禱로써 모두 행하면 된다. 徹夜精進이 어려운 여건이라면 특별 법회를 열어 법회의 주인공을 분명히 구분해야 옳다. 어떤 식으로 도량을 장엄하게 꾸밀지는 經典에 詳細하니 그대로만 따르면 된다.

(6) 기타 제반 문제

51)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4,a10)“一切諸衆生等。同趣佛智至涅槃城。如是發迴向願已。復往餘靜室端坐一心。若稱誦若默念我之名號。當減省睡眠若昏蓋多者。應於道場室中旋遶誦念。次至夜分時。若有燈燭光明事者。亦應三時恭敬供養悔過發願。若不能辦光明事者。應當直在餘靜室中一心誦念。日日如是行懺悔法勿令懈廢。”

52)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4b,28), ; (906,c20), ; (908,c12), ; (909,a16),

A사찰에서 20년 이상 徹夜精進과 占察法會를 진행하며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다. 보통의 공동체들이 모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도 일어나지만 특수한 문제들도 있다. 지속적으로 徹夜를 참여하지만 占察을 행하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야간 차량 픽업문제가 있기도 했고, 내부자들 사이의 충돌로 큰 위기가 닥치기도 했다. 중간에 2번이 멈춰진 적이 있는데 2002년 8월 31일 태풍 루사와 2012년 2월 徹夜精進의 引例者인 주지스님이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왔을 때이다. 즉 천재지변과 引例者의 건강이 占察法會의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니 참고해야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녹였던 것은 종교적 영험이었다. 기도精進과 占察法會로 행자들에게 긍정적인 結果가 나왔을 때 굳건하게 精進할 수 있었다. 종교적 영험이 없는 占察法會는 없다고 결론지어도 된다.

IV. 마치는 말

수행자가 占자에 대한 꺼려함 없이 『占察經』을 본다면 그 내용에 크게 놀라게 된다. 너무나 자세하고 빠짐없는 조밀함. 단언하지만 『占察經』 上卷은 완벽한 念佛修行 지침서다. 우리가 당면해서 처하고 있는 답답한 여건을 언급한 뒤-해결을 찾는 이에게-방법을 제시하고-장소의 장엄, 마음가짐, 자세를 하나하나 짚었다. 단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우리가 왜 稱名念佛을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도 주셨다. 地藏菩薩을 의지하고 精進하면 다 해결해 주시니 따라오라고 하신다. 占察經 속에서 地藏菩薩은 마치 현재의 실존하는 자신감 넘치고 강력한 살아 있는 스승과 같은 느낌이다. 단순한 稱名念佛만이 아니라 하권에서는 奢摩他和 毘婆舍那도 수행의 순서에 있고 심지어 수행의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三昧의 이름 까지도 나와 있다. 이런 경전이 어디 있을까? 번역된 문장 하나하나도 명쾌하다. 설하신 법문은 지금시대 컴퓨터 온라인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결코 단순하게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편집된 경전이 아니다. 세상에 출현한 뒤 최소한 1500년을 넘은 지금에 합당한 내용이 들어 있는데 누가 이것을 人爲

하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의 수행자들은 『占察經』 가까이하기를 꺼려한다. 『占察經』의 시작 부분으로 돌아가 보자. 불타께서 根聚法門을 說하시던 중에 堅淨信菩薩이 직설하신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여쭙는 대목이다.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만약 내가 세상을 떠나고 정법이 멸한 후 상법이 다함을 향하고 그리고 말세로 들어가는 이와 같은 때에 중생은 복이 없고 쇠뇌가 많으며 국토가 자주 혼란하고 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며 종종의 액난으로 두려움과 근심으로 핍박하여, 나의 여러 제자가 그 착한 생각을 잃고 오직 탐욕과 성냄과 질투와 아만을 기르며 설사 비슷하게 선법을 행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다만 세간의 이양과 명칭을 구하는 것이 주가 되며 전일한 마음으로 출요의 법을 닦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리라. 이때의 중생은 세상의 재난을 보고 마음이 항상 겁내고 약하며 자기의 몸과 및 여러 친족들을 근심하고 두렵게 하여 옷과 먹을 것을 충양하여 몸과 목숨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등의 중생은 많은 장애가 인연한고로 불법 가운데에서 어리석은 근기와 적은 믿음으로 도를 얻는 자는 극히 드물며, 내지 점점 삼승 가운데에서 신심을 성취하는 자 역시 심히 적게 되고 세간의 선정을 수학함에 있는 바 여러 업을 통합을 발하여 스스로 숙명을 아는 자 차례로 전전히 있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뒤에 말법 가운데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도를 얻음에 경력하여 선정과 업을 통합 등을 획득한 것이 일체 전혀 없으리라.’...53)

『占察經』은 부처님의 이와 같은 진단에 대해 견정신보살이 답을 주시라 請했고 그에 대해 불타께서 地藏菩薩을 答辯者로 하여 설하신 내용이다. 우리는 저 경전 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닌가? 저 진단이 肺腑를 찌르지 않는가? 그럼에도 우리는 『占察經』의 존재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53) 『占察善惡業報經 卷上』(大正藏17, 901,c17), “如佛先說。若我去世。正法滅後像法向盡及入末世。如是之時。衆生福薄多諸衰惱。國土數亂災害頻起。種種厄難怖懼逼擾。我諸弟子失其善念。唯長貪瞋嫉妒我慢。設有像似行善法者。但求世間利養名稱以之爲主。不能專心修出要法。爾時衆生。睹世災亂心常怯弱。憂畏己身及諸親屬不得衣食充養軀命。以如此等衆多障礙因緣故。於佛法中鈍根少信。得道者極少。乃至漸漸於三乘中。信心成就者亦復甚尠。所有修學世間禪定。發諸通業自知宿命者次轉無有。如是於後入末法中。經久得道。獲信禪定通業等。一切全無。”

또한 占察經에 근거한 占察簡子の 제작과 판매 등은 중국에서는 관련 산업들이 적지 않게 생겨서 운용중인데 우리는 그런 종류의 것은 전혀 없고 占察법회를 여는 곳도 드물다. 가장 기본이 되는 관련 문서조차 번역이 되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깝다. 대한민국과 중국이 격차는 구글이나 유튜브의 검색을 해보면 바로 알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인 '유튜브'에서 '占察木輪相法', '地藏占輪相法', '地藏占察木輪', '地藏占察轮的具本使用方法', '地藏菩薩占察法' 등으로 검색하면 큰 격차가 있음을 알게 된다. 또 https://www.google.com/인 '구글'에서 '占察'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한 뒤 'Images'로 이동하면 점찰에 관한 중국의 수많은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상한 것은 우리는 '占察簡子'라고 쓰지만 중국은 '占察輪'이라고 쓰며 '簡子'나 '輪子'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다행히 공통 검색어는 '占察'이니 그것으로 검색하시고 정보를 접하면 된다.

이런 한국과 중국의 큰격차 분위기 속에 다행히 20년 이상 꾸준히 점찰경에 의거한 占察行法 수행을 행하고 있는 A사찰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축적된 자료를 공개하니 점찰행법 홍보에 작은 다리라도 되기를 청해 본다.

< 첨부 자료 >

01. A사찰 占察法會 동참자 占察結果表

(A사찰은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영선사(靈仙寺)이다. 영선사에서서는 1998년 09월부터 2019년 06월까지 진행된 철야용맹정진 대중들 가운데 1998년 11월 제3회차 기도 때 처음 진행된 점찰법회 결과들을 2019년까지 축적하여 본 연구에 원본을 제공하였다. 첨부 자료는 그 중 성명 등 인적 사항을 삭제하고 개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것을 염려하며 수직의 순서만을 여러 번 섞은 것으로 성명의 순서만 다를뿐 원본과 똑같은 자료다. 원본에서 년도는 불기와 서기가 혼용되어 있으나 철야기도의 회차는 섞이지 않았다. 첨부자료에서는 원본의 년도를 수정치 않고 그대로 제공했다.)

첨부자료01. A사찰 占察法會 동참자 占察結果(1998.09~2019.06)

제1占察(최초占察 1998년 11월 29일)			제2占察 (1.3-말음/2.4-적음)		제3占察	
十善	十惡	일시	結果	일시	結果	일시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악구	92차 06.5.28				
불망어, 불진에	살생, 투도, 양설, 악구, 탐욕	117차 08.7.27	선: 구2/의2 악: 신1/구2/의1	123회차 08.12.28	136	170차 12.12.30
불살생, 불투도, 불악구	기어, 진에, 사건	110회차 07.11.24	선: 신4/구1 악: 구1/의1	113차 08.2.23		
불투도, 불양설	망어, 탐욕, 사건	4차 42.12.26				
불기어, 불진에	투도, 사음, 양설, 악구, 탐욕	47차 46.7.27	선: 구2/의2 악: 신3/구4/의3	50차 46.11.30	115	58차 47.6.27
불기어, 불탐욕, 불사건	살생, 사음, 악구 진에	168회차 12.10.28	선: 신4/의4 악: 신2/구4/의3	171차 13.1.27	118	175차 13.5.26
불사음, 불양설, 불악구, 불진에,	살생, 투도, 망어, 탐욕, 사건	83차 05.8.27	선: 신3, 구3, 의3 악: 신1, 구4, 의1	194차 14.12.28		
불사건	사음, 기어, 양설, 진에	6차, 43.2.27				
불사음, 불양설	살생, 투도, 기어, 악구, 탐욕	42차 46.2.23				
불망어, 불탐욕, 불진에	투도, 악구, 사건	42차 46.2.23				
불살생, 불악구	사음	182차 13.12.29			134	183회차 14.01.26

불망어,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	투도, 사음, 악구	131차 09.8.29			134	132차 09.9.27
	투도, 망어, 양설	125차 09.3.1				
	기어 악구, 탐욕, 진에	113차 08.2.23				
불악구, 불진에	살생, 사음, 망어, 기어, 탐욕, 사견	22차, 44.6.24	선: 구1/의2 악: 신1/의2	25차 44.9.30	154	29차 2545.1.27
불살생, 불악구, 불탐욕	기어, 진에	51차 46.12.28	선: 신1/구4/의2 악: 구3/의4	54차 47.3.29	103	57차 47.6.28
불사음, 불기어, 불탐욕	살생, 투도, 망어, 진에, 사견	7차, 43.3.27				
불투도, 불양설, 불진에	탐욕	179차 13.9.29				
불살생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욕	116차 08.5.31	선: 신1 악: 구4/의4	118차 08.7.27	129	121차 08.10.26
불투도, 불사음, 불양설	살생, 악구, 탐욕	90차 06.3.26				
불살생, 불망어	투도, 악구, 사견	6차, 43.2.27	선: 신3/구3 악: 신2/구1/의1	21차, 44.5.27		
불살생	악구	28차 44.12.30				
불망어	투도, 악구, 진에	54차 47.3.29	선: 구2 악: 신3/구1/의1	61차 47.10.26	103	64차 48.1.31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진에, 불투도, 불기어, 불탐욕, 불사견	탐욕, 사견	4차, 42.12.26	선: 신2/구3/의1 악: 의1	7차, 43.3.27	101	12차 43.8.28
	살생, 양설, 악구	82차 05.7.31	선: 신2, 구1, 의1 악: 신2, 구4	85차 05.10.29	144	89차 06.2.25
불양설, 불탐욕, 불사견		10차 43.6.26				
불살생, 불양설, 불기어, 불악구	사견	7차, 43.3.27				
불망어	사음, 악구	155차 11.7.31	선: 구2 악: 신1/구2	157차 11.10.30	156	160회차 12.01.2
					161	137회차. 10.2.28
불투도, 불탐욕	망어, 기어, 양설	44차 46.4.27	선: 신4/의4 악: 구4	51차 46.12.28		
불사음, 불악구, 불사견	살생, 투도, 양설	44차 46.4.27				
불살생, 불진에, 불탐욕	기어	61차 47.10.26				
불투도	사음,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진에	169차 12.11.24				
	투도, 사음, 기어	59차 47.8.30	악: 신4/구1	63차 47.12.27	149	66차 48.3.28
불사음, 불기어, 불진에	망어, 양설	3차, 42.11.29	선: 신3/구3/의4 악: 구1/(불상응)	6차 43.2.27	104	9차 43.5.29
불살생, 불사견	기어, 양설, 진에	5차,				

불살생, 불투도, 불기어, 불사건	양설, 탐욕	43.1.30 3차, 42.11.29	선:신2/구4/의3 약:구1/의3	6차 43.2.27	121	9차 43.5.29
불악구	투도, 망어, 기어	92차 06.5.28	선:신1 약:신4/구2	96차 06.9.30	123	113차 08.2.23
불살생, 불기어, 불양설, 불탐욕, 불진에, 불사건	투도	47차 46.7.27	선:신2/구3/의1 약:신3	50차 46.11.30	101	53차 47.2.22
불투도, 불기어, 불악구	탐욕	14차 43.10.30	선:신4/구2 약:의4	19차 44.3.25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양설, 불탐욕	망어, 기어, 악구, 사건	84차 05.9.25				
불악구, 불진에, 불사건	투도, 사음, 망어, 양설	8차, 43.4.24			149	33차 45.5.26
불투도, 불망어	사건	62차 47.11.29	선:신2/구1 약:의4	67차 48.4.25		
불사음, 불악구, 불사건	살생, 망어, 양설, 탐욕	63차 47.12.27			153	71차 48.8.28
불살생,	양설, 탐욕, 사건	3차, 42.11.29	선:신4/ 약:구3/의2	6차 43.2.27	75	9차 43.5.29
불투도, 불망어, 불기어, 불사건	살생, 악구	47차 46.7.27	선:신4/구3/의2 약:신2/구2	54차 47.3.29	123	60차 47.9.27
불살생, 불투도, 불양설	사음, 사건	167차 12.09.23	선:신1/구4 약:신2/의1	171차 13.1.27	103	174차 13.04.28
불투도, 불기어, 불탐욕	사음, 사건	49차 46.10.26	선:신4/구1/의4 약:신3/의4	52차 47.1.25	117	55차 2547.4.26
불살생, 불양설, 불탐욕, 불진에	망어	166회차 2012.8.26	선:신4/구3/의1 약:구3	169차 12.11.24	141	200차 15.06.28
불투도, 불진에, 불사건	사음, 양설, 탐욕	13차 43.9.25	선:신3/의3 약:신1/구3/의1	17차 44.1.29	117	20차 44.4.29
불사음, 불기어	투도, 탐욕, 진에	62차 47.11.29	선:신3/구1 약:신2/의3	65차 48.2.29	139	69차 48.6.26
	양설, 악구	11차, 43.7.31	약:구2/ 선:구3/의3	15차 43.11.27		
불망어, 불탐욕	살생, 투도, 사음, 악구, 진에, 사건	65차 48.2.29	선:신2/구1/의4 약:신1/의3	69차 48.6.26	116	71차 48.8.28
불사음, 불사건	살생, 망어, 진에	67차 48.4.25	선:신4/구3/의3 약:신3/구1/의2		143	73차 48.10.31
불살생,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불진에	망어, 사건	3차, 42.11.29	선:신3/구1/의2 약:구4/의3	12차 43.8.28	104	20차 44.4.29
불기어, 불진에, 불사건	망어	173차 2013.3.31	선:구1/의1 약:구4	180차 13.10.27		
불사건	투도	7차 43.3.27	선:의4 약:신1	11차, 43.7.31	132	17차 44.1.29
불망어, 불진에	양설, 탐욕	157차 2011.10.30				
불사음, 불악구	살생, 망어, 기어, 진에	21차, 44.5.27	선:신3/구2 약:신4/구4/의4	24차, 44.8.26		
불살생, 불양설	악구	27차, 44.11.25		31차	135	35차 45.7.28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살생, 투도, 사건	116차	선:구3/의2	118차	133	121차 08.10.26

불탐욕, 불진에 불살생, 불양설, 불악구, 불사건	투도, 사음, 망어 탐욕	08.5.31 248차 2019.06.30	약:신3/의2	08.7.27			
불망어, 불악구, 불사건	투도, 사음, 양설, 진에	62차 47.11.29	산:구1/의3 약:신4/구2/의4	65차 48.2.29	137	71차	48.8.28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양설, 불탐욕, 불사건	기어, 악구	157차 2011.10.30	산:신1/구1/의2 약:구3	159차 2011.12.31			
불투도,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사건	진에	148차 2011.1.30	산:신4/구1/의3 약:의1	151차 11.4.30	164	155차	11.7.31
불사음, 불사건	망어, 악구, 탐욕	169차 12.11.24					
불투도, 불망어	양설	11차, 43.7.31	산:신1/구4 약:구2	16차 43.12.25	115	20차	44.4.29
불살생, 불양설	망어, 기어, 탐욕, 진에	47차 46.7.27	산:신4/구1 약:구3/의1	57차 47.6.28	125	60차	47.9.27
불살생, 불사음, 불탐욕	망어, 양설, 악구, 진에	210차 16.04.30	산:신4/의3 약:구3/의3	213차 16.07.31	118	216차	16.10.30
불탐욕, 불사건	사음, 망어, 기어, 악구	8차, 43.4.24	산:의3 약:신3/구1	11차 43.7.31	141	14차	43.10.30
불살생, 불망어, 불탐욕	기어, 양설	127차 09.4.26			106	133회차	09.10.31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불진에	살생, 망어	7차, 43.3.27	산:신1/구1/의2 약:신2/구4	10차 43.6.26	149	13차	43.9.25
불사음, 불악구, 불진에	기어, 사건	120차 08.9.28	산:신3/구3/의2 약:구1/의4	123회차 08.12.28	111	126회차	09.3.29
불살생, 불양설, 불기어, 불탐욕	투도, 악구	7차, 43.3.27	산:신1/구1/의3 약:신3/구1	10차 43.6.26	151	15차	43.11.27
불진에, 불사건	살생, 투도	8차, 43.4.24	산:의1 약:신1	12차 43.8.28	151	15차	43.11.27
불살생, 불기어	사음, 양설, 탐욕, 사건	82차 05.7.31	산:신2, 구3 약:신4, 구3, 의3	85차 05.10.29	113	89차	06.2.25
불살생, 불사음, 불진에, 불사건	망어, 양설	86차 05.11.27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불진에	망어, 탐욕	5차 43.1.30	산:신4/구2/의3 약:구1/의4	17차 44.1.29	131	20차	44.4.29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불진에	사건	79차 49.4.30					
불사음, 불기어, 불사건	살생, 망어	70차 48.7.31	산:신3/구2/의1 약:신4/구3	75차 48.12.25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불진에	투도, 사건	5차 43.1.30	산:신2/구2/의2 약:신1/의4	8차, 43.4.24	156	11차	43.7.31
불기어, 불탐욕	투도, 망어, 악구, 진에	53차 47.2.22	산:구1/의4 약:신1/구3/의1	58차 47.6.27	140	61차	47.10.26
불기어, 불사건	투도, 탐욕	206차 15.12.27					
불살생, 불악구	사음, 양설	59차 47.8.30	산:신1/구3 약:신2/구3	62차 47.11.29	144	65차	48.2.29
불투도, 불기어, 불진에	사음	171차 13.1.27					
불사음, 불사건	양설, 탐욕	76차					

		49.1.29 59차	선:구3/의2	62차			
불양설, 불진에	투도, 탐욕, 사건	47.8.30	약:신2/의3	47.11.29	145	65차	48.2.29
	살생, 기어, 탐욕, 진에, 사건	51차 46.12.28	약:신2/구2/의1	55차 47.4.26			
불사음, 불기어, 불진에	투도, 탐욕	169차 12.11.24					
불투도, 불망어, 불양설, 불진에		43차 46.3.31	선:신2/구2/의2	46차 46.6.29	135	49차	46.10.26
불투도, 불탐욕, 불진에	망어, 양설, 기어, 악구, 사건	42차 46.2.23	선:신3/의4 약:구2/의3	54차 47.3.29	154	59차	47.8.30
불살생	사음, 망어, 기어	166회차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탐욕 살생, 투도, 진에, 사건	2012.8.26 33차 45.5.26					
불살생, 불양설	사음, 탐욕	59차 47.8.30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살생, 망어	50차 46.11.30					
불사음, 불기어	진에, 사건	148차 2011.1.30	선:신1/구3 약:의2	151차 11.4.30	129	155차	11.7.31
불양설, 불탐욕, 불사건		133회차 09.10.31	선:구4/의2	137회차. 10.2.28	151	142차	10.7.31
불사음, 불진에	살생, 투도, 탐욕	92차 06.5.28					
불살생, 불기어	악구, 진에, 사건	110차 07.11.24	선:신3/구2 약:구1/의1	113차 08.2.23	30	178회차	13.8.31
		1번			165	109차	07.10.27
불탐욕	망어, 기어,	229차 17.11.26					
불사음, 불탐욕	살생, 투도, 망어, 기어, 악구, 진에, 사건	35차 45.7.28					
불사음, 불양설, 불탐욕	투도, 망어, 악구	120차 08.9.28	선:신2/구2/의4 약:신1/구1	123회차 08.12.28	62	126회차	09.3.29
불사음	망어	50차 46.11.30					
불사음, 불진에	망어, 기어, 악구, 탐욕	3차, 42.11.29	선:신4/의3 약:구1/의3	6차 43.2.27	131	9차	43.5.29
불탐욕, 불사건	살생, 망어, 양설	86차 05.11.27	선:의4 약:신4/구4	89차 06.2.25	86	5차	06.8.26
불사음, 불양설	살생, 망어, 악구, 진에, 사건	117차 08.7.27	선:신4/구1 약:신4/구4/의4	123회차 08.12.28			
불기어, 불진에	살생, 투도, 악구, 탐욕, 사건	110차 07.11.24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탐욕	살생, 진에, 사건	48차 46.9.28					
불사음, 불망어	기어, 탐욕, 진에	53차 47.2.22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망어	14차 43.10.30	선: 구4/의4 약: 구3	21차, 44.5.27	128	35차 45.7.28
불살생, 불기어	진에, 사견	27차, 44.11.25		31차	101	35차 45.7.28
불망어, 불사견	기어, 탐욕	9차 43.5.29				
불탐욕, 불사견	기어, 양설	178차 13.8.31	선: 의3 약: 구1	180차 13.10.27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진에	127차 09.4.26	선: 약: 신1/구2/의4	131차 09.8.29	144	149차 11.02.27
불투도, 불사견	사음	63차 47.12.27	선: 신3/의4 약: 신4	66차 48.3.28	125	69차 48.6.26
불망어, 불사견	살생, 기어	133차 9.10.31	선: 구1/의2 약: 신1/구4	149차 11.02.27	129	149차 11.02.27
불살생, 불사음, 불망어, 불탐욕	기어	163차 12.5.27	선: 신3/구1/의2 약: 구4	166회차 2012.8.26		
불악구, 불탐욕, 불사견	살생, 사음, 망어, 양설	59차 47.8.30	선: 구4/의4 약: 신4/구1	63차 47.12.27	96	78차 49.3.26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진에	탐욕	14차 43.10.30				
불살생, 불투도	사음, 망어, 기어, 악구	153차 11.6.26				
불진에	살생, 투도, 사음, 악구, 사견	5차, 43.1.30			160	15차 43.11.27
불투도, 불탐욕, 불사견	살생, 망어, 양설, 진에	40차 45.12.29	선: 신4.의3 약: 신1/구3/의2	41차 46.1.26	100	47차 46.7.27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123회차 08.12.28				
	기어, 양설, 악구, 진에, 사견	58차 47.6.27	약: 구1/의4	61차 47.10.26	122	64차 48.1.31
불망어, 불기어	사견	69차 48.6.26	선: 구2 약: 의3	74차 48.11.28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망어, 탐욕	151차 11.4.30	선: 신2/구4 약: 구2/의2			
불살생, 불양설, 불악구	투도, 탐욕, 진에	8차, 43.4.24	선: 신3/구3 약: 신1/의2	11차, 43.7.31	175	15차 43.11.27
불기어	탐욕	7차 43.3.27				
불망어, 불기어, 불탐애, 불사견	살생, 양설, 악구, 진에	6차 43.2.27	선: 구1/의4 약: 신1/구2/의3	9차 43.5.29	144	12차 43.8.28
불살생,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사견	투도, 악구	47차 46.7.27	선: 신4/구3/의1 약: 신1/구1	50차 46.11.30	147	64차 48.1.31
불사음, 불진에 불사견	기어 양설	113차 08.2.23	선: 신1/구1 약: 의4	118차 08.7.27	133	122차 08.11.30
불사음, 불기어, 불사견	살생, 망어	55차 47.4.26				
불진에, 불사견	살생, 기어, 악구, 탐욕	3차 42.11.29				
불양설, 불탐욕	악구, 진에, 사견	55차	선: 구4/의4	58차	93	61차 47.10.26

		47.4.26 194차	약:구4/의3 선:신3,구4	47.6.27 199차		
불투도,불양설,불악구	망어,기어,탐욕,사건	14.12.28	약:약:구1.의3	15.05.30	93	200차 15.06.28
불투도,불사음,불기어	악구,탐욕,진에	64차 48.1.31	선:신4/구3	67차	136	69차 48.6.26
불기어,불사건	사음,악구,탐욕,진에	184차 14.02.23	약:구3/의2 선:구4/의1	48.4.25 193차	121	228차 17.10.29
불사음,불망어,불기어,불양설,불진에	살생,투도,탐욕	30차 45.2.24	약:신1/구2/의3 선:신2/구4/의2	14.11.30 33차	159	3회-40차 45.12.29
불사음,불탐욕,불사건	살생,기어,악구	179차 13.9.29			146	196차 15.02.28
불사음,불양설,불악구,불탐욕	투도,망어,기어	71차 48.8.28	선:신3/구2/의1 약:신3/구1	75차 48.12.25		
불투도,불사음,불기어,불진에,불사건	망어	82차 05.7.31				
불기어	살생,망어,양설	33차 45.5.26	선:구3 약:신4/구2	40차 45.12.29	120	3회-40차 45.12.29
불살생,불투도,불양설	사음,탐욕,사건	6차, 43.2.27				
불망어,불양설,불악구,불사건	살생,기어,탐욕	6차, 43.2.27	선:구1/의3 약:신4/구1/의4	9차 43.5.29	149	13차 43.9.25
불사음,불탐욕,불진에	기어,양설	149차 11.02.27	선:신2/의3 약:구2	152차 11.5.29	108	157차 11.10.30
불사음,불진에,불사건	기어, 양설	13차 43.9.25	선:신2/의2약:구2	18차44.2.26		
불투도	사음,양설,기어,탐욕,진에,사건	120차 08.9.28	선:신1 약:신1/구4/의4	123회차 08.12.28	132	126회차 09.3.29
불투도,불진에,불사건	악구,탐욕	3차 42.11.29	선:신4/의3 약:구1/의1	6차 43.2.27	134	9차 43.5.29
		2번			82	141회차 10.6.27
불진에,불사건	살생,기어,탐욕	12차 43.8.28	선:의2 약:신4/구4/의1	16차 43.12.25		
불사음	기어,사건	44차 46.4.27	선:신3 약:구3/의4	47차 46.7.27	162	50차 46.11.30
불살생,불진에	양설,사건	8차 43.4.24	선:신2/의4 약:구3/의4	11차 43.7.31	126	14차 43.10.30
불투도,불망어,불탐욕	살생,사음,기어,양설	90차 06.3.26	선:신3/구1/의2 약:신3/구4	93차 50년 (06).6.24	142	97차 06.양 10.29
불진에	살생,투도,망어,기어,악구,사건	146차 10.양11.28				
불살생,불기어	투도,사음,탐욕,진에,사건	72차 48.9.25	선:신3/구4 약:신1/의4	75차 48.12.25		
불투도,불기어,불양설,불진에,불사건		179차 13.9.29				
불사음,불양설,불탐욕,불사건	망어,기어,진에	71차 48.8.28				
불살생,불탐욕,불진에	사음,망어,기어	3차, 42.11.29	선:신3/의1 약:신1/의3	6차 43.2.27	143	9차 43.5.29
불양설	망어,악구,탐욕	139차				

		10.4.25				
불양설, 불기어, 불사건	진에	82차 05.7.31	선:구4,의4 약:의2	85차 05.10.29	119	89차 06.2.25
불투도, 불양설, 불탐욕	망어, 진에	121차 08.10.26	선:신3/구1/의1 약:구1/의4	125차 09.3.1	126	127차 09.4.26
	망어, 기어, 악구, 진에	54차 47.3.29				
불기어, 불양설, 불진에	살생, 투도, 사음	8차, 43.4.24	선:구2/의2 약:신2	11차, 43.7.31	124	15차 43.11.27
		3번			134	127차 09.4.26
불살생, 불사음	136회차 10.1.31					
불살생, 불기어		137회차 10.2.28	선:신1, 구2	140차 2010.5.30	133	144차 10.9.25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불사건	살생, 투도, 사음	177차 13.7.28				
불사음, 불탐욕	투도, 망어, 양설, 악구	169차 12.11.24	선:신1/의3 약:신3/구4	177차 13.7.28	155	184차 14.02.23
불망어, 불양설, 불사건	살생, 기어, 탐욕		229차 17.11.26			
불탐욕, 불사건	살생, 투도, 양설, 악구	13차 43.9.25				
불양설, 불진에		64차 48.1.31				
불양설	탐욕, 기어	4차, 42.12.26	선:신4/ 약:의3/구3	7차, 43.3.27	134	10차 43.6.26
불살생, 불투도, 불기어, 불탐욕	양설	59차 47.8.30	선:신3/구4/의4 약:구1	63차 47.12.27	108	70차 48.7.31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사건	110차 07.11.24				
불사음, 불기어, 불사건	투도	173차 2013.03.31	선:신2, 구4, 의3 약:신4	179차 13.9.29		
	사음, 악구, 탐욕, 사건	19차 44.3.25	선: 약:신1/구4/의1	23차 44.7.29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불사건	망어, 양설, 탐욕	243차 2019.01.27	246회차 18.04.28-			
	투도, 양설, 악구, 탐욕, 사건	246회차 18.04.28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진에	살생, 악구, 탐욕	76차 49.1.29	선:신2/구3/의4 약:신2/구3/의3	79차 49.4.30		
불살생, 불기어, 불탐욕	양설, 악구, 사건	212차 2016.06.26	선:신1, 구3, 의1 약:구3, 의4	214회차 16.08.28	115	217차 16.11.27
불기어, 불진에	투도, 망어	137회차 10.2.28	선:구3, 의4 약:신3, 구3	140차 2010.5.30		
불사음, 불양설	투도, 망어, 기어	110차 07.11.24	선:신3, 구4 약:선4, 구3	110차 52(08).9. 27	141	140차 2010.5.30
불사음, 불기어, 불탐욕, 불사건	망어, 양설	44차 46.4.27				

불살생, 불망어, 불악구, 불사견	양설, 진에	61차 47.10.26	선:신2/구4/의1 악:구3/의2	65차 48.2.29	98	69차 48.6.26
불악구, 불사음	투도, 양설, 기어, 탐욕, 사견	3차, 42.11.29	선:구1/신2 악:신3/구1/의3	6차 43.2.27	137	9차 43.5.29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양설, 불사견	망어	194차 14.12.28	선:신3, 구3, 의4 악:구2	199차 15.05.30	83	200차 15.06.28
불살생, 불기어,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	투도, 망어, 양설, 악구	120차 08.9.28				
불살생, 불망어, 불악구	투도, 사음, 사견	159차 2011.12.31	선:신3, 구3 악:신2, 의1	163차 12.5.27	147	202회차 15.08.30
불사음, 불망어, 불악구, 불탐욕, 불사견	투도, 양설	8차, 43.4.24	선:신3/구1/의2 악:신3/구2	11차, 43.7.31	78	14차 43.10.30
불투도, 불기어, 불탐욕	악구, 진에, 사견	200차 15.06.28	선:신1/구4/의3 악:구4/의3	203회차 15.09.20	101	206차 15.12.27
불투도	기어	5차 43.1.30	선:신4 악:구3	8차 43.4.24	136	11차 43.7.31
불사견	살생, 투도	20차 44.4.29				
불살생	투도, 사음, 망어, 진에	169차 12.11.24	선:신4 악:신1/구1/의1	175차 13.5.26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사견	살생, 투도, 탐욕	3차, 42.11.29	선:신4/구1/의4 악:신3/의2	6차 43.2.27	137	9차 43.5.29
불살생, 불투도, 불양설, 불탐욕	사음, 악구, 진에, 사견	83차 05.8.27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살생, 사음, 망어, 양설	46차 46.6.29	선:구3/의2 악:신3/구1	52차 47.1.25	134	55차 47.4.26
	투도, 사음, 탐욕	55차 47.4.26	악:신1/의3	58차 47.6.27	93	61차 47.10.26
불살생, 불망어, 불양설, 불사견	기어	9차 43.5.29	선:신2/구2/의3 악:구4	12차 43.8.28	157	15차 43.11.27
		4번			81	172차 13.2.24
불사음, 불양설, 불진에	살생, 투도, 망어, 악구	11차, 43.7.31	선:신2/구1/의4 악:신1/구2	14차 43.10.30	134	18차 44.2.26
불살생, 불기어, 불사견	사음, 양설	248차 2019.06.30				
불사음, 불기어, 불탐욕	살생, 투도	9차 43.5.29	선:신3/구1/의2 악:신4	13차 43.9.25	92	15차 43.11.27
불살생, 불사음, 불양설	투도, 기어, 악구, 진에, 사견	94차 06.7.30				
불양설, 불기어	투도, 망어, 탐욕	44차 46.4.27				
불살생, 불기어, 불진에, 불사견	투도, 악구	78차 49.3.26	선:신3/구4/의3 악:신3/구4	86차 05.11.27	118	131차 09.8.29
불살생	사음, 기어, 악구	56차 47.5.31	선:신31 악:신3/구2	59차 47.8.30	143	63차 47.12.27
불악구, 불탐욕	살생, 망어, 사견	64차 48.1.31	선:구1/의4 악:신/구4/의3	67차 48.4.25	113	70차 48.7.31
불양설	투도, 기어	179차			122	196차 15.02.28

		13.9.29				
불사음, 불탐욕	살생	188차 14.6.29	선:4,의1 약:신4	192차 14.10.26		
불악구, 불사견	양설, 진에	35차 45.7.28	선:구3/의1 약:신1/구1	42차 46.2.23	145	42차 46.2.23
불살생, 불투도, 불기 어, 불양설	사음, 망어, 악구	59차 47.8.30	선:신2/구3 약:신1/구1	63차 47.12.27	124	66차 48.3.28
불사음, 불기어, 불악 구	살생, 망어, 탐욕 사견	09.12.27	선:신1, 구3 약:신4, 구1, 의3	138차 10.3.28	129	142차 10.7.31
불투도, 불탐욕	사음, 망어	57차 47.6.28	선:신1/의3 약:신1/구2	61차 47.10.26	141	64차 48.1.31
불망어, 불탐욕	살생, 투도, 사음, 기어	12차 43.8.28	선:구2/의2 약:신1/구4	59차 47.8.30	129	122차 08.1.27
불양설, 불진에	살생, 사음, 악구,	6차 43.2.27	선:구3/의3 약:신2/구1 선:구4/의2약: 신3/구1	10차43.6. 26 11차, 43.7.31	137	13차 43.9.25
불망어, 불진에	투도, 사음, 양설 기어, 악구, 탐욕 사견,	7차, 43.3.27	선:신4/의2 약:신4/구4/의4	18차 44.2.26	126	21차, 44.5.27
불망어	기어, 탐욕, 진에	46차 46.6.29	선:구4 약:구1/의3	52차 47.1.25		
3회17차2544.1.29.- 125	3회25차 44.9.30 130		3회33차45.5.2 6-135			
불기어, 불양설, 불사 견	살생, 악구, 탐욕	120차 08.9.28	선:구3/의3 약:신1/구4/의3	134회차 09.11.29	107	137회차. 10.2.28
불탐욕, 불진에	망어, 기어	57차 47.6.28	선:의3 약:구3	60차 47.9.27	148	63차 47.12.27
불살생, 불망어	투도, 사음, 양설	19차 44.3.25				
불살생	양설, 탐욕	46차 46.6.29	선:신2 약:구3/의1	52차 47.1.25	114	57차 47.6.28
불살생, 불망어, 불양설	기어, 탐욕, 진에	47차 48.4.25			122	80차 49(05).5.29
불사견	투도, 사음, 망어 탐욕, 진에	44차 46.4.27	선:의3 약:신4/구4/의1	55차 47.4.26		
불악구	투도, 진에	166회차 2012.8.26		171차 13.1.27		
불기어, 불악구, 불진에	투도, 탐욕	167차 12.09.23	선:구4/의4 약:신1의3	171차 13.1.27	109	174차 13.04.28
불탐욕	사음	110차 52(08).9.27	선:의2 약:신2	122차 08.11.30	135	127차 09.4.26
불사음, 불진에, 불사견	투도, 악구, 탐욕	153차 11.6.26	선:신4/의2 약:신.구3/의2	156차 11.9.24	133	159차 2011.12.31
불투도, 불망어	양설, 기어, 악구, 탐욕, 진에	22차 44.6.24				
불악구, 불탐욕, 불진에	살생	240차 18.10.28			118	247회차 19.05.26
불사음, 불기어	망어, 악구, 진에	51차	선:신2/구4	54차	134	57차

	,사건	46.12.28	약:구4/의1	47.3.29		47.6.28
불사음, 불악구	살생	26차 44.10.28	선:신4/구1 약:신4	30차 45.2.24	121	33차45.5.26
불기어, 불탐욕, 불사건	살생, 투도	110차 07.11.24				
불사음, 불망어, 불사건	살생, 투도, 양설, 탐욕	30차 2545.2.24	선:신1/구1/의4 약:신3/구1/의4	33차 45.5.26	156	40차 45.12.29
불양설	살생, 사음, 기어, 악구, 탐욕, 진에, 사건	7차 43.3.27				
불투도, 불양설	살생, 사음, 기어, 탐욕, 사건	117차 08.7.27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진에	살생, 탐욕, 사건	79차 49.4.30				
불사음	투도, 기어, 양설, 사건	29차 45.1.27	선:신4/ 약:신2/구3/의2	33차 45.5.26	144	97차 06.양 10.29
불투도	사음, 악구, 탐욕	33차 45.5.26				
불사음, 불악구	투도, 사건	21차, 44.5.27	선:신4/구3 약:신2/의2	24차, 44.8.26		
불투도, 불사음, 불악구	망어, 기어, 양설, 진에, 사건	52차 47.1.25				
불살생, 불기어	투도, 망어, 악구	47차 46.7.27	선:신4/구4 약:신3/구1	54차 47.3.29		
살생, 투도, 망어, 기어, 악구, 양설, 사건		24차, 44.8.26				
	기어, 탐욕	240차 18.10.28				
불투도,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10차 43.6.26				
불탐욕, 불진에	양설	82차 05.7.31	선:의1 약:구2	86차 05.11.27		
불투도, 불사음, 불진에, 불사건, 불살생, 불양설, 불진에	망어, 악구	82차 05.7.31	선:신2/의4 약:구3	86차 05.11.27		
불망어, 불악구, 불탐욕, 불사건	악구, 사건	138차 10.3.28				
불살생, 불망어	사음, 양설	166회차 2012.8.26	선:구2/의4 약:신2/구3	171차 13.1.27	136	224차 2017.06.25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사건	투도, 기어, 양설, 악구, 탐욕, 진에, 사건	53차 47.2.22				
불악구, 불진에	살생, 망어, 탐욕	170차 12.12.30	선:신3/구4/의3 약:신2/구4/의3	173차 2013.03.31	134	175차 13.5.26
불투도, 불기어, 불양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탐욕	216차 16.10.30				
불양설, 불사건	망어, 악구, 탐욕	14차 43.10.30	선:신3/구3/의3	15차 43.11.27		
불사음, 불악구	탐욕	7차, 43.3.27				
	투도, 기어, 진에	120차 08.9.28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불탐욕, 불사견	망어, 진에	16차 43.12.25					
불기어	살생, 투도, 양설, 탐욕	77차48 (05).2.26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탐욕	사견	55차 47.4.26	선:신4/의1 약:의3	58차 47.6.27			
불악구	사음, 탐욕	44차 46.4.27	선:구1 약:신4,의4	47차 46.7.27	136	50차	46.11.30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불사견		173차 2013.03.31				141	196차 15.02.28
	살생, 망어, 기어, 진에	14차 43.10.30	약:신4/구4/의2	17차 44.1.29	100	24차	44.8.26
불사음, 불사견	기어, 양설, 진에	5차, 43.1.30	선:신4/의1 약:구3/의1	8차, 43.4.24	131	11차	43.7.31
불살생, 불투도, 불기어, 불사견, 불투도, 불악구, 불양설,	탐욕	226차 17.08.27					
불탐욕	기어, 진에				134	47차	46.7.27
	사음, 망어, 기어, 악구, 사견	3차, 42.11.29	선:의3 약:신2/구2/의4	6차 43.2.27	122	9차	43.5.29
불살생, 불기어, 불진에		110차 52(08).9.27	선:신4/구2/의2	122차 08.11.30	149	127차	09.4.26
불살생, 불망어,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불기어, 불악구, 불진에	사음, 진에, 사견	9차 43.5.29	선:신3/구1/의4 약:신1/의3	14차 43.10.30	129	17차	44.1.29
	살생, 망어, 양설	6차, 43.2.27	선:구4/의4 약:신3/구3	9차 43.5.29	126	12차	43.8.28
불망어, 불양설, 불탐욕, 불진에, 불사견	사음, 기어, 악구	47차 46.7.27	선:구3/의3 약:신2/구2	50차 46.11.30	125	53차	47.2.22
불망어, 불양설, 불탐욕	살생, 투도, 기어, 진에	33차 45.5.26					
		5번			146	160회차	12.01.28
불살생, 불탐욕	망어 악구,	113차 08.2.23					
불사음, 불양설	살생, 망어	51차 46.12.28	선:신/구3 약:신3/구4	54차 47.3.29	137	57차	47.6.28
불양설, 불진에	망어, 기어, 악구, 사견	159차 2011.12.31					
불망어, 불기어	살생, 투도, 탐욕	197차 15.03.29					
불진에, 불사견	살생, 기어	122차 08.11.30	선:의3 약:신1/구3				
불살생, 불사음, 불악구, 불사견	투도, 기어, 진에	116차 08.5.31					
불진에	사음, 기어	133회차 09.10.31	선:의4 약:신2/구2	149차 11.02.27	127	149차	11.02.27
불망어, 불양설, 불탐욕	투도, 사음, 기어, 사견	78차 49.3.26					

불기어, 불탐욕, 불사건	살생, 악구	6차, 43.2.27				
불망어, 불기어	살생, 사음, 악구, 탐욕,	50차 46.11.30				
	살생, 망어, 기어, 악구, 사건	31차 45.3.31	선: 악:신1/구1/의2	40차 45.12.29	78	40차 45.12.29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불기어, 불살생, 불양설, 불악구	살생, 사건	202회차 15.08.30	선:신1, 구1 악:신2, 의2	205회차 15.11.29		
	사음, 기어, 탐욕, 진에,	83차 05.8.27				
불진에, 불사건	살생, 사음, 망어, 악구	33차 45.5.26	선:의2 악:신2/구1	40차 45.12.29	128	40차 45.12.29
불사음, 불양설, 불악구	사건	116차 08.5.31	선:신3, 구1 악:의1	110차 52(08).9.27	120	122차 08.11.30
불투도, 불양설, 불사건	사음, 기어	57차 47.6.28	선:신2/구1/의2 악:신2/구1	60차 47.9.27	99	64차
불양설, 불악구, 불탐욕,	투도, 사건	5차, 43.1.30	선:구2/의2 악:신1/의3	8차, 43.4.24	104	11차 43.7.31
불사음, 불양설	투도, 기어, 사건	177차 13.7.28	선:신4, 구3 악:신4, 구4.의2	192차 14.10.26	124	212차 2016.06.26
불사건	살생, 투도, 탐욕	28차 44.12.30				
불악구, 불사건	투도, 사음, 진에	5차, 43.1.30				
불양설, 불사건	투도, 악구, 진에	18차 44.2.26			78	50차 46.11.30
불사음	악구, 사건	8차, 43.4.24				
불양설	살생, 망어, 기어, 악구, 진에	49차 46.10.26	선:구1 악:신3/구4/의2	52차 47.1.25	107	62차 47.11.29
불기어, 불양설, 불탐욕		9차 43.5.29	선:구2/의2	12차 43.8.28	161	16차 43.12.25
불사음, 불양설, 불탐욕	살생, 투도, 기어, 진에	14차 43.10.30				
불기어, 불진에	사음, 망어	12차 43.8.28	선:구2/의1 악:신3/구1	16차 43.12.25	131	21차, 44.5.27
불망어, 불악구	살생, 투도, 사음, 탐욕	90차 06.3.26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악구, 불사건		3차, 42.11.29	선:신2/구2/의4	6차 43.2.27	113	28차 44.12.30
불살생, 불투도, 불진에	사음, 기어, 악구, 사건	13차 43.9.25				
		6번			120	121차 08.10.26
불사음	살생, 망어, 양설, 악구, 탐욕, 사건	209차 16.03.27	선:신4 악:신3/구4/의4	212차 2016.06.26	128	215차 16.09.26
불살생, 불사음, 불기어,	탐욕	28차 44.12.30				

불악구, 불진에						
불살생, 불망어	투도, 사음, 기어, 탐욕	20차 44.4.29				
불망어, 불악구, 불진에	기어, 탐욕	71차 48.8.28	선: 구2/의3 악: 구3/의3		136	77차 48(05). 2.26
불살생, 불사음	망어	159차 2011.12.31	선: 신1 악: 구1			
	살생, 투도, 진에	217차 16.11.27	선: / 악: 신4 의2	220차 17.02.26	144	224차 2017.06.25
불탐욕, 불사건	투도, 망어, 기어	33차 45.5.26	선: 의3 악: 신2/구2	41차 46.1.26	116	41차 46.1.26
불투도, 불양설, 불진에	탐욕	44차 46.4.27	선: 신1, 구3, 의1 낙: 의4	47차 46.7.27	133	50차 46.11.30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기어, 양설, 탐욕 진에	143차 10.8.28				
불기어	살생, 악구, 탐욕	3차 42.11.29	선: 구2 악: 신4/구1/의2	6차 43.2.27	150	9차 43.5.29
불기어, 불탐욕, 불진에, 불사건	살생, 사음, 망어	80차 49(05).5.29	선: 구3/의4 악: 신1/구4	83차 05.8.27	165	86차 05.11.27
불망어, 불기어	살생, 진에	66차 48.3.28				
	사음	5차, 43.1.30	악: 신3	8차, 43.4.24	151	11차 43.7.31
불망어	투도, 기어, 사건	153차 11.6.26				
불악구, 불진에	살생, 망어	5차 43.1.30	선: 구4/의4 악: 신3/구3	8차 43.4.24	131	11차 43.7.31
불살생, 불양설		191차 14.09.28	선1/구1	193차 14.11.30	148	194차 14.12.28
불살생, 불망어,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불진에,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탐욕, 불살생, 불양설, 불악구, 불사건	사음, 양설, 사건	4차, 42.12.26	선: 신4/구1/의3 악: 신4/구1/의1	8차, 43.4.24	114	16차 43.12.25
	양설	210차 16.04.30	선: 신4/의2 악: 구2	213차 16.07.31	122	216차 16.10.30
	탐욕	59차 47.8.30	선: 신2/구1/의3 악: 의2	62차 47.11.29	94	67차 48.4.25
	악구, 탐욕, 진에	9차 43.5.29	악: 구4/의4	14차 43.10.30	172	17차 44.1.29
불기어, 불진에, 불탐욕		7차, 43.3.27				
불투도, 불양설, 불사건	악구	52차 47.1.25	선: 신1/구4/의1 악: 의1/구3	58차 47.6.27	125	63차 47.12.27
불투도, 불기어	사음, 악구, 진에, 사건	117차 08.7.27	선: 신4/구4 악: 신1/구3/의4	123회차 08.12.28	123	123회차 08.12.28
		7번			133	160회차 12.01.28
불기어, 불악구	사음	28차 44.12.30	선: 구3 악: 신3	82차 05.7.31	124	86차 05.11.27
불사음, 불망어	살생, 양설, 악구	125차 09.3.1	선: 신2, 구4 악: 신2, 구2	129회차 09.5.30	149	130차 09.7.25

불사음, 불진에	살생, 기어, 양설, 탐욕	110차 07.11.24				
불살생, 불진에, 불사견		226차 17.08.27				
불투도, 불기어	악구, 탐욕	186차 14.04.27	선:신4, 구1 악:구1, 의4	190차 14.08.28	148	193차 14.11.30
불악구	살생, 망어, 기어, 진에, 사견	94차 06.7.30				
불살생, 불망어, 불진에	양설, 기어, 악구, 탐욕	33차 45.5.26	선:신4, 구3, 의1 악:구4, 의4	47차 46.7.27	121	109차 07.10.27
불투도, 불양설, 불진에	살생, 악구, 사견	7차, 43.3.27	선:신1/구3/의1 악:신1/구1/의2	18차 44.2.26		
불진에	투도, 사음, 망어	205회차 15.11.29				
불살생, 불양설, 불진에		110차 07.11.24	선:신2/구2/의4	122차 08.1.27	146	113차 08.2.23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망어	48차 46.9.28	선:신2 악:구1	54차 47.3.29	109	57차 47.6.28
	투도, 양설	83차 05.8.27	악:신1/구4	86차 05.11.27	148	90차 06.3.26
불기어, 불악구, 불탐욕	투도, 사음, 사견	10차 43.6.26	선:구3/의3 악:신3/의4	13차 43.9.25	108	16차 43.12.25
불악구, 불탐욕, 불사견	살생, 망어, 기어, 진에	170차 12.12.30				
불투도, 불악구	살생, 사음, 사견	137회차, 10.2.28	선:신4, 구3 악:신3, 의4	140차 2010.5.30	143	143차 10.8.28
불망어, 불양설, 불탐욕, 불진에	살생, 기어, 악구	12차 43.8.28	선:구1/의4 악:신3/구3	16차 43.12.25		
불사견	투도, 탐욕	3차, 42.11.29	선:의2 악:신4/의3	6차 43.2.27	131	9차 43.5.29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기어, 불양설, 불탐욕		11차, 43.7.31	선:신2/구1/의3	14차 43.10.30	153	20차 44.4.29
불투도, 불사음	살생, 망어, 악구	79차 49.4.30	선:신4 악:신3/구3	82차 05.7.31		

A사찰 제3占察 행한 195명의 추가 占察 結果 정리(총578회. 무순)

169회차 12.11.24-157회차 12.11.24-157회차 13.2.24-135회차 13.5.26-154회차 13.5.26-154회차 15.02.28-155회차 15.11.01-139회차 210회차 16.04.30-127회차 212회차 2016.06.26-162회차 224회차 2017.06.25-153회차 192회차 14.10.26-132회차 71회차 48.8.28-133회차 77회차 48(05).2.26-152회차 93회차 50(06).6.24-103회차 109회차 07.10.27-150회차 116회차 08.5.31-115회차 122회차 08.11.30-147회차 130회차 09.7.25-135회차 155회차 11.8.28-133회차 213회차 16.07.31-123회차 217회차 16.11.27-91회차 16회차 2543,12,25-133회차 51회차 46.12.28-173회차 57회차 47.6.28-103회차 59회차 47.8.30-97회차 65회차 48.2.29-92회차 71회차 48.8.28-139회차 247회차 19.05.26-148회차 69회차 48.6.26-115회차 170회차 12.12.30-138회차 177회차 13.7.28-140회차 186회차 14.04.27-126회차 16회차 2543.12.25-114회차 23회차 2544.7.29-129회차 29회차 2545.1.27-134회차 35회차 45.7.28-116회차 40회차 45.12.29-147회차 42회차 46.2.23-151회차 46회차 46.6.29-151회차 53회차 47.2.22-89회차 59회차 47.8.30-106회차 66회차 48.3.28-125회차 71회차 48.8.28-108회차 77회차 48(05).2.26-109회차 89회차 06.2.25-124회차 90회차 06.3.26-103회차 91회차 06.4.29-136회차 110회차 07.11.24-130회차 116회차 08.5.31-146회차 121회차

08.10.26-139▣ 126회차 09.3.29-139▣ 129회차09.5.30-118▣136회차 10.1.31-100▣ 143회차
 10.8.28-117▣ 145회차 10.10.31-116▣ 155회차 11.8.28-111▣ 160회차 12.01.28-123▣ 168회차
 12.10.28-134▣ 173회차 2013.03.31-122▣ 180회차 13.10.27-121▣ 193회차 14.11.30-27▣ 202회
 차 15.08.30-151▣ 216회차 16.10.30-136▣ 217회차 16.11.27-139▣ 232회차 18.02.25-138▣ 16회
 차 2543,12,25-142▣ 23회차 2544,7,29-135▣ 29회차 2545.1.27-148▣ 35회차 45.7.28-85▣ 40회
 차 45.12.29-123▣ 42회차 46.2.23-127▣ 48회차 46.9.28-121▣ 49회차 46.10.26-157▣ 51회차
 46.12.28-128▣ 57회차 47.6.28-142▣ 63회차 47.12.27-126▣ 66회차 48.3.28-109▣ 73회차
 48.10.31-115▣ 109회차 07.10.27-173▣ 110회차 07.11.24-110▣ 116회차 08.5.31-122▣ 125회차
 09.3.1-164▣ 135회차 09.12.27-126▣ 205회차 15.11.29-143▣ 208회차 16.02.28-141▣ 247회차
 19.05.26-165▣ 137회차 .10.2.28-133▣ 152회차 11.5.29-153▣ 179회차 13.9.29-135▣ 184회차
 14.02.23-164▣ 229회차 17.11.26-139▣ 64회차 48.1.31-144▣ 177회차 13.7.28-164▣ 192회차
 14.10.26-100▣ 239회차 18.09.30-150▣ 140회차 2010.5.30-117▣ 147회차 2010.12.26-158▣ 151
 회차 11.4.30-148▣ 153회차 11.6.26-122▣ 155회차 11.8.28-156▣ 157회차 11.10.30-137▣ 158회
 차 11.11.27-109▣ 163회차 12.5.27-137▣ 67회차 48.4.25-125▣ 109회차 07.10.27-95▣ 125회차
 09.3.1-155▣ 129회차 09.6.27-117▣ 13회차 09.10.31-116▣ 77회차 48(05).2.26-150▣ 113회차
 08.2.23-138▣ 19회차 2544.3.25-134▣ 27회차 2544.10.28-125▣ 40회차 45.12.29-132▣ 46회차
 46.6.29-134▣ 55회차 2547.4.26-122▣ 61회차 47.10.26-150▣ 70회차 48.7.31-139▣ 78회차
 49.3.26-125▣ 92회차 92회차 06.5.28-108▣ 12회차 08.12.28-137▣ 129회차 09.6.27-109▣ 137회
 차 10.2.28-148▣ 141회차 10.6.27-138▣ 147회차 2010.12.26-57▣ 153회차 11.6.26-131▣ 159회
 차 2011.12.31-159▣ 170회차 12.12.30-142▣ 188회차 14.6.29-150▣ 138회차 10.3.28-153▣ 159
 회차 2011.12.31-113▣ 163회차 12.5.27-117▣ 168회차 12.10.28-161▣ 164회차 12.6.30-102▣
 209회차 16.03.27-114▣ 215회차 16.09.26-131▣ 248회차 2019.06.30-126▣ 61회차 47.10.26-111
 ▣ 77회차 49(05).2.26-122▣ 79회차 49(05).4.30-126▣ 84회차 05.9.25-109▣ 86회차 05.11.27-148
 ▣ 79회차 49(05).4.30-107▣ 80회차 49(05).5.29-136▣ 86회차 05.11.27-162▣ 71회차 48.8.28-158
 ▣ 76회차 49.1.29-151▣ 84회차 05.9.25-99▣ 86회차 05.11.27-161▣ 71회차 48.8.28-141▣ 77회
 차 48(05).2.26-122▣55회차 2547.4.26-153▣ 60회차 47.9.27-127▣ 64회차 48.1.31-121▣ 65회차
 48.2.29-130▣ 73회차 48.10.31-130▣ 78회차 05.12.31-136▣ 64회차 48.1.31-101▣ 59회차
 47.8.30-122▣ 90회차 06.3.26-118▣ 95회차 06.8.26-113▣ 125회차 09.3.1-144▣ 129회차
 09.6.27-115▣ 131회차 09.8.29-127▣ 143회차 10.8.28-126▣ 79회차 49(05).4.30-116▣ 27회차
 ,44.11.25-153▣ 44회차 46.4.27-110▣ 55회차 2547.4.26-132▣ 61회차 47.10.26-129▣ 137회
 차.10.2.28-134▣ 170회차 12.12.30-144▣ 228회차 17.10.29-169▣ 237회차 18.07.29-146▣ 248회
 차 2019.06.30142▣63회차 47.12.27-124▣ 71회차 48.8.28-149▣ 140회차 2010.5.30-146▣ 73회차
 48.10.31-129▣180회차 13.10.27-118▣ 192회차 14.10.26-172▣ 194회차 14.12.28-126▣ 196회차
 15.01.31-132 20회차 15.09.20-125▣ 122회차 08.1.27-178▣ 19회차 2544.3.25-155▣ 27회차
 ,44.11.25-147▣ 130회차 09.7.25-142▣ 150회차 11.3.26-152▣ 28회차 44.12.30 143▣ 122회차
 08.1.27-128▣129회차 09.5.30-116▣ 146회차 10.양 11.28-139▣ 160회차 12.01.28-170▣ 16회차
 2543,12,25-139▣ 23회차 2544,7,29-128▣ 122회차 08.1.27-120▣ 129회차 09.6.27-124▣ 138회차
 10.3.28-107▣ 75회차 48.12.25-114▣ 70회차 48.7.31-121▣ 71회차 48.8.28-139▣ 80회차
 49(05).5.29-137▣ 78회차 05.12.31-88▣ 122회차 08.11.30-168▣ 204회차 15.11.01-121▣ 230회차
 17.12.30-121▣ 19회차 2544.3.25-128▣ 27회차 ,44.11.25-131▣ 40회차 45.12.29-153▣ 125회차
 09.3.1-142▣ 132회차 09.9.27-110▣ 138회차 10.3.28-149▣ 141회차 .10.6.27-132▣ 145회차
 10.10.31-147▣ 147회차 2010.12.26-113▣ 158회차 11.11.27-161▣ 69회차 48.6.26-139▣ 147-120
 회차 08.9.28▣ 42회차 46.2.23-146▣ 160회차 12.01.28-160▣ 197회차 15.03.29-145▣ 206회차
 15.12.27-111▣ 231회차 18.01.28-140▣ 76회차 49.1.29-136▣ 80회차 49(05).5.29-130▣ 83회차
 05.8.27-107▣ 86회차 05.11.27-131▣ 41회차 46.1.26 97▣ 50회차 46.11.30-152▣ 59회차
 47.8.30-97▣ 67회차 48.4.25-94▣ 59회차 47.8.30-121▣ 74회차 48.11.28-141▣ 116회차
 08.5.31-118▣ 14.8.24-122▣ 194회차 14.12.28-144▣ 201회차 15.07.26-125▣ 204회차

15.11.01-116 212회차 2016.06.26-84 230회차 17.12.30-145 246회차 18.04.28-150 77회차
 48(05).2.26-164 83회차 05.8.27-150 5회차 06.8.26-147 113회차 08.2.23-86 137회차
 .10.2.28-122 171회차 13.1.27-162 248회차 2019.06.30-138 46회차 46.6.29-141 66회차
 48.3.28-143 77회차 48(05).2.26-106 205회차 15.11.29-131 229회차 17.11.26-138 125-47
 회차 46.7.27 59회차 47.8.30-132 19회차 2544.3.25-160 27회차 44.11.25-166 40회차
 45.12.29-140 46회차 46.6.29-137 53회차 47.2.22-141 59회차 47.8.30-148 67회차
 48.4.25-119 78회차 49.3.26-174 158회차 11.11.27-133 160회차 12.01.28-138 167회차
 12.09.23-142 169회차 12.11.24-114 170회차 12.12.30-150 171회차 13.1.27-138 172회차
 13.2.24-118 181회차 13.11.30-126 18회차 14.01.26-152 216회차 16.10.30-147 226회차
 17.08.27-128 231회차 18.01.28-146 232회차 18.02.25-136 233회차 18.03.31-140 235회차
 18.05.27-123 237회차 18.07.29-117 238회차 18.08.26-133 130회차 09.7.25-114 136회차
 10.1.31-128 147회차 2010.12.26-153 148회차 2011.1.30-160 20회차 15.09.20-153 227회
 차 17.09.30-145 235회차 18.05.27-110 248회차 2019.06.30=126 17회차 2544.1.29-136 23
 회차 2544.7.29-151 59회차 47.8.30-88 90회차 06.3.26-140 5회차 06.8.26-156 184회차
 14.02.23-137 53회차 47.2.22-102 60회차 47.9.27-110 66회차 48.3.28-138 73회차
 48.10.31-140 79회차 49(05).4.30-130 131회차 09.8.29-151 136회차 10.1.31-122 146회차
 10.양 11.28-126 148회차 2011.1.30-155 118-149회차 11.02.27 159회차 2011.12.31-146
 208회차 16.02.28-129 210회차 16.04.30 145 16회차 2543.12.25-107 23회차 2544.7.29-123
 29회차 2545.1.27-125 40회차 45.12.29-113 13회차 09.10.31-133 153회차 11.6.26-113 159회
 차 2011.12.31-114 160회차 12.01.28-116 168회차 12.10.28-144 179회차 13.9.29-124 18
 회차 14.01.26-91 213회차 16.07.31-110 239회차 18.09.30-125 157-149회차 11.02.27 160
 회차 12.01.28-160 232회차 18.02.25-136 17회차 2544.1.29-138 23회차 2544.7.29-157 29
 회차 2545.1.27-116 14.8.1-139 201회차 15.07.26-136 210회차 16.04.30-146 205회차
 15.11.29-149 214회차 16.08.28-139 221회차 17.03.26-142 235회차 18.05.27-133 243회차
 2019.01.27-153 209회차 16.03.27-102 216회차 16.10.30-157 16회차 2543.12.25-164 23회
 차 2544.7.29-128 30회차 2545.2.24-117 190회차 14.08.28-122 192회차 14.10.26-106 193
 회차 14.11.30-155 212회차 2016.06.26-89 226회차 17.08.27-144 76회차 49.1.29-142 83
 회차 05.8.27-148 248회차 2019.06.30-138 142회차 10.7.31-106 151회차 11.4.30-160 164
 회차 12.6.30-111 170회차 12.12.30-99 189회차 14.7.27-123 75회차 48.12.25-119 86회차
 05.11.27-139 91회차 06.4.29-138 64회차 48.1.31-148 78회차 49.3.26-123 40회차
 45.12.29-143 46회차 46.6.29-146 53회차 47.2.22-138 22회차 44.6.24-161 29회차
 2545.1.27-129 35회차 45.7.28-125 40회차 45.12.29-147 46회차 46.6.29-125 59회차
 47.8.30-97 65회차 48.2.29-144 137회차 10.2.28-151 19회차 2544.3.25-145 42회차
 46.2.23-162 51회차 46.12.28-120 57회차 47.6.28-134 63회차 47.12.27-136 109회차
 07.10.27-133 140회차 2010.5.30-122 142회차 10.7.31-131 143회차 10.8.28-148 144회차
 10.9.25-131 145회차 10.10.31-128 146회차 10.양 11.28-113 151회차 11.4.30-114 75회차
 48.12.25-141 70회차 48.7.31-142 71회차 48.8.28-94 75회차 48.12.25-140 77회차
 48(05).2.26-153 80회차 49(05).5.29-95 109회차 07.10.27-125 178회차 13.8.31-114 196회차
 15.01.31-126 231회차 18.01.28-111 69회차 48.6.26-158 74회차 48.11.28-106 61회차
 47.10.26-114 109회차 07.10.27-136 129회차 09.6.27-140 131회차 09.8.29-110 142회차
 10.7.31-138 146회차 10.양 11.28-118 163회차 12.5.27-164 160회차 12.01.28-122 62회차
 47.11.29-112 66회차 48.3.28-91 76회차 49.1.29-137 91회차 06.4.29-138 90회차
 06.3.26-120 46회차 46.6.29-161 66회차 48.3.28-81 168회차 12.10.28-145 191회차
 14.09.28-153 66회차 48.3.28-137 73회차 48.10.31-174 79회차 49(05).4.30-118 86회차
 05.11.27-110 91회차 06.4.29-136 117회차 08.7.27-123 97회차 06.양 10.29-168 109회차
 07.10.27-136 131회차 09.8.29-125 146회차 10.양 11.28-130 167회차 12.09.23-135 189회
 차 14.7.27-150 210회차 16.04.30-132 212회차 2016.06.26-156 224회차 2017.06.25-108

229회차 17.11.26-161▣ 144회차 10.9.25-155▣ 147회차 2010.12.26-142▣ 150회차 11.3.26-125▣
 153회차 11.6.26-146▣ 155회차 11.8.28-125▣ 158회차 11.11.27-156▣ 159회차 2011.12.31-100▣
 167회차 12.09.23-129▣ 171회차 13.1.27-108▣ 172회차 13.2.24-148▣ 180회차 13.10.27-133▣
 182회차 13.12.29-136▣ 208회차 16.02.28-164▣ 215회차 16.09.26-138▣ 230회차 17.12.30-131▣
 232회차 18.02.25-126▣ 16회차 2543,12,25-145▣ 23회차 2544,7,29-157▣ 192회차 14.10.26-113
 ▣ 116-47회차 46.7.27▣ 125-54회차 47.3.29▣ 59회차 47.8.30-134▣ 67회차 48.4.25-110▣ 73회
 차 48.10.31-128▣ 90회차 06.3.26-125▣ 122회차 08.1.27-129▣ 125회차 09.3.1-115▣ 129회차
 09.6.27-147▣ 13회차 09.10.31-112▣ 136회차 10.1.31-135▣ 138회차 10.3.28-106▣ 140회차
 2010.5.30-155▣ 147회차 2010.12.26-152▣ 155-149회차 11.02.27▣ 150회차 11.3.26-160▣ 151회
 차 11.4.30-157▣ 152회차 11.5.29-108▣ 157회차 11.10.30-117▣ 159회차 2011.12.31-133▣ 20회
 차 15.09.20-144▣ 205회차 15.11.29-119▣ 206회차 15.12.27-155▣ 214회차 16.08.28-155▣ 221
 회차 17.03.26-138▣ 222회차 14.04.30-117▣ 224회차 2017.06.25-132▣ 225회차 2017.07.30-105
 ▣ 231회차 18.01.28-129▣ 246회차 18.04.28-154▣ 70회차 48.7.31-154▣ 71회차 48.8.28-145▣
 72회차 48.9.25-128▣ 79회차 49(05).4.30-135▣ 80회차 49(05).5.29-136▣ 109회차 07.10.27-85▣
 226회차 17.08.27-▣ 19회차 2544.3.25-145▣ 27회차 44.11.25-110▣ 226회차 17.08.27-141▣ 42
 회차 46.2.23-96▣ 30회차 2545.2.24.-132▣ 41회차 46.1.26-148▣ 48회차 46.9.28-134▣ 63회차
 47.12.27-123▣ 71회차 48.8.28-141▣ 44회차 46.4.27-105▣ 139-54회차 47.3.29▣ 63회차
 47.12.27-128▣ 69회차 48.6.26-139▣ 79회차 49(05).4.30-135▣ 169회차 12.11.24-122▣ 174회차
 13.04.28-119▣ 180회차 13.10.27-147▣ 132-200회차 15.06.28▣ 191회차 14.09.28-103▣ 206회차
 15.12.27-120▣ 237회차 18.07.29-118▣ 244회차 19.02.24-153▣ 247회차 19.05.26-163▣ 217회차
 16.11.27-150▣ 227회차 17.09.30-143▣ 134회차 09.11.29-162▣ 206회차 15.12.27-138▣ 206회차
 15.12.27-144▣ 125회차 09.3.1-160▣ 109회차 07.10.27-115▣ 238회차 18.08.26-122▣ 47회차
 46.7.27-156▣ 54회차 47.3.29-124▣ 59회차 47.8.30-151▣ 65회차 48.2.29-108▣ 73회차
 48.10.31-109▣ 79회차 49(05).4.30-121▣ 56회차 47.5.31-128▣ 131-62회차 47.11.29▣ 66회차
 48.3.28-167▣ 73회차 48.10.31-125▣ 79회차 49(05).4.30-113▣ 16회차 43.12.25-139▣ 23회차
 2544,7,29-146▣ 29회차 2545.1.27-126▣ 92회차 06.5.28-113▣ 201회차 15.07.26-125▣ 205회차
 15.11.29-126▣ 215회차 16.09.26-143▣ 27회차 2544.10.28-139▣ 43회차 46.3.31-120▣ 50회차
 46.11.30-104▣ 61회차 47.10.26-128▣ 69회차 48.6.26-131▣ 77회차 48(05).2.26-98▣ 71회차
 48.8.28-128▣ 80회차 49(05).5.29-125▣ 86회차 05.11.27-107▣ 113 24회차 ,44.8.26▣ 30회차
 2545.2.24-117▣ 40회차 45.12.29-153▣ 128-47회차 46.7.27▣ 54회차 47.3.29-152▣ 66회차
 48.3.28-136▣ 109회차 07.10.27-149▣ 139-56회차 47.5.31▣ 75회차 48.12.25-140▣ 205회차
 15.11.29-130▣ 135-58회차 ,47.6.27▣ 132.18회차 44.2.26▣ 127 24회차 ,44.8.26▣ 112-47회차
 46.7.27▣ 151-58회차 ,47.6.27▣ 16회차 43.12.25-140▣ 129 24회차 ,44.8.26▣ 30회차
 2545.2.24-105▣ 44회차 46.4.27-146▣ 179회차 13.9.29-118▣ 131회차 09.8.29-102▣ 134회차
 09.11.29-159▣ 144회차 10.9.25-125▣ 145회차 10.10.31-130▣ 150회차 11.3.26-120▣ 167회차
 12.09.23-167▣ 196회차 15.02.28-142▣ 210회차 16.04.30-137▣ 213회차 16.07.31-113▣ 216회차
 16.10.30-140▣ 231회차 18.01.28-126▣ 238회차 18.08.26-122▣ 244회차 19.02.24-148▣ 144 24
 회차 ,44.8.26▣ 30회차 2545.2.24-110▣ 40회차 45.12.29-144▣ 107-47회차 46.7.27▣ 54회차
 47.3.29-151▣ 66회차 48.3.28-135▣ 109회차 07.10.27-145▣ 19회차 2544.3.25-136▣

「占察法會, 作法(占察行法)의 고증과 재현의 제문제」의 논평문

묘주스님 _ 동국대 정각원장

월공스님께서 점찰법회에 관심을 갖고 1998년 9월부터 2019년 8월 제250회 법회에 이르기까지, 『점찰선악업보경』에 근거하고 眞表律師의 수행에 바탕을 두어 지장신앙·미륵신앙 중심으로 불자들을 인도해온 수행력에 경의를 표한다.

특히 개산조 진표율사에 의해서 점찰법회가 행해진 금산사 교구에 속한 靈仙寺에서, 『점찰경』에 근거해서 오랫동안 꾸준히 실행한 것은 더욱 의미가 깊다.

본 논문의 “고증과 재현의 제문제”에서 실제 현장의 고민과 노력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점찰간자를 제작하고, 실행함에 행자의 상당한 수준을 필요로 하는 수행법이라고 밝히고, 인터넷 서버 구축과 온라인 시스템 필수 구축을 주장하고, 행자의 實名을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각각의 점찰행법이 여법하게 행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1. 점찰행법의 효과를 높이는 참회 기도 의식문 문제

『점찰경』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몇 분 학자에 의해 이루어져서 불교계에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실제로 몇 사찰에서 점찰법회를 시행하였다. 그런데 이 경전에 근거한 작법·행법이 교계에서 영선사 이외에는 지속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점찰경』의 행법은 大乘懺으로서 수행의 進展에 효용성이 매우 높다. 『점찰경』에 “정법으로 세간을 벗어나는 것을 닦고자 하는 자, 현재 여러 장애의 인연을 없애고자 하는 자, 五逆十惡의 중대한 업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자... 보살의 삼취정계를 얻고자 하는 자, 禪三昧를 얻고자 하는 자는 마땅히 이 참회법을 받아 지녀야 한다.”고 강조한다. 본 논문에서 인용했듯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一然이 “이 경전이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麻를 삶어지고 金을 버리는 격”이라고 강조했고, 明末 천태·유식·화엄 등 다방면에 저술을 남긴 智旭(1599-1655)은 이 행법을 실행한 결과 『점찰경』의 내용이 수행에 큰 도움을 주는 올바른 수행법이라고 밝혔다.

논자는 점찰행법의 높은 효용성의 취지를, 四正勤의 수행법으로 견인하는 불교 본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 높은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널리 행해지지 않음을 안타까워하였다.

일반 불자들은 본인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는지를 알고, 참회로써 여러 장애의 근본적인 소멸도 중요하지만, 미래의 길흉화복을 알고 싶고, 현실적인 소원들이 속히 이루어 지기를 원한다.

또한 제1점찰과 제2점찰의 결과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논자의 주장은, 이 행법의 신뢰도를 위해서 타당하다. 그러므로 더욱 제1점찰과 제2점찰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 참회의식이 중요하다. 논자는 2015년 7월 제201회차를 기점으로 기본틀이 약간 변형되어 ‘참회’를 추가하여 예불, 정근, 참회, 정근, 예불, 다과, 점찰행법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러한 지장철야참회기도를 최소 3회씩 해야만 제1·제2의 점찰행법을 실행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때 참회의식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지장보살본원참회법·지장보살본원참의·지장보살예참문 등의 예참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하다.

2. 빅데이터 처리 기술시대에 行者의 개인정보보호의 장치 필요성

논자는 제1점찰과 제2점찰 등의 결과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고, 그 신뢰도와 행자의 진중한 수행을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와 온라인 시스템의 구축이 필수적이며, 행자의 實

명은 공개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제1점찰.제2점찰의 결과가 온라인 시스템으로 관리될 경우에, 물론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행 일자, 참석자 숫자, 선악업보의 결과 등이 네트워크로 구축되면, 앞으로 AI의 빅데이터 처리 기술 시대에 행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철저한 장치가 필요하다.

여기서 점찰행법을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행할 것인지 세심한 배려와 장치 문제가 대두된다. 행법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기도와 참회의식도 중요하지만, 실행의 공간 문제가 따른다. 수십 명이 철야정진을 한 뒤에 점찰행법을 시행하는데, 대중이 동일공간에서 동시에 행하는가, 별도의 공간에서 각자 행하는가, 대중이 보는 가운데 개인별로 행하는가? 등의 배려 문제이다. 점찰법회에서 본인이 전생에 어떤 악업을 지었으며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는 것은 참회와 수행 진전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실 타인이 알면 부끄럽지 않을까? 이 점찰행법 자체가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전제되고 철야정진 등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문제도 따른다.

㉠ 점찰행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부처님의 선악업보설과 점찰행법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게 하고,

㉡ 각각의 점찰을 시행하기 전에 여법한 참회 기도의식을 거친 뒤에 철야정진을 하되,

㉢ 철야정진 뒤에 점찰간자의 행법을 시행할 때는 개인별로 비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당사자의 자존심도 살려주고, 동참자들에게 선입견을 주지 않을 것이다.

물론 본 논문에서 인용한 바, 지리산 水精社記에서 보이듯이 결사공동체의 하나된 참회정진의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3. 『점찰선악업보경』의 명칭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논자는 이 경전 제목에 ‘占’자가 들어가서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널리 유통되지 않는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이 경전의 명칭을 변경해서 ‘관찰선악업보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단일 경전의 명칭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

하지만 이 經名을 굳이 변경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선악업보를 ‘점찰’하는 것과 ‘관찰’하는 것은 엄밀히 개념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점찰’이라는 명칭이 일반인에게 이 경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4. 점찰행법의 현대적 재현방법의 연구와 실행의 필요성

작법·행법의 고증은 『점찰경』의 내용에 충실하게 하되, 재현 특히 ‘현대적 재현방법’에 있어서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논자는 실제로 250회의 점찰법회를 시행해본 결과, 점찰법회를 시행하는 것은 行者의 상당한 수준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재의 길흉화복을 알고 싶어 점집을 방문하고, 건강·재물 등 갖가지 소원성취가 급선무인 현대물질문명 탈종교화시대의 일반인에게 점찰행법은 실효성이 없는 요원한 처방일까?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데도 九品으로 인도하고, 석존의 對機說法과 단계적인 교화사례가 있고, 요즘 단기출가 프로그램이 시행되듯이, 세간에 正道와 權道가 있듯이, 본질에 충실하면서 한편으로 그 시대 근기에 맞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템플스테이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약식 점찰행법 등이다.

점찰법회는 물론 영선사에서 계속 실행하지만, 개산조 진표율사의 본찰인 금산사 차원에서라도 시행되었으면 한다. 단일사찰의 주지로서 사찰운영의 제반업무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점찰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그 행법을 불자들에게 시행해본 월공스님의 조언과 협력이 필요하다.

논평을 마치면서 월공스님께 다음 내용을 질문하고 싶다.

① 『점찰경』에 근거한 점찰법회에 관심을 갖고 실행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요? 199?년부터 『점찰경』에 설해진대로 점찰간자까지 제작하면서 점찰행법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실행하게 된 데는, 물론 전생의 깊은 인연도 있겠지만, 현실에서 어떤 직접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② 제1점찰, 제2점찰, 제3점찰 등 각 행법을 실행하기 전에 기도 참회 의식은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와 내용으로 시행합니까? 예불, 정근, 참회, 정근, 예불, 다과, 점찰행법의 순서로 진행하고, 이러한 지장철야참회기도를 최소 3회씩 해야만 제1.제2.제3의 점찰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참회’ 의식은 어떤 참회문인지요?

③ 점찰법회의 作法과 行法을 구분하고, 작법은 장소.시간.단 장엄 등을 말하고, 행법은 실제로 행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그 작법의 구체적인 내용(壇 장엄 등)을 밝혀주었으면 합니다.

④ 한국불교의 통불교적 분위기에서도 점찰행법은 불자들의 일반적인 수행법은 아닌데, 이 점찰행법에 들어선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간까지 이 행법으로 해야 한다고 보니까?

